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김태웅
이근명
이준갑
박수철
강승호
이종대
박귀미





광저우 상관 청의 광저우 주장강 강변에 세워진 서양 상인의 상관 모습이다. 청의 건륭제가 1757년에 대외 무역항을 광저우로 제한하고 공행을 통한 무역만을 허용하자, 이곳에 서양 상인이 거주하고 활동하기 위한 상관이 설치되었다. 화려한 서양식 건물과 광장으로 이루어진 상관은 1856년에 화재로 소실되었다.



역사는 흘러간 과거의 골동품 지식이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찰해야 할 본보기이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 설정할 지표이다. 역사에는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가 남아 있고 삶의 지혜가 담겨 있다.

동아시아의 역사는 우리 선조의 역사는 물론, 우리가 이웃 나라와 무엇을 교류하고 어떤 갈등을 겪었는지 알아볼 수 있는 거울이다. 동아시아 각국이 상호 간의 진정한 이해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를 짚어지고 나갈 학생들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 교과서는 우리를 에워싼 현실의 문제를 인식하고 역사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내는 데 비중을 두었다. 나아가 동아시아의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는 데 목표를 두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를 병렬적으로 나열하지 않고, 상호 유기적으로 서술하여 동아시아사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되 그 의미를 주체적·개방적인 관점에서 인식할 수 있게 하였다.

모쪼록 이 교과서가 우리 학생들이 동아시아의 역사를 자신들의 삶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인식하고, 동아시아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모색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I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8

II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



36

동해

일러두기

- 본 교과서에 나오는 중국 지명 중 현재 쓰이지 않는 것은 우리 한자음대로, 현재 지명과 같은 것은 중국어 표기법에 따라 표기하였다.

- 본 교과서의 내용 중 1895년까지의 사건은 음력으로, 1896년부터의 사건은 양력으로 연도를 표기하였다.

1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 10

- ① 동아시아의 범위
- ② 동아시아사 학습의 의의

2 자연환경과 생업 12

- ①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 ② 농경과 목축

3 선사 문화 18

- ① 동아시아의 구석기 문화
- ②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

4 국가의 성립과 발전 24

- ① 청동기 문화의 발전
- ② 국가의 성립
- ③ 국가 간의 교류와 전쟁

1 인구 이동과 정치·사회 변동 38

- ① 인구 이동과 국가의 성립
- ② 국가의 통합과 발전

2 국제 관계의 다원화 48

- ① 조공·책봉 관계의 형성
- ② 북방 민족의 성장과 새로운 외교 질서
- ③ 몽골 제국의 등장과 동아시아
- ④ 명의 건국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3 유학과 불교 62

- ① 율령과 유교
- ②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
- ③ 성리학과 지배층

3국 3색 한자음
주제 탐구

- 신석기 시대의 토기 제작
- 국가 통치 조직의 발전

- 일본의 견당사 파견
- 화번 공주(和蕃公主)
- 과거제
- 동아시아를 넘나든 승려들

III

동아시아의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84

1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86

- ① 16세기의 동아시아
- ② 16~17세기 동아시아 전쟁의 전개
- ③ 전후 동아시아 사회의 변화

2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96

- ① 동아시아의 대외 교역
- ② 유럽인의 진출과 동아시아의 은 유통 확대
- ③ 17~19세기의 동아시아 교역
- ④ 동서양의 문물 교류

3 사회 변동과 서민 문화 108

- ① 농업의 발달과 인구 증가
- ② 상업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
- ③ 서민 문화의 성장
- ④ 새로운 학문의 대두

- 동아시아 삼국의 총포와 성곽
- 흥어 장수 문순득의 동아시아 건문
- 17~19세기 민간 회화의 발전

IV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



124

1 새로운 국제 질서와 근대화 운동 126

- ① 개항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
- ② 근대화 운동의 전개
- ③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

2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 운동 138

- ① 제국주의 침략과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 ②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동아시아
- ③ 일본의 침략 전쟁 확대와 국제 연대

3 서양 문물의 수용 154

- ① 서구 중심적 세계관의 침투
- ② 근대 지식의 확산
- ③ 시간과 공간의 변화

- 동아시아 삼국의 개항과 불평등 조약
- 동아시아의 근대화를 이끈 인물
- 동아시아 각국의 입헌 노력
-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
- 전쟁에 따른 피해
- 동아시아 개항장 탐방

V

오늘날의 동아시아



166

1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 체제 168

- ①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전후 처리
- ② 냉전과 동아시아
- ③ 냉전 체제의 변화와 동아시아

2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 180

- ① 일본의 고도성장과 55년 체제
- ② 한국과 타이완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 운동
- ③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변동과 시장 경제
- ④ 북한의 체제 고착화와 경제 건설
- ⑤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도약

3 갈등과 화해 192

- ① 동아시아의 지역 갈등
- ② 동아시아의 역사 인식 갈등
- ③ 동아시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

- 도쿄 재판
-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 몽골은 왜 갈라졌는가?
- 동아시아 국가 간 교역 활성화와 문화 교류 확대
- 동아시아의 상생과 평화를 위한 한국의 책무

구성과 특징

1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이 보인다.

본 교과서는 주제 중심으로 단원을 구성하였고, 시간 계열성이 부족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한·중·일 삼국의 연표를 제시하여 동아시아 역사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다.

2

색을 따라가며 각국의 역사를 파악한다.

한·중·일 나라별로 색을 지정하여, 색을 보기만 해도 어느 나라의 역사적 사실인지 파악할 수 있다.



3

동아시아 지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이해할 수 있다.

시기별로 동아시아에 나타나는 공통적 요소와 각국의 독자적 요소를 파악할 수 있도록 주제를 선정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특징을 이해할 수 있다.



대단원 시작

I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 1 동아시아의 범위와 위치
- 2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상황
- 3 19세기 중엽 동아시아의 변화
- 4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변화

목표
이 단원은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을 소개하는 단원이다. 동아시아의 범위와 위치,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상황, 19세기 중엽 동아시아의 변화,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변화를 소개한다.

1 **대단원 도입** 단원을 배우기 전에 알고 있는 역사 사건을 점검하고, 스스로 목표를 정해 주도적으로 학습하게 하였다.

중단원 전개

1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15세기 동아시아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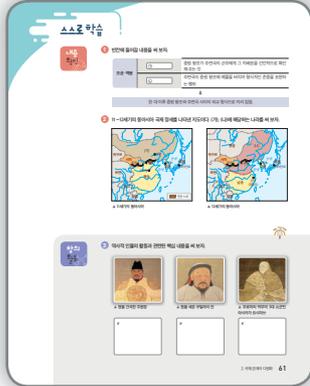
19세기 중엽 동아시아의 변화

20세기 초 동아시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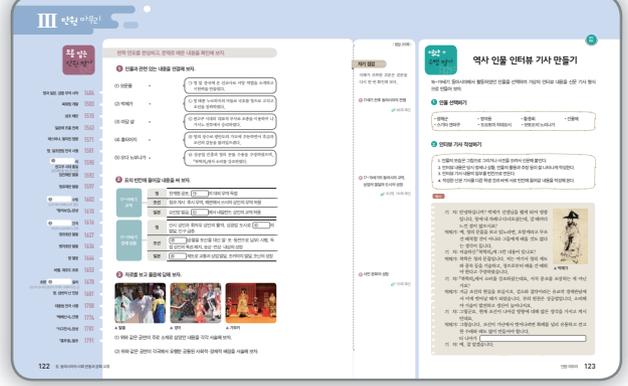
1 **중단원 연표** 한·중·일 삼국의 시대 연표를 제시하였다.
 2 **소단원 연표** 주제 중심의 중요 사건을 연표로 제시하였다.
 3 **본문 학습 자료**

학습의 이해를 돕는 **동아시아 역사 백과사전**
 역사의 흥미를 돋우는 **동아시아 역사 이야기**
 역사적 사고력을 키우는 **새로운 시각**

대단원 마무리



6 스스로 학습 중단원의 내용을 스스로 확인하고, 학습 내용을 토대로 창의 활동을 하도록 하였다.



1 단원 평가 연표로 대단원의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로 대단원의 핵심 내용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2 수행 평가 학생 스스로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하였다.

동아시아의 핵심 역량

본 교과서는 창의·융합적 사고를 통해 다음의 핵심 역량을 키우도록 하였다.



역사 용어나 개념을 이해하는 능력

자료를 읽고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역사 지식을 구성하는 능력

역사 정보를 분석·토론·종합·평가하는 능력

과거 사례에 비추어 오늘날의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

역사적식을 함양하고 타인을 이해·존중하는 태도를 갖는 능력



4 탐구 활동 본문 내용과 관련된 자료를 분석·비교·해석하여 역사적 사실의 의미를 탐구하도록 하였다.



5 주제 탐구 한·중·일 삼국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드러내는 주제를 선정하여 역사를 종합적으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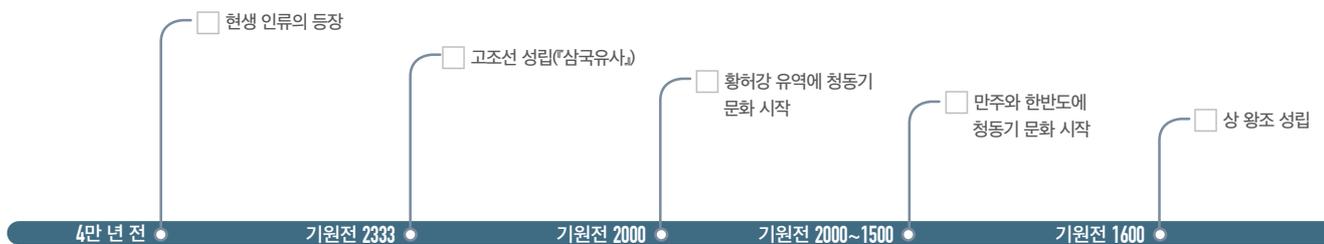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 1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
- 2 자연환경과 생업
- 3 선사 문화
- 4 국가의 성립과 발전

단원 열기

이 단원에서는 동아시아가 당면한 역사 인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아시아 학습의 중요성을 이해한다. 그리고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의 삶을 농경과 목축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동아시아 각지에서 발전한 선사 문화를 비교하고, 국가가 성립하여 발전한 과정을 이해한다.

만리장성 ▶



연표에서 알고 있는 역사 사건에 V 표시해 보자.



이 단원에서 성취할 나만의 목표를 스스로 정해 보자!

1 자연환경에 따라 나타난 생활 모습의 차이를 비교할 수 있다.

2

3



1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

동해



| 생각 열기 | 한국, 중국, 일본의 청소년들이 비슷한 옷과 머리 모양을 하고 한자리에 모여 있는 모습이다. 이들은 서로 다른 문화적 환경 속에서 자라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유교와 불교 등 전통문화의 영향을 받고 있다.

Q 이들은 서로 어떤 면에서 동질감을 느낄 수 있을까?

1 동아시아의 범위

학습 목표 동아시아 세계의 범위를 설명할 수 있다.

지리적 범위와 특성

동아시아는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에 있고 북서 태평양과 접해 있다. 동서로는 일본 열도에서 티베트고원, 남북으로는 베트남에서 몽골고원에 이른다. 오늘날 이 지역에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 베트남 등의 나라가 있다.

동아시아는 그 범위가 넓고, 지역에 따라 지형·기후·식생 등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 지역에는 한민족, 한족, 일본 민족, 몽골족, 위구르족, 티베트족, 비열족 등이 거주하며 일찍부터 활발하게 교류하였고, 때로는 갈등을 겪으면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기도 하였다. 특히 동아시아의 한국, 중국, 일본은 역사적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다양한 문화 요소를 공유하였다. 그중에서도 한자, 불교, 유교, 율령은 중요한 공통 문화 요소였다.

오늘날의 동아시아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의 침탈로 동아시아 지역의 문화가 급격하게 변동하기 시작하였다. 동아시아 전통문화는 서구 문화와 충돌하여 일부가 단절되어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문화 요소를 수용하여 발전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전승된 동아시아 전통문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각국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또한 동아시아 각국이 공유하고 있는 전통문화 요소는 공동의 번영을 이룰 역사적 자산이다. 동아시아는 이러한 자산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미래를 일구어야 할 하나의 공동체이다.

2 동아시아사 학습의 의의

학습 목표 동아시아사 학습의 의의를 제시할 수 있다.

동아시아사 학습의 필요성

1980년대 말 미·소 중심의 냉전 질서가 붕괴하면서 세계화가 빠르게 진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지리적으로 인접한 국가 간에 상호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유럽 연합(EU), 동남아시아 국가 연합(ASEAN) 등 다양한 협력체가 등장하였다. 한·중·일 삼국도 동아시아 공동체 설립을 구상하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에서는 역사 인식을 둘러싼 갈등, 영토 분쟁,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 등이 지역 공동체의 상호 협력을 어렵게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상호 이해와 평화를 지향하는 균형 잡힌 시각으로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교류와 갈등의 역사를 학습해야 한다.

동아시아사 학습의 자세와 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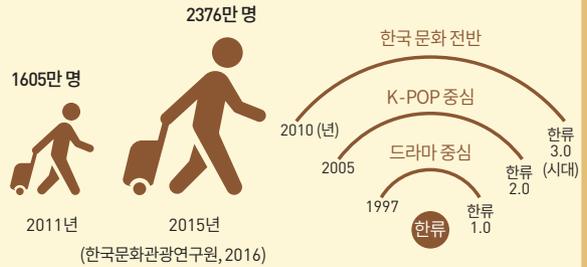
동아시아사 학습의 목적은 동아시아 각국의 과거와 현재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협력과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기르는 데 있다.

이에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 다양성을 이해하고, 자국사의 틀에서 벗어나 동아시아 지역이라는 큰 범주 속에서 각국의 역사와 문화를 존중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가 당면한 여러 과제를 함께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이 지역에 현존하는 불신과 갈등을 해소하고 평화로운 동아시아의 미래를 적극적으로 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동아시아사를 왜 배워야 할까?

동아시아 국가 간의 인적·문화적 교류 증가

- 한·중·일 상호 방문자 수 증가
2011년 1605만 명에서 2015년 2376만 명으로 약 148% 증가
- 한·중·일 문화 교류 확대
한류 확산으로 문화 콘텐츠 교류 확대



동아시아의 역사 인식 갈등

- 일본의 역사 왜곡
 - 식민 지배 및 침략 전쟁 미화
 - 일본 내 역사 왜곡 교과서 채택률 증가
- 중국의 동북공정
 - 만리장성 길이 확장 발표
 - 고구려사, 발해사 등을 중국사에 편입



바람직한 동아시아사의 학습 자세는?

- 동아시아 각국의 역사와 문화 이해
- _____
- _____

2 자연환경과 생업



| 생각 열기 | 인간이 만든 건축물 중 가장 긴 만리장성은 중국 농경 민족이 북방 민족의 침입을 막기 위해 세웠다고 전해진다. 만리장성은 흔히 농경민과 유목민의 경계로 일컬어지기도 한다.

Q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속에서 농경민과 유목민의 생활 모습은 어떻게 달랐을까?

1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학습 목표 동아시아의 자연환경에 따른 생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지형과 지세

Q1 지도에 동아시아의 지리적 범위를 표시해 보자.

Q2 화살표 방향으로 갈수록 지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말해 보자.



동아시아의 지형 ▶

동아시아 지역은 히말라야산맥을 경계로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와 구분된다. 동아시아는 서쪽에 평균 해발 고도 4,500 m 이상의 티베트고원이 있으며, 동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점차 낮아진다. 중국 동부 지역에는 큰 강을 따라 낮은 평원 지대가 형성되어 있는데, 랴오허강과 충화강 유역의 동베이평원(만주), 황허강 유역의 화베이평원, 창장강 유역의 양후평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반도 서쪽 해안에는 평야가 발달해 있으며, 북동부 지역으로 갈수록 높은 산지가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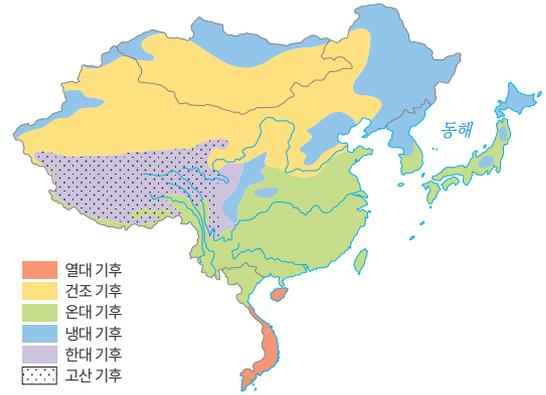
대륙의 동쪽에는 일본 열도와 타이완 등 여러 섬이 있다. 이 지역은 평야가 적고 산지가 많은 편이며, 환태평양 조산대에 속하여 화산 활동과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

기후와 생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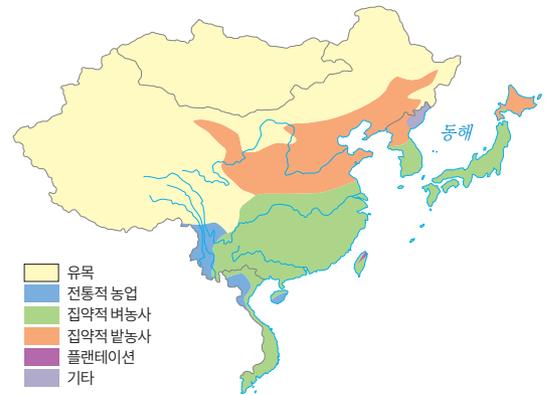
동아시아 지역에는 열대, 건조, 온대, 냉대, 한대, 고산 기후 등 다양한 기후가 분포한다. 또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 여름철에는 바람이 바다에서 대륙을 향해 불어 비가 많이 내리며 덥고 습한 날씨가 나타난다. 반면에 겨울철에는 바람이 대륙에서 바다를 향해 불어 춥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진다. 대륙 내부로 갈수록 건조하고 기온의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뚜렷해진다.

동아시아 지역에는 기온과 강수량 등 기후 조건에 따라 식생과 생업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중국 동부, 한반도 남부, 일본 서부 지역은 기온이 온화하고 강수량이 풍부한 활엽수림 지대로, 일찍부터 농경 문화가 발달하였다. 그 북쪽에 있는 한반도 북부, 만주, 일본의 홋카이도 지역은 침엽수림 지대로 내륙에서는 밭농사와 수렵이, 연해에서는 고기잡이가 주로 이루어졌다.

만주의 일부 지역과 몽골, 티베트고원 일대는 기온이 낮고 강수량이 적어 농경이 어렵다. 이 지역에는 초지가 널리 분포하여 계절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오가며 가축을 기르는 유목이 발달하였다.



▲ 동아시아의 기후



▲ 동아시아의 생업



▲ 유목(몽골 초원)



◀ 농경(중국 남부)



▲ 어업(일본 연안)

2 농경과 목축

학습 목표 동아시아 지역에서 농경민과 유목민의 생활 모습을 비교하고, 그 교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농경과 농경민의 생활

기온과 강수량 등의 기후는 작물의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연 강수량이 400mm가 넘는 지역에서는 농경 생활이 이루어졌다. 농경 지역은 다시 기온과 강수량에 따라 논농사 지역과 밭농사 지역으로 나뉘었다.

중국의 화중·화남 지역과 산둥반도의 해안가, 한반도의 남서부, 일본의 혼슈와 규슈 지역에서는 주로 논농사가 이루어졌다. 특히 중국의 화남, 일본의 규슈 남부 등지에서는 1년에 벼를 두 번 재배하는 이기작이 가능하였다. 이곳보다 강수량이 적은 화북 지역, 만주, 한반도 북부 등지에서는 주로 밭농사가 이루어졌다.



▲ 벼농사의 전파 동아시아에서 벼농사는 창장강 유역에서 시작되어 한반도로 전파되었으며, 그 후 규슈 지역으로 전해졌다.

밭농사는 기원전 8000년경에 황허강 유역의 황토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밭농사는 작물의 생육 기간이 짧고 척박한 토양에서도 잘 자라는 조·수수·기장·콩 등의 잡곡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벼농사는 기원전 6000년경에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풍부하며 습지가 많은 창장강 중·하류 지역에서 시작되었다. 벼는 다른 작물에 비해 단위 면적당 생산성이 높았다.

농경민은 계절에 맞추어 씨를 뿌리고 곡물이 열릴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또 물을 확보하기 위한 치수 사업 등 공동 노동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여 정착 생활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권력이 소수에게 집중되고 국가 조직이 만들어졌다.



농경민의 생활 계절의 순환과 농작물의 성장에 따라 농번기와 농한기가 구분되는 생활 양식이 나타났다.



목축과 유목민의 생활

연 강수량이 400mm 이하이고 기온이 낮아 곡물 재배가 어려운 내륙의 고원 및 초원 지대에서는 주로 목축이 이루어졌다. 이 지역 사람들은 대부분 계절에 따라 일정한 지역을 정기적으로 오가며 가축을 기르는 유목 생활을 하였다.

유목민은 양, 염소, 말, 소, 낙타 등을 길렀으며 수렵을 통해 생계를 보조하였다. 이들은 가축에게 먹일 물과 풀을 찾아 생활 터전을 옮겨 다니며 살았으며, 삶에 필요한 생필품을 가축으로부터 얻었다. 가축의 젖과 고기, 젖을 가공하여 만든 유제품을 먹고, 가죽과 털을 이용하여 의복이나 게르 등을 만들었다. 또 가축의 뼈와 뿔을 이용하여 각종 물건을 만들었고, 배설물을 말렸다가 연료로 이용하였다.

유목민은 평소 부족 단위로 생활하였으며 부족장의 권한이 강하였다. 이들은 뛰어난 기마 능력과 전투 능력을 바탕으로 흩어진 부족을 통합하고 강력한 유목 국가를 건설하기도 하였다.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유목 국가를 세운 것은 흉노였다. 흉노는 진·한 대에 몽골 고원을 중심으로 초원 지대를 장악하여 북방의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흉노 이후에도 돌궐, 위구르, 몽골 등이 유목 국가를 세웠다. 이 밖에도 다양한 북방 민족이 활동하였다.



▲ 유목민의 전통 가옥 게르 계절에 따라 이동 생활을 한 유목민은 조립과 분해가 쉬운 게르에서 살았다. 게르는 나무로 뼈대를 세우고 그 위에 양털을 압축하여 가공한 천(펠트)을 덮어 만든 이동식 가옥이다.

유목민의 생활



▲ 낙타와 함께하는 삶 낙타는 유목민의 이동 수단으로 이용되었고, 낙타의 젖은 음료·발효유·치즈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 펠트 짜는 사람들 펠트는 이동식 가옥인 게르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 『몽골의 하루』(몽골 국립자나비자르기념미술관)

농경 사회와 유목 사회의 교류

유목민은 가죽·모피·말 등을 농경 지역의 곡물·차·황금·비단·무명·누룩 등과 바꾸는 형태로 교역하였다. 때로는 농경민이 경작지를 확보하기 위해 유목민의 목초지 주변을 침략하기도 하였다. 유목민 역시 곡식, 채소와 같은 물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을 때 농경 지역을 약탈하기도 하였다. 유목민에게 약탈은 물자를 손쉽게 얻는 방법이었지만 일회성이라는 단점이 있었다. 그러나 농경 사회를 정복하는 일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유목민은 농경민을 군사적으로 위협하여 정기적인 공납을 수취하는 방법을 택하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기후 변화로 농경 지역과 유목 지역의 경계가 이동하면서 생활 근거지가 변하기도 하였다. 이때에는 농경민과 유목민이 생활 근거지를 놓고 충돌하였다.

역사 속에서 농경민과 유목민은 서로를 비판하거나 얕잡아 보기도 하였다. 농경민은 유목민을 약탈을 일삼고 도덕성을 갖추지 못한 야만인으로 인식하였다. 반면에 유목민은 농경민을 땅에 엷매여 사는 부자유스러운 존재로 인식하였다. 그러나 농경과 유목은 문화의 우열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연환경에 맞춰 오랜 시간 적응한 결과 나타난 생활 모습이다.



▲ 톤유쿠크 비(몽골 울란바토르 근교) 톤유쿠크는 돌궐 제국의 명장이었다. 그의 비문에는 “성을 쌓고 사는 자는 반드시 망할 것이며, 끊임없이 이동하는 자만이 살아남는 것이다.”라고 쓰여 있다.

기마민진진 동아시아

중국인의 바지 복장과 의자 생활이 유목민의 영향?

전국 시대에 북방의 강국이었던 조나라는 기원전 4세기 무렵 유목민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기마전으로 맞서야만 했다. 원래 중국인은 남녀 모두 치마를 입었는데, 치마를 입고서는 말을 타고 달리기가 불편하였다. 이에 조나라 무령왕은 병사들에게 유목민의 복장(호복)으로 바꾸도록 명하였다. 무령왕은 소매가 넓고 험렁한 윗도리를 몸에 꼭 맞는 형태로 바꾸고 허리까지 올라오는 바지를 입게 하였다.

또한 바닥에 자리를 깔고 앉아 생활하였던 한족은 유목민의 영향을 받아 침대와 의자를 사용하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염소와 양의 젖을 즐겨 마시는 유목민의 음식 문화도 농경 사회에 전해졌다. 이렇게 농경민의 생활은 유목민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욱 다채롭게 변화하였다.



조나라 무령왕이 호복을 입고 말에서 활을 쏘는 모습(복원도)



◀ 「한희재야연도(중국 베이징고궁박물관) 5대 10국 시대 잔치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린 그림이다. 많은 인물이 의자에 앉아 있다.

스스로 학습



1 <보기>에 제시된 지역을 아래 지도에 표시해 보자.

- | 보기 |
- 창장강
 - 황허강
 - 라오허강
 - 몽골고원
 - 동베이평원
 - 티베트고원



2 농경민과 유목민의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흉노는 건강한 젊은이가 살지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늙은이가 그 나머지를 먹는다는데 이것은 젊고 건강한 사람만 귀히 여기고 노약자를 천대하는 것이 아닌가? 또 아버지가 죽으면 그 아들이 계모를 아내로 삼고, 죽은 형제의 아내를 남아 있는 형제가 아내로 삼았다고 하던데, 너무 야만적인 것이 아닌가?



흉노는 전투를 자주 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영양 많고 맛있는 음식을 건강한 젊은이에게 먹이는 거야. 그래야만 스스로를 지킬 수 있기 때문이지. 결코 노인을 천대하는 것은 아니야. 또 아버지, 아들, 형, 동생이 죽으면 그들의 아내를 자기 아내로 삼는 것은 가족을 유지하고 보호하기 위한 것이야.



(1) 농경민이 유목민을 야만적이라 생각한 까닭을 써 보자.

.....

.....

(2) 위와 같이 농경민과 유목민의 생활이 다른 까닭을 써 보자.

.....

.....

3 선사 문화



| 생각 열기 | 홍산 문화를 대표하는 라오닝성 뉴허량의 제사용 건축 유적에서 발견된 얼굴상이다. 당시 여성의 몸으로 보이는 조각 파편과 함께 발견되어 여신의 얼굴로 추정하고 있다. 푸른 옥으로 만들어진 여신 상의 눈은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었다.

Q 홍산 문화 외에도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성립된 신석기 문화의 특징은 무엇일까?

1 동아시아의 구석기 문화

학습 목표 동아시아 구석기인의 생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동아시아에 나타난 인류

중국 남서부의 위안머우에서 약 170만 년 전에 살았던 인류의 치아 화석이 발견되었다. 베이징에서는 50만 년 전쯤에 출현한 좀 더 발달한 인류 화석이 발견되었는데, 이들은 불과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뿐 아니라 몽골, 한반도 지역에서도 인류 화석과 구석기 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발견되었다. 그 뒤를 이어 일본 열도와 시베리아 등지에서도 사람들이 살았던 흔적이 나타났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현생 인류는 지금으로부터 약 4만 년 전에 출현하였다.

동아시아의 주요 구석기 유적지와 인류 화석 출토지



구석기 시대의 생활

구석기인은 오랜 시간 자연환경에 적응하고 때로는 도전하면서 자신의 문화를 만들어 갔다. 이들은 불을 사용하여 추위를 이겨 내고 맹수를 쫓아냈으며, 음식을 익혀 먹었다. 또 언어를 사용하여 무리 안에서 의사소통하고, 다른 무리와 문화를 공유하거나 자신의 경험을 다른 무리에 전해 주었다.

구석기인은 찌개, 주먹도끼 등의 뿔석기와 뼈로 만든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것으로 동물을 사냥하고 열매를 채집하거나 어로 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주로 동굴이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고 사냥감을 따라 이동하며 생활하였다.

구석기인은 작은 무리를 이루어 공동생활을 하였고, 경험이 많거나 지혜로운 자가 무리를 이끌었다. 또한 사냥의 성공과 자신의 안전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동굴 벽이나 바위에 사냥감의 모습을 그리기도 하였다.

기원전 1만 년경 빙하기가 끝나면서 기온이 오르고 해수면이 높아져 동아시아에 오늘날과 같은 해안선이 형성되었다. 따뜻한 기후 속에 매머드 등 대형 동물이 줄어들고, 사슴이나 멧돼지 등 작고 빠른 동물이 번성하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자연환경에 적응하면서 스페찌르개와 같이 나무나 뼈에 꽂아 쓰는 이음 도구를 만들고, 작은 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활을 사용하였다. 이후 신석기 시대로 넘어가면서 좀 더 정교한 석기인 간석기를 만들었다.



▲ 찌개(중국 산시성 출토) 인류가 가장 먼저 사용한 뿔석기로, 커다란 자갈돌을 깨뜨려 만들었다. 동물의 뼈를 찢거나 거친 나무를 다듬을 때 사용하였다.



▲ 주먹도끼(한국 경기 출토) 구석기 시대에 가장 널리 사용한 도구로, 찌개나 자르개 용도로도 쓸 수 있어서 짐승의 가죽을 벗기거나 나무를 다듬을 때 사용하였다.



▲ 스페찌르개(일본 가고시마현 출토) 얇게 쪼갠 돌조각의 양쪽을 다듬은 것으로, 후기 구석기 시대에 주로 자루에 연결하여 창 축이나 화살촉으로 사용하였다.

동아시아사 바둑판

벽화에 나타난 구석기인의 삶

구석기인은 자신이 살던 동굴 벽이나 자주 사냥을 다니던 산속의 큰 바위에 그림을 그려 넣었다. 오늘날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럽의 알타미라 동굴 벽화나 라스코 동굴 벽화도 이렇게 탄생한 것이다.

몽골 호이트 첵헤르 동굴에는 후기 구석기 시대에 그린 것으로 보이는 벽화가 남아 있다. 벽화에는 산양 등 사냥감으로 추정되는 동물이 많이 그려져 있는데, 이를 사냥감의 번성, 풍요와 다산을 기원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



▲ 몽골 호이트 첵헤르 동굴 벽화

인물 사건 문화 제도

2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

학습 목표 신석기 시대에 제작된 각 지역 토기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신석기 시대의 사회 변화

신석기인은 돌을 갈아 돌화살, 갈돌과 갈판 등 다양한 간석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뼈바늘을 이용하여 옷감과 그물을 만들었고 토기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토기는 처음에는 음식을 조리하는 도구로 만들어졌으나, 이후 저장용 도구나 의례용 도구로도 사용되었다.

신석기인은 수렵과 채집 외에도 농경과 목축 생활을 시작하였다. 강가나 구릉 지대에서 조·수수·밀·보리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양·소·돼지 등의 가축을 길렀다.

농경을 시작하고 정착 생활을 하면서 신석기인의 주거 모습도 달라졌다. 신석기인은 큰 강이나 해안가를 중심으로 마을을 형성하였다. 이들은 주로 움집을 짓고 살았는데, 움집은 원형 또는 사각형으로 땅을 파고 돌레에 기둥을 세워 만든 반지하 가옥이었다. 한편 창장강 이남 지역에서는 나무 기둥으로 기초를 세우고, 집의 바닥을 지면에서 띄운 고상 가옥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농경과 목축의 발전은 인구 증가와 사회적 분업을 가져왔다. 이러한 사회 변화 속에서 구성원 사이에 갈등이 늘어났고, 갈등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부족장의 권한이 조금씩 강해졌다. 한편 신석기인은 자연 현상이나 조상신을 모시는 공동의 제사 의식을 거행하기도 하였다.



◀ 반포 유적(복원 모형)
양사오 문화의 대표적인 유적이다. 신석기 시대 황허강 유역에서는 마을 주변에 도랑을 설치한 취락이 일반적이었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신석기 문화

황허강, 창장강, 라오허강 유역, 한반도와 일본 열도 등 여러 지역에서 기원과 계통이 다른 신석기 문화가 발달하였다.

양사오 문화

황허강 중·하류 지역에서 기원전 5000년경 채도를 사용하는 양사오 문화가 시작되었다. 채도에 풍요와 번성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사람 얼굴 무늬, 물고기 무늬 등을 그려 넣었다.



▲ 채도(중국 산시성 출토)

다원커우 문화

황허강 하류 지역에서는 백도 이외에도 전기에는 홍도, 후기에는 흑도를 사용한 다원커우 문화가 발전하였다.



▲ 세 발 달린 백도 주전자(중국 산둥성 출토)

룽산 문화

양사오 문화와 다원커우 문화의 뒤를 이어 두 문화를 아우른 룽산 문화가 황허강 하류 지역에서 발전하였다. 흑도를 주로 사용하였고 회전판을 사용하여 토기를 만들었다. 제사용으로 보이는 토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 흑도(중국 산둥성 출토) 달걀 껍질만큼 얇은 흑도이다.

- *채도: 그릇의 표면에 그림을 그려 넣은 토기
- *흑도: 그릇 표면이 검고 반들반들하게 간 토기
- *회도: 잿빛을 띠고 거칠게 만들어진 토기

홍산 문화

랴오허강 유역의 홍산 문화에서는 채도를 비롯한 다양한 토기와 용 모양의 옥기 등 세련된 옥기가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 홍산 문화의 토기(중국 랴오닝성 출토) 안은 비어 있고 밑 바닥이 없는 토기로, 돌지무덤 유적지에서 대량으로 출토되었다. 제사용 도구로 추정된다.

용 모양의 옥기
(중국 랴오닝성 출토) ▶



한반도의 신석기 문화

신석기 시대 초기에는 이른 민무늬 토기와 덧무늬 토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이후 만주를 포함한 넓은 지역에서 빗살무늬 토기를 만들었다. 한반도의 신석기인은 돌보습과 돌괘이 등으로 조·기장을 재배하고 사냥과 어로 활동을 통해 식량을 얻었다.



◀ 빗살무늬 토기(한국 서울 출토) 만주와 한반도 일대, 시베리아 등지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이다.



▲ 암사동 움집(한국 서울)

양사오 문화

황허강

다원커우 문화와 룡산 문화

허무두 문화

한반도

동해

조몬 문화

허무두 문화

창장강 하류 지역에서는 기원전 5000년경부터 벼농사를 기반으로 한 허무두 문화가 발전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흑도, 회도 등이 만들어졌다.



▲ 돼지 그림 토기(중국 저장성 출토)



▲ 허무두인의 가옥(중국 저장성)

조몬 문화

일본 열도의 신석기 문화는 조몬 토기가 특징적이다. 조몬 토기란 이름은 토기 표면에 새겨줄 무늬가 새겨졌다는 의미로 붙여졌다. 조몬 시대 사람들은 농경보다는 사냥과 채집, 어로 생활을 하면서 강가나 해안가에 움집을 짓고 살았다.



◀ 조몬 토기(일본 니가타현 출토)

여성 모양의 토우
(일본 나가노현 출토) ▶
풍요와 다산을 기원하는 여성 모양의 토우를 남겼다.



◀ 산야마루야마 유적(일본 아오모리현) 조몬 시대의 집단 취락 유적지로 추정된다.

신석기 시대의 토기 제작



토기는 진흙으로 그릇 모양을 만들어 그늘에 말린 후 불에 구운 것으로, 불에 타지 않으며 물에도 녹지 않는다. 이러한 토기 제작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혁신 중 하나였다.

1

토기를 언제부터 만들었나요?

토기가 언제부터 만들어졌는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아마도 인간은 불이 나서 전부 타버린 현장에서 진흙 덩어리가 돌맹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진 모습을 본 후 우연히 토기 제작법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2

토기를 어떻게 제작하였나요?



손 빚음법

테 쌓기 기법

서리기 기법

토기는 진흙으로 손 빚음법, 테 쌓기 기법, 서리기 기법 등을 통해 모양을 만든 후 겉면과 안면을 다듬고 겉면에 무늬를 넣었다. 모양을 만든 다음에는 그늘에 말려 불에 구웠다. 이후 모양을 만드는 법이 발전하면서 회전판을 이용하여 토기를 만들기도 하였다.

3

토기 사용은 인류의 삶을 어떻게 바꾸었나요?

토기를 사용하여 음식을 조리하면서 더 많은 식물과 동물을 음식으로 섭취할 수 있게 되었다. 도토리는 그냥 먹을 수는 없지만, 가루로 만들어 물에 갠 다음 토기에 넣고 끓여 뽕은맛을 우려내면 중요한 식량이 되었다.

음식을 익혀 먹게 되면서 조리 과정에서 세균이 죽어 질병에 걸릴 확률이 낮아졌고, 음식이 부드러워져 소화와 영양분 섭취에도 도움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인간의 수명이 연장되고 인구가 늘어났다. 또 토기를 사용하면서 식량을 나중에 이용할 수 있도록 가공하여 저장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 1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나온 신석기 시대의 토기 모양을 교과서 20~21쪽을 참고하여 비교해 보자.
- 2 토기 사용으로 신석기인의 생활 모습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해 보자.

스스로 학습



1 구석기 시대와 신석기 시대의 생활 모습을 비교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구분	도구	경제	주거
구석기 시대	(㉠), 뼈 도구	사냥, 채집, 어로	이동 생활(동굴, 막집 등)
신석기 시대	간석기, (㉡)	(㉢)과 목축의 시작	정착 생활(㉣) 등

2 지도에서 (가)~(마) 지역의 신석기 문화를 대표하는 토기를 <보기>에서 찾아 연결해 보자.



3 가상의 유적 발굴 보고서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홍산 문화 유적 발굴 보고서

중국 랴오닝성 뉴허량 유적에서 수천 년 전의 제사 유적인 제단과 여신의 신전, 돌무지 무덤 등이 발견되었다. 산 정상에 건립된 신전에서는 여신과 용 모양을 한 동물의 조각상, 그리고 제사용품이 발굴되었다. 이 중 사람들의 관심을 가장 끈 것은 푸른 옥으로 눈을 만든 여신의 두상이었다. 이 밖에도 머리가 없고 다리가 짧은 작은 임산부의 입상이나 대형 조각상의 신체 일부가 발견되었다. 피라미드식의 거대한 돌무지무덤에서는 옥기가 대량으로 출토되었는데, 용 모양을 새긴 옥기가 많았다.

(1) 홍산 문화의 유물과 유적을 통해 당시 사람들의 생활 모습을 추론해 보자.

.....

(2) 동아시아 지역에서 홍산 문화 이외의 신석기 문화를 찾아 그 특징을 설명해 보자.

.....



4

국가의 성립과 발전

	기원전 500	기원전 200	100
한국	고조선		삼국 시대
중국	춘추·전국 시대	진	한
일본	조몬 시대		야요이 시대



| 생각 열기 | 상나라 후기의 도읍이었던 은허에서 발견된 네모난 정으로, 사모무정으로 불린다. 높이가 133 cm, 무게가 875 kg에 이른다. 화려한 문양과 단정하고 중후한 조형미가 돋보이는 청동 제기로, 상나라 청동기 문화의 발전 수준을 보여 준다.

Q 상나라 사람들이 거대한 청동 제기를 만든 이유는 무엇일까?

1 청동기 문화의 발전

학습 목표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출토된 유물을 중심으로 청동기 문화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다.

기원전 2000년경 황허강 유역, 청동기 문화 시작
 기원전 2000~1500년경 만주와 한반도, 청동기 문화 시작
 기원전 3세기경 일본 열도, 청동기 황기 문화 시작

청동기 시대의 사회 변화

기원전 2000년경 동아시아에서 청동기가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청동기를 만드는 재료인 구리와 주석이 함께 생산되는 곳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청동기는 주로 지배층의 장신구나 무기, 제사용 도구를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청동기 시대에는 농사 기술이 발달하고 반달 돌칼 등의 도구를 사용하면서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고 사유 재산제가 확산되면서 빈부 차이와 계급의 분화가 확대되어 갔다.

청동기를 먼저 보유한 집단이 주변의 약한 집단을 정복하거나 통합하면서 지배자가 등장하였다. 그리고 지배자가 주변 집단을 통합하면서 사회의 규모가 커지고 국가도 출현하였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청동기 문화

황허강 유역의 룡산 문화는 기원전 2000년경 얼리터우 문화로 발전하였다. 얼리터우에서 대규모 궁전 유적이 발굴되었는데, 여기에서 청동으로 만든 도구와 무기, 제사용기 등이 발견되었다. 궁전과 성벽을 갖춘 이 유적은 초기 도시 국가의 모습을 보이는데, 이를 기록상의 하 왕조와 관련된 것으로 보기도 한다.

몽골 초원 지대에서는 기원전 1700년경 청동기 문화가 시작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단검 등과 같은 청동 무기, 재갈 등의 기마 도구, 사슴돌, 판석묘, 거대한 돌무지 제사 유적 등이 만들어졌다.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는 기원전 2000년경에서 1500년경 청동기 시대가 시작되었다. 이 지역에서는 비파형 동검과 고인돌로 대표되는 청동기 문화가 나타났다. 또한 청동 방울·청동 거울 등의 제기 및 장신구, 민무늬 토기 등이 제작되었다.

일본 열도에는 기원전 3세기경 한반도로부터 청동기와 벼농사 기술이 전해졌으며, 동시에 철기도 전해졌다. 그리하여 농경에 바탕을 둔 야요이 시대가 시작되었다.



▲ 사슴돌 몽골 등지에 분포하는 후기 청동기~초기 철기 시대의 거석 기념물로, 표면에 사슴 등이 새겨져 있다.

동아시아 각 지역의 청동기 문화

▲ 북방식 단검(러시아 크라스노야르스크 출토) 몽골 지역에서는 한쪽만 날이 있는 칼을 많이 사용하였다. 손잡이 끝에는 고리가 달려 있으며, 버섯·동물 모양으로 장식하였다.

▲ 비파형 동검(중국 랴오닝성 출토)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발견되는 형태로, 몸체와 손잡이가 분리되었다.

▲ 상의 도끼(중국 베이징고궁박물관) 상 후기의 유적에서 발견되었다. 윗부분의 원형 도안 사이에 짐승 머리가 새겨져 있다.

▲ 고인돌(한국 강화) 지배층의 무덤으로 추정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만주의 랴오닝성과 일본 열도의 규슈 등지에 분포한다.

▲ 야요이 토기(일본 도쿄대박물관) 1884년 도쿄에서 발견된 토기이다. '야요이'라는 이름은 이 토기가 발굴된 지역에서 따온 것이다.

▲ 동탁(일본 시즈오카현 출토) 야요이 시대에는 동검 외에도 동탁이 많이 만들어졌다. 동탁은 당시 주술적례를 위한 도구로, 정치적 지배자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다.

▼ 얼리터우 궁전(복원 모형) 하 왕조의 유적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궁전 유적을 복원한 것이다. 유적에서 발굴된 청동 술잔은 제기로 보인다.

▲ 얼리터우의 청동 술잔

2 국가의 성립

학습 목표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성립된 국가의 통치 제도와 발전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기원전 1800년경 상 왕조 성립
 기원전 1600년경 주 왕조 성립
 기원전 770 춘추 시대 시작
 기원전 221 진의 통일
 기원전 209 흉노, 목축 산유 지역
 기원전 194 고조선 위만 집권
 347년경 아미타이국 성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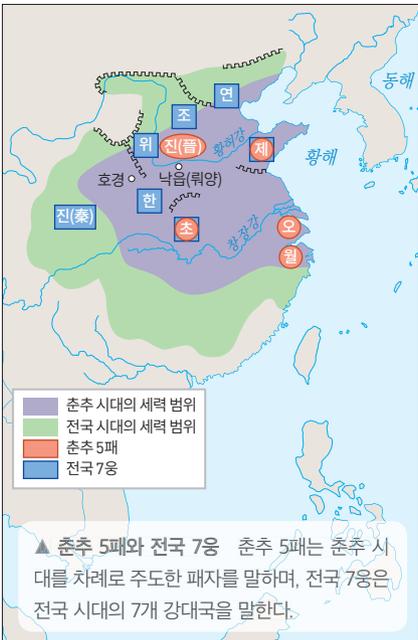
상



주



춘추·전국 시대



중원 지역의 국가 형성과 주의 발전

문헌에 따르면 기원전 2000년경 황허강 중류 지역에 하 왕조가 세워졌다고 전해진다. 하에 이어 기원전 1600년경에는 상이 세워졌다. 상은 실재가 확인된 중원 지역 최초의 왕조이다.

상은 여러 도시가 연맹하여 만든 나라였다. 상의 유적지에서 다량의 갑골문이 발굴되었는데, 갑골문은 상의 왕들이 제사장을 겸하며 종교적 권위에 의지하여 국가를 통치하였음을 보여 준다. 상은 기원전 11세기 주에 멸망하였다.

주는 도읍 부근을 왕이 직접 통치하고 나머지 영토를 친족과 공신에게 나누어 주어 통치하게 하는 봉건제를 시행하였다. 주의 봉건제는 혈연관계를 바탕으로 운영한 종법적 봉건제였다. 주 왕은 자신을 하늘의 명을 받아 나라를 다스리는 천자라 부르고, 백성을 덕으로 다스려야 한다는 덕치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의 천명사상과 덕치주의는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춘추·전국 시대의 전개

기원전 8세기 전염족이 서북쪽에서 침략하자 주는 수도를 동쪽으로 옮겼다. 이때부터 춘추 시대라 하는데, 주 왕실은 제후를 통제할 힘을 상실하고 유력 제후들이 왕을 받든다는 명분을 내세워 정치를 주도하였다. 기원전 5세기에는 전국 시대가 시작되었다. 전국 시대는 제후들이 스스로 왕이라 칭하면서 주변의 소국을 병합하고, 신하가 제후의 자리를 빼앗는 등 하극상과 전쟁이 계속된 약육강식의 시대였다.

춘추·전국 시대에는 우경과 철제 농기구가 보급되어 농업 생산력이 크게 증대되었고, 제후들은 앞다투어 부국강병을 추진하면서 철제 무기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 제후국은 봉건제를 대신하여 중앙 집권적인 군현제로 통치하기 시작하였다. 각국의 제후가 부국강병을 위해 능력 있는 인재를 경쟁적으로 모집하면서 제자백가가 등장하였다.

진의 중원 통일

전국 7웅 중 하나였던 진은 법가 사상가인 상앙을 등용하여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한 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진은 이를 바탕으로 전국을 통일하였다(기원전 2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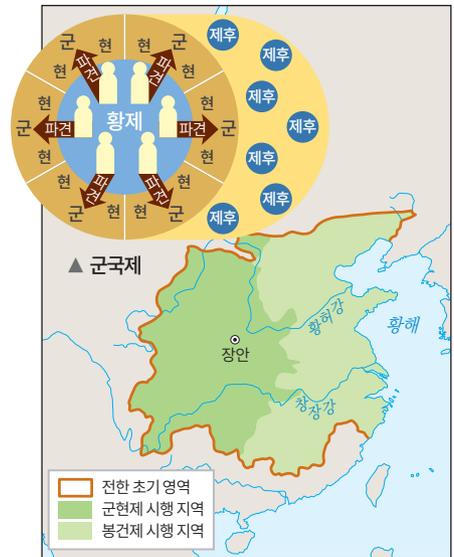
전국을 통일한 진왕은 스스로 시황제라 칭하고 3공 9경의 관료를 두었다.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군현제를 시행하였고, 도량형·화폐·문자를 통일하였다. 또한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분서갱유를 일으켰다. 그러나 시황제가 죽은 후 진은 급속히 쇠퇴하였고, 대규모 토목 공사와 엄격한 법치에 대한 불만으로 농민들의 봉기가 잇따라 일어났다.



한의 재통일

진이 혼란에 빠지자 유방과 항우가 군사를 일으켜 다투었는데, 유방이 세운 한이 중국을 재통일하였다. 한 고조(유방)는 진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군현제와 봉건제를 절충하여 군국제를 시행하였다. 그 후 한은 차츰 제후의 세력을 약화시켰다.

무제는 지방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고 영토를 크게 넓혔다. 그러나 잦은 전쟁으로 국가 재정이 악화되자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상공업을 통제하고 소금과 철의 전매제를 시행하였다. 1세기 초에 외척인 왕망이 정권을 잡아 신을 세우고 한을 멸망시켰으나, 호족의 후원을 받은 광무제가 한을 다시 세웠다(후한).



탐구 활동 2

진의 통치 정책

자료 1

태자가 법을 범했다. 상앙은 ‘법이 잘 시행되지 않는 것은 위에 있는 자부터 법을 어기기 때문이다.’ 하고 태자를 처벌하려 하였다. 그러나 태자는 다음 임금에 될 사람이므로 형벌에 처하기는 난처한 일이라고 하여, 그 대신 태자의 스승을 처벌하였다. 다음 날부터 백성은 모두 법을 지켰다. - 『사기』 -

자료 2

사관이 가진 문서 중 진의 기록이 아닌 것은 모두 태우도록 하시고, 박사관이 아니면서 감히 『시』, 『서』 및 제자백가의 서적을 소장하고 있으면 모두 관에 바치게 한 후, 군의 태수와 도위로 하여금 함께 불태우도록 하십시오. - 『사기』 -

1. 자료 1 을 통해 알 수 있는 진의 통치 사상을 말해 보자.
2. 시황제가 자료 2 와 같은 정책을 시행한 목적을 말해 보자.

흉노의 성장



▲ 흉노의 금관(중국 내몽골박물관)
오르도스 지방에서 발견된 흉노의 금관이다. 몸체에 호랑이, 산양, 말 등이 웅크린 모습으로 부조되어 있고 꼭대기에 매가 앉아 있다.

진이 중원을 통일할 무렵, 북방의 초원 지대에서 흉노가 강력한 세력으로 성장하였다. 흉노는 진의 공격을 받아 근거지를 상실하고 큰 타격을 입었으나, 이러한 위기 상황은 오히려 기마술과 기동성을 갖춘 흉노 사회의 군사화를 촉진하였다. 초원 지대에 흩어져 살던 흉노는 짧은 시간에 뭉쳐 동아시아 최초의 유목 제국을 건설하였다.

흉노 제국은 초원 지대에 흩어져 있던 여러 부족을 통합한 연맹체 국가였다. 제국의 최고 군주는 ‘선우’라고 불렸다. 선우의 부인은 ‘연지’라고 불렸으며 황후에 해당한다. 선우는 특정 씨족 집단에서 배출되었으며, 그들과 혼인을 맺었던 몇 개의 인척 씨족이 있었다. 이렇게 혼인으로 결합한 군주와 인척의 씨족이 흉노의 핵심 지배층을 이루었다.



▲ 흉노 제국의 영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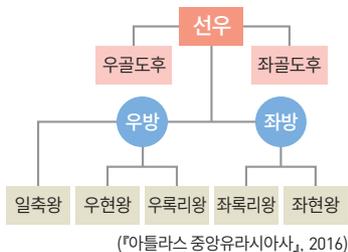
기원전 209년 목탁 선우가 즉위하면서 흉노는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그는 동쪽으로 동호를 공격하여 복속시켰으며, 서쪽으로는 월지를 몰아냈다. 또한 남쪽 오르도스 지방과 북쪽 바이칼호 주변의 여러 세력을 정복하였다. 이러한 여세를 몰아 남으로 중국의 한을 압박하여 한 고조를 굴복시키기도 하였다.

그러나 흉노는 한 무제의 공격을 받아 세력이 약해졌고, 후한 대에 선우 자리 계승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하여 남북으로 분열되었다. 서역과의 중계 무역 이익을 둘러싸고 후한과 다투던 북흉노는 2세기 중반 서쪽으로 이동하였다. 남흉노는 후한의 일부로 자리 잡고 국가 조직을 유지해 갔다.

동아시아사 백과

흉노의 통치 조직

인물 사건 문화 제도



▲ 흉노의 통치 조직

흉노의 최고 통치자 선우는 ‘탱리고도선우’의 줄임말이다. 흉노어로 ‘탱리’와 ‘고도’는 각각 하늘과 아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선우의 권위를 하늘이 부여하였음을 강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선우는 흉노 제국을 중앙과 좌방, 우방으로 삼분하여 다스렸다. 중앙은 선우가 직접 통치하고 좌방은 좌현왕을 비롯한 좌방왕장들이, 우방은 우현왕을 비롯한 우방왕장들이 다스렸다. 이러한 삼분 체제는 이후 유목 국가에서 흔히 나타난다. 흉노의 정치 체제는 농경 국가보다 비교적 단순하고 느슨한 편이었으며, 행정 조직이 곧 군사 조직이었다.

만주와 한반도, 일본 열도의 여러 나라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성립한 최초의 국가였다. 고조선은 독자적 세력을 형성하고 중원의 여러 나라와 교류하거나 대립하면서 성장하였다. 기원전 3세기경에는 부왕과 준왕이 왕위를 세습하였으며, 상·대부·장군 등의 관직이 설치되고 국가 체제가 정비되었다. 또 사회의 기본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8조법」을 제정하였다.

-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사형에 처한다.
- 남을 다치게 한 사람은 곡식으로 갚는다.
- 도둑질한 사람은 노비로 삼는데 만약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치러야 한다.

- 『한서』 지리지 -

「8조법」을 통해 알 수 있는 고조선 사회의 모습을 정리해 보자.

「8조법」은 고조선 사회가 개인의 생명과 노동력, 사유 재산을 중시하였으며, 형벌과 노비가 존재한 계급 사회였음을 보여 준다.

한 건국 초기의 혼란을 피해 위만이 연으로부터 무리를 이끌고 고조선에 들어왔다. 위만은 고조선의 변경 일을 담당하면서 세력을 키워 준왕을 몰아내고 고조선의 왕이 되었다(기원전 194). 이 무렵부터 고조선은 철기 문화를 본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주변의 소국을 정복하면서 크게 발전하였다. 또한 한과 한반도 남부 지역의 여러 나라 사이에서 중계 무역을 주도하였다.

만주와 한반도 전 지역에 철기가 보급되면서 여러 나라가 등장하였다. 만주 중화강 일대에는 예맥족이 세운 부여가 성장하여 연맹 국가로 발전하였다. 부여의 왕은 중앙을 통치하였으며, 큰 종족적 기반을 가진 대가들이 사출도를 나누어 다스렸다.

한반도 남부 지역에서는 마한, 진한, 변한 등의 삼한이 성장하였다. 삼한은 수십 개의 소국이 형성한 연맹체로 농경이 발달하고 제정이 분리된 사회였다.

일본 열도에서는 야요이 문화를 기반으로 여러 정치체가 등장하였다. 3세기경에는 일본 열도에 30여 개의 소국이 존재하였는데, 이 중 히미코 여왕이 다스리는 야마타이국이 가장 강성하였다. 히미코 여왕은 소국들 사이의 전쟁을 수습하고 종교적 권위를 이용하여 나라를 다스렸다고 전해진다.

왜국이 어지러워 여러 해 동안 전쟁이 끊이지 않았다. 그리하여 한 여자를 왕으로 함께 세웠는데 이름은 히미코라고 했다. 주술을 잘하여 사람들을 미혹하였다. 나이가 들어도 결혼하지 않고 남동생의 도움을 받아 나라를 다스렸다.

- 『삼국지』 오환선비동이전 -



▲ 기원전 2세기 무렵의 한반도



◀ 야마타이국의 위치 야마타이국 위치에 대해 규슈섬과 기나이섬, 두 견해가 있다.

국가 통치 조직의 발전

동아시아 지역에서 성립한 국가는 초기에 왕이 종교적 권위에 의지하여 국가를 통치하는 단계에서 점차 행정 제도와 법률·군대·감옥 등을 갖춘 국가로 발전해 갔다.

상

상의 왕은 국가의 많은 일에 대해 점을 쳐서 신의 뜻을 묻고 제사를 지냈다. 갑골문에 따르면 거의 일 년 내내 제사를 드렸으며, 그때마다 엄청난 희생물이 신에게 바쳐졌다. 제사 의식은 중요한 통치 행위였다. 상의 왕은 제사 때 사용할 각종 희생물의 공급과 청동기 제작을 위해 대규모 노동력을 조직하고 동원해야 했다.



◀ 갑골문(중국 허난성 출토) 거북의 배 껍질이나 짐승의 어깨 뼈로 점을 친 후, 점을 친 내용과 결과를 기록해 놓은 글자를 말한다.

주

주 대에는 봉건제, 관료제 등 상과는 다른 정치 제도가 발전하였다. 주 대 청동기에는 그 소유자가 세운 공적과 함께 왕으로부터 분봉되거나 관직을 받은 사실, 이를 자손 대대로 전하기 위해 청동기를 만든다는 내용 등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록이 담긴 청동기 역시 제사에 쓰이는 도구였다. 또 이 청동기를 사용하여 자손 대대로 영원히 제사를 지낼 것을 다짐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 신정 정치의 성격을 완전히 탈피한 것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의후축궤(중국 장쑤성 출토) 주 왕이 의후(宜侯)를 책봉하면서 토지와 백성, 각종 청동기 등을 주었다는 내용이 새겨져 있다.

한반도

만주와 한반도 지역에서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성립한 고조선의 단군왕검도 제정일치 사회의 신정적 지배자였다. 그러나 고조선도 점차 왕위를 세습하고 상, 대부, 장군 등의 관직을 설치하며 체제를 갖추어 갔다.

신정 정치

행정 제도에 따른 통치

춘추·전국 시대

춘추·전국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는 신정적 성격에서 벗어나 점차 제도적 통치 체제를 확립해 갔다. 게다가 제자백가의 출현은 합리주의, 인간 중심의 사상이 두드러졌음을 보여 준다.

특히 전국 시대에는 기존 질서를 대신하여 군주를 중심으로 중앙 및 지방 행정 제도가 갖춰졌고, 군주들은 효율적 관료제의 시행을 위해 새로운 법을 만들었다.

▶ 진을 죽간(중국 후베이성 출토) 진이 백성을 호적에 등록하여 토지 분배를 바탕으로 조세·요역·병역 등을 부과하는 제도를 만들었음을 보여 준다.



1 상, 주, 춘추·전국 시대 정치 제도의 특징을 말해 보자.

2 고조선의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국가 체제의 정비 모습을 찾아보자.

3 국가 간의 교류와 전쟁

학습 목표 동아시아 각국 사이에 일어난 전쟁의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기원전 200 평양 백등산 전투
 기원전 189 한, 서역에 장건 파견
 기원전 121 한, 흉노를 북쪽으로 몰아냄
 기원전 109 한, 고조신공격
 기원전 108 고조신 멸망

중원 왕조와 흉노

기원전 3세기 후반 진시황제는 장군 몽염에게 대군을 주어 흉노를 공격하게 하였다. 진은 흉노를 북방 초원 지대로 몰아내고 오르도스 지방을 차지하였다. 그 후 흉노의 재침입을 막기 위해 전국 시대에 여러 나라가 쌓은 장성을 연결하여 만리장성을 건설하였다.

유방이 중원을 통일한 직후 흉노의 목탁 선우는 만리장성을 넘어 한을 공격하였다. 한과 흉노의 대군이 평성에서 부딪쳤는데, 한 고조는 흉노에 포위되었다가 가까스로 포위망에서 빠져나왔다. 이후 한 고조는 흉노에 비단 등의 공물을 바치고 황실의 여자를 선우에게 시집보내는 등 굴욕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다. 한동안 흉노는 한보다 군사적 우위에 있으면서 서역과 한 사이의 중계 무역에서 큰 이익을 얻었다.

그러나 한 무제가 즉위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달라졌다. 한 무제는 기원전 133년경부터 흉노에 대한 전면전을 시작하였다. 한은 흉노에 대항하기 위해 기마병을 육성하였고, 위청과 광거병 등 유능한 장수의 활약으로 흉노에 승리를 거두었다. 흉노는 고비 사막을 넘어 후퇴하였다.



▲ 마담흉노 석상(중국 셴양) 무릉 박물관 광거병 묘 앞에 세워진 석상으로, 말이 흉노인을 발로 밟고 있다.



▲ 한의 최대 영역과 장건의 서역 행로

흥미진진! 동아시아

장건은 왜 서역에 파견되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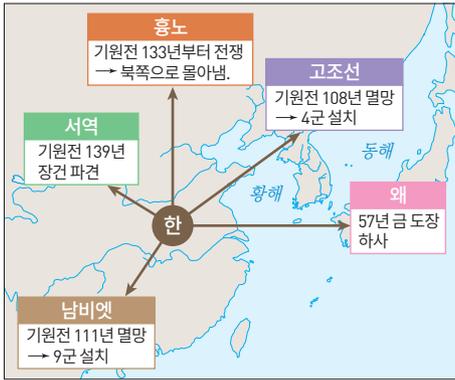
한 무제는 흉노와의 전쟁을 준비하면서 흉노가 서쪽으로 쫓아낸 대월지와 동맹을 맺기 위해 장건을 서역에 파견하였다. 장건은 흉노의 포로로 잡혀 억류되었다가 탈출하여 13년 만에 장안으로 돌아왔다. 그는 100여 명을 거느리고 떠났지만 돌아올 때는 흉노인 아내와 길 안내자 감보만이 그를 동행하였다.

한과 대월지의 동맹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장건은 이 시기 서역의 상황을 보고 들을 수 있었다. 이때 무제는 그동안 흉노에 공물로 보내거나 약탈당한 비단이 서역에서 비싸게 거래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이후 비단 수출과 서역의 말 확보를 위한 전쟁과 서역 진출을 본격화하였다.



▲ 장건의 출사도(중국 둔황 벽화) 장건이 서역으로 파견되기 전에 한 무제에게 하직 인사를 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만주·한반도·일본 열도의 국가와 중원 왕조



▲ 한의 대외 정책 한은 흉노를 몰아내고, 남비엣과 고조선을 멸망시켜 영토를 확장하였다.

고조선은 기원전 7세기경 산둥반도에 있던 제나라와 교역하였다. 기원전 4세기 이후에는 전국 7웅 중 하나였던 연나라와 대립하였으나, 결국 연의 공격을 받아 서쪽의 영토를 빼앗겼다. 위만의 손자 우거왕은 한반도 남부 세력과 한의 교역을 막아 중계 무역의 이익을 독점하려 하였다. 이에 팽창 정책을 추진하던 한 무제는 수군과 육군을 보내 고조선을 공격하였다. 고조선은 1년 동안 적극적으로 맞섰으나 지배 세력의 분열로 왕검성이 함락되어 멸망하였다(기원전 108). 한 무제는 고조선의 옛 땅에 4개의 군을 설치하였다.

부여는 중원의 한과 우호 관계를 유지하였다. 부여는 한으로부터 옥갑과 청동 거울 등을 수입하고, 말·옥·구슬·담비 가죽 등을 수출하였다. 부여의 유적에서 북방 계통의 동물무늬 장신구 등이 발굴되었는데, 이를 통해 부여가 북방의 여러 민족과 교류하였음을 알 수 있다.

삼한 지역의 소국들은 낙랑을 비롯한 한 군현과 교역하면서 중원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삼한 중 진한과 변한에서는 덩이쇠를 만들어 화폐처럼 사용하였으며 이를 낙랑, 대방 등과 일본 열도에 수출하였다.

1세기경 일본 열도의 소국 중 하나는 후한 광무제에게 조공하여 ‘한위노국왕’이라는 금 도장을 받았다. 야마타이국의 여왕 히미코는 후한이 멸망한 후 위에 조공하였고, 위는 히미코에게 ‘친위외왕’이라는 칭호와 거울 등을 하사하였다.

탐구 활동 2

한반도 및 일본 열도 국가의 대외 교류



자료 1

한(변한)에서 철이 생산되는데 한, 예, 왜에서 모두 와서 가져갔다. 사교팔 때 모두 철을 사용하였으니, 마치 중국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과 같았다. 또한 그것을 낙랑과 대방의 두 군에 공급하였다.

- 『삼국지』 위지동이전 -

자료 2

광무제 중원 2년(57)에 왜의 노국이 공물을 바치고 조공하였는데, 사신은 대부분을 자칭하였다. 노국은 왜에서 남쪽에 있는 나라이다. 광무제는 노국 사자에게 도장을 하사하였다. 안제 영초 원년(107)에 왜의 국왕 수승 등이 생구(노예나 전쟁 포로) 160인을 바치고 황제에게 알현하기를 원하였다.

- 『후한서』 동이열전 -

한위노국왕 도장(일본 후쿠오카시립박물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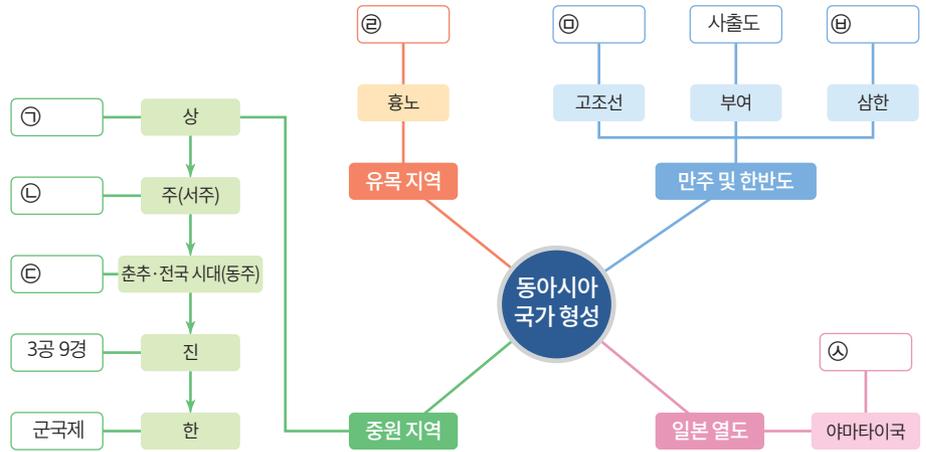


1. 자료 1 을 바탕으로 한반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동아시아의 교류를 말해 보자.
2. 자료 2 에서 왜가 후한에 공물을 바치거나 황제를 알현하고자 한 까닭을 말해 보자.

스스로 학습

내용
확인

1 동아시아의 국가 형성을 나타낸 마인드맵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



| 보기 |

- 선우
- 8조법
- 봉건제
- 갑골문
- 히미코 여왕
- 제자백가
- 마한, 진한, 변한



창의
활동

2 한 무제와의 가상 인터뷰 내용을 완성해 보자.



▲ 한 무제(기원전 156~기원전 87)

기자: 장건을 대월지에 파견한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제:

기자: 흉노와의 전쟁 이후 고조선을 공격하였는데, 그 까닭을 말씀해 주십시오.

무제:

기자: 오랜 전쟁으로 악화된 재정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정책을 시행하셨습니다습니까?

무제:

힘 잡는 단원 평가

기원전

고조선 성립(『삼국유사』) 2333

황허강 유역, 청동기 문화 시작 2000

만주와 한반도, 청동기 문화 시작 2000~1500

상 왕조 성립 1600

① 주의 동천(위양), 시작 770

② 전국 시대 통일 221

한 건국 202

③ 고조선, 의 집권 194
철기 문화 본격 수용

④ 한, 서역에 파견 139

⑤ 한 무제의 공격으로 멸망 108
왕검성 함락

기원후

야마타이국 성장 3세기경

왼쪽 연표를 완성하고, 문제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자.

1 <보기>에 제시된 신석기 문화를 아래 지도에 표시해 보자.

| 보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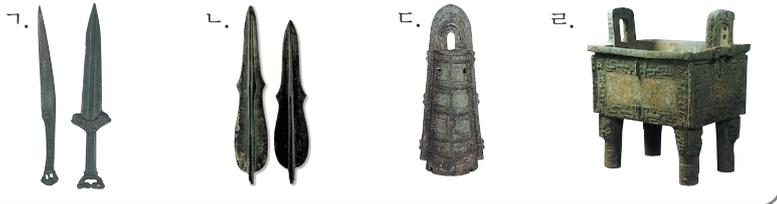
ㄱ. 룡산 문화 ㄴ. 조몬 문화 ㄷ. 홍산 문화 ㄹ. 양사오 문화 ㅁ. 허무두 문화



2 동아시아 각 지역의 청동기 유물을 <보기>에서 찾아보자.

중원	몽골	만주·한반도	일본

| 보기 |



3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중원 지역	상	갑골문 제작, 신정 정치(제정일치)
	주	종법적 ㉠ 시행, 천명사상과 덕치주의 강조
	진	지방을 ㉡ 로 통치, 3공 9경의 관료를 둠.
유목 지역	한	㉢ (군현제와 봉건제 절충) 시행
		㉣ 최고 통치자 선우, 선우 아래 제국을 분할 통치함.
만주·한반도		㉤ 「8조법」 제정, 왕 아래 상·대부·장군 등의 관직 마련

자기 점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본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1 동아시아의 신석기 문화

20쪽 확인

2 청동기 문화의 발전

24쪽 확인

3 국가의 성립

26쪽 확인

역량 +
수행 평가

프로젝트 학습 계획서 작성하기

‘현재 동아시아 국가들이 당면한 문제는 무엇인가?’라는 주제와 관련된 사례를 신문이나 뉴스에서 찾아 모둠별로 조사해 발표한다. 이를 통해 동아시아사 학습의 필요성을 확인해 본다.

1 모둠 활동하기

1. 5~6인을 한 모둠으로 한다.
2. 동아시아 국가가 당면한 문제점을 최근 신문 기사 또는 방송 뉴스에서 조사한다.
3. 기사 내용을 스크랩하거나 요약·정리한다.
4. 당면한 문제의 원인이나 역사적 배경을 탐구한다.
5. 모둠별 토론에서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눈다.

2 계획서 작성 및 발표하기

1. 모둠별로 가장 큰 전지 1장과 사인펜, 색연필 등 필기구를 배부한다.
2. 전지를 가로로 놓고 삼등분하여 왼편에는 당면한 문제점, 가운데에는 문제의 원인과 역사적 배경, 오른편에는 토론한 내용을 모둠원이 역할을 나누어 적는다.
3. 작성한 글을 칠판에 붙이고 모둠 대표 1~2인이 발표한다.

유의점

1. 동아시아 국가가 당면한 적절한 문제를 찾아 주제로 선정한다.
2. 문제점의 역사적 배경을 탐구하는 과정에서 동아시아사 학습의 필요성도 도출되도록 한다.

예시

2016년 일본에서 나타난 험한 분위기의 원인과 해결 방안

일본 내의 험한 분위기 형성	험한 문제의 원인과 역사적 배경	해결 방안 모색
일본의 유일 단체인 주말이면 도쿄 한인타운인 신주쿠보나 한인 상점 앞에서 분류당 다수의 한인을 대상으로 '죽어라', '일본을 때려라' 등의 욕설을 퍼붓는 등 시위를 벌여 왔다. 이에 일본에서 '험한 서구'로 통하는 '헤이트스피치' 강제 법률이 제정되었다.	1. 일본 내부의 강경적 경기 침체 2. 한국과 중국의 발전에 따른 위기감 3. 자유 세력의 확산 4. 과거사를 제대로 교육받지 못한 젊은이들의 증가	1. 한-중-일 공동 역사 연구 2. 동아시아 학습 3. 외교적 차원의 접근
2016. 5. 24. 00 신문		

II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

- 1 인구 이동과 정치·사회 변동
- 2 국제 관계의 다원화
- 3 유학과 불교

단원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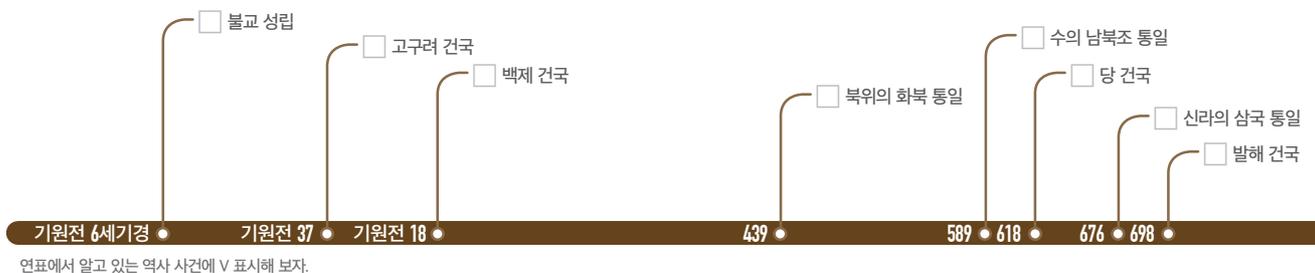
이 단원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인구 이동으로 지역 간 문화 교류가 증대되어 동아시아 세계가 성립되었음을 파악한다. 특히 조공·책봉의 외교 형식이 동아시아 세계에 끼친 영향과 의미를 파악하고, 한자를 매개로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 불교 등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되었음을 이해한다.

이 단원에서 성취할 나만의 목표를 스스로 정해 보자!

1 동아시아 지역 인구 이동의 원인과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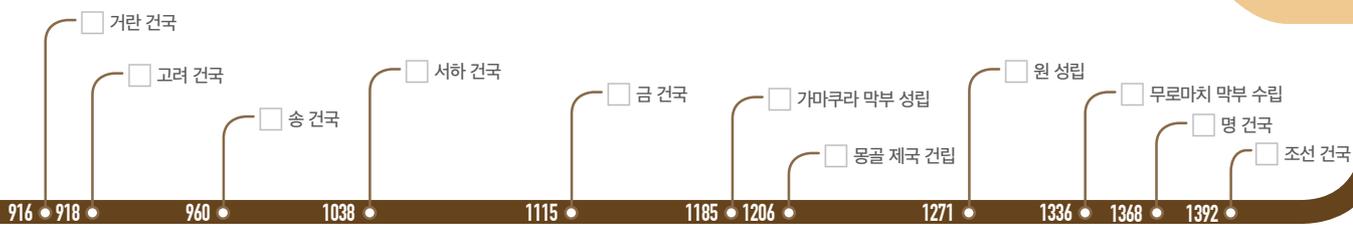
2

3





▲ 룡면 석굴



1

인구 이동과 정치·사회 변동

	300	600	900	
한국	삼국 시대		남북국 시대	고려
중국	삼국 시대	5호 16국 시대	남북조 시대	수 당 송(북송)
일본	야요이 시대	고분 시대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 생각 열기 | 중국의 산시성 북부에 있는 통만성으로, 북방의 흉노가 세운 도성 유적이다. 이 성은 이동 생활을 하던 유목 민족인 흉노가 남방으로 내려와 성을 쌓은 드문 사례이다.

Q 흉노를 비롯한 북방 유목 민족의 남하가 동아시아 지역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1 인구 이동과 국가의 성립

학습 목표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인구 이동의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인구 이동의 요인

기원 전후 동아시아 일대에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났다. 이 시기 중국과 만주, 한반도 지역에서 북으로부터 남으로 인구가 이동하였다. 특히 중국 북부 초원 지대에서 화북평원으로, 만주에서 한반도 북부와 중부로, 그리고 한반도에서 다시 일본 열도로 향하는 연쇄적인 인구 이동이 발생하였다.

기후 변화와 자연재해로 나타난 생활 환경의 변화, 인구 증가, 정치적 혼란, 부족 간 갈등과 전쟁 등이 인구 이동을 자극하였다. 또 교류의 활성화도 인구 이동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새로운 문화와 접하면서 더 나은 생활 여건을 동경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북중국 일대의 인구 이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정치적 혼란이었다. 2세기 중엽 이후 혼란이 장기간 계속되면서 변경의 방어가 소홀해지자, 북방 민족이 화북 지방으로 유입되었다. 한반도 일대에서는 부족 내 정치적 갈등이 인구 이동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이주민의 유입은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이루어진 지역에서는 새로운 정권이 세워졌다. 또한 새로운 인구의 유입으로 생산력이 발달하고, 지역 간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때로는 토지와 하천 등을 둘러싸고 이주민과 토착민 사이에 갈등이 생겨나 새로운 인구 이동이 촉발되기도 하였다.

한반도로의 이동

기원전 1세기 무렵 만주 북부의 송화강 지역에 살던 부여족 내부에 분열이 일어나자, 주몽 집단이 압록강 중류의 졸본 지역으로 남하하여 고구려를 건국하였다(기원전 37). 고구려는 남하한 부여족과 토착 세력인 맥족이 연합하여 세운 나라였다. 주몽 집단은 점차 세력을 강화하여 토착 세력을 누르고 나라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천도한 후 고구려의 국력은 더욱 신장하였다.

고구려가 성장하면서 그 내부에 정치적 갈등이 발생하자, 지배층 일부가 한반도 중부로 남하하였다.

주몽이 북부여에서 낳은 아들이 오자 태자로 삼으니 비류와 온조는 태자에게 용납되지 않을 것을 두려워하였다. 마침내 오간, 마려 등 신하들과 함께 남쪽으로 가니 백성 가운데 그를 따르는 이가 많았다.

- 『삼국사기』 -

비류·온조 집단의 이동으로 나타난 결과를 말해 보자.

남하한 이들은 한강 유역의 토착 세력과 함께 백제를 건국하였다(기원전 18). 이후 백제는 마한 세력을 통합하며 점차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세력을 넓혀 갔다.

한편 기원전 2세기 말 고조선이 멸망한 후 유민 일부가 한반도 남부 지역으로 남하하였다. 이들은 경주 지역의 토착 세력과 연합하여 신라 건국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신라는 진한의 소국 가운데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하여 주변에 있는 소국을 병합하면서 진한의 주도 세력으로 발전하였다.

4세기에 고구려가 한 4군의 하나인 낙랑군을 멸망시키자, 낙랑군의 유민 일부가 한반도 남부로 이주하였다. 이들은 백제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 기원 전후 한반도로의 인구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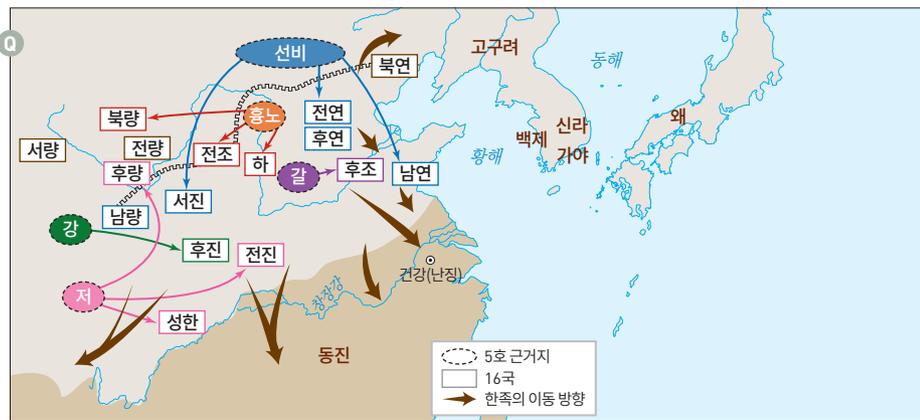
▼ 풍납동 토성(한국 서울) 온조가 세운 하남 위례성으로 추정된다.

북방 민족과 한족의 이동

북방 민족의 활동 영역은 후한 중엽까지만 해도 초원 지대를 벗어나지 않았다. 진시황제 때 건설된 만리장성은 북방의 유목민 거주지와 남방의 농경민 거주지를 구분하는 경계 역할을 하였다. 기원전 3세기 흉노가 초원 지대에 대제국을 건설하였을 때에도 그 영역은 만리장성을 넘지 않았다.

그러나 2세기 들어 후한이 정치적으로 혼란스러워지면서 양상이 달라졌다. 후한의 지배자들은 북방 민족을 끌어들여 군사적으로 이용하려고 하였다. 또한 변경의 방어가 느슨해지자 흉노, 선비 등 북방 민족이 북중국 일대로 들어와 화북 지방을 장악하였다.

지도에 나타난 인구 이동이 끼친 영향을 말해 보자.



▲ 5호의 국가 건설과 한족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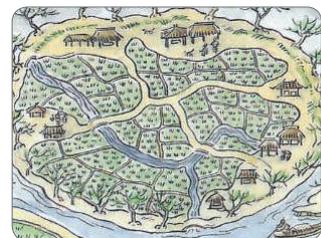
북방 민족이 남하하자, 이들의 지배를 피하여 화북 지방의 한족이 대거 강남 지방으로 이동하면서 남중국 일대의 개발이 진척되기 시작하였다. 원래 창장강 하류 지역은 저습지가 많아 농경과 정착 생활에 불리하였다. 그런데 이주민의 유입으로 노동력이 늘어나고 선진 토목 기술이 도입되면서 강남 지방의 농업 생산력이 서서히 증대되었다.

동아시아사 백과

강남 지방의 농경지 개발 방식

창장강의 하류 지역, 즉 강남 지방은 무덥고 늪지대가 많아 2세기 무렵까지만 해도 인구 밀도가 낮았다. 물이 풍부하여 농작물을 경작하기에는 유리하였으나 농경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늪지대의 물을 빼내는 것이 문제였다.

이를 위해 이주민들은 늪지대 한가운데에 제방을 쌓고, 그 내부의 물을 바깥으로 빼는 작업을 하여 늪지대를 농경지로 만들었다. 이러한 개발 방식은 엄청난 노동력과 자금이 필요하였다. 위·진·남북조 시대부터 시작된 강남 개발은 수백 년의 시간이 흘러 송 대에 이르러서야 완료되었다.



▲ 강남 지방의 경작지 새로 개간된 토지가 제방으로 둘러싸여 있다.

일본 열도로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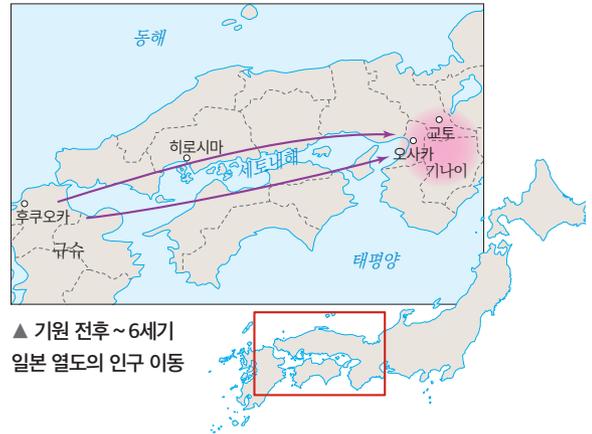
한반도의 여러 나라가 각축을 벌이면서 주민 일부가 일본 열도로 건너갔다. 중국 남북조 시기에는 창장강 유역에 살던 한족 가운데 일본 열도로 이주하는 사람도 생겨났다. 이렇게 일본 열도로 건너간 사람들을 ‘도왜인’이라 부른다. 도왜인은 새로운 토기 제조법이나 옷감 짜는 법 등 각종 선진 기술을 일본에 전해 주었다. 나아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유학·불교 등을 전함으로써 야마토 정권의 성립과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이주한 사람들은 왜와 활발하게 인적·물적 교류 관계를 맺고 있던 백제와 가야 출신이 많았다. 고구려와 신라의 세력 확대, 그리고 삼국 통일을 전후한 시기의 전쟁 등으로 백제인과 가야인의 일본 열도 이주가 증가하였다.

4세기 이후 일본에서는 세토내해를 중심으로 규슈와 기나이 지방 사이에 활발한 인구 이동이 일어났다. 그 후 야마토 정권이 안정되어 동쪽으로 세력을 확대해 감에 따라 일본 열도의 거주민은 계속 동쪽으로 이동하였다. 이러한 인구 이동과 함께 일본 열도 동부 지역의 개발도 진척되어 갔다.



▲ 고구려 왕자 약광의 사당(일본 사이타마현) 보장왕의 아들 약광은 고구려가 멸망한 후 1,799명을 이끌고 일본으로 이주하였다. 일본은 고마(고려)군을 설치하여 이들을 거주하게 하였다.



▲ 기원 전후~6세기 일본 열도의 인구 이동

동아시아사 백과

한반도 선진 문화의 일본 열도 전파

일본 열도의 초기 고대 국가는 한반도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았다. 고대 국가의 형성에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철기의 제작 기술도 한반도를 통해 받아들였다. 철기는 이주민을 따라 중국의 화북 지역에서 만주와 한반도 북부로 전파됐고, 이어 가야를 통해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 열도로 전파되었다. 가야는 뛰어난 제철 기술로 덩이쇠를 생산하였는데, 오늘날 일본에서 발견되는 덩이쇠에는 가야의 영향이 선명하게 드러난다.

야마토 정권은 한반도에서 선진 문화를 수용하는 데 적극적이었다. 고구려의 해자는 쇼토쿠 태자의 스승이 되었고, 담징은 수차와 종이 만드는 법, 그리고 유학과 불교 지식을 일본에 전해 주었다. 가야의 토기는 일본의 스에키 토기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특히 백제는 일본 야마토 정권과 활발하게 교류하였으며, 백제인 아직기와 왕인은 일본에 유학과 한문을 전하였다. 아스카 문화는 백제에서 건너온 기술자가 이룩한 불교 예술이 중심을 이루었다.



▲ 가야 덩이쇠(한국 경북 출토)

▲ 일본 덩이쇠(일본 나라현 출토)



▲ 왕인의 묘(일본 히라카타시)

2 국가의 통합과 발전

439 북위, 화북 통일
589 수, 남북조 통일
618 당 건국
645 일본, 다이카개신
676 신라, 삼국 통일 완성
698 발해 건국

학습 목표 동아시아 각 지역 통일 국가의 등장 과정과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화북을 장악한 북방 민족

단원연계 | 1단원 26~27 쪽에서 중원 지역의 국가 발전 과정을 확인해 보자.

5호 16국 시대

홍노·선비·저·강·갈의 5개 북방 민족을 중심으로 화북에 16개 국가가 세워진 시기이다.

3세기 초에 후한이 멸망하고 이어 위·촉·오로 나뉘어 경쟁하는 삼국 시대로 접어들었다. 삼국의 분열은 진(서진)에 의해 통일되었다. 이 무렵 화북으로 유입된 북방 민족은 점차 세력을 형성하였다. 특히 3세기 말 진이 내분으로 급속히 쇠퇴하자 북방 민족은 화북 지방에 여러 국가를 세웠다(5호 16국 시대). 이러한 혼란은 선비족의 탁발부가 세운 북위가 화북 일대를 통일할 때까지 계속되었다(4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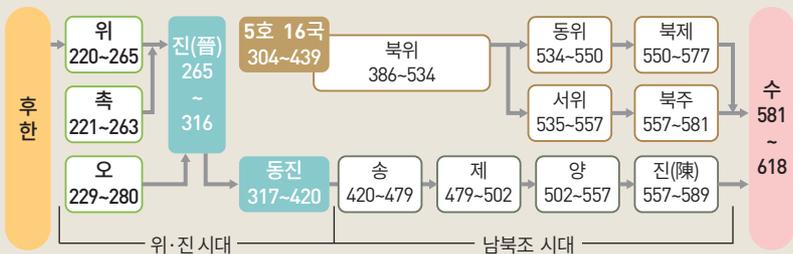
화북 지방을 장악한 북방 민족은 한족을 통치하기 위해 한족의 통치 체제를 수용하였다. 특히 화북 일대를 통일한 북위는 효문제 때 적극적인 중국화(한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효문제는 수도를 남쪽의 뤼양으로 옮기고 한족의 언어와 풍습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효문제가 중원의 언어를 사용하도록 한 까닭을 말해 보자.

이제 북방의 언어를 금지하고, 오로지 올바른 중원의 언어만 사용토록 한다. 서른 살 이상인 사람은 습관이 굳어져 갑자기 말을 바꾸기 어렵기에 어쩔 수 없지만, 조정에 있는 서른 살 이하의 사람은 예전처럼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 고의로 북방의 언어를 쓴다면 관직을 박탈할 것이다. - 『위서』 -

또한 선비족의 성씨를 한족의 성으로 바꾸고 한족과의 결혼을 장려하였다. 이로 인해 화북의 한족 사이에도 북방 민족의 습속이 전파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화북 일대에서 유목 문화와 한족 문화가 점차 융합되었다.

한편 북방 민족이 화북 지방을 장악하자, 한족은 창장강 이남으로 이동하여 동진을 세웠다. 동진은 이후 송·제·양·진으로 이어지며, 북위 및 그 뒤를 이은 중원 왕조와 대립하였다. 이렇게 중국이 남북으로 나뉜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부른다.



◀ 위·진·남북조 시대 중국은 후한이 멸망한 이후 수가 통일하기까지 무려 360년 이상 분열과 혼란을 거듭하였다.

삼국 간의 항쟁

북방 민족이 세운 북조와 한족의 남조가 대립하고 있던 시기, 한반도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가 경쟁하였다. 삼국은 서로 치열하게 전쟁을 벌이는 한편, 주변 나라와 활발하게 외교 활동을 벌였다.

삼국 중 고구려가 먼저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5세기 광개토 대왕과 장수왕 때 고구려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서쪽으로 요동을 차지하고 남으로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유역을 확보하였다. 이와 함께 중국의 남조 및 북조와 다각적인 외교 관계를 맺었다.

백제는 4세기에 강력한 국가로 성장하여 왕권을 강화하고 대외 정복 전쟁을 펼쳤다. 하지만 5세기 후반 고구려의 장수왕에게 한강 유역을 잃고 수도를 웅진(공주)으로 옮겼다. 백제는 중국의 남조 및 왜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왜에 불교와 한자를 전하였으며, 기술자들이 왜로 건너가 많은 사찰을 건립하였다.

신라는 6세기에 접어들면서 점차 발전의 기반을 다져 나갔다. 특히 진흥왕은 대대적인 대외 팽창을 통해 한강 유역을 차지하고 이어 함경도 지방까지 진출하였다. 남으로는 대가야를 정복함으로써 낙동강 유역을 모두 장악하였다. 이후 한강 유역을 발판으로 황해를 거쳐 중국과 직접 교류하였다.



▲ 삼국 간의 항쟁

야마토 정권

일본 열도에서는 4세기경 유력 호족이 연합하여 야마토 정권을 세웠다. 야마토 정권은 각지의 호족을 중앙 정치 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해 씨성 제도를 시행하였다. 동시에 한반도와 중원에서 선진 문물을 수용하며 점차 발전하여 5세기경에는 일본 열도의 상당 부분을 지배하였고, 점차 전국으로 세력을 확대하여 일본 열도를 통일하여 갔다. 야마토 정권의 지배자들은 거대한 무덤(전방후원분)을 만들어 권력을 과시하였다.

씨성 제도

'씨'를 기반으로 한 호족을 중앙에 복속시키기 위해 정치적·사회적 지위인 '성'을 하사하는 제도이다.



◀ 다이센 고분(일본 사카이시) 길이 486m, 폭 350m의 규모를 자랑한다. 앞은 네모지고 뒤는 원형을 띤, 고대 일본의 전형적인 전방후원분의 형태를 띠고 있다.



■ 각 지역 통일 정권의 등장

6세기 후반에 접어들어 동아시아에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몇 세기 동안 계속된 인구 이동과 그에 따른 새로운 국가 건설, 각국 사이의 전쟁 등이 마무리되면서 각 지역에 통일 정권이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수는 남북조를 통일한 이후 주변 지역에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였다. 먼저 북방에서 큰 세력을 형성하고 중원을 압박하던 돌궐을 여러 차례 공격하였다. 이어 고구려를 복속시키고자 세 차례에 걸쳐 침공하였으나 실패하였다. 수는 고구려 원정의 실패가 주요 원인이 되어 멸망하였다.

수의 뒤를 이어 들어선 당 또한 동아시아의 패자로 군림하고자 하였다. 당은 돌궐을 제압하고 서역을 정벌한 다음 고구려를 침공할 기회를 엿보았다. 이때 삼국 사이의 전쟁에서 수세에 몰린 신라가 당과의 동맹을 추진하였다. 신라와 당에 맞서 고구려와 백제는 나·당 연합군에 맞서 싸웠으나 패하고 결국 멸망하였다. 백제 멸망 후 백제의 옛 땅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자, 왜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군대를 파견하였으나 백강 전투에서 당과 신라군에 패하였다. 백제와 고구려의 유민은 각지로 흩어졌다.

백제와 고구려가 멸망하자 신라와 당 사이의 갈등이 표출되었다. 당은 신라를 포함한 한반도 전체를 차지하고자 하였으나 신라는 이를 용인하지 않았다. 결국 양측의 대립은 전쟁으로 발전하였고, 신라는 고구려 유민과 함께 당 세력을 축출하고 통일을 완성하였다(676). 이후 신라는 한반도 지역을 안정적으로 지배하는 국가로 성장하였다. 또 당은 동아시아의 패자로 발전하여 당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를 형성하였다.

◆ 돌궐

고대 튀르크족의 명칭으로, 6세기 중엽부터 중앙 유라시아 일대에 대제국을 건설하였다.



▲ 백암성의 성벽(중국 라오닝성) 고구려의 요동 방어 거점. 길이 2km, 높이 6~8m에 이르는 석성이다.

동아시아사 백과

중앙아시아를 호령한 고구려의 후예 고선지(? ~ 755)

인물 사건 문화 제도



▲ 고선지의 원정로

8세기 중반, 중원에 고구려인의 후예 가운데 당을 대표하는 대장군이 출현하였다. 바로 고선지이다.

그는 당 현종 시기 서역 진출의 주역을 담당하였던 인물이다. 특히 747년 티베트 일대에서 강력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던 토번을 평정하고, 이어 파미르고원을 넘어 북인도 일대까지 정벌하였다.

751년에는 7만의 군대를 이끌고 이슬람 제국의 군대와 탈라스 전투를 벌였으나 패하였다. 이 전투에서 포로로 잡힌 당의 기술자가 종이 제조 기술을 아라비아에 전한 것으로 알려진다.

발해와 야마토 정권의 발전

고구려의 옛 영토에는 발해가 건국되었다(698). 대조영이 고구려 유민을 중심으로 세운 발해는 고구려 계승 의식을 표방하고 고구려의 옛 영토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당 및 일본과 활발히 교류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한반도에는 통일 신라와 발해가 병존하는 남북국 시대가 펼쳐졌다.

일본 열도의 야마토 정권은 7세기 이후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7세기 중반 다이카 개신은 국가 체제의 확립에 큰 계기가 되었다. 이후 '천황'이라는 칭호와 '왜'를 대신하여 '일본'이라는 국호를 사용하였다. 아울러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견당사와 견신라사를 활발하게 파견하였다.

8세기에는 당의 수도 장안을 본떠 헤이조쿄를, 이어 헤이안쿄를 차례로 건설하였다. 헤이조쿄와 헤이안쿄에 수도를 두었던 시기를 각각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라고 부른다. 나라 시대에 일본은 당, 한반도와 활발하게 교류하였다.

하지만 일본은 점차 주변 나라와 교류를 줄여 8세기 말 견신라사를 폐지하고 이어 9세기 말에는 견당사의 파견을 중지하였다. 헤이안 시대 중기 이후 정치적으로는 율령 체제가 흔들리기 시작하고, 문화적으로는 궁정 귀족을 중심으로 일본 고유의 국풍 문화가 발달하였다.

◆ 다이카개신(645)

당 유학생을 중심으로 단행된 개혁으로, 백제계로 추정되는 소가씨가 타도되고 당을 모방한 중앙 집권 체제가 강력하게 추진되었다.

◆ 국풍 문화

중국 문화를 추종하는 이른바 '당풍'과 달리 일본 고유 색채가 강한 문화 풍조를 가리킨다. 가나 문학, 주거 문화, 종교 등에서 두드러졌다.



▲ 『겐지 이야기』(일본 고토미술관) 가나 문자로 쓰인 장편 소설로, 헤이안 시대의 국풍 문화를 대표하는 작품이다.

탐구 활동



7세기에 발생한 동아시아의 두 전투



자료 1

고구려와 수의 살수 전투(612)

수의 9군이 패한 다음 하루 낮과 밤 동안 450리를 걸어 압록강으로 돌아갔다. 처음 9군이 란오허강을 건널 때는 30만 5천 명이었는데, 요동성으로 돌아온 것은 다만 2천7백 명이였다. 황제는 크게 노하여 우문술 등을 관헌에 넘겨 처벌토록 하였다. 동도 뤼양에 도착한 후에는 우문술 등을 평민으로 강등시켰다.

- 『수서』 -

자료 2

백강 전투(663)

백제(부흥군)는 적이 계획한 바를 알고 여러 장수에게 “지금 일본에서 우리를 구원하러 장수 여원군신이 용사 1만여 명을 거느리고 바다를 건너오고 있다. 여러 장군은 미리 계획을 세우기 바란다.” …… 당의 장군이 함선 170척을 이끌고 백강에 진을 쳤다. 일본의 수군 중 처음 도착한 배들이 당의 수군과 싸웠지만 불리하여 후퇴하였다. 당군은 좌우에서 수군을 출동시켜 협공하였다. 눈 깜짝할 사이에 일본군이 패하였다.

- 『일본서기』 -

1. 자료 1 과 자료 2 의 전쟁이 일어난 배경을 말해 보자.
2. 자료 2 의 전쟁 이후에 나타난 동아시아의 정세 변화를 설명해 보자.

일본의 견당사 파견



견당사란 야마토 정권과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에 당에 파견한 사절을 가리킨다. 일본 측 사료에는 견당사가 당과 대등한 사신 외교로 되어 있지만, 중국 측 사료에는 조공 사절단으로 기록되어 있다. 견당사를 통해 고대 일본과 당 사이의 교류 실태를 파악해 보자.

왜?

일본은 당의 선진 문물 및 불교 경전 등을 수집할 목적으로 당에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구당서』에는 일본의 사절이 중국 황제가 하사한 수많은 보물을 모두 내다 팔아 돈으로 바꾸고 대신 많은 서적을 사서 귀국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이 밖에 한반도 정세와 같은 동아시아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다.

누가?

견당선에는 사신 외에 유학생, 유학승도 함께 승선하여 보통 400명에서 500명이 네 척의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넜다.

견당사는 처음엔 한반도를 따라 북상하는 길을 택하였지만, 8세기 신라와의 관계가 나빠진 후 남으로 동중국해를 횡단하는 항로를 이용하였다.

언제?

630년부터 894년까지 약 250여년 동안 견당사는 총 19차례(혹은 20차례)가 파견되었다. 그중 두세 차례는 실패하였고, 한 번은 이전에 파견된 견당사를 귀국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이 밖에 당 사절들의 귀국을 호송하기 위한 파견도 세 차례나 되었다.

따라서 실제로 일본이 정식으로 당에 견당사를 보낸 횟수는 13번이었다.



- 1 일본의 견당사가 파견된 시기 동아시아의 국제 정세를 알아보자.
- 2 견당사 파견이 일본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추론해 보자.

스스로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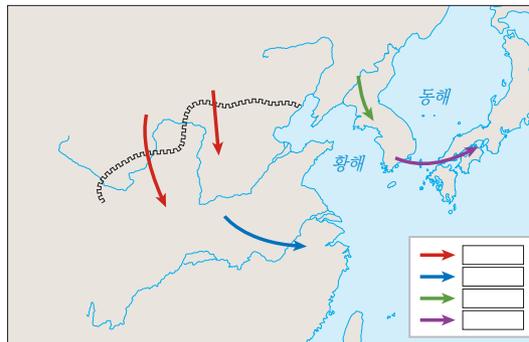
내용
확인

1 동아시아의 지역별 인구 이동과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물음에 답해 보자.

(1)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가)	(나)	(다)	(라)
부여족 내부의 분열 → 주몽 집단의 남하	후한의 정치적 혼란 → 북방 민족이 남하 하여 여러 국가 건설	북방 민족의 화북 지방 장악 → 한족이 창 장강 이남으로 남하	한반도 여러 나라의 각축 → 일본 열도로 이주
↓	↓	↓	↓
㉠ <input type="text"/> 건국	㉡ <input type="text"/> 시대 전 개	㉢ <input type="text"/> 개발 본 격화	㉣ <input type="text"/> 정권의 발전

(2) 위 표의 (가)~(라)에 해당하는 인구 이동을 아래 지도의 범례에 표시해 보자.



창의
활동

2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동아시아사 신문 ○○○년

북위의 효문제, 한화 정책을 추진하다

3세기 말 진이 내분으로 급속히 쇠퇴하자, 북방 민족은 화북 지방에 여러 국가를 세웠다. 이러한 혼란은 선비족의 탁발부가 세운 북위가 화북 일대를 통일할 때까지 계속되었다. 화북 지방을 장악한 북방 민족은 한족을 통치하기 위해 한족의 통치 체제를 받아들였다. 특히 화북 일대를 통일한 북위는 효문제 때 적극적인 중국화(한화) 정책을 시행하였다. 효문제는

(1)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두 가지 이상 써 보자.

.....

.....

.....

(2) 효문제의 정책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써 보자.

.....

.....

.....

2 국제 관계의 다원화

	600	900	1200	1500
한국	삼국 시대	남북국 시대	고려	조선
중국	수	당	5대 10국	송(북송) 남송
일본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가마쿠라 시대 무로마치 시대



| 생각 열기 | 남송을 공격하기 위해 창장강을 건너는 몽골 군대의 모습이다. 10세기 이후 북방 민족은 속속 국가를 형성하고,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다른 동아시아 국가를 압박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형태를 띠게 되었다.

Q 10세기 이후 북방 민족이 성장하면서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는 어떻게 변화하였을까?

1 조공·책봉 관계의 형성

학습 목표 조공·책봉의 외교 형식이 지닌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조공·책봉의 외교 질서

무제 이후 한이 동아시아의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대외 관계에 조공과 책봉의 형식이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조공은 주변국이 중원 왕조에 예물을 바치며 형식적인 존중을 표명하는 행위이다. 이에 대해 책봉은 중원 왕조가 주변국의 군주에게 그 지배권을 선언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이다.



▲ 「보련도」(중국 베이징고궁박물관) 7세기 중엽 토번의 사자가 당 태종을 알현하고 조공을 바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다.

하지만 조공·책봉 관계는 직접적인 지배나 실제적인 간섭과 관련이 없는 형식적인 외교의 틀에 불과하였다. 한은 책봉이라는 명분에 집착한 반면, 주변국은 조공을 통해 한과 교류하며 문화적·경제적 실리를 취하였다.

역대 중원 왕조는 군사적인 정복이 가능한 경우 적극적으로 원정을 감행하였다. 반면 조공·책봉 관계는 상대국의 존재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반영한 것이었다. 또한 각국의 대내외적인 필요에 따라 조공이나 책봉이 중단되는 경우도 많았다. 흉노나 서역의 국가들은 책봉 없이 교역이 필요할 때에만 사절을 파견하기도 하였는데, 한은 이를 조공이라 편의적으로 해석하였다. 이처럼 조공·책봉 관계는 서로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 의례적인 관계일 뿐이었다.

조공·책봉 관계는 중원 왕조와 주변국 사이의 역학 관계에 따라 많은 굴절을 겪었다. 중원의 통일 왕조가 붕괴하거나, 혹은 초원 지대에 국가가 세워질 때는 북방 민족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기도 하였다.

남북조 시대의 다원적 외교

3세기 초 후한이 멸망한 후 동아시아에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중원의 통일 왕조가 붕괴하자 강대국 중심의 외교 관계 대신, 상호 우호를 확인하기 위한 현실적이면서도 다원적인 외교가 국제 질서의 주된 형식으로 자리 잡았다.

고구려는 5호 16국 시대 화북의 여러 나라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특히 소수림왕 때에는 전진으로부터 불교를 받아들였다. 장수왕 때에는 북조의 북위와 남조의 송에 모두 조공하였다.

백제는 주로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며 불교와 유학, 건축 기술 등을 수용하였다. 신라는 6세기에 백제의 중개로 남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야마토 정권의 왜는 5세기에 남조와 책봉 관계를 맺었으며, 백제 및 신라와도 사절을 주고받았다.

이러한 외교 관계는 6세기 중엽 초원 지대에 돌궐이 성장하면서 변화하였다. 북조는 돌궐과 친선을 맺기 위해 여러 차례 사절을 파견하였다. 북주와 북제로 분열된 다음 두 나라는 돌궐의 공주를 황후로 맞으려고 경쟁하였다. 북조의 뒤를 이은 수와 당도 초기에는 돌궐에 신하를 자처하며 조공 사절을 파견하였다.



▲ 고구려의 대외 교류(5세기)

◆ 전진

5호 16국의 하나로 티베트계의 부족이 세운 나라이다. 부견 시대에 전성기를 맞이하여 일시 화북 지방을 통일하였다.

탐구 활동



남북조 시대의 외교

역사 자료 분석과 이해

자료 1

고구려의 외교

481년, 고구려가 사신을 보내 남제에 조공하였다. 그러나 (고구려의) 세력이 강하여 통제를 받지 않았다.

북위는 사신의 숙소를 만들 때 남제를 제일 크게, 이어 고구려를 그다음으로 하였다. 489년, 남제의 사신이 북위에 갔을 때 고구려 사신과 나란히 앉게 되었다. 남제 사신이 “고구려는 우리의 신하로 따르고 있는데 어찌 우리와 나란히 설 수 있는가?”라고 항의하였다.

- 『남제서』 -

자료 2

돌궐을 향한 북주와 북제의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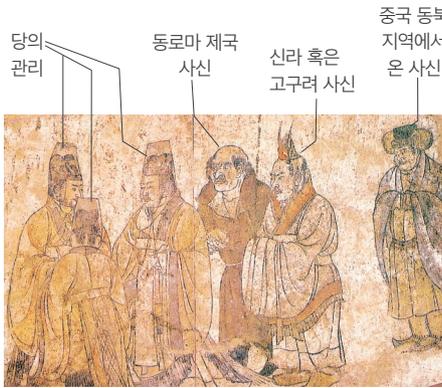
북주는 돌궐과 화친한 뒤 해마다 막대한 물자를 보냈다. 북제도 돌궐이 침략해 올 것을 두려워해 역시 돌궐에 많은 재물을 주었다. 이로 인해 돌궐은 더욱 교만하고 방자해져서, “남쪽에 있는 두 아이가 효성을 바치기만 하면 어찌 물자가 없음을 걱정할 필요가 있겠는가?”라고 말하였다.

- 『주서』 -

1. 자료 1 에서 고구려가 북위와 남제 두 나라에 조공한 까닭을 말해 보자.
2. 자료 2 를 통해 북주·북제와 돌궐의 관계를 설명해 보자.

수·당 제국과 한반도, 일본

6세기 말 수가 분열된 남북조를 통일한 후 동아시아 외교 질서에는 커다란 변화가 나타났다. 초기에 수는 돌궐에 수세적인 자세를 보였으나 이윽고 돌궐을 복속시켰다. 그리고 주변국에 대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자국 중심의 국제 질서를 구축하려 하였다. 고구려가 이에 저항하자 수는 여러 차례 고구려를 침공하였지만 실패하고, 결국 멸망하였다.



▲ 「에빈도(중국 시안 장희 태자 묘 벽화) 당의 관리가 당을 찾은 외국의 사신을 맞이하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당도 자국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주변국에 요구하고, 주변국이 저항할 때에는 적극적으로 군사 활동을 전개하였다. 당이 돌궐을 대적으로 공격하여 일시 복속시켰던 것이라든가, 고구려를 침공하였던 것 등이 그러한 사례이다.

한반도의 신라와 발해 등은 정권을 안정시키고 당의 선진 문물을 도입하기 위해 당 중심의 조공·책봉 관계를 받아들였다. 당의 지원을 통해 국내 통합을 유지하고, 대외적인 군사 위협에 대처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었다. 하지만 한반도의 각국은 수·당의 침략이나 간섭에는 강력하게 대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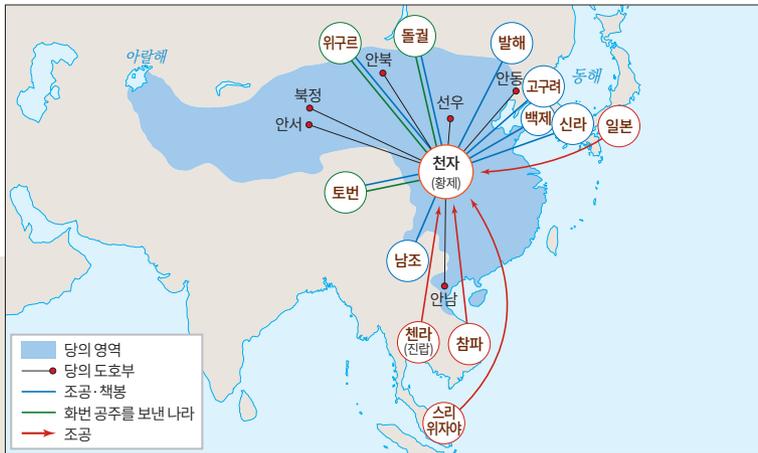
고구려가 수의 사신을 통제할 방법을 생각해 보자.

Q 고구려의 영양왕은 수의 사신을 빈 객사에 앉혀 놓고 삼엄한 경계를 펴며 눈과 귀를 막아 영영 듣지도, 보지도 못하게 하였다. 무슨 음흉한 계획이 있기에 우리 수가 아는 것을 원치 않으며, 또 우리 수의 관료를 통제하며 그들이 살펴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 『수서』 -

위 사료에서 보듯 이 시기의 조공·책봉 관계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모습을 지니고 있었다.

일본은 수가 건국된 직후 견수사를 파견하고, 당이 세워진 뒤에는 활발하게 견당사를 파견하였다. 신라와 발해에도 사신을 파견하였다. 하지만 8세기 말 헤이안 시대에 접어들어 점차 다른 나라와의 외교적 교류를 단절하였다.



◀ 당 대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 동아시아뿐 아니라 북방 민족 및 동남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당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당과 북방 민족

북방 민족은 당 중심의 외교 질서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돌궐과 위구르, 토번 등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의 책봉을 거부하였다. 돌궐은 6세기 중엽 국가를 건설한 이후 국력을 떨쳐 한때 당이 신하를 자처하였다. 이후 돌궐은 당에 멸망하였으나, 7세기 말 당의 간섭을 물리치고 국가를 부흥하였다.

위구르와 토번은 당에 복속되지 않은 채 경제 교류를 위한 조공 관계만을 원하였다. 이들은 당이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공격하기도 하였다. 8세기 이후 국력이 쇠퇴한 당은 이들의 군사적 공격을 막기 위해 화번 공주를 파견하였다.



▲ 켈 테긴 비(몽골 호소 차이담)
8세기 초에 세워진 비석으로, 당에 대한 경계심과 자주 의식이 돌궐 문자로 잘 표현되어 있다. 돌궐 문자(고대 튀르크어)는 동아시아의 유목 민족 사이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문자이다. 또한 한자를 제외하고 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문자이기도 하다.

자국 중심의 천하관 대두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국가는 주변과 교류하며 자국 중심의 질서를 적용하려 하였다. 고구려는 4세기 말 이후 천손 국가라 여기는 독자적인 천하관을 지니고 신라와 백제를 복속국처럼 여겼다. 신라는 형식상 당에 조공하면서도 당을 한반도 바깥으로 몰아냈다. 또한 발해에 대해서도 자국을 상위에 놓는 외교 질서를 주장하였다.

발해는 건국 초 당과 책봉 관계를 맺었지만, 한때 당을 공격하는 등 당 중심의 국제 질서에 편입되기를 거부하였다. 또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 돌궐과 연대하고 일본과 교류하였다. 이후 당과 친선 관계를 맺었으나,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는 등 주체적 태도를 견지하였다.

일본은 중원 왕조 중심의 조공 질서에 대단히 소극적이었다.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고, 대국을 자처하며 신라와 발해보다 상대적 우위를 주장하여 갈등을 빚었다. 이러한 외교적 마찰로 8세기 말 신라와 일본의 외교는 완전히 단절되었다.

동아시아사 백과

동아시아 각국의 천하관



태왕의 은혜와 혜택은 하늘에 두루 미쳤으며 위엄과 무공은 온 세상에 떨쳤도다. …… 백제와 신라는 과거 우리의 속민이었기에 조공을 해 왔다.

- 광개토 대왕릉비 비문 -

짐은 제왕으로서 하늘의 도에 어긋나지 않게 노력한다.

- 마운령 진흥왕 순수비 비문 -

왜 사신이 가져온 국서에 이르기를,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 지는 곳의 천자에게 글을 보내노라. 평안하신가?’라고 하였다. 수 양제가 불쾌히 여겨 “앞으로는 오랑캐의 글 가운데 무례한 것은 보고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 『수서』 -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중원 왕조와 조공·책봉 관계를 맺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자국 중심의 천하관을 지니고 있었다. 이러한 천하관에 근거하여 때로는 주변국에 조공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인물 | 사건 | 문화 | 제도

화번 공주(和蕃公主)



화번 공주는 중국의 한이나 당과 같은 중원 왕조가 북방 민족 등 이민족 군주에게 출가시킨 공주(황족 여인)를 일컫는다. 중원 왕조는 왜 주변국에 화번 공주를 보냈을까? 또 화번 공주는 동아시아의 외교 질서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였을까?

한나라 때 흉노의 선우에게 ▶
시집가는 왕소군



자료 1

(수 문제) 개황 17년(597) 돌궐의 돌리 가한이 사신을 보내 공주를 보내 달라고 하였다. 황제는 사신을 태상시에 머무르게 하고 그들에게 육례를 가르친 다음, 종실의 딸인 안의 공주를 돌리 가한에게 시집보냈다.

- 『수서』 -

안의 공주

자료 2

(토번의) 농찬은 돌궐, 토욕혼이 모두 (당의) 공주와 혼인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사신을 보내 폐물을 갖추어 구혼하였지만, 황제가 허락하지 않았다. …… (농찬이) 군대 20만을 동원하여 송주를 침범하고, 사자를 보내 예물을 바친 다음 다시 공주를 맞이하고 싶다고 이르게 하였다. …… (태종은) 종실의 딸인 문성 공주를 보내기로 하였다.

- 『신당서』 -

문성 공주

자료 3

북방의 만이는 예로부터 대대로 중원에 침범하여 난폭한 짓을 해 왔다. 지금 *철륵의 설연타는 완강하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서두르지 않으면 안 된다. …… 저들에게 화친을 바라게 하여 혼인의 인연을 맺는 것이 좋다. …… 북방 민족의 습속은 여인의 권세가 강하여 무슨 일이든 여인의 주장에 좌우되는 일이 많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내 딸이 자식을 낳는다면 그 아이는 내게 외손자가 된다. 외손자라면 반드시 중국에 대한 침략을 일삼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국경 주변이 30년간 무사할 것이다.

- 『정관정요』 -

*철륵: 튀르크계 부족

당 태종 ▶



1 화번 공주의 사전적 의미를 조사해 보자.

2 자료 2 와 자료 3 에 나타난 화번 공주의 정치적 의미를 말해 보자.

916 거란건국 918 고려건국 960 송건국 1115 금건국 1127 남송성립 1185 가마쿠라 막부성립

학습 목표 북방 민족의 성장으로 재편된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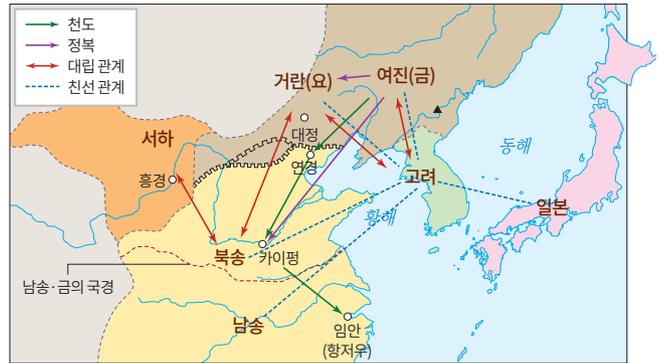
새로운 국제 질서의 형성

10세기 이후 동아시아에 또다시 새로운 국제 질서가 나타났다. 이전까지 절대적인 강자로 군림하던 중원의 당이 쇠퇴하고 주변 민족이 발흥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여러 나라가 다각적으로 상호 교류하는 다원적 국제 관계가 형성되었다.

중원에서는 당이 멸망하고 5대 10국의 분열이 한 동안 계속되었다. 혼란을 피해 화북의 주민들이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이들을 따라 선진 문화가 전파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문물의 유입은 북방 민족의 성장을 촉진하였다.

10세기 초 거란족이 랴오허강 상류에서 국가를 수립하고 세력을 넓혀 갔다. 11세기 초에는 탕구트족이 서하를 수립하였고, 12세기 초에는 만주의 여진족이 금을 세웠다. 이러한 북방 민족의 국가는 10세기 중반 중원을 통일한 송과 각축을 벌이며 다각적으로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한편 한반도에서는 918년에 고려가 건국되어 후삼국의 분열을 수습하였다. 일본 열도에서는 12세기 말 헤이안 시대가 끝나고 무사 정권이 들어섰다.



▲ 10~12세기 동아시아의 정세

◆ 5대 10국

10세기 당과 송 사이에 있었던 분열 시기이다. 이 시기 중국에서는 5개의 왕조가 연이어 세워지고, 동시에 여러 지역에 10개의 나라가 할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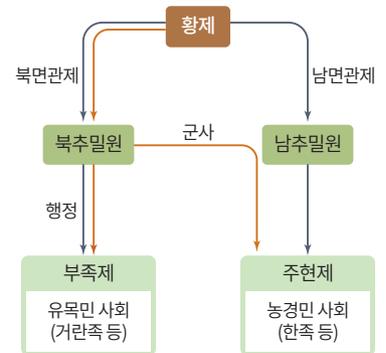
◆ 연운 16주

오늘날의 베이징과 다둥 지역을 포함한 16개의 주. 만리장성 이남에 위치하지만 10세기 중엽 이후 거란이 차지하였다.

거란족의 국가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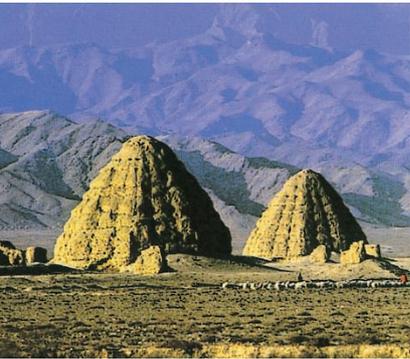
중원이 5대 10국의 혼란에 빠져 있던 시기, 북방의 초원 지대에서는 돌궐과 위구르가 쇠퇴하고 랴오허강 상류 일대에 거주하던 거란족이 발흥하였다. 916년 야율아보기는 부족을 통일하고 거란을 건국하였다. 이후 거란은 동쪽으로 발해를 멸망시키고 남쪽으로는 만리장성 이남의 연운 16주를 차지하였다. 11세기 초에는 송을 공격하여 매년 막대한 양의 비단과 은을 받는 조건으로 맹약(전연의 맹)을 체결하였다.

거란은 국호를 ‘요’로 바꾸고 유목민에게는 고유의 관습을, 농경민에게는 중국적인 지배 방식을 적용하는 이원적 지배 체제를 채택하였다. 이를 북면관제와 남면관제라고 부른다. 또한 거란 문자를 제정하여 고유의 전통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불교를 숭상하였다.



▲ 거란의 이원적 지배 체제 유목민과 농경민에게 행정적으로는 다른 통치 방식을 적용하였으나, 군사적으로는 북추밀원이 일원적으로 통제하였다.

탕구트족과 여진족의 발흥



▲ 서하의 왕릉(중국 닝샤 후이족 자치구)

◆ 맹안·모극제

여진족 고유의 사회·군사 조직으로 300가구가 1모극, 10모극이 1맹안이다. 1모극에서 병사 100명을, 1맹안에서 병사 1,000명을 징발하였다.

11세기 초 티베트 계통의 탕구트족이 서하를 세웠다. 서하는 비단길의 동부를 장악하고 동서 교역을 중계하며 발전하였다. 과거제 등 중국식 제도로 체제를 정비하는 한편, 독자적인 문자를 제정하여 고유의 문화를 유지하려 하였다. 송은 서하를 제압하기 위해 대군을 파견하였으나 실패하였다. 결국 맹약을 맺어 독립을 인정하고, 매년 막대한 물자를 제공하였다(1044).

12세기 초 만주 일대에서는 여진족이 발흥하여 아구다가 부족을 통합하고 금을 세웠다(1115). 금은 송과 연합하여 요를 멸망시키고, 이어 송의 수도 카이펑까지 함락하였다. 송은 화북 지방을 금에 빼앗기고 강남만을 지배하게 되었다. 금은 송(남송)을 굴복시켜 맹약을 체결하고 매년 막대한 물자를 받았다. 또한 금은 송에 신하를 칭하도록 하였으며, 고려와 서하도 압박하여 조공을 바치게 하였다.

금은 요의 이원적 지배 체제를 계승하여 유목민은 맹안·모극제를 적용하고, 한족 등의 농경민은 중국식 제도로 다스렸다. 금은 독자적 문자를 제정하고 여진족 고유의 풍습을 유지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점차 중원 문화에 동화되어 갔다.

송의 대외 관계와 교역

송을 세운 조광윤(태조)은 5대 10국의 분열을 통일하였다. 그는 무인과 절도사의 권한을 축소하고 문치주의를 채택하였다. 아울러 과거제의 위상을 강화하고 전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황제권이 강화되고 문신 관료제가 확립되었다. 그러나 문치주의는 군사력의 약화를 초래하여 송은 거란(요), 서하, 금 등에 군사적인 열세를 보였다.

◆ 전시

과거의 마지막 단계로 황제가 주관하는 시험이다.

11세기 중엽 왕안석이 등장하여 재정 수입을 늘리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신법을 시행하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당쟁이 일어나고 국론이 분열되었다. 이후 송은 금의 침공을 받아 강남으로 이주하였다.

한편 10세기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송을 중심으로 한 해상 교역이 크게 발달하였다. 조선술의 발달과 나침반의 이용 등으로 원거리 항해의 안정성도 높아졌다. 송은 명주, 취안저우, 광저우 등의 주요 항구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해상 무역을 관할하게 하였다. 송의 무역 상대국은 동아시아를 넘어 동남아시아와 아라비아까지 확대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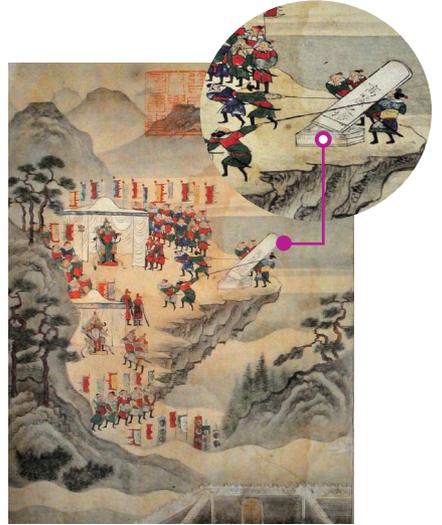


▲ 10세기 후반~11세기의 동아시아 교역

고려의 대외 관계

고려는 발해를 멸망시킨 거란에 적대 정책을 취하였다. 이에 거란은 고려를 침공하였다. 1차 침입 때는 서희가 외교 담판을 벌여 송과 관계를 끊겠다고 약속하는 대신 강동 6주를 확보하였다. 고려는 이후에도 계속된 거란의 침공을 막아 냈으나, 실리 확보를 위해 거란과 친선 관계를 맺고 조공하였다.

12세기 초 여진족이 성장하자 고려는 윤관을 파견하여 정벌에 나섰다. 윤관은 별무반을 이끌고 나가 여진을 물리치고 동북 지방에 9성을 쌓았으나 1년 여 만에 돌려주었다. 이후 여진은 금을 세우고 강대국으로 성장하면서 고려에 조공을 요구하였고, 고려 조정은 결국 금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한편 고려는 거란, 금에 조공하면서도 송과 계속 교류하며 송의 문물을 수용하였다.



▲ 「척경입비도」(한국 고려대박물관) 윤관이 여진을 정벌하고 비석을 세우는 그림으로, 조선 숙종 대에 그려졌다.

일본의 대외 관계

일본은 10세기 이후 주변국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를 축소해 나갔다. 그러나 송과 활발히 무역하며 많은 양의 동전을 들여오는 등 주변국과 교역을 지속하였다. 송의 동전은 일본 열도에서 점차 보편적 통화로 사용되었다. 일본은 불교 승려를 통해 송과 교류하였고, 쓰시마를 통해 고려와 교류하였다.

12세기 말에 헤이안 귀족들의 힘이 약해지고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가마쿠라 막부를 수립하였다. 가마쿠라 막부는 요리토모 사후 호조씨에게 실권이 넘어갔다. 가마쿠라 막부도 주변국과 외교 관계를 맺지는 않았지만, 민간 교류까지 억제하지는 않았다. 이에 따라 송과 활발하게 해상 교역을 하였으며, 많은 수의 승려가 송에 건너가 불교를 공부하고 돌아왔다.

탐구 활동



11~12세기 동아시아의 맹약

역사 강의를 활용 및 안내

자료 1

송과 거란 사이 '전연의 맹'

거란과 강화하고 천하에 사면령을 내렸다. …… 거란에 매년 은 10만 냥, 비단 20만 필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며 서로 남조와 북조로 칭하기로 하였다. - 『송사』 -

자료 2

금과 남송 사이 '소흥 화의'

황제는 강왕을 황제로 책봉하고 국호를 송이라 하여 대대로 신하로 복종토록 하였다. 송은 매년 은 25만 냥과 비단 25만 필을 바치기로 하였다. - 『금사』 -

1. 자료 1 과 자료 2 의 외교 관계가 체결된 배경을 각각 말해 보자.
2. 수·당 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와 송 대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를 비교하여 설명해 보자.

3 몽골 제국의 등장과 동아시아

1206 칭기즈 칸, 몽골 제국 건설
1234 몽골, 금정복
1270 고려, 개항으로 환도
1271 몽골 국호를 원으로 개칭
1274 원, 제쳐, 일본 침공
1279 남송 멸망

학습 목표 몽골 제국의 등장으로 나타난 동아시아의 상황을 설명할 수 있다.

몽골 제국의 성립과 발전

13세기 초 몽골 초원에 테무친이 등장하여 몽골계 부족을 통합하고 몽골 제국을 건설하였다(1206). 그는 쿠빌타이에서 칭기즈 칸으로 추대된 다음, 친위대를 조직하고 천호제를 재편하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초원 지역 유목민의 역량을 결집한 몽골의 군사력은 사방으로 뻗어 나갔다. 먼저 서하와 금을 공격하여 굴복시키고, 이어 중앙아시아의 호라즘을 정벌하여 비단길을 장악하였다. 칭기즈 칸 사후 몽골 제국은 동으로는 금을 멸망시키고, 서로는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와 동유럽까지 정복하여 유라시아 대륙을 아우르는 대제국으로 발전하였다.

쿠빌라이 칸 시기에는 수도를 카라코룸에서 대도(오늘날의 베이징)로 옮기고 국호를 원으로 바꾸었다(1271). 쿠빌라이 칸은 중국식 연호와 관료제를 수용하였다. 또 남송을 멸망시키고 일본과 베트남, 자와 등지에 원정군을 파견하였다.

원은 지방에 행성을 설치하고 각지에 다루가치를 파견하여 정치를 감독하였다. 또한 주민을 몽골인, 주로 이슬람교를 믿던 서역계 색목인, 한인, 남인으로 분류하여 다스렸다. 몽골인은 정치와 군사를 맡고, 색목인은 재정을 담당하며 지배층으로 군림하였다. 반면에 한인과 남인은 피지배층이었다. 특히 남중국인은 남인이라 불리며 다른 계층보다 훨씬 무거운 부담을 져야 했다.

◆ 쿠빌타이

몽골 제국을 구성하는 주요 부족장 회의로, 국가의 주요 사항을 만장일치제로 결정하였다.

◆ 천호제

주민을 백호, 천호, 만호 단위로 편성하는 군사와 행정을 일치시킨 조직이다.

◆ 호라즘

11~13세기 중앙아시아 지역에 있던 이슬람 제국이다.

동아시아사 백과

칭기즈 칸과 쿠빌라이 칸



▲ 칭기즈 칸(?~1227)

칭기즈 칸은 인류 역사상 영토가 가장 넓은 제국을 건설하였다. 그는 부족 국가였던 몽골을 중국의 화북 지방과 중앙아시아·이란 고원까지 지배하는 대제국으로 발전시켰다. 그의 출현과 함께 인류의 역사는 교통과 교류 측면에서 혁신적으로 발달하였다.

쿠빌라이 칸은 칭기즈 칸의 손자로 1260년 칸 자리에 올랐다. 그의 집권 시기 몽골 제국은 최대 판도를 이루었으나, 내분으로 말미암아 서방의 3울루스(한국)가 자립하였다. 쿠빌라이 시기 제국의 중심은 중국 쪽으로 이동하였다.



▲ 쿠빌라이 칸(1215~1294)

*울루스(한국): 나라, 국가의 의미. 최고의 정치 지배자는 칸이라 불렀다.

동아시아 각국의 대몽골 항쟁

몽골은 고려에 무리한 공물을 요구하다 몽골 사신의 피살 사건을 빌미로 고려에 침입하였다. 고려 조정은 강화도로 천도하여 장기전을 벌였고, 내륙에서는 백성이 치열하게 저항하였다. 최씨 무인 정권이 붕괴한 후 고려 정부는 몽골과 강화하고 개경으로 환도하였다(1270). 이후에도 삼별초를 중심으로 항전이 계속되었지만, 곧 진압되었다.

베트남은 세 차례에 걸쳐 몽골의 침공을 받았다. 쩐 왕조는 수도인 탕롱(오늘날의 하노이)이 함락되는 등 위기를 맞았으나, 쩐흥다오의 활약으로 몽골군을 격퇴하였다. 이후 쩐 왕조는 몽골의 압박을 피하고자 조공을 바치고 강화하였다.

몽골군은 고려를 복속시킨 다음 일본에 조공을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고려·몽골 연합군을 편성하여 일본 정벌에 나섰다. 하지만 가마쿠라 막부의 저항과 폭풍우로 원정에 실패하고 말았다. 남송을 점령한 다음에도 일본에 더 많은 수의 원정군을 보냈지만, 이번에는 규슈에 제대로 상륙하지도 못한 채 폭풍우를 만나 실패하고 말았다.

몽골의 침입은 동아시아 각국에 민족의식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고려에서는 『삼국유사』, 『제왕운기』 등이 편찬되어 단군을 시조로 하는 역사관이 자리 잡았다. 베트남에서는 항전 과정에서 『대월사기』가 편찬되었으며, 항전의 승리로 민족적 자부심이 높아졌다. 일본에서는 ‘신의 특별한 가호를 받는다.’라는 신국 의식이 널리 퍼졌다.



▲ 『몽고습래회사』(일본 궁내청) 규슈 북부에 상륙한 몽골군과 일본군의 전투를 그린 것이다.

◆ 『대월사기』

1272년 레반흐우가 저술한 편년체 역사서로, 기원전 3세기부터 13세기 초까지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



▲ 몽골 제국의 대외 정복 전쟁

교역망의 통합과 교류



▲ 역참의 통행증



▲ 마르코 폴로(1254~1324) 원대 중국을 방문하여 『동방견문록』을 남겼다. 이 책을 통해 그는 중국의 역참을 비롯한 선진 문명을 유럽에 알렸다.

몽골 제국은 광대한 영역을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수도에서 각지에 이르는 도로망을 정비하였다. 주요 도로에는 일정 간격으로 역참을 설치하였다. 도로와 역참은 관료 및 군대의 왕래를 위한 것이었으나, 여행자나 상인 등 일반인도 당국의 승인을 받아 이용할 수 있었다. 통행증을 지닌 사람은 누구나 역참에서 숙소와 식사, 말 등을 받아 안전하게 여행하였다.

제국이 안정되자 유라시아 대륙의 인적·물적 교류가 활성화되었다. 초원길과 사막길(비단길), 바닷길을 따라 수많은 상인과 여행자가 오갔다. 이러한 동서 교류를 통해 서아시아의 천문학·역법·수학·지도학 등이 동아시아에 전해졌으며, 중국의 인쇄술·나침반 등이 서아시아와 유럽에 전파되었다. 또한 몽골 제국에서는 개방적인 문화가 형성되었고, 이슬람교와 크리스티교가 상당한 교세를 얻었다.

해상 교역도 활발하여 항저우, 취안저우, 광저우 등의 항구가 무역으로 번성하였다. 몽골 조정은 이들 도시에 시박사를 설치하여 동남아시아와 인도양으로 나가는 무역선을 관리하였다. 13세기에는 항저우와 취안저우를 중심으로 고려, 일본, 베트남, 동남아시아를 잇는 동아시아 교역망이 형성되었다.

고려 또한 몽골 제국 중심의 유라시아 교역권에 포함되었다. 고려의 무역항인 벽란도에는 각지의 상인들이 수시로 드나들었으며, 고려 상인도 취안저우 등지로 나가 교역하였다. 이러한 교역에 따라 원의 교초가 고려에 유입되었으며, 고려에서는 상당량의 은이 유출되기도 하였다. 일본은 원과 공식적인 외교 관계는 맺지 않았으나 활발하게 교역을 지속하였으며, 고려와도 교역하였다.

탐구 활동 2

몽골 제국 시기의 교통과 교역



자료 1

역참의 운영 실태

여행자에게는 중국이 가장 안전한 고장이다. 전국의 모든 역참에는 숙소가 있는데 관리자가 군사를 거느리고 상주하고 있다. 또 역참에는 식량을 비롯하여 여행자가 필요한 모든 것, 특히 닭과 쌀이 마련되어 있다.

- 『이븐 바투타 여행기』 -

자료 2

시박사 제도의 시행

쿠빌라이 이래 주변 각국과 왕래하며 교역할 때 상품의 10%를 상세로 징수하였다. 시박사의 관리가 징수를 담당하였다. 선박이 나갈 때나 들어올 때는 반드시 행선지를 기록하고 교역 물품을 조사하였다. 그다음 공문을 지급하여 왕래 기일을 규정해 주었다.

- 『원사』 -

1. 자료 1 을 참고하여 역참을 이용한 교통이 정비되면서 나타난 결과를 말해 보자.
2. 자료 2 를 참고하여 시박사가 설치된 목적을 말해 보자.

4 명의 건국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1336 무로마치 막부 수립
1368 명 건국
1392 조선 건국

학습 목표 명의 건국 이후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명의 건국

14세기 중엽 원이 쇠퇴하자 홍건적 출신의 주원장이 일어나 난징에 도읍하고 명을 건국하였다(1368). 이어 대도를 점령하고 몽골 세력을 초원 지역으로 내쫓았다. 명 태조(홍무제)는 한족 문화의 회복에 노력하여 몽골 풍습을 금지하고 성리학을 중시하였다. 또한 육유를 제정하여 유교적 통치를 시행하였으며, 재상제를 폐지하여 6부를 황제에게 직할시킴으로써 황제권을 강화하였다.

진이 처음으로 재상을 두고 얼마 있지 않아 망하였다. 한·당·송이 이 재상제를 이어받았는데, 때로 현명한 재상도 존재했지만 사이사이 소인이 권력을 농단하고 정치를 어지럽히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 왕조에서 재상을 폐지하고, 오부·육부·도찰원·대리시 등의 기구를 두어 천하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되 서로 견제하며 감히 서로 간섭하지 않으며, 만사를 모두 조정에서 총괄하게 하는 것은 온당한 바이다.

- 『명 태조실록』 -

육유

백성의 교화를 위한 6개 항목의 대 원칙으로 부모에 대한 효도, 윗사람에 대한 공경, 향촌에서의 화목, 자손의 교육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홍무제가 재상제를 폐지한 까닭을 말해 보자.

영락제는 적극적인 대외 정책을 채택하여 북으로는 수차례에 걸쳐 몽골을 원정하고 남으로는 한때 대월을 점령하였다. 또한 자금성을 세워 베이징(대도)으로 천도하였다.

조선의 건국

명의 건국과 비슷한 시기에 한반도에서도 새로운 왕조가 등장하였다. 고려 말 군사력을 장악한 이성계는 혁명과 신진 사대부의 지원을 받아 조선을 건국하였다(1392). 조선은 교통과 군사적 요지인 한양으로 수도를 옮겼으며, 성리학을 통치 이념으로 삼고 명과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적극적으로 북방 진출을 도모하였다. 세종 때 여진족을 토벌하고 4군과 6진을 설치함으로써 압록강과 두만강 이남의 영토를 확보하였다.



▲ 『아연사준돈』(한국 고려대박물관) 조선 세종 때 김충서가 6진을 개척하던 시기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다.

▼ 자금성(중국 베이징) 명·청 시대의 황제가 지내던 궁전으로, 황제 권력의 방대함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무로마치 막부의 성립과 발전

가마쿠라 막부는 두 차례에 걸친 몽골의 침략을 격퇴하였으나 이후 쇠퇴의 길로 접어들었다. 전쟁과 혼란으로 궁핍해진 무사들은 막부에 불만을 품고 천황의 명에 따라 가마쿠라 막부를 무너뜨렸다. 이후 천황 권력에 반발한 무사들의 지지를 받은 아시카가 다카우지가 교토에 무로마치 막부를 세웠으나(1336), 곧이어 천황이 둘로 나뉘어 대립하는 남북조의 분열기가 14세기 말까지 계속되었다.

무로마치 막부는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쓰에 이르러 비로소 일본 열도에 대한 지배권을 확립하였다. 그는 남북조의 분열을 종식하고 명의 책봉을 받아 국교를 수립하였다. 또한 명의 요구에 따라 왜구를 단속하였다.

국제 질서의 재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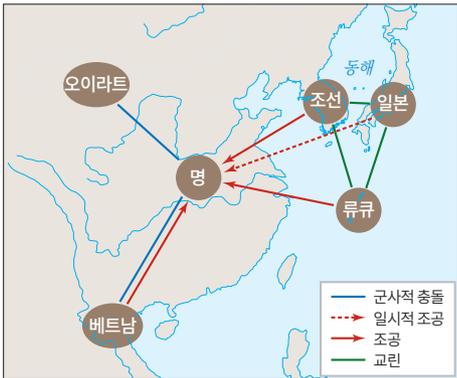
요동 정벌

정도전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던 요동 수복을 위한 노력, 군사 훈련 및 군량미 운송과 함께 여진족과 연대하는 정책이 추진되었다.

명은 건국 이후 주변국에 조공·책봉 관계를 요구하였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에서는 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조선, 류큐, 여진뿐 아니라 한동안 중원 왕조와 외교 관계를 단절하고 있던 일본도 포함되었다.

심지어 정화의 원정 이후에는 동남아시아도 명에 사신을 파견하여 조공하였다.

하지만 명과 맺어진 조공·책봉 관계는 각국의 사정에 따라 서로 달랐으며, 한 나라 안에서도 시대 상황에 따라 명과의 관계가 변하였다. 조선은 건국 직후 요동 정벌을 추진하면서 명과 대립하는 자세를 취하였으나, 태종 때에 이르러 비로소 명과 안정적인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일본은 영락제 때에 아시카가 요시미쓰가 사절을 파견하여 무역을 요청하였다. 이후 무로마치 막부는 명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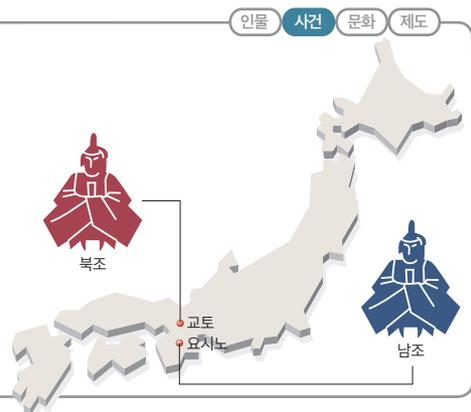
▲ 15세기 초의 동아시아

동아시아사 백과

일본의 남북조 시대

무로마치 막부가 수립된 직후, 고다이교 천황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남쪽의 요시노로 도망가 막부와 대립하였다. 이에 막부는 교토에 다른 천황을 옹립하여 일본 열도에는 두 명의 천황이 병존하게 되었다.

이처럼 요시노(남조)와 교토(북조)로 분열된 시기를 남북조 시대라고 부른다. 이 분열은 1336년부터 57년간 계속되다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 때 남조가 북조에 양위하는 형식으로 종결되었다.



스스로 학습



1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조공·책봉	<input type="text"/>	중원 왕조가 주변국의 군주에게 그 지배권을 선언적으로 확인해 주는 것
	<input type="text"/>	주변국이 중원 왕조에 예물을 바치며 형식적인 존중을 표현하는 행위



한 대 이후 중원 왕조와 주변국 사이의 외교 형식으로 자리 잡음.

2 11~12세기의 동아시아 국제 정세를 나타낸 지도이다. (가), (나)에 해당하는 나라를 써 보자.



▲ 11세기의 동아시아



▲ 12세기의 동아시아



3 역사적 인물의 활동과 관련된 핵심 내용을 써 보자.



▲ 명을 건국한 주원장

#



▲ 원을 세운 쿠빌라이 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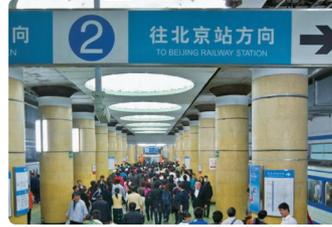


▲ 무로마치 막부의 3대 쇼군인 아시카가 요시미쓰

#

3 유학과 불교

	600	900	1200	1500
한국	삼국 시대	남북국 시대	고려	조선
중국	수	당	5대 10국 송(북송)	남송 원 명
일본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가마쿠라 시대	무로마치 시대



| 생각 열기 | 서울, 베이징, 도쿄의 지하철역 표지판이다.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이나 일본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때 한자를 알면 어느 정도 이러한 표지판을 읽을 수 있다. 또한 그 나라 말을 하지 못해도 간단한 한자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한자는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통용되는 문자이기 때문이다.

Q 한자 이외에 동아시아 문화권을 구성하는 공통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

1 율령과 유교

학습 목표 율령에 기반을 둔 통치 제도가 동아시아 각 지역에 수용되는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율령 도입과 진의 법치

율령은 동아시아 국가가 백성을 다스리는 주요 수단이었다. 율령에는 국가의 통치 조직, 관리의 복무 사항, 백성의 조세와 노역 등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처음에는 형벌 위주의 법률(율)이 중심이었으나, 점차 국가를 통치하기 위한 행정 법률(령)의 조항이 늘어났다. 율령은 많은 사람과 다양한 지역, 복잡한 사회를 다스리기 위한 통일적인 기준 역할을 하였다.

전국 시대에 상앙과 한비 등의 법가 사상이 활약하였는데, 법가 사상은 율령의 제정에 영향을 주었다. 진은 상앙을 등용하여 부국강병책을 실시하고 중앙 집권화에 성공하여 전국 시대 최강의 나라가 되었다. 한비는 '인간의 본성은 본래 악하다.'라는 순자의 견해를 수용하여 백성을 법률로 강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법가 사상가들은 윤리와 도덕을 강조하는 공자의 덕치주의가 현실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하였다.

중국을 통일한 진의 시황제는 법가 사상가인 이사를 중용하여 엄격한 법치에 입각한 정책을 시행하였다. 진이 멸망한 이후에도 진의 법률은 한에 계승되었고 법치주의는 후대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 상앙(?~기원전 338) 엄격한 법 집행으로 유명한 법가 사상가이자 정치가이다.

유교와 국가 통치 이념

법가 사상에 기반을 두어 나라를 다스린 진이 멸망하자,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유교가 새로운 국가 통치 이념으로 떠올랐다. ‘덕이 있는 자가 하늘의 명령으로 군주가 된다.’라는 유교의 천명사상은 황제의 통치를 정당화하고 권위를 뒷받침하였다. 또한 ‘효’와 ‘인’, ‘예’를 중시하는 유교 사상은 향촌 질서를 유지하고 백성의 자발적인 복종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이었다.

한 무제는 동중서의 사상을 받아들여 유교를 국가 통치 이념으로 삼고자 하였다. 무제는 국가 기관으로 오경박사를 두어 오경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지방에서 추천을 받은 유교 지식인을 비롯해 유교 도덕에 충실한 인물을 관리로 임명하였다. 그 결과 유학의 교양과 덕목을 익힌 자가 관리가 된다는 원칙이 세워졌다.

유교가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작용하면서 법률에도 유교 사상이 반영되었다. 그렇지만 법가 사상이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었다. 무제 역시 겉으로는 유교주의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엄격한 법치를 통해 나라를 다스렸다. 그 결과 한 대에 법가 사상과 유가 사상이 결합하여 통치 이념을 제공하였고, 이는 율령에 반영되었다.

한 대 이후 각 왕조가 율령을 제정하고 정비하면서 이를 체계화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이는 수·당에 이르러 율령 체제의 완성으로 이어졌다.



▲ 동중서(기원전 197~기원전 104) 한 경제 때 박사가 되어 많은 제자를 길렀고, 황제 중심 국가 체제를 도모하던 무제에게 크게 영향을 주었다.

◆ 오경

유교의 5가지 경서인 『시경』, 『서경』, 『역경』, 『예기』, 『춘추』를 말한다.

홍미진진 동아시아



한 고조와 육가, 말 위에서 어찌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한 고조 유방은 오늘날 장쑤성 출신으로, 유가 사상가를 만나면 갖에다 오줌을 눌 정도로 유가를 싫어하였다. 유방 주위에는 도살업자인 번래와 같은 장수가 많았기에 글 읽기를 중시하는 유가 사상가와 정서상 맞지 않았다.

초 항우를 굴복시키고 중국을 통일한 유방에게 유가 사상가인 육가는 유교의 경전인 『시경』과 『서경』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계속 아뢰었다. 이에 유방은 “나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었다. 『시경』이나 『서경』이 무슨 쓸모가 있느냐?”라고 비판하였다.

그러자 육가는 “말 위에서 천하를 얻을 수는 있지만, 말 위에서 어찌 천하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만일 진나라가 천하를 통일한 후 인의(仁義)를 따르고 옛 성왕의 길을 지켰다면, 폐하께서 어찌 천하를 얻으실 수 있었겠습니까?”라고 반문하였다. 유방은 그 말이 옳다고 여겨 육가의 주장을 담은 책을 펴내도록 하였다.

이후 인의를 강조하는 유가 사상은 점차 세력을 얻게 되었고, 무제 때에 이르러 나라를 다스리는 이념으로서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 유방과 육가

수·당의 율령 정비와 당의 통치 제도

수·당 대의 율은 이전 시대와 달리 신체에 대한 가혹한 처벌을 완화하여 매로 다스리는 태형과 장형, 노역을 시키는 도형, 유배를 보내는 유형, 목숨을 끊는 사형이란 5가지 형벌로 간소화하였다. 율은 사회 신분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었고, 유교 윤리를 반영하여 불효에 해당하는 부자 사이의 범죄가 엄격히 처벌되었다. 영은 관리 선발, 행정 기구, 세금 징수 등 국가를 운영하고 백성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각종 제도와 규범에 대한 법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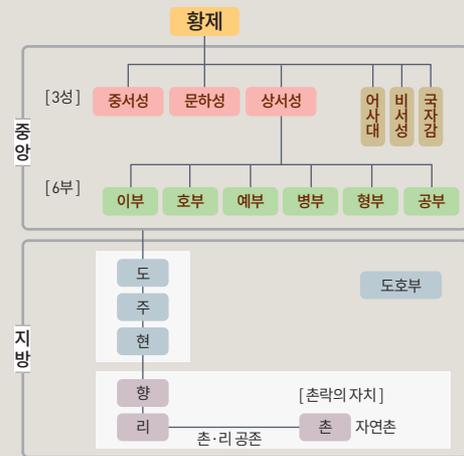
수·당은 이전부터 존재하던 율령 이외에, 율령을 추가 보완한 ‘격’, 율·령·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행할 것인지를 명시한 ‘식’을 새로 도입하였다. 이로써 율·령·격·식의 율령 체제가 완성되었다.

율령 체제를 완성한 당은 백성을 균전제, 조용조제, 부병제를 통해 지배하였다. 균전제는 일정한 기준 아래 토지를 농민에게 분배하는 제도로, 토지를 받은 농민은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조용조라는 조세를 바쳤다. 또 부병이 되어 변경 수비, 도성 방어 등을 담당하였다. 이러한 율령 체제는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도 전파되어 이들 지역에서 통일 국가가 성립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

동아시아 각국의 중앙 관제

당은 중앙에 3성 6부를 두었다. 3성은 황제의 명령을 문서로 작성하는 등 정책을 입안하는 중서성, 이를 심의하는 문하성, 정책을 집행하는 상서성으로 이루어졌다. 실무 행정 부서인 6부는 상서성에 속하였다.

지방에는 주·현을 두고 지방관을 파견하여 다스렸으며, 정복지의 이민족을 다스리기 위해 도호부를 설치하였다.



▲ 당의 관제

동아시아사 백과

당률의 특징

당률은 “예를 법에 반영한다[以禮入法].”라고 하여 유교의 예를 바탕으로 성립한 중국의 법률을 잘 보여 준다. 혈연관계에 있는 윗사람이 아랫사람보다, 양인이 천인보다, 남편이 처보다 법적 지위가 우월하였다. 그래서 전자가 후자를 범하면 처벌이 가볍거나 아예 죄로 인정하지 않기도 하였으나, 후자가 전자를 범하면 중죄에 처하였다.

이는 한 대 이후 유교 사상을 지닌 관리들이 법률 제정에 많이 참여하면서 귀천·존비·장유에 따라 형벌에 차등을 두는 경향이 커졌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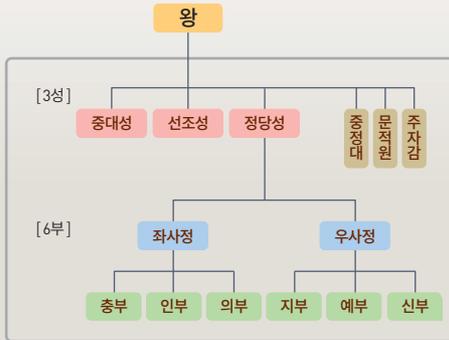
『당률소의』▶

당 대의 형법인 『당률』의 주석서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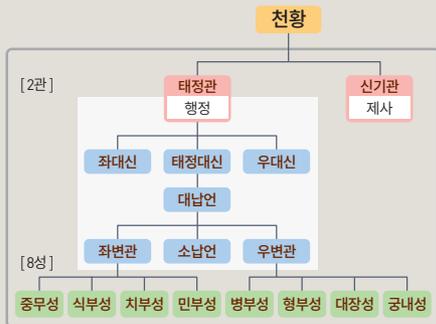


한반도 왕조와 일본 열도의 율령 체제 수용

발해와 일본은 당의 3성 6부제를 받아들여 중앙 정부 조직을 구성하였다. 하지만 그 명칭과 관직 체계는 자국의 실정에 맞게 운영하였다.



▲ 발해의 중앙 관제



▲ 일본의 중앙 관제

한반도의 삼국도 율령을 반포하여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특히 신라는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국가 체제를 정비하였다. 그러나 당의 율령을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골품제와 같이 관직 체계에서 고유성을 유지하였다. 신라는 세금 징수와 균역 및 요역 징발을 위해 백성의 호구와 재산을 파악한 신라 촌락 문서를 작성하였다.

발해는 당과 마찬가지로 중앙 관제로 3성 6부제를 도입하고 지방에 주현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3성 6부의 명칭과 관직 체계를 당과 달리하여 독자적으로 운영하였다.

일본은 수·당의 율령을 받아들이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다. 일본은 국가가 토지와 백성을 소유하고 백성의 생활을 보장해야 한다는 이념을 내세워, 백성에게 토지를 골고루 나누어 주는 반전수수제를 시행하였다. 701년에는 율과 령을 모두 갖춘 다이호 율령이 법전으로 완성되었다. 중앙에는 2관 8성을 두고 지방에는 국·군·리를 두어 당과 같은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를 만들고자 하였다. 그러나 씨족제적 전통이 강하게 남아 있어 수·당의 율령이 그대로 적용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탐구 활동 2

당과 일본의 토지 제도

자료 1

당의 균전제

*정남에게 영업전(永業田) 20무와 구분전(口分田) 80무를 지급한다. …… 구분전을 지급할 경우, 해를 걸러 경작하는 토지는 배로 지급한다. …… 영업전은 모두 자손에게 상속되며, 이것은 국가에 반환하거나 주는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 『천성령』 -

*정남: 당은 21~59세의 남자

*무: 토지 면적 단위

*구분전: 국가가 개인별로 나누어 주는 토지로, 지급 조건이 사라지면 국가에 반환해야 함.

자료 2

일본의 반전수수제

무릇 구분전(口分田)을 지급할 때 남자는 2단, 여자는 그 3분의 1을 감액하여 1단 120보를 준다. …… 해를 걸러 경작해야 하는 토지는 두 배를 지급하라. …… 무릇 전(水田)은 6년에 한 번 지급하라. 사원에 주는 토지는 여기에 적용받지 않는다. - 『영의해』 -

*단: 토지 면적 단위

1. 자료 1 과 자료 2 를 통해 당의 토지 제도가 일본의 토지 제도에 어떻게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해 보자.
2. 두 나라가 위와 같은 토지 제도를 시행한 목적을 설명해 보자.

교육 기관과 유학, 그리고 한자

중국과 한국의 문묘

유교가 중시되면서 공자를 모시는 사당인 문묘가 동아시아 각 지역에 세워졌다.



▲ 문묘(중국 베이징)



▲ 성균관 대성전(한국 서울)

한 대에 유교가 국가 통치 이념으로 채택되면서 중앙 교육 기관으로 태학이 설립되었다. 당 이후에는 율령 제도가 확립되어 행정 업무가 많아지자 한자로 이루어진 문서를 해독하고 작성할 수 있는 관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유교적 지식과 교양을 갖춘 관료가 늘어났다.

한반도에서도 한문을 능숙하게 해석하고 유교 지식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기관이 세워졌다. 고구려는 중앙에 태학을, 백제는 오경박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통일 후 신라는 국학을 설립하여 오경 등 유교 경전을 가르쳤다. 그리고 국학의 학생들을 경전의 이해 정도에 따라 3등급으로 나누고 관리로 임용하는 독서삼품과를 시행하였다. 이는 하급 관료를 충원하기 위한 제도로, 고위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 과거제를 시행한 중국과 달랐다.

일본 열도에서도 한자는 중국 및 한반도와 교류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었다. 백제를 통해 유교 경전을 수용하였고, 오경 등을 가르쳤다.



광개토 대왕릉비 비문(탁본)과 이나리아마 철검 ▲ 한반도에서는 5세기 초 광개토 대왕릉비 비문을 통해 한자의 사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열도에서도 5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는 사이타마현 이나리아마 고분에서 출토된 철검에 한자가 새겨져 있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동아시아 각국은 한자를 어떻게 사용하였을까?

한국	중국	일본
藝術	艺术	芸術

‘예술’이라는 한·중·일의 한자 표기로, 나라마다 모양이 다르다. 지역마다 독특한 특성이 존재하듯 한자도 한·중·일 각국의 사정에 맞게 변용되어 수용되었다.

중국에는 답(畷)이라는 한자가 없지만, 한반도에서는 논과 밭을 구분하여 봄부터 여름까지 물에 잠겨 있는 논을 ‘답’이라

하여 새로운 한자를 만들었다. 중국은 논과 밭을 전(田)이라 칭하였다. 일본은 중국을 따라 논을 전(田)이라 하면서도 밭에 해당하는 ‘畑(또는 畷)’이라는 한자를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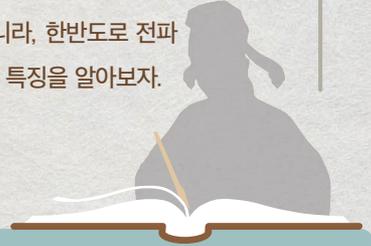
한·중·일은 한자라는 공통 글자를 수용하여 사용하면서도, 각국의 사정에 맞게 새로운 한자를 만들고 모양을 변형시키기도 하였다.

삼국의 각종 문화 발전에는 한자의 역할이 컸다. 이러한 한자를 매개로 율령, 불교, 유교가 전파되면서 동아시아 문화권이 형성된 것이다.

과거제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았던 나라에서는 주로 유교 경전의 시험을 통해 관리를 선발하는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수 대에 처음 시행된 과거제는 이후 중국의 왕조뿐 아니라, 한반도로 전파 되어 시대별·국가별로 조금씩 다르게 운영되었다. 각국에서 시행된 과거제의 특징을 알아보자.



- 수 대에 과거제가 시작되어 학식을 갖추면 관리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 당 대에 과거가 제도적으로 정비되었다. 초기에는 중요 사안의 해결책을 진술하는 수재과와 유교 경전 내용을 묻는 명경과가 중시되었으나, 점차 시문으로 시험을 보는 진사과가 인기를 얻었다.
- 송 대에는 과거의 최종 단계로 황제가 직접 시험을 주관하는 전시(殿試) 제도가 도입되었다. 또한 시험의 공정성을 마련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도입되었다.
- 명·청 대에는 과거제가 학교와 연계되었다. 학교의 입학시험을 통과한 생원에게만 과거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다.



▲ 전시의 도입 송의 태조 조광윤은 전시를 도입하여 황제권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 고려 광종 때 처음으로 과거제가 시행되었다. 문학적 재능과 정책을 시험하는 제술과, 유교 경전의 이해 능력을 시험하는 명경과, 기술학을 시험하는 잡과 등을 시행하였다.
- 조선은 태조 때 과거에 관한 법을 제정하고 정기 시험인 식년시를 3년마다 치렀다. 문과·무과·잡과·생원진사과 등이 있었다. 초시·복시·전시를 거치는 3단계 제도였으나, 과목에 따라 전시를 시행하지 않기도 하였다.



▲ 흥패 고려·조선 시대에 과거 최종 합격자에게 내린 증서. 붉은 바탕이었기에 일명 '흥패'라고 불렸다.

과거 급제자 축하 행렬 ▶



일본은 과거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그 대신 중국의 귀족제나 신라의 골품제처럼 가문의 혈통을 중시하면서도 가업(家業)의 형태로 관직을 세습하는 독특한 사회 제도를 만들었다.

과거제는 새로운 학자 관료층의 형성과 학문적 능력을 중시하는 사회 풍조 확산에 이바지하였습니다. 더불어 유학도 발전하였지요.

특히 각국의 군주들은 관료를 직접 선발함으로써 군주권 강화에 과거제를 이용하였습니다.



1. 과거제가 동아시아 각국에 끼친 영향을 알아보자.
2. 과거제를 통해 형성된 각 왕조의 사회 지배층을 말해 보자.

2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

학습 목표 동아시아 각 지역에 전파된 불교의 특징과 토착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기원전 6세기경 불교 창립
기원전 1세기경 대승 불교 출현
1세기경 중국에 불교 전래
372 고구려 불교 수용
6세기 중엽 일본에 불교 전래

대승 불교의 성립

기원전 6세기경 인도에서 브라만교에 반대하는 새로운 종교 운동이 일어났다. 그 가운데 석가모니가 창시한 불교는 평등을 강조하며 평민과 도시의 상공업자 사이에 널리 퍼졌다. 얼마 후 불교는 교리상의 대립으로 여러 부파로 나뉘었다.

기원전 1세기경이 되자 불교에 새로운 움직임이 발생하였다. 이들은 스스로 대승 불교라 부르면서 종래의 불교(상좌부 불교)를 소승이라고 불렀다. 대승 불교는 출가 수행자가 아닌 일반 신도의 깨달음을 중시하였다. 또 부처를 신격화하고, 부처의 자비로 대중이 구제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상좌부 불교는 주로 동남아시아로, 대승 불교는 북인도와 중앙아시아를 거쳐 동아시아에 전해졌다.

◆ 석가모니

'석가족 출신의 성인'이라는 의미이다.

◆ 상좌부 불교

개인적인 노력을 기초로 하여 해탈을 추구하는 불교의 한 갈래이다. 오늘날 스리랑카, 동남아시아 등 남방 불교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대승 불교의 중국 지역 전파

대승 불교는 1세기경 사막길을 통해 중국에 전해졌다. 이후 후한 말기를 지나 3세기 무렵 중국 사회에 점차 확산하기 시작하였다. 남북조 시대에는 국가 권력의 후원을 받아 더욱 세력이 확대되었다. 특히 북조의 황제들은 '황제가 곧 부처'라는 사상에 근거하여 자신의 지배를 정당화하였다.

불교가 사회에 뿌리내리면서 사원과 불상이 많이 만들어졌다. 북중국의 원강·룽먼 석굴 사원이 대표적인 유적이다. 남조에서도 불교가 크게 융성하였는데, 북조에 비하여 국가 권력과 거리를 두며 독자성을 유지하려 하였다.

불교의 전파



◀ 원강 석굴(중국 다둥)
북위 때인 5세기 후반에 만들어졌다. 가장 큰 불상들은 황제의 모습을 띠고 있다.



◀ 룽먼 석굴(중국 휘양)
5세기 후반 북위 시기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여 당 초기인 7세기 후반에 정점을 이루었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불교 수용

4세기경 한반도에도 불교가 전해졌다. 5호 16국의 하나인 북중국의 전진이 고구려에, 남중국의 동진이 백제에 불교를 전하였다. 신라는 고구려를 통해 불교를 받아들였다. 삼국은 중앙 집권 체제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불교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였다. 또한 지배층에 불교를 장려하면서 왕권을 강화하고 지방 세력을 중앙에 포섭하였다.

고구려와 백제에서는 큰 무리 없이 불교가 수용되었으나, 신라에서는 귀족들의 반발로 6세기 법흥왕 때에 이르러서야 불교가 공인되었다. 삼국 통일 이후에는 불교가 일반 민중에까지 널리 퍼졌다.

일본 열도에는 6세기경 백제를 통해 불교가 전해졌다. 일본에서도 불교는 외래 종교라는 이유로 토착 호족 세력의 반대에 부딪혔다. 이후 쇼토쿠 태자의 적극적인 후원 아래 점차 불교가 확산하였다. 수도인 아스카 일대에는 백제의 영향을 받은 사찰이 많이 세워졌고 불교문화가 융성하였다. 일본에서도 불교는 국가 권력을 강조하거나 체제를 정비하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 아스카사(일본 나라현) 596년에 세워진 최초의 본격적인 사원이다. 백제에서 파견된 기술자의 주도로 세워졌다.



▲ 백제 관음상(일본 나라현) 호류사에 있는 2.8m의 목조 관음보살상으로, 아스카 시대에 만들어졌다. 백제에서 건너온 사람이 만든 것으로 추정된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신라와 일본, 불교를 받아들이다

신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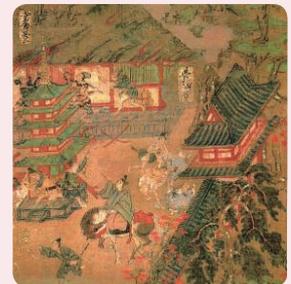
이차돈은 법흥왕 때 불교 공인 과정에서 귀족들의 반발로 희생되었다(527). 그가 왕명을 거역했다는 죄목으로 참수형을 당할 때 목에서는 몇 줄기 흰 피가 솟아나고 그 좌우로 꽃송이가 날렸다고 한다. 이에 놀란 왕과 신하들은 비로소 불교를 정식으로 인정하였다.



▲ 이차돈 순교비(한국 국립경주박물관)

일본

6세기 중엽 백제의 성왕 때 일본에 불상과 경전을 전해 주었다. 이에 일본에서는 불교의 수용을 두고 큰 대립이 발생하였다. 모노노베씨는 일본 토착 신이 노할 것이라 주장하였다. 하지만 친백제계인 소가씨가 쇼토쿠 태자와 연합하여 모노노베씨를 축출하고 불교를 널리 받아들였다.



모노노베씨의 불교 탄압 ▶

호국 불교와 정토 사상

동아시아의 불교는 개인의 해탈에 치중한 인도와 달리 호국 불교의 성격이 강하였다. 불교는 국가 권력을 장악한 황제나 왕을 중심으로 수용되어 군주의 권한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하였다.



▲ 향릉사 복원 모형(한국 국립경주박물관)

한반도 삼국에서도 불교는 국가를 안정시키고 사회를 통합하는 기능을 담당하였다. 6세기 중엽 신라 진흥왕은 내란과 외환을 막고 국가의 평안을 빌기 위해 대규모 법회를 자주 열었다. 호국 사찰인 황룡사도 이 시기에 세워졌다.

일본 열도에서도 불교는 국가의 후원을 받아 융성하였다. 8세기 중엽에는 국가를 지키는 사찰인 도다이사를 짓고 여기에 모든 재난을 막아 주는 힘을 지닌 대불을 조성하였다. 왕족 중에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사람도 적지 않았다.



◀ 도다이사의 금당(일본 나라현)

불교는 지배층뿐 아니라 일반 민중에게도 전파되었다. 귀족과 민중 사이에서는 염불을 통해 구원을 받고자 하는 정토 사상이 널리 유행하였다. 통일 신라의 원효와 가마쿠라 시대의 신란 등은 정토 사상의 체계화와 확산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인물 | 사건 | 문화 | 제도

동아시아사 백과

동아시아의 정토 사상, 원효와 신란



◀ 원효(617~686)

중국의 영향을 받아 한반도에서도 정토 사상이 유행하였다. 7세기의 인물인 원효는 잠결에 해골에 끈 물을 마시고 세상의 모든 일은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깨달음을 얻었다고 한다. 이후 원효는 민중 속으로 들어가 부처의 이름을 알리고 '나무아미타불'의 염불을 외우게 하여 불교를 대중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는 복잡한 수행을 통해서가 아니라 염불만으로도 구제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다.

일본 열도에서는 아미타불과 염불을 중시하는 정토 사상이 주요 종파로 발전하였다. 헤이안 시대부터 정토 사상이 유행하기 시작하여, 가마쿠라 시대에는 신란이라는 인물이 출현하였다. 그는 일본 정토종을 연 호넨의 제자로, 자신의 노력만으로는 성불할 수 없고 오로지 아미타불에 의지하며 염불할 때만 해탈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신란(1173~1262) ▶



불교의 토착화

불교는 동아시아 지역에 확산하면서 토착 신앙이나 전통 사상과 결합하였다.

진평왕 때 지혜라는 비구니가 불전을 수리하려고 하는데 돈이 모자랐다. 어느 날 꿈속에 아름다운 선녀가 나타났다.

“나는 선도산의 신모(神母)다. 네가 불전을 수리하는 것을 어여뻐 여겨 금 10근을 주겠노라. 내 자리 밑에서 금을 꺼내어 불상을 장식하고 벽에는 부처와 대중, 그리고 여러 천신(天神)과 산신을 그려 넣어라.”

- 『삼국유사』 -

자료에서 불교와 토착 신앙의 결합을 보여주는 내용을 말해 보자.

조상 숭배와 결부되어 죽은 사람의 명복을 비는 불교 신앙이 나타났고, 중국에서는 유교 윤리를 수용하여 효를 강조하는 『부모은중경』이라는 경전도 만들어졌다. 한반도에서는 불교가 발전하면서 칠성, 산신 등의 토착 신을 포용하였다. 이에 따라 사찰에 산신각, 칠성각 등이 세워졌다. 일본 열도에서는 불교가 일본 고유의 신앙인 신도와 결합하여 신불습합 사상이 출현하였다.

『부모은중경』

부모의 은혜가 깊고 크다는 내용의 경전으로, 인도가 아닌 중국에서 만들어졌다.

선종의 발달

동아시아에서는 다양한 불교 종파가 발전하였다. 그중 하나가 직관적 깨달음과 참선을 중시한 선종이다. 6세기 초 남인도 출신 달마가 선종을 세웠다. 한반도에서는 신라 말 새로운 세력으로 떠오른 지방 호족의 지원 아래 선종이 널리 퍼졌다.

일본 열도에서는 가마쿠라 시대 무사들 사이에 선종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선종의 직관이 순간적인 승부를 추구하는 무사도와 잘 맞았기 때문이다. 또한 선종은 문학, 다도, 정원 등 일본 문화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끼쳤다.



▲ 달마

동아시아사 백과

토착 신과 부처의 공존, 신불습합

불교는 동아시아에 전파되면서 토착 신앙과의 공존을 추구하였다. 중국에서는 불교의 공(空) 논리를 노장사상의 무(無)에 빗대며 중국인의 심성에 파고들었다. 한반도에서는 사찰 내에 토착 신을 모신 산신각이 건립되었다.

일본 열도에서는 신불습합이라 하여 토착 신과 부처를 동일한 존재로 이해하는 사상이 나타났다. 이를테면 불교의 비로자나불과 일본의 아미테라스 오미카미가 동일하다고 일컬어졌다. 부처가 일본인에게 친숙감을 주기 위해 토착 신의 모습을 띠고 나타났다는 것이다. 또한 신이 불교를 좋아하여 승려가 되었다는 관념도 등장하였고, 이를 반영한 하치만 신상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아미테라스 오미카미: 일본 신화에 등장하는 태양신으로, 일본 천황의 조상신으로 알려져 있다.



▲ 산신각(한국 강원)

◀ 하치만 신상(일본 나라현)

불교를 통한 교류



▲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한국 국립중앙박물관)

▲ 고류사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일본 교토)

불교가 동아시아에서 보편적 종교로 자리 잡으면서 각국 사이의 문화 교류가 더욱 활성화되었다. 중원에서 발달한 새로운 불교문화는 육로와 해로를 따라 동아시아 각지로 전파되었다.

남북조와 수·당을 거치며 중원에서는 천태종, 화엄종, 정토종을 비롯하여 선종 등의 다양한 종파가 발전하였다. 이러한 종파는 대부분 유학승을 통해 한반도와 일본에 전파되어 많은 영향을 끼쳤다. 불교 미술도 동아시아 각지로 전파되었다. 불상과 탑, 회화 등이 한반도의 삼국에 영향을 주었고, 주로 백제를 통해 다시 일본 열도로 전해졌다. 일본 호류사의 백제 관음상과 고류사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 사유상은 이러한 교류 상황을 잘 보여 준다.

중원의 사원 건축 양식도 한반도와 일본으로 전해졌다. 한반도와 일본에서는 사원의 거대한 건축물을 조성하기 위해 바닥에 커다란 초석을 놓고, 그 위에 붉은색으로 칠한 굽은 기둥을 세웠다. 그리고 건물 지붕은 기와로 덮었다. 이러한 건축 기술은 이후 궁궐 등의 거대한 건축물을 짓는 데도 이용되었다.

불경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인쇄술도 발달하였다. 8세기에 신라에서는 「무구정광대다라니경」이, 일본에서는 「백만탑다라니경」이 간행되었다. 송·요·금도 대장경을 간행하였으며, 고려도 여러 차례 대장경을 만들었다.

◆ 대장경

석가의 설법, 계율, 고승들의 저서 등을 망라하여 간행되었다.

한미친진 동아시아



동아시아의 탑은 어떻게 생겼을까?

탑은 부처의 몸에서 나온 사리를 모신 구조물이다. 고대 인도에서는 성인이 죽으면 화장하고 그 유골을 스투파에 보관하였다. 스투파가 중국에서 탑으로 번역되었다. 탑은 불상과 함께 가장 중요한 예배의 대상이 되었다.

동아시아의 탑은 재료에 따라 전탑, 석탑, 목탑으로 구분된다. 중국에서는 벽돌을 이용한 전탑이, 일본에서는 나무를 이용한 목탑이 유행하였다. 한반도에서는 초기에 전탑과 목탑이 적지 않았지만, 삼국 시대 말 이후 석탑이 주로 세워졌다.



▲ 대안탑(중국 시안) 당의 현장이 인도에서 가져온 불경을 보관하기 위해 벽돌로 세운 탑이다.



▲ 불국사 삼층 석탑(한국 경주) 통일 신라 때 세워진 한반도의 전형적인 3층 석탑이다.



▲ 호류사 오층 목탑(일본 나라현) 쇼토쿠 태자의 발원으로 만들어졌다고 한다.

동아시아 문화권의 성립

수와 당은 외래문화에 개방적인 세계 제국이었다. 특히 당의 수도 장안은 전성기에 인구 100만 명이 넘는 대도시로, 세계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이 찾아왔다. 많은 나라가 당과 교류하고자 사신을 파견하였으며, 많은 사람이 당의 문화를 배우기 위해 찾아들었다. 이 밖에 상인, 예술가 등 다양한 외국인이 장안에 체류하였다. 이에 따라 당의 수도 장안을 중심으로 각국의 종교와 문화가 교류되었다.

신라는 7세기 중엽부터 당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다. 신라인의 왕래가 잦아지며 산둥반도를 비롯해 당의 해안 지역에 신라방이 세워졌다. 발해도 당에 많은 학생과 승려를 파견하였다. 당은 산둥반도에 발해 사신을 접대하는 발해관을 설치하였다. 일본은 7세기 이후 활발하게 견당사를 파견하여 당의 문물을 도입하였다. 이로 말미암아 한동안 중국 문화가 ‘당풍’이란 이름으로 유행하였다.

교류가 활성화됨에 따라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인물이 나타났다. 신라의 최치원은 당의 과거에 합격하였으며, 장보고는 청해진을 설치하고 동아시아 해상 무역을 주도하였다. 이 밖에도 한반도와 일본 열도 출신의 많은 유학생과 유학승이 중원 지방에서 활동하였다.

이렇게 활발한 문화 교류를 바탕으로 동아시아 세계가 형성되었다. 중국과 한반도, 일본 열도, 베트남 등지는 한자를 매개로 하여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 불교 등을 공유하게 되었다. 이를 동아시아 문화권이라고 부른다. 그러나 같은 문화 요소라 해도 모두 자국의 사정에 맞게 변형하여 수용하였다.

◆ 신라방

8세기 중엽 이후 신라와 당 사이에 교역이 활발해지면서 형성된 중국 내 신라인의 집단 거주지이다.



▲ 적산 법화원의 장보고 동상(중국 산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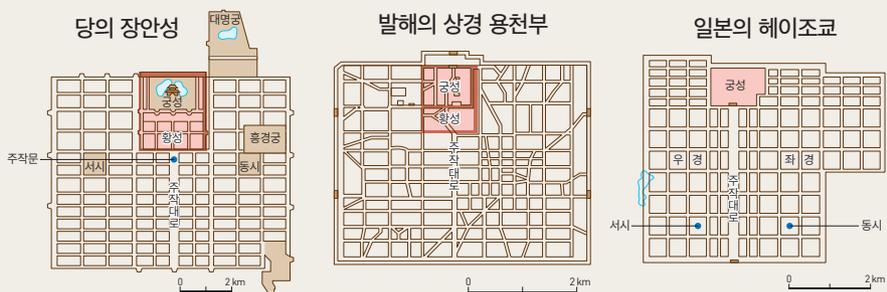
탐구 활동



당의 장안성을 본뜬 동아시아 각국의 수도



당의 수도 장안은 바둑판 모양으로 도로가 뻗어 있는 계획도시였다. 성벽에 둘러싸인 모습으로 내부가 구획된 장안의 형태는 발해와 일본 등 여러 나라에 영향을 주었다.



1. 장안성, 상경 용천부, 헤이조쿄의 비슷한 점을 찾아보자.
2. 동아시아 각국이 당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된 배경을 설명해 보자.

동아시아를 넘나든 승려들



동아시아 승려들은 종교인일 뿐만 아니라 당시 지식인이자 기술자였다. 이들은 동아시아 각지를 넘나들면서 최신 지식과 기술을 전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출신 국가를 떠나 국제적인 활약을 보였던 각국 승려들의 활동을 살펴보자.



▲ 현장(600~664)

동아시아 각국의 승려들은 새로운 교리를 배우기 위해 험난한 여행도 마다치 않았다. 때로는 불교의 성지를 찾아 순례에 나서기도 하였으며, 불교 경전을 구하기 위해 머나먼 인도까지 다녀왔다. 또 자기 나라에서의 안정된 생활을 버리고 이웃 나라에 불법을 전하며 고초를 겪기도 하였다.

인도에 갔던 당의 현장은 『대당서역기』라는 여행기를 남겼다. 현장은 인도 날란다 사원에서 불교 연구에 힘썼으며, 귀국할 때 많은 경전을 가지고 왔다. 이 경전을 번역하는 일에 신라 승려 원측이 참여하였다.

법흥왕 때 불교가 공인된 후 신라 승려들의 중국 유학이 활발해졌다. 호국 대사찰인 경주 황룡사 구층 목탑의 창건을 건의한 자장, 화엄종을 배워 한국 불교의 토대를 쌓은 의상이 대표적인 인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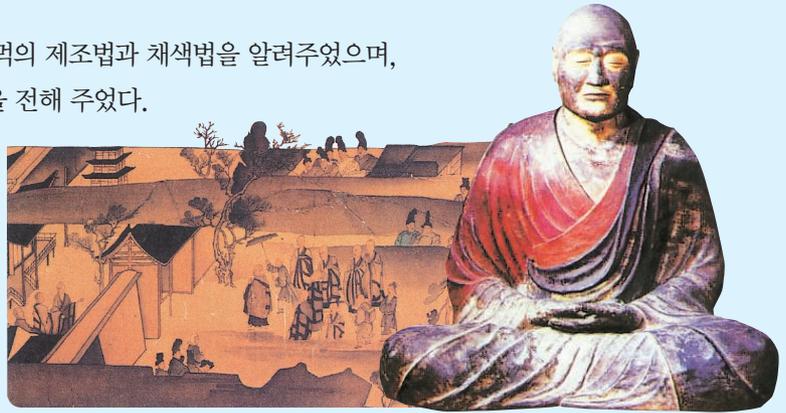
혜초는 인도의 다섯 나라와 그 이웃 나라들을 순례하고 그 경험을 적은 여행기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 『왕오천축국전』(프랑스 파리국립도서관)

고구려 승려 담징은 일본 열도에 종이 및 먹의 제조법과 채색법을 알려주었으며, 백제 승려 관륜은 역법과 천문 지리학 서적을 전해 주었다.

당 출신 승려 감진도 일본 불교의 발달에 큰 영향을 끼쳤다. 감진은 일본 건당사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배가 난파되는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일본으로 건너갔다. 당시 정식으로 승려가 되기 위해서는 수계를 받아야 하였는데, 감진은 도다이사에 계단원을 세워 수계하는 방식을 일본에 가르쳐 주었다.



▲ 감진이 일본에 도착하여 일본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는 장면을 묘사한 그림이다.

▲ 감진(688~763)



▲ 엔닌(794~864)

헤이안 시대 건당사를 따라 당에 들어간 사이초와 구카이는 각각 천태종과 밀교를 배워 일본 불교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이초의 제자인 엔닌도 당에 들어가 새로운 불교를 배웠다. 엔닌이 쓴 『입당구법순례행기』에는 신라인 장보고의 활약상이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다. 특히 엔닌은 장보고의 도움으로 적산 법화원에 머무르다 일본으로 귀국할 수 있었다.

- 1 동아시아 승려들이 국경을 넘나들며 각 지역에서 활동한 이유와 배경을 알아보자.
- 2 동아시아 지역에서 불교를 매개로 이루어진 인적·물적 교류의 사례를 조사해 보자.



3 성리학과 지배층

1517 조선 향약 실시
1543 백운동 서원 건립
1691 유시마 상동 건립

학습 목표 성리학의 특징과 동아시아 각 지역으로의 전파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사대부의 등장과 성리학의 성립

송 대에는 황제가 직접 주관하는 전시 제도를 도입하는 등 과거제를 엄격하게 시행하여 황제 중심의 문신 관료 체제가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세습적인 귀족이 몰락하고 글공부를 많이 한 지식인이 관료가 되어 사대부라는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되었다. 과거를 통해 관리가 된 사대부들은 보통 지주 출신이 많았다. 이들은 백성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유교적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였다.

범중엄은 사대부가 보통 사람과 달리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 하였는지 말해 보자.

Q 조정의 높은 지위에 있을 때는 백성을 위해 근심하고, 물러나 멀리 초야에 있을 때는 군주를 위해 근심한다. …… 천하의 근심에 앞서 근심하고 천하가 모두 즐거워한 다음에 즐거워한다.

- 범중엄, 『범문정공집』 -



▲ 주희(1130~1200) 주희는 삶의 대부분을 공부하고 제자를 가르치는 데 보냈다. 백록동 서원을 인재 양성의 요람으로 재건하였으며 무이산에 무이정사를 세워 제자를 길렀다.

◆ 거경궁리
잡념을 끊은 상태에서 마음에 본래 갖추어져 있는 이(理)를 밝히는 것을 의미한다.

◆ 격물치지
사물의 의미를 끝까지 탐구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 화이관
문명이 발달하였다는 중화(化)와 그렇지 못하다는 주변 오랑개(夷)로 천하를 구분하는 중국 중심의 전통적 세계관이다.

사대부가 지배층이 되자 유학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한 대 이후 유학에서는 경전의 자구를 해석하는 데 치중한 훈고학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수·당 대를 거치며 불교와 도교 사상의 영향을 받아 북송 시기에 우주 원리와 인간의 본질을 탐구하는 신유학이 대두하였다.

남송의 주희는 신유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그는 만물의 근본 원리인 ‘이(理)’를 중시하였다. 특히 인간이 하늘로부터 받은 본질인 ‘성(性)’이야말로 모든 인간과 자연의 본질인 ‘이’와 같은 것이라 이해하여 ‘성즉리(性卽理)’를 주장하였다. 그리고 인간 본성을 회복하기 위한 실천적 수양 방법으로 ‘거경궁리’와 ‘격물치지’를 강조하였다. 이러한 주희의 학문을 주자학 또는 성리학이라고 한다.

주희는 유학의 경전으로 중시되던 오경보다 사서인 『대학』, 『중용』, 『논어』, 『맹자』를 더 높이 평가하고 여기에 주석을 달았다. 주희가 주석을 붙인 『사서집주』는 이후 유학자에게 절대적 권위를 지닌 책으로 인식되었다. 또한 주희는 가정에서의 예절을 모아 엮은 『주자가례』를 저술하였고, 그의 지시에 따라 어린아이를 위해 성리학의 기본 개념, 수행 방법과 예절을 담은 『소학』이 편찬되었다.

한편 성리학이 등장할 무렵 송은 요와 금의 압력을 받고 있었다. 이에 한족의 민족의식이 높아지면서 성리학에서는 다른 민족에 대한 문화적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화이관, 의리와 명분을 중시하는 대의명분이 강조되었다.

성리학의 발전과 신사층

남송 이후 전국적으로 서원과 향약이 보급되었다. 성리학자들은 서원을 기반으로 지역 여론을 주도하고, 향약을 통해 성리학적 윤리를 백성에게 전하였다.

명은 성리학을 관학으로 삼아 대규모 국가사업으로 『영락대전』을 편찬하였다. 이 책들은 교육과 과거에서 절대적인 권위를 지녔으나, 성리학의 해석이 경직되는 문제를 낳기도 하였다.

명은 과거제를 재정비하면서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에게만 과거 응시 자격을 주었다. 이들과처럼 과거 응시 자격이 있거나 과거에 합격한 자, 그리고 관직 경력자들을 신사라고 불렀다. 신사층은 유력자로서 요역을 면제받으면서 지방관 못지않은 세력을 가지고 명·청 대 향촌 사회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 서원과향약

서원은 선현의 제사와 후학 양성을 위해 세워진 사설 교육 기관이며, 향약은 상부상조의 정신과 유교 윤리를 결합하여 만든 향촌의 자치 규약이다.

양명학의 발전

명 대 성리학이 과거 합격만을 위한 학문으로 여겨지고, 사회 모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양명학이 발전하였다. 남송 때 육구연은 ‘이’는 자신의 마음에 있다는 ‘심즉리’를 주장하며 성리학의 ‘성즉리’를 비판하였는데, 육구연의 영향을 받은 명 대의 왕수인이 양명학을 집대성하였다. 왕수인은 ‘심즉리’와 함께 굳이 배우지 않아도 타고난 도덕적 자각인 ‘양지(良知)’를 통해 사물을 바르게 알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실천을 중시하여 ‘지행합일’을 주장하였다.

양명학은 일본에서는 추상적 지식보다 구체적 행동을 중시하는 무사에게 영향을 주었다. 조선에서 양명학은 성리학자에게 이단으로 배척당했지만, 소수의 학자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 왕수인(1472~1528) 명 중기의 인물로, 양명학은 그의 호인 양명에서 이름을 딴 것이다.

탐구 활동



성리학과 양명학



자료 1

성(性)은 곧 이(理)이다. 천하의 이는 그 시작하는 곳을 살펴 보면 선이 아닌 것이 없다. 희로애락이 밖으로 나타나기 전에는 무엇이든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밖으로 나타나서 절도에 맞는다면 또한 선하지 않은 것이 없다. - 『근사록』 -

자료 2

이치란 것은 모두 마음속에 있는 것이며 마음이 곧 이(理)이다. 마음이 사욕으로 가려지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천리(天理)이니 마음에서 사람의 사사로운 욕심을 제거하고 천리를 보존토록 노력하기만 하면 그것으로 족한 것이다. - 『전습록』 -

1. 자료 1 과 자료 2 와 같이 주장한 학자는 누구인지 말해 보자.
2. 자료 1 과 자료 2 에서 만물의 근본 원리인 ‘이(理)’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비교해 보자.

조선의 성리학과 사림 세력의 성장



▲ 안항(1243~1306) 고려에 성리학을 소개하고 인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주희(회암)에 대한 존경의 의미로 자신의 호를 회현으로 정하였다.

양반

양반은 동반(문반)과 서반(무반)을 합쳐 부르는 말로, 고려 시대에 문무 관료를 나눈 것에서 비롯되었으나, 점차 지배층 전체를 지칭하게 되었다.

고려는 13세기 말 원으로부터 성리학을 받아들였다. 성리학의 수용에는 안항의 역할이 컸다. 고려 후기에 등장한 신진 사대부는 성리학을 사상적 기반으로 삼아 사회 개혁을 추진하였다. 신진 사대부는 당시 지배층이었던 권문세족의 횡포와 불교 사원의 폐단을 비판하였다. 그리고 신흥 무인 세력과 힘을 합쳐 조선을 건국하였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성리학은 국가의 통치 이념이 되었다. 과거를 통해 관직에 진출한 양반 관료가 중심이 되어 국가를 운영하였다. 이들은 주요 관직을 독점하고 경제적 부를 축적하면서 점차 세습적인 특권층으로 자리 잡았다.

16세기 들어 조선 사회가 점차 안정되면서 지방을 기반으로 사림 세력이 성장하였다. 사림 세력은 지방에 서원을 세워 학문 연구와 후진 양성에 힘썼다. 또 향약 보급에도 힘써 향촌 사회에 성리학적 사회 질서가 점차 자리 잡았다.

성리학에 대한 학문적 이해도 더욱 깊어졌다. 조선의 성리학자들은 우주론과 인간의 심성 문제 등을 토론·논쟁하며 성리학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정 학자를 중심으로 학설이 계승되면서 학파가 형성되었고, 학파는 이후 붕당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특히 이황과 이이가 학파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황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로서 인간의 심성을 중시하였는데, 그의 사상은 임진왜란 이후 일본에 전해져에도 시대의 성리학 발전에 영향을 미쳤다. 이이는 현실 문제 해결을 위한 통치 체제의 정비와 수취 제도의 개혁 방안을 제시하였다.

동아시아사 백과

서원의 설립

우리나라 교육은 중국을 따라 중앙에는 성균관과 사학(四學)이 있고, 지방에는 향교가 있어 자못 훌륭합니다. 하지만 오직 서원만은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서원이 흥성해지면 선비의 기풍이 크게 변하고 습속이 날로 개선되어 왕의 교화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 이황, 『퇴계문집』 -

중국에서 서원은 10세기에 처음으로 세워졌다. 이후 12세기 중엽 주희가 백운동 서원을 중흥하고 학규를 제정하면서 서원이 각지에 세워졌다. 조선 중종 때 주세붕이 건립한 백운동 서원도 이를 본뜬 것이었다. 조선에서 서원은 성리학이 발달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 소수 서원(한국 영주) 원래는 주세붕이 안항을 모시기 위해 세운 백운동 서원이 시초이다. 명종 때 이황의 건의로 '소수 서원'이라는 현판을 받아 최초의 사액 서원이 되었다.

조선에서 성리학의 확산과 사회 변화

명과 조선에서는 성리학이 보급됨에 따라 『주자가례』에 따른 유교적 관혼상제의 의례가 확산되고 성리학적 윤리가 강조되었다. 조선 중기까지 혼인 후 남자가 처가에서 사는 풍습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성리학적 윤리가 확산되면서 여자 집에서 혼례를 치르고 곧바로 남자 집에 가서 시집살이하는 결혼 풍습이 널리 보급되었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관직에서 물러나 삼년상을 지내야 했다. 또 조상에게 제사를 올리기 위해 집 안에 가묘나 사당을 세우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 「신행」(한국 국립중앙박물관) 혼례를 치르러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는 모습이다.

적자가 있으면 지손(支孫)이 제사를 받들지 못하는 것이 마땅한 예임에도 자기 아버지의 기일을 맞아 각 집에서 돌아가면서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풍속은 예법에 지극히 어긋나는 것이므로 마땅히 금하도록 하소서. - 『중종실록』 -

0 자료의 주장이 나타나게 된 배경을 말해 보자.

자손이 돌아가면서 조상의 제사를 모시는 풍습도 장자 중심의 제사로 바뀌었다. 이와 더불어 재산 상속도 장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아들이 집안의 대를 잇는다는 관념이 강해지면서 아들이 없으면 동족 중에서 양자를 들이는 일이 일반화되었다.

일본의 무사

일본의 무사는 헤이안 시대 후기 이래 점차 세력을 키워 나갔다. 마침내 12세기 말에는 가마쿠라에서 무사들의 독자성을 반영한 정치 체제가 구축되었다. 이로써 가마쿠라 막부가 성립되었다. 막부는 무사 정부를 가리키는 말로, 그 최고 수장을 쇼군(장군)이라 불렀다. 가마쿠라 막부는 쇼군과 주종 관계를 맺은 유력 무사를 슈고와 지토로 지방에 파견하여 전국을 통제하였다.

무로마치 시대에는 슈고가 점차 무사와 토지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여 봉건 영주(다이묘)로 성장하였다. 16세기 말에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병농 분리 정책을 실시하여 무사층이 점차 신분적으로 고정되어 나갔다. 이후 무사는 일반 백성 위에 군림하는 지배층의 성격이 뚜렷해졌다.

에도 시대의 무사는 막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놓였다. 또 오랫동안 평화가 계속되면서 이전 시기의 무사와 달리 전투에서 점차 멀어졌다. 그 대신 ‘문’의 담당자를 사처하며 관료와 지식인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한편 막부가 지배하던 시기에도 교토에 천황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현실 정치에는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 채 종교 의식이나 학문, 예술 등에 관여하였다.

◆ 막부

장수가 전쟁에 나가 설치한 막사에서 유래되었다.

◆ 슈고와 지토

슈고는 막부가 각 지방에 설치하여 치안을 담당하게 한 직책이며, 지토는 장원을 관리하고 조세를 징수 납입하며 치안을 유지하는 직책이다.

일본 성리학의 발전

가마쿠라 막부 후기 무사가 지배하던 일본에도 성리학이 전해졌지만, 사회 전반에까지 확산되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성리학은 무로마치 시대 한문 지식을 바탕으로 대외 관계를 담당하던 일부 선종 승려를 중심으로 연구되었다. 승려였던 후지와라 세이카는 정유재란 때 일본에 포로로 잡혀 온 조선의 강항을 만난 후 유학자로 변모하였다. 그는 강항의 도움을 받아 일본 최초로 사서오경 주석본인 『사서오경왜훈』을 간행하였다.



▲ 하야시 라잔(1583~1657)

그의 제자 하야시 라잔은 도쿠가와 이에야스에게 등용되어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 데 공헌하였다. 야마자키 안사이는 일본 성리학을 집대성하면서도 신토와 유교의 결합을 추구하였다.



▲ 유시마 성당(일본 도쿄) 하야시 라잔이 세운 가숙(막부 가신과 영주의 자제를 위한 학교)에 있던 공자 사당을 1690년 유시마쇼헤이자카로 옮긴 것이다.

에도 막부는 성리학을 관학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보호하였다. 이는 사농공상의 신분적 차별을 인정한 성리학이 무사 중심의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불교와 신토의 영향력이 컸던 일본 사회에서 성리학은 사회 전반에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였다. 유교적 가묘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문묘로 유시마 성당이 세워졌으나 국가적 제도로는 자리 잡지 못하였다. 관혼상제를 비롯한 각종 의례도 신토나 불교에 따라 이루어졌다.

탐구 **한도**
2

후지와라 세이카와 하야시 라잔



자료 1

묘수원의 승려 순수좌(후지와라 세이카)는 두뇌가 총명하고 옛글을 익히 다룰 줄 아는 사람으로 어느 책이나 모르는 것이 없고 성품은 아주 깨끗하였다. 언젠가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그의 인물됨이 뛰어난 것을 알고 2,000석 봉록을 주어 부하로 삼으려 했으나 거절했다고 한다. 순수좌는 과거 절차, 공자 제사를 지내는 절차, 왕에게 유학 경전을 강의하여 나라를 다스리는 도를 가르치는 일 등을 물었다.

- 강항, 『간양록』 -

자료 2

예란 사람이 처신을 삼가 서열이 흐트러지지 않음을 말한다. 젊은이가 늙은이를 공경하고 천한 자가 위계가 높은 자를 존중하는 것이 예이다. …… 하늘은 위에 있고 땅은 아래에 있는 것이 천지(天地)의 예이다. 인간은 이 천지의 예를 태어나면서부터 마음속에 갖고 있으므로 모든 일에는 상하 전후의 순서가 있다. 이 마음을 천지로 확장하면, 군주와 신하, 윗사람과 아랫사람, 인간의 관계가 흐트러짐이 없을 것이다.

- 하야시 라잔, 『삼덕초』 -

1. **자료 1** 을 읽고 후지와라 세이카가 일본 성리학의 발전에 끼친 영향을 설명해 보자.
2. **자료 2** 를 읽고 하야시 라잔이 에도 막부의 각종 제도와 의례를 정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었던 까닭을 말해 보자.

스스로 학습



1 율령 체제의 성립과 확산을 정리한 다음 표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중국	진	상앙과 이사 등의 활동, ㉠ 사상에 기반을 둔 통치
	한	동중서의 활동, 한 무제 때 유교 통치 이념 수용
	수·당	• 율·령·격·식을 정비하여 율령 체제 완성 • 3성 6부의 중앙 관제 마련, ㉡ · 조용조 · 부병제 시행
한반도	신라	당의 율령 적극 수용, 골품제 등 독자성 유지
	발해	당의 ㉢ 를 수용하여 중앙 정부 조직 구성
일본		• 당의 율령을 수용하여 중앙 집권적 국가 체제 정비 시도
		• ㉣ 반포(701), 2관 8성제 정비

2 인물과 관련 있는 내용을 연결해 보자.

(1) 감진 •

㉠ 신라의 승려로 정토 신앙을 바탕으로 불교 대중화에 이바지하였다.

(2) 엔닌 •

㉡ 인도의 여러 나라를 순례하고 여행기로 『왕오천축국전』을 남겼다.

(3) 원효 •

㉢ 일본의 승려로 당에 가서 밀교를 배우고 행적을 적은 『입당구법순례행기』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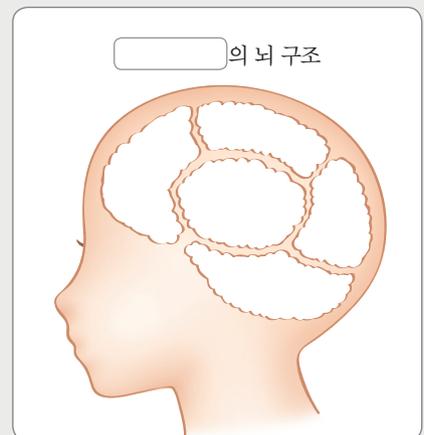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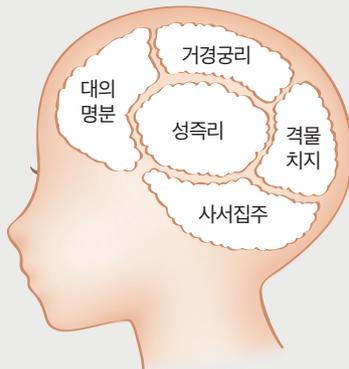
(4) 혜초 •

㉣ 당의 승려로 일본 도다이사에 계단원을 세우고 수계하는 방식을 알려 주었다.



3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양명학자를 선택하고, [예시]를 참고하여 그의 핵심 사상을 그림에 넣어 보자.

[예시] 주희의 뇌 구조



힘 잡는 단원 평가

고구려, 불교 수용 372

1 화북 통일 439
효문제 때 중국화(한화) 정책 추진

수, 남북조 통일 589

당 건국 618

일본, 다이카 개신 645

신라, 삼국 통일 완성 676

2 일본, 율령 반포 701

고려 건국 918

3 건국 960
5대 10국 시대 통일

4 수립 1185
미나모토노 요리토모가 수립

5 몽골 제국 수립 1206

무로마치 막부 수립 1336

명 건국 1368

조선 건국 1392

왼쪽 연표를 완성하고, 문제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자.

1 다음 나라와 관련 있는 내용을 연결해 보자.

- | | | | | |
|------------|---|-------------|---|-------------|
| (1) 송 | • | ① 금 건국 | • | ㉠ 전방후원분 |
| (2) 신라 | • | ② 씨성 제도 | • | ㉡ 맹안·모극제 |
| (3) 여진 | • | ③ 대가야 정복 | • | ㉢ 왕안석 신법 |
| (4) 고려 | • | ④ 별무반 편성 | • | ㉣ 동북 9성 축조 |
| (5) 야마토 정권 | • | ⑤ 전시(과거) 도입 | • | ㉤ 7세기 삼국 통일 |

2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나)





(가)는 ㉠의 모습입니다. 룡문 석굴과 함께 복위 시대부터 만들어진 이 거대한 석굴 사원은 국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부모의 은혜에 대한 부처의 가르침을 담은 『㉡』입니다. 효를 강조한 이 경전은 본래 인도에 없던 것으로 중국에 불교가 확산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것이지요.

(1) ㉠, ㉡ 문화유산의 이름을 써 보자.

(2) (가), (나) 문화유산을 통해 알 수 있는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을 각각 서술해 보자.

3 성리학과 양명학을 정리한 다음 표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성리학	개념	우주 원리와 인간 본성을 탐구하는 신유학
	성립	송대 ㉠가 집대성
	주요 이론	㉡, 격물치지, 거경궁리
	영향	서원과 향약 보급, 성리학적 윤리 확산, 신분 질서 합리화
양명학	성립 배경	명 중기 왕수인 등이 주자의 학설 비판
	주요 이론	심즉리, ㉢(실천 중시)
	영향	일본 ㉣에게 영향, 조선에서 이단으로 배척

자기 점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본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1 국가의 통합과 발전

42쪽 확인

2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

68쪽 확인

3 성리학과 지배층

76쪽 확인

역량 +
수행 평가

불교 문화유산 포스터 만들기

동아시아 각국의 불교 문화유산을 찾아 관련 설화 및 사진 자료 등을 수집하여 문화유산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안내 포스터를 만들어 전시해 보자.

1 조사 대상 선정하기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을 잘 보여 주는 문화유산, 교류를 통한 불교의 전파와 관련된 문화유산 중 하나를 선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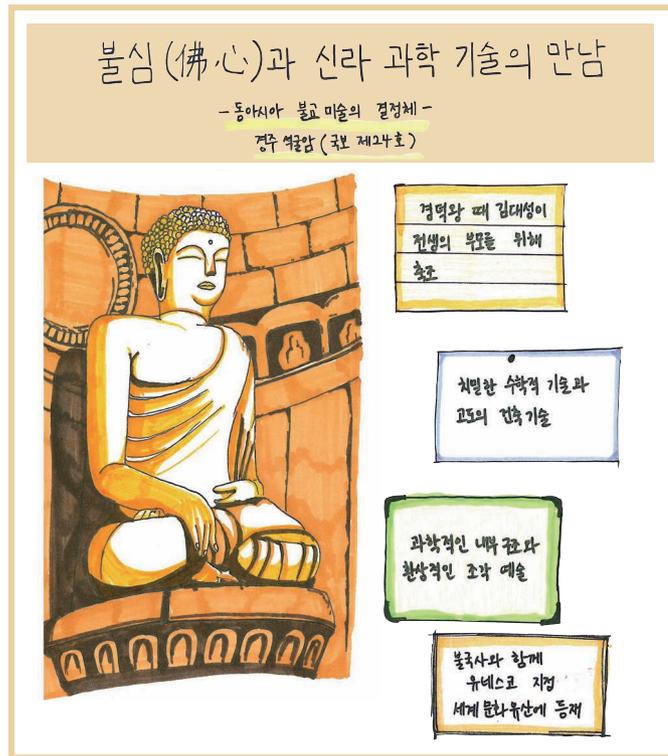
- 불국사와 석굴암
- 원강 석굴과 룡문 석굴
- 하치만 신상과 신불습합
- 이차돈 순교비와 신라의 불교 수용

2 포스터 제작하기 관련 사실, 사진이나 이미지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활용한다.

유의점

1. 동아시아 불교의 특징이나 교류 모습이 잘 드러나는 문화유산을 선택한다.
2. 문화유산의 특징이나 이야기 등을 한두 문장으로 간단하게 표시한다.
3. 문화유산의 사진이나 이미지 자료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직접 그려 본다.
4. 한눈에 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단순·명료하게 제작한다.

예시



III

동아시아의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 1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 2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 3 사회 변동과 서민 문화

단원 열기

이 단원에서는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의 배경과 영향을 파악하고, 국제 교역의 확대와 동서양의 문물 교류 모습을 살펴본다. 그리고 산업의 발전과 인구의 증가에 따른 사회경제적 변화 모습과 각 지역에서 서민 문화가 발달한 모습을 이해한다.



히메지성 ▶



연표에서 알고 있는 역사 사건에 V 표시해 보자.



이 단원에서 성취할 나만의 목표를 스스로 정해 보자!

1 임진왜란의 배경과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2

3

□ 청, 천계령 해제

1684

□ 조선, 전국적으로 대동법 시행

1708

□ 청, 대외 무역항을 광저우로 제한

1757

□ 『해체신서』 발간

1774

1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 생각 열기 | 교토에 있는 코 무덤으로,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신으로 삼은 도요쿠니 신사 앞에 있다. 센고쿠 시대에 일본 무사들은 전리품으로 적의 코와 귀를 베어 전공을 자랑하였다. 임진왜란 당시 무고한 백성까지 살해한 일본군은 그 코와 귀를 베어 일본으로 보냈다. 이처럼 전쟁은 견디기 힘든 참상을 동반하며 사람들에게 혹독한 피해와 고통을 주었다.

Q 임진왜란의 배경과 그 영향은 무엇일까?

1 16세기의 동아시아

학습 목표 16세기 동아시아 정세를 설명할 수 있다.



북로남왜와 명의 쇠퇴



▲ 북로남왜

명은 건국 후 주변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주도하였다. 하지만 15세기 중반 북쪽의 몽골이 남하하여 명의 황제를 포로로 잡았고, 16세기 중반에는 만리장성을 넘어 수도인 베이징을 포위하기도 하였다.

또한 이 무렵에는 왜구가 중국의 동남 해안 지방을 자주 침입하였다. 무로마치 막부의 힘이 약해지면서 중앙의 통제가 느슨해지자 왜구의 활동이 다시 활발해진 것이다. 이 시기의 왜구를 후기 왜구라고 하는데, 전기 왜구와 달리 동중국해와 동남아시아 지역까지 영역을 확장하여 약탈을 일삼고 밀무역에 간여하기도 하였다. 이렇게 명은 북쪽의 몽골과 동남쪽의 왜구, 이른바 ‘북로남왜’에 시달리며 큰 어려움을 겪었다.

◆ 전기왜구

14세기에 주로 한반도와 중국 연해 지역을 침탈한 왜구를 말한다.

◆ 일조편법

잡다한 항목의 세금을 토지세와 역이라는 두 기준으로 정비하고 이를 은으로 내게 한 방식이다.

명은 내부적으로도 부패한 환관과 당쟁으로 정국이 불안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등용된 장거정은 국정을 쇄신하고 재정을 확대하기 위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였다. 밖으로는 몽골 세력과 강화를 맺고, 안으로는 환관 세력을 억제하였다. 행정 개혁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고 일조편법을 시행하여 국가 재정을 안정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장거정 사후 관료와 신사층이 개혁에 반기를 들고 환관 세력이 다시 대두하면서 정치적 혼란이 가중되고 국력은 점차 쇠퇴하였다.

조선 전기의 대일 관계

조선은 건국 이후 사대교린을 외교의 기본 원칙으로 삼았다. 명과는 조공·책봉 관계를 맺고 사대 외교를 펼쳤으며, 일본을 비롯한 주변의 여러 나라와는 교린의 입장 속에서 외교 관계를 맺었다. 조선은 고려 말 이후 계속된 왜구의 침략을 근절하기 위해 세종 때 왜구의 근거지인 쓰시마를 공격하여 왜구의 힘을 약화시켰다. 이와 함께 일본과 계해약조를 맺고 제한된 교역을 허용하였다. 이처럼 건국 초부터 지속한 교린 외교의 결과 고려 말, 조선 초에 극성을 떨쳤던 왜구는 점차 잠잠해졌다.

하지만 교린 외교로 안정된 조선의 대일 관계는 16세기 이후 점차 악화하였다. 쓰시마의 무역 요구가 늘어난 데 대해 조선 정부가 통제를 강화하자, 왜인들이 난을 일으켜 두 나라의 무역이 일시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다.

한편 조선에서는 성종 이후 지방에서 성장한 사림 세력이 중앙 정치 무대에 새롭게 등장하여 정권을 잡고 있던 훈구 세력과 충돌하였다. 16세기 후반 훈구 세력을 물리치고 정권을 잡은 사림 세력은 붕당을 형성하여 서로 대립하였다.

이렇게 정쟁이 계속되면서 조선은 주변의 정세 변화와 대외적 위기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였다. 또한 건국 이래 오랫동안 평화가 계속되고, 군역 제도의 운용 과정에서 폐단이 나타나면서 국방력이 약해졌다.

◆ 사대교린

큰 나라를 섬기고 이웃 나라와 교류하는 정책이다. 조선은 동아시아의 강대국인 명에 대해서는 큰 나라이자 문명국을 섬긴다는 ‘사대’를, 여진 및 일본 등과의 외교는 ‘교린’을 원칙으로 삼았다.

사료 읽기

계해약조(1443)

- 대마도 도주에게 매년 200석의 쌀과 콩을 하사한다.
- 대마도주는 매년 50척의 배를 보낼 수 있고, 부득이하게 보고할 일이 있으면 정해진 숫자 외에 특송선을 보낼 수 있다.
- 부산포, 제포, 염포 등 3포에 머무르는 날짜는 20일로 한정하고, 상경한 자의 배를 지키는 간수인은 50일로 하며 이들에게 식량을 지급한다.

- 『증정교린지』 -

조선이 쓰시마(대마도) 도주와 맺은 조약으로, 내왕하는 왜인 수와 그들의 체류지, 연간 무역량 등을 규정하였다.

흥미진진 동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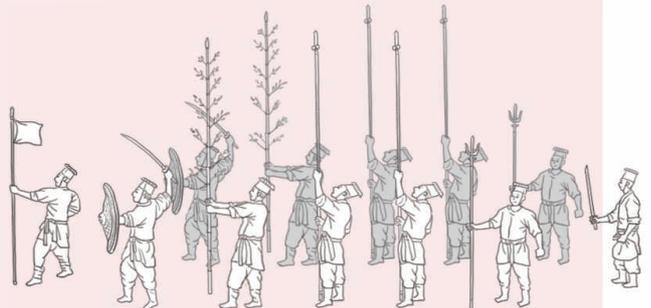


후기 왜구를 물리친 절강전법, 조선에 전해지다

절강전법은 명의 장수 척계광이 고안한 전법이다. 척계광은 1557년 왜의 우두머리인 왕직을 사로잡아 크게 이름을 떨쳤으며, 이어 저장성과 푸젠성 등지의 왜구를 무찔렀다.

절강전법의 핵심은 긴 일본도를 사용하여 근접 전투에 강한 왜구에 맞서, 낭선창(날카로운 날이 있는 가지가 여러 개 달린 창)을 비롯한 다양한 무기로 무장한 보병 열두 명이 한 조를 이루어 싸운 원양진법에 있다.

이 전법은 조선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임진왜란 때 참전한 이여송은 절강전법으로 훈련된 남방의 군대를 이끌고 와 일본군을 효과적으로 격퇴하였다. 그리고 임진왜란 당시 조선은 훈련도감을 새로 설치하면서 절강전법을 담고 있는 척계광의 『기효신서』를 어렵게 구하여 포수·사수·살수로 구성된 삼수병을 훈련하였다.



▲ 원양진법 긴 창을 이용하여 왜구들이 접근하지 못하게 한 뒤 방패를 든 병사들이 앞으로 나가 공격하였다.

단원연계 | II 단원 79쪽
일본의 무사 내용을 확인해 보자.

◆ 오닌의 난(1467~147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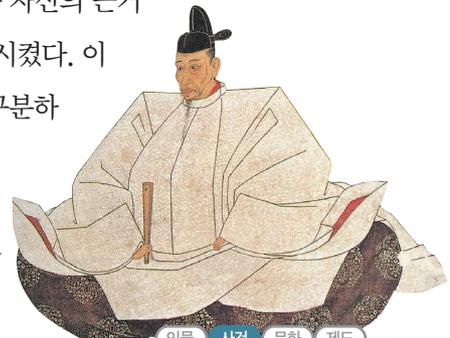
쇼군의 계승 문제로 발생한 막부 내의 대립이 전국적인 규모의 내란으로 확대된 것이다. 오닌의 난으로 무로마치 막부의 권위가 추락하고 센고쿠 시대가 시작되었다.

센고쿠 다이묘의 등장과 도요토미 히데요시

15세기 중엽 무로마치 막부 쇼군의 후계자 선정을 둘러싸고 오닌의 난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막부와 쇼군의 권위가 실추되고, 각지에서 자신의 영지를 독자적으로 지배하는 센고쿠 다이묘가 출현하였다. 센고쿠 다이묘는 계속된 내전에서 승리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부국강병책을 모색하였고, 대외 교역에도 관심을 보였다.

센고쿠 다이묘들의 치열한 각축 속에서 16세기 중엽 오다 노부나가가가 두각을 나타냈다. 오다 노부나가가는 새로운 무기인 조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대 세력을 물리쳤다. 오다 노부나가가가 죽자 그 뒤를 이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마침내 100여 년에 걸친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였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현지에 직접 관리를 파견하여 토지를 조사하고 토지의 단위와 도량형을 통일하였다. 또 농민의 무기 소유를 금지하여 농민이 무사 신분으로 상승하는 것을 막았다. 이로써 센고쿠 시대를 풍미한 하극상 풍조가 사라지고 신분 이동이 제한되었다. 또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자신의 근거지인 오사카에 대규모 성을 쌓고 무사들을 이주시켰다. 이처럼 무사와 농민의 거주 지역을 신분 따라 구분하는 병농 분리 정책은 에도 막부로 이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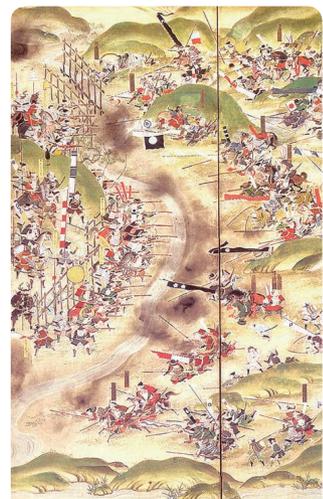
도요토미 히데요시(1536~1598) 센고쿠 시대의 통일을 ▶
눈앞에 두고 오다 노부나가가가 죽자 그의 후계자가 되었다.

동아시아사 백과

조총의 전래와 나가시노 전투

1543년 2명의 포르투갈인을 태우고 표류하던 중국 배가 일본 규슈 남쪽의 섬 다네가시마에 도착하였다. …… 다네가시마의 다이묘는 포르투갈인이 보여 준 불을 내뿜는 신기한 막대기 두 자루를 샀다. 다이묘는 자신의 부하에게 이와 똑같이 만들 것을 지시하였으나 총신이 폭발하는 등 제작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 계속된 실패로 고민을 거듭하던 대장장이는 자신의 딸을 포르투갈인에게 시집보내어 그 기밀을 얻었다. - 『뎃포기』 -

유럽에서 개발된 화약 무기인 조총은 16세기 중엽 포르투갈 상인을 통해 일본에 전해졌다. 조총은 센고쿠 시대 일본의 전투 모습을 바꿔 놓았다. 이전에는 얼마나 많은 기병을 보유했느냐가 중요했다면, 조총 전래 이후에는 얼마나 많은 조총을 보유했느냐에 따라 승패가 갈렸다. 이러한 사실은 1575년에 벌어진 나가시노 전투에서 여실히 드러났다. 당시 일본 최강으로 알려진 다케다 가쓰요리의 기마 군단을 오다 노부나가가가 조총을 이용한 전법으로 물리친 것이었다. 이후 조총은 센고쿠 다이묘의 세력 판도뿐 아니라 임진왜란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 나가시노 전투(일본 도쿠가와미술관)

동아시아 삼국의 총포와 성곽



동아시아 삼국은 화약을 이용한 총통과 홍이포, 조총 등을 이용해 전쟁을 벌였다. 또한 적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한 방어 시설로 성곽을 갖추었다. 동아시아 삼국의 대표 무기와 방어 시설인 성곽의 특징을 살펴보자.

총포

조선

조선의 총통은 고려 말에 개발되어 조선 시대에 널리 사용된 무기로, 화살이나 탄환을 넣어 발사하였다. 총통은 발사물이 장전되는 긴 원통인 총구(부리)와 불붙은 심지에 의해 화약이 폭발하는 약통, 그리고 약통과 부리 사이의 격목통으로 구성되었다.



▶ 천자총통(한국 국립진주박물관)

명

명의 대표적인 무기는 홍이포이다. 중국인은 네덜란드인을 '홍이'라고 지칭하고 그들의 대포를 '홍이포'라 불렀다. 명은 만리장성 동쪽의 요충지인 산하이관 부근에 있는 영원성 전투에서 홍이포를 사용하여 후금의 누르하치를 격파하였다.



▶ 홍이포(복원 모형)

일본

일본에서는 조총을 뎃포 또는 화승총이라 한다. 일본에 전래된 조총은 안정성과 조작성이 높은 유럽형과 달리 명중률이 높은 말래카형(동아시아형)이었다. 평원이 드물고 대부분 산지 지형을 가진 일본에서는 집단전을 중시한 유럽과 달리 명중률을 보다 중시하였다.



▲ 조총(일본 다네가시마개발총합센터)

성곽

한반도의 성곽으로는 산성과 평성이 있다. 수도와 주요 도시 가까운 산에 산성을 쌓고 곡식을 비축하여 비상시에 대비하였다. 도시 전체를 성벽으로 둘러싼 읍성은 평지에 쌓은 성인 평성의 하나로서, 외적의 침략이 많았기에 수도를 비롯한 중요 도시를 적극적으로 방어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 상당산성

중국인은 고대부터 자신의 촌락을 성벽으로 에워쌌다. 이후 북방 민족과 다툼이 심해지자 베이징 북쪽에 장성을 쌓았다. 처음에는 흙을 압축해 성벽을 쌓았으나 당·송 대에 일부 중요 성곽에 벽돌을 사용하였고, 명 대에 이르러 벽돌로 성벽을 쌓는 것이 일반화되었다.



▶ 시안 성벽

일본의 산성은 센고쿠 시대에 발달하였다. 산꼭대기에는 유사시를 대비한 성곽을, 산기슭에는 평소에 생활하는 건물을 두었다. 오다 노부나가는 평상시 거주지와 유사시 산성을 하나로 결합한 성을 쌓았고,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이를 더욱 발전시켜 평지인 오사카에 성을 쌓았다. 그리고 물을 이용한 방어 시설인 해자를 둘러쌌다.



▶ 오사카성

- 1 삼국의 총포와 성곽의 차이점을 알아보자.
- 2 동아시아 삼국의 총포와 성곽 사진을 인터넷에서 찾아 특징을 살펴보자.

2 16~17세기 동아시아 전쟁의 전개

1592 임진왜란 발발
1597 정유재란 발발
1616 누르하치, 후금 건국
1627 정묘호란 발발
1636 병자호란 발발

학습 목표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정세와 각 전쟁의 전개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부산진 순절도(한국 육군박물관) 임진왜란 때 부산진 전투를 그린 그림이다. 1760년에 변박이 원본 그림을 토대로 다시 그렸다.

임진왜란의 발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의 센고쿠 시대를 통일하였지만, 각지에 있는 강력한 다이묘의 군사력은 그의 정권에 위협이 되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다이묘의 군사력을 약화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영토 확장과 무역 확대를 위해 임진왜란(임진 전쟁)을 일으켰다(1592).

조총으로 무장한 일본군은 부산진 전투에서 첫 승리를 거둔 후 20여 일 만에 한성을 함락하고 평양과 함경도로 진격하였다. 그러나 이순신이 지휘하는 조선 수군은 남해안에서 일본 수군에 연전연승하면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차단하였다. 각지에서 일어난 의병도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명의 참전

임진왜란 발발 소식을 접한 명은 조선이 일본과 연합하여 명을 침공하는 안내자 역할을 할지 모른다고 의심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일본에 맞선 조선의 저항이 분명하고 일본의 명 침공 가능성이 확인되자, 명은 요동을 방어하고 수도인 베이징을 지키기 위해 참전을 결정하였다. 이로써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삼국 간의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명은 국내의 정세 불안 때문에 적극적으로 전쟁을 수행하기는 어려웠다. 광산 개발과 상업세 징수를 위해 파견된 환관의 수탈로 전국에서 저항이 잇따라 일어났고, 세력을 키운 여진족의 침공도 우려되었다. 이에 명은 조선에 지원군을 보냈지만, 동시에 외교적 교섭을 함께 추진하였다.



▲ 임진왜란 당시 명의 황제였던 만력제(1563~1620)

명·조선·동아시아



동아시아 삼국은 임진왜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1592년과 1597년에 일어난 두 차례의 전쟁을 한국에서는 임진왜란, 정유재란이라고 부른다. 이는 전쟁을 일으킨 주체가 '왜'라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분로쿠 게이초의 역이라고 하여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가 일본군이라는 사실을 감추고 있다. 중국에서는 항왜원조, 즉 명이 왜에 대항하여 조선을 도운 전쟁이라며 동아시아 질서 유지자로서 명의 위상을 강조하였다. 이처럼 삼국은 각자의 시선으로 전쟁을 바라보고 있다.

*분로쿠 게이초의 역: 분로쿠와 게이초는 일본 천황의 연호이다. 역(役)은 전쟁이라는 의미이다.



정유재란과 왜란의 영향

명의 지원군과 함께 반격에 나선 조선군은 평양성 전투에서 일본군을 크게 무찔러 전세를 역전시켰다. 이후 일본군은 경상도 해안 지방까지 밀려났고, 철수를 위해 명과 교섭에 나섰다.

명과 일본은 조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강화를 추진하였다. 일본 장수 고니시 유키나가는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항복한다는 문서를 만들어 명에 보냈다. 1596년 명은 일본에 사신을 보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일본 왕에 책봉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명 공주를 천황 후궁으로 출가, 조선 남부 4도 할양, 명과의 무역 재개' 등의 요구 조건을 내세웠고,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명과의 강화를 거부하고 정유재란(정유 전쟁)을 일으켰다(1597). 그러나 일본군은 바다에서는 이순신이 이끈 조선 수군에게, 육지에서는 조·명 연합군에게 대패하여 궁지에 몰렸다.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하자 일본군은 철수하였고 전쟁은 끝이 났다.

7년 동안 전쟁터가 된 조선은 인구가 크게 줄고 재정이 궁핍해졌다. 또한 많은 문화재가 소실되는 등 큰 피해를 보았다. 명은 재정 악화에 따른 무리한 세금 징수로 농민 봉기가 잇따르며 점차 쇠퇴하였다. 반면에 만주의 누르하치는 명의 지배에서 벗어나 점차 세력을 키워 후금을 세우고 여진족을 통일하였다(1616). 일본에서는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추종 세력을 물리치고 에도 막부를 세웠다(1603).



▲ 임진왜란의 전개

동아시아사 교과서

동아시아 삼국이 참여한 제1차 울산성 전투

1597년 12월 23일, 조선군 1만1천여 명과 명군 3만6천여 명으로 구성된 조·명 연합군은 일본군 1만6천 명이 주둔한 울산성을 공격하였다. 포위된 일본군은 말을 죽여 피를 마시고 흙벽을 긁어 긁어 먹을 정도로 극심한 식수와 식량 부족에 시달렸다.

남해안 각지의 일본군은 울산성에 구원군을 파견하였다. 성안팎에서 적을 맞은 조·명 연합군은 13일간의 전투를 끝내고 1598년 1월 4일 철수하였다. 이 전투에서 공격의 선봉에 섰던 조선군은 1만여 명이 전사하였다. 명군은 1천여 명이 전사하고 3천여 명이 다쳤다. 성을 지키던 일본군도 겨우 5백 명만이 살아남았다.

울산성 전투는 조·명 연합군이 일본군을 공격한 동아시아 삼국 간의 국제전이었다. 치열한 전투 후에 일본군은 복진의 꿈은 물론 조선 남부에 주둔하면서 그곳을 자신의 영토로 삼으려는 의지도 접었다.



▲ '울산성 전투도'(일본 나고야박물관) 조·명 연합군이 울산성 안의 일본군을 포위해 공격하고 있다.

인물 사건 문화 제도

정묘·병자호란의 전개

▶ 팔기제

만주족의 수렵 관행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행정과 군사 조직. 팔기 만주에서 시작하여 팔기 몽골과 팔기 한군으로 확대되었다.

임진왜란 전후 누르하치는 모피와 인삼 등의 특산물을 명과 교역하면서 경제력을 축적하였다. 그리고 팔기제를 시행하여 사회·군사 조직을 정비하고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만주 사회가 정비되자 누르하치는 후금을 세우고 명과 대결하였다.

명은 후금을 공략하기 위해 조선에 파병을 요구하였다. 명과 후금 사이에서 중립적 태도를 보이던 광해군은 명의 압력과 대신들의 독촉으로 강홍립을 도원수로 삼아 조선군을 파병하였다. 그러나 조선군이 사르후 전투에서 후금에 투항한 이후 광해군은 명의 추가 파병 요구를 거절하였다. 후금에는 파병의 불가피함을 내세워 관계가 악화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에 서인은 광해군의 중립 외교 정책에 불만을 품고 인조반정을 일으켰다(1623).



▲ 정묘·병자호란의 전개

삼전도비(한국 서울) ▶
병자호란에서 승리한 홍타이지가 자신의 공덕을 알리기 위해 세운 비석이다.



명은 인조반정을 묵인하는 대가로 조선에 주둔하던 명의 장수 모문룡과 연합하여 후금을 공격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조는 반정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명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이후 모문룡이 후금 정벌과 요동 수복을 천명하자 후금은 1627년 조선을 침공하였다(정묘호란, 정묘 전쟁). 하지만 후금은 후방에 있는 명을 염려하여 조선과 형제 관계를 맺고 세폐를 받는 조건으로 2개월 만에 철수하였다.

1636년 후금의 홍타이지는 황제를 칭하고 국호를 ‘청’으로 고쳤다. 그리고 이 사실을 조선에 통보하고 신하의 예를 갖추도록 요구하였다. 조선이 이를 거부하자 홍타이지는 직접 조선을 침공하였다(병자호란, 병자 전쟁). 인조는 청군의 침입에 맞서 남한산성에서 저항하였으나 결국 삼전도에서 항복하여 청과 군신 관계를 맺었다.

병자호란 이후 조선은 명과의 관계를 끊고 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유지하였다. 하지만 오랑캐에게 당한 치욕을 씻어야 한다며 효종 대에 북벌을 준비하였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하였다.

▼ 남한산성(한국 경기)



3 전후 동아시아 사회의 변화

학습 목표 17세기 전쟁 이후 동아시아 사회의 변화상을 설명할 수 있다.

1644 명 멸망, 청의 베이징 정령
1681 청, 삼번의 난 진압
1683 청, 타이완 정령

명·청 교체와 동아시아 국제 질서

청의 성장으로 명과 청의 패권 다툼이 격화되었다. 그러나 이자성의 농민 반란으로 1644년 명이 멸망한 직후, 청은 산하이관을 지키던 명의 장수 오삼계에게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베이징을 점령한 청은 중국 각지를 정복한 후 삼번의 난을 진압하고 반청 세력의 근거지인 타이완을 복속하였다. 또한 주변국과 조공·책봉 관계를 계승하여 청 중심의 동아시아 국제 질서를 확립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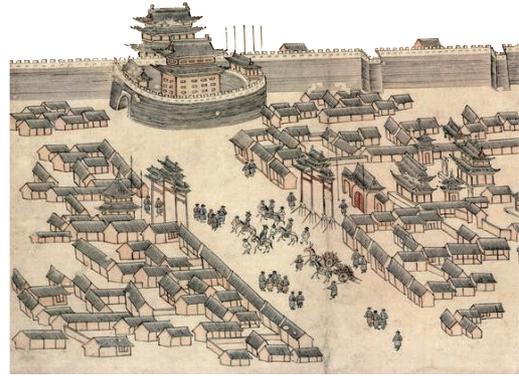
조선은 매년 조공 사절단으로 연행사를 보내 청과의 외교 관계를 지속하였다. 연행사는 황제나 황후의 생일 축하, 새해 인사, 왕의 사망이나 즉위 통보 등 여러 목적으로 청에 파견되었다. 일본은 조선과 국교를 재개하였지만 청과 조공·책봉 관계를 맺지 않았다.

명·청 교체 이후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사상적 변화가 나타났다. 청은 만주족의 중국 정복을 합리화하기 위해, 인의나 오륜 등의 유교적 가치를 지키면 어느 민족이나 중화가 될 수 있다는 문화적 화이론을 주장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만주족의 청은 명을 계승한 새로운 중화를 자처하였다.

조선에서도 ‘조선이 중화의 문명을 계승하였다.’라는 조선 중화주의가 등장하였다. 이 역시 지리적·종족적 요소를 배제한 문화적 화이론이었다. 일본의 에도 막부에서는 무력을 중시하는 사상과 함께 만세일계의 천황이 다스리는 일본이야말로 가장 우월한 나라라는 자국 중심 사상이 나타났다.

삼번의 난(1673~1681)

청에 투항한 한인 무장 출신으로 반왕에 봉해졌던 오삼계 등이 일으킨 난. 이 난의 진압으로 청은 중국 본토를 완전히 장악하게 되었다.



▲ 「연행도」(한국 송실대기독교박물관) 베이징에 도착한 연행사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탐구 활동

화이론을 둘러싼 증정과 응정제의 대립

자료 1

중화와 이적(오랑캐), 사람과 금수 사이를 구분 짓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하는 지역이다. …… 중화의 바깥은 사방이 모두 이적이다. 중화의 땅에서 조금 가까운 자는 터럭만큼이나 사람의 기질이 있으나 멀어질수록 금수와 다름없다. …… 사람과 이적 사이에는 임금과 신하의 명분이 없다. - 증정, 『지신록』 -

자료 2

사람은 마음으로 어짊과 의로움을 알고 금수에게는 윤리가 없다. 어찌 (태어난) 곳이 중국 땅인가 그 바깥인가를 따져서 사람과 금수를 나눌 수 있겠는가? …… 순임금은 동이였고 (주나라) 문왕은 서이었다. 이러한 것이 어찌 그들의 거룩한 덕에 손상을 입혔겠는가? - 응정제, 『대의각미록』 -

1. 자료 1 과 자료 2 에서 각각 주장하는 화이론의 핵심 내용을 말해 보자.

2. 응정제가 자료 2 와 같은 화이론을 주장한 까닭을 말해 보자.

전쟁을 통한 인구와 문물 교류



▲ 이삼평 비(일본 사가현) 정유재란 때 일본으로 끌려가 아리타 자기를 만든 이삼평을 기리는 비이다.



▲ 동묘(한국 서울) 중국인이 전쟁 신으로 받드는 관우를 모시는 사당으로, 명의 요청에 따라 지어졌다.

일본은 임진왜란·정유재란 당시 조선에서 성리학자와 도공 등 약 10만여 명을 포로로 끌고 갔다. 또 서적과 금속 활자 등을 비롯한 각종 문화재를 약탈하였다. 이렇게 끌려간 학자와 기술자, 그리고 약탈당한 문화재는 에도 시대에 일본의 학문과 도자기, 인쇄술이 발전하는 밑거름이 되었다.

한편 일본 장수였던 사야카(김충선)를 비롯하여 전쟁 중 조선에 투항한 일본인도 1만 명에 달하였다. 이들은 조선에 조총 제작과 사격 기술을 전해 주었다.

일본의 에도 막부는 명과 외교 관계를 개선하려 하였으나 명의 거부로 뜻을 이루지 못하였으며, 조선에도 국교를 요청하였다. 조선은 북방에서 서서히 세력을 강화해 가는 여진을 의식하여 에도 막부의 요청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에도 막부의 요청에 따라 사절단으로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에도 막부는 통신사를 문화 교류와 자신의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데에 이용하였다.

정묘·병자호란으로 1000만 명가량의 조선인 중 50만 명가량이 후금(청)에 잡혀 갔다. 청에 잡혀간 조선인 후손 가운데 일부는 청의 문화계에서 유력 인사로 활동하거나 조선과 청 사이에 발생하는 외교상의 마찰을 줄이는 데 공헌하기도 하였다.

또한 정유재란 당시 관우를 섬기는 중국인의 신앙이 조선에 유입되었다. 중국인의 조선 이주도 활발하였는데 명의 멸망 즈음에는 이여송, 진린 등과 같은 명의 무장 후손이나 호안국, 문천상과 같은 송 대 저명 관료의 후손 등 많은 중국인이 조선으로 이주하였다.

동미전진 동아시아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다

- 작은 배를 타고 오사카에서 출발하여 큰 배로 옮겨 탔다. 이날 쇠환된 사람은 120여 명이였다. - 오윤겸, 『동사상일록』 -
- 돌아가는 길에 고구마를 구해서 동래의 관리에게 줄 예정이다. 문익점이 목화를 퍼뜨렸듯이 이것들을 다 살려서 우리나라에 널리 퍼뜨린다면 큰 도움이 되지 아니하겠는가. - 조엄, 『해사일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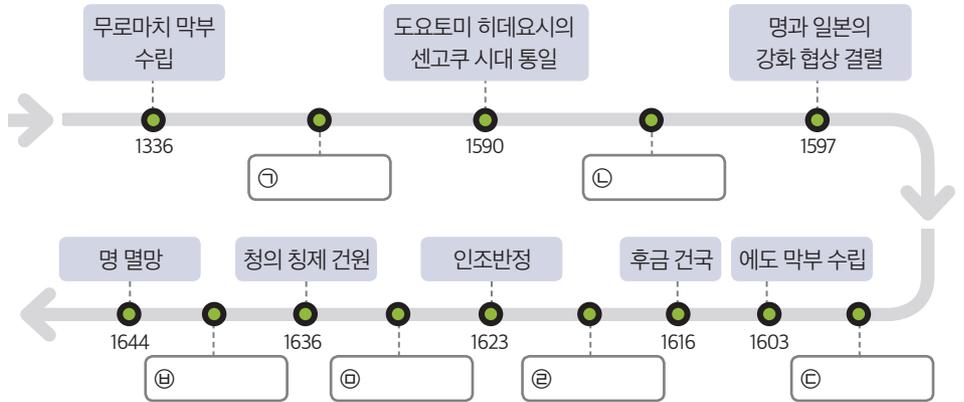
1617년(광해군 9)에 조선은 포로가 된 조선인을 데려오기 위해 통신사를 파견하였다. 통신사로 임명된 오윤겸은 400명이 넘는 인원을 거느리고 일본에 건너가 남아 있던 포로들을 찾아 데려오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후에도 통신사는 19세기 초까지 막부의 소군이 바뀔 때마다 계속 파견되었다. 이처럼 통신사는 전쟁 중 일본에 끌려간 조선인 쇠환과 일본 국정의 탐색, 에도 막부 소군의 계승 축하 등 다양한 외교적 역할을 하였다.

또한 통신사의 파견에 따라 조선의 성리학·천문학 지식 등이 일본에 전수되어 문화 교류도 이루어졌다. 1763년(영조 40)에 통신사 조엄은 쓰시마에서 고구마 종자를 가져와 조선에 전했으며, 그 재배법을 보급하였다.

스스로 학습



1 연표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



- | 보기 |
- 임진왜란
 - 병자호란
 - 정묘호란
 - 정유재란
 - 오닌의 난
 - 광해군의 중립 외교



2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자료 1

명나라는 우리나라에 있어 부모의 나라 이고 오랑캐(청)는 우리나라에 있어 부모의 원수입니다. 신하와 아들 된 자로서 부모의 원수와 형제의 의를 맺고 부모의 은혜를 저 버릴 수 있겠습니까. …… 어찌 차마 이런 시기에 다시 화의를 제창할 수 있겠습니까.

-『인조실록』-

자료 2

천하가 모두 오랑캐를 따르지만, 우리나라 만은 명나라의 제도를 고치지 않으니 청나라 도 우리를 예의의 나라라 하여 감히 예의에 벗어난 것을 우리에게 강요하지 못합니다. 이 하늘 밑에 우리만이 동주(東周)를 위하고 있는데, 귀국(일본)에서도 중화의 것을 쓸 용 의가 있습니까?

- 통신사 조태역과 아라이 하쿠세키의 필담(1711) -

- (1) **자료 1** 의 주장이 제기될 당시 동아시아 정세를 말해 보자.
-
-
- (2) **자료 2** 의 주장에 담긴 사상과 그 대두 배경에 관해 설명해 보자.
-
-

2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 생각 열기 | 중국으로 대량 유입된 에스파냐의 은화이다. 이 은화는 멕시코 산 은으로 만들어졌고, 순도와 중량이 일정해서 중국에서 인기가 있었다. 16세기 무렵부터 유럽과 동아시아의 교역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와 같은 은이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Q 16세기 이후 중국에 유럽의 은이 대량으로 유입된 배경은 무엇일까?

1 동아시아의 대외 교역

학습 목표 동아시아 교역의 발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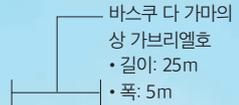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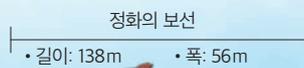
동아시아의 조공 무역과 해금 정책



▲ 임희원(1481~1565) 청렴함으로 이름이 높던 성리학자이다. 1547년에 조정에서 파견한 관리가 푸젠 성에 와서 밀무역 참여자를 조사하니, 임희원을 비롯한 신사층이 대거 포함되어 있었다.

명이 건국된 후 명과 조선, 일본, 류큐 사이에 조공 무역이 이루어졌다. 명 초 영락제 때부터 시작된 정화의 원정으로 동남아시아는 물론 멀리 아프리카 일부 국가가 명에 조공하기도 하였다. 조공 무역을 통해 명은 주변국을 통제하려고 하였으며, 주변국은 명의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자 하였다.

명은 조공 무역을 지속하기 위해 바다를 통한 사무역을 봉쇄하였다. 이러한 명의 해금 정책으로 자유 무역이 불가능해지자, 동남 연해 지방에서 무역에 종사하던 사람들이 밀무역에 뛰어들었다. 상인은 물론, 신사층을 비롯한 지방의 유력자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왜구와 밀무역에 나섰다. 이후 명은 군사력으로 왜구를 소탕하고 해금 정책을 일부 완화하였다.



조공 무역 속의 조선과 일본

조선은 명과 조공 관계를 맺고 정기적으로 사절을 파견하였다. 사절은 명에 인삼·종이·붓·화문석 등을 공물로 바치고, 생사·비단·약재·서적 등을 답례품으로 가지고 왔다. 사절단을 수행한 역관은 적극적으로 밀무역에 참여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이들은 대체로 명에 바치던 공물과 같은 종류의 물품을 판매하고 중국에서 비단을 비롯한 사치성 소비재를 수입하였다.

한편 조선은 남해안의 포구 세 곳에 왜관을 설치하고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본인의 무역을 허락하였다. 조선은 식량·옷감·서적 등을 수출하고, 구리·유황·물감·향료·약재 등을 수입하였다. 그러나 제한된 무역에 반발한 일본인이 삼포 왜란(1510)을 일으킨 후 무역은 점차 쇠퇴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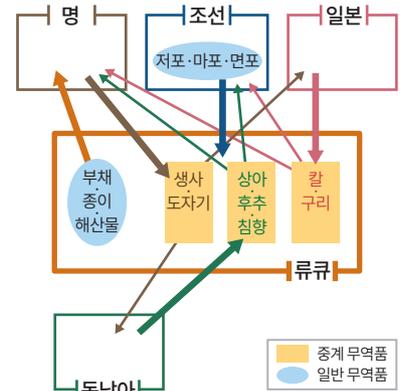
일본의 무로마치 막부도 명과 조공(감합) 무역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조공 무역만으로 일본은 명의 동전·도자기·비단 등을 충분히 얻기 어려웠고, 명도 일본의 구리·유황·은을 얻기 어려웠다. 16세기 중반 센고쿠 시대가 본격적으로 전개되자 무로마치 막부가 주도하던 감합 무역이 중단되고 밀무역이 더욱 성행하였다.



▲ 산하이관(연행도의 일부, 한국 송실대기독교박물관) 명·청 시대 조선 사신이 드나들었던 만리장성 동쪽 끝의 관문이다.

중계 무역 기지 류큐

명의 해금 정책으로 중국 상인의 활동이 위축되자 류큐의 중계 무역이 활발해졌다. 류큐는 지리적으로 동아시아나 동남아시아 각국과의 중계 무역에 적합하였다. 류큐는 명에 부채·종이·해산물 등을 수출하고, 생사와 도자기를 수입하여 이를 주로 일본과 동남아시아에 판매하였다. 또한 일본의 칼·구리, 동남아시아의 상아·후추·침향 등을 명과 조선에 판매하였다. 류큐는 조선에서 저포·마포·면포 등을 수입하고, 불경·유교 경전·법종 등도 조선에서 가져갔다.



▲ 류큐의 무역(14세기 후반~17세기 전반)

동아시아사 백과

감합 무역

14세기 후반 동아시아에서 왜구가 극성을 부렸으나, 1400년을 전후하여 명과 조선의 압력을 받은 쇼군 아시카가 요시미쓰의 왜구 단속이 어느 정도 성과를 올리게 되었다. 이에 명은 일본에 감합 무역을 허가하였다. 명은 감합을 발행하여 무로마치 막부에 지급하고, 이를 가지고 있는 자에게만 무역을 허가하였다.

감합 무역은 조공 무역으로, 명이 상인의 체재비 및 상품 수송비를 부담하였다. 명은 무역의 횟수와 인원, 규모 등을 규정하였으나 실제로 일본은 규정보다 훨씬 많이 파견하였다.



▲ 양국의 감합을 맞추어 보는 명의 관리

▲ 일본 무역선

2 유럽인의 진출과 동아시아의 은 유통 확대

1500 화위법 개발
1511 포르투갈, 몰라카 정령
1571 에스파냐, 필리핀 정령
1602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 설립

학습 목표 유럽과의 교역에 따른 동아시아의 은 유통 확대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유럽인의 아시아 진출과 교역망의 확대

14세기 이후 동남아시아는 유럽과 인도, 동아시아를 잇는 무역의 요충지로 떠올랐다. 유럽인은 향신료를 얻기 위해 아시아에 진출하였다. 특히 말레이반도에 있는 몰라카는 해상 교통로의 요충지였다. 포르투갈은 1511년에 이곳을 점령하고 아시아와 유럽 사이의 향신료 무역을 독점하였다. 명의 상인도 이곳으로 건너와 비단, 도자기 등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유럽과 동아시아를 연결하는 국제적인 교역망이 형성되었다.

에스파냐인도 동남아시아에 진출하였다. 이들은 1571년에 필리핀을 점령하고 무역 기지를 건설하였는데, 그중 마닐라는 갈레온 무역의 중심지였다. 이곳에서 에스파냐인은 멕시코의 아카풀코에서 가져온 은으로 명의 비단과 도자기 등을 사들였다.

16세기 말 이후에는 네덜란드인이 점차 무역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이들은 1627년 타이완을 점령하였고, 17세기 중엽에는 바타비아(오늘날의 자카르타)를 주무대로 삼아 활동하였다. 네덜란드인은 중국의 생사·비단·도자기와 동남아시아의 향신료를 구매하고 유럽의 은화로 값을 지불하는 중계 무역을 주도하였다. 또 포르투갈인을 제치고 일본과 유럽 간의 무역을 장악하였다.

◆ 갈레온 무역

16세기경부터 18세기 중엽까지 에스파냐가 대포로 무장한 갈레온선을 이용하여, 멕시코산 은과 중국산 물품을 교환한 태평양 횡단 무역이다.



▲ 갈레온선



16~17세기 은의 유통 ▶

한편 명의 부분적인 해금 완화 조치 이후 중국인이 동남아시아에 활발하게 진출하였다. 이들이 화교의 한 갈래를 형성하였다. 중국 상인은 자국산 비단과 도자기 등을 싣고 베트남의 호이안으로 가서 그곳의 소금·계피·금 등과 바꾸었다. 17세기 초에는 1만 명이 넘는 중국인이 필리핀의 루손섬으로 건너갔다. 이들은 중국산 생사·비단·철기 등을 에스파냐인에게 팔고 멕시코에서 건너온 은을 대가로 받았다.

명·청 대 은 유통의 확대

명 초에는 동전과 지폐인 보초가 화폐로 사용되었다. 대체로 보초는 고액 화폐로, 동전은 소액 화폐로 유통되었다. 그런데 명 조정이 보초를 남발하여 그 가치가 하락하자, 민간에 보초를 대신할 새로운 고액 화폐가 필요해졌다. 이에 새로운 고액 화폐로 등장한 것이 은이었다. 은은 실물 화폐였으므로 가치가 하락할 위험성이 적었다. 상업이 발달한 창장강 하류 삼각주 지역을 중심으로 민간에서 은이 고액 화폐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

또한 명과 청이 각각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는 일조편법과 지정은제를 시행하자, 일상생활에서 대부분 동전을 사용하던 농민들은 해마다 세금을 내기 위해 동전을 은으로 바꾸어야 했다. 그러나 은과 동전의 교환 비율은 늘 변했기 때문에 은값이 폭등하면 농민들은 큰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명·청 대에 사회와 경제가 안정되면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자 은의 수요가 더욱 늘어났다. 그러나 중국에서 자체적으로 생산되는 은만으로는 은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었다. 그 수요를 메운 것이 아메리카 대륙과 일본의 은이었다. 아메리카 대륙과 일본에서 생산된 은이 비단과 도자기로 대표되는 명·청의 상품과 교환되는 형태로 중국에 계속 유입되었다.



▲ 보초 홍무제 시기(1368~1398)에 호부에서 발행한 1관(동전 1천개) 짜리 보초 위조범은 참수하고 신고자는 은 250냥과 범인의 재산을 준다고 쓰여 있다.

◆ 지정은제

일조편법을 대신하여 옹정연간(1722~1735)에 도입한 징세 제도. 인정세를 고정시키고 이를 토지세에 합산하여 부과하였다. 이로써 사실상 토지세만 남았다.

동아시아



은은 중국의 사회와 경제를 어떻게 변화시켰을까?

명·청 대에 들어와 은은 지역 경제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되었다. 은이 많이 유입·유통되는 지역은 경제가 활성화되고, 은이 점점 빠져나가는 지역은 쇠락하였다.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 약 9년여에 걸쳐 일어난 백련교 반란은 청 왕조가 쇠퇴하는 분기점이었다. 그러나 백련교 반란을 진압하는 전쟁 비용으로 약 3천만 냥 이상의 은이 유입된 쓰촨 지역에서는 은 유통이 활발해졌고 상인과 지주층이 성장하여 지역 경제가 활성화하였다.

반면에 19세기 중엽 장쑤성 북부 지역에서는 소금을 외부로 판매하여 얻던 매년 1천만 냥 이상의 은이 태평천국 운동으로 유입되지 않자, 지역 경제가 급속히 침체하였다. 침체가 길어지자 이 지역 주민 중 일부는 신홍 도시 상하이로 건너가 인력거꾼, 부두 노동자, 청소부, 분노 처리꾼, 목욕탕 안마사 등 하층 빈민이 되어 근근이 생계를 이어 갔다.



▲ 마제은 명·청은 은을 말굽 모양으로 만들어 무게를 달아 화폐로 사용하였다.

동아시아 은 유통망 속의 조선과 일본

16세기 이전 조선은 은을 화폐로 이용하지 않아 은 수요가 적고 은광 개발에도 소극적이었다. 그러나 16세기 이후 명에서 생산된 비단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 대금으로 지불하는 은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조선은 일본에 인삼을 판매하고 그 대금으로 받은 은을 명에 비단 값으로 지불하였다. 이리하여 은은 동아시아 세계 내부의 국제 교역을 뒷받침하는 화폐로 널리 사용되었다.

17세기 중반 이후 조선은 청에 끌려간 사람들을 데려 오기 위한 몸값으로 은이 필요하였다. 또 청과의 교역이 늘어나자 은의 수요가 늘어났다. 이에 조선은 단천을 비롯하여 각지의 은광을 본격적으로 개발하였다. 17세기 말에는 70여 곳의 은광이 개발되었고, 국가의 허가를 받지 않고 몰래 채굴하는 잠채도 행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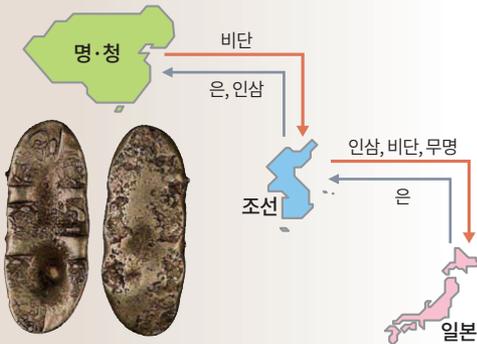
일본은 16세기 초 조선에서 들여온 회취법을 활용하여 은을 본격적으로 생산하였다. 특히 이와미 은광이 개발되면서 본격적인 은광 개발 시대가 열렸다. 센고쿠 다이묘들은 경쟁적으로 은광 개발에 나섰다. 16세기 말에는 전 세계 은 산출량의 3분의 1을 일본산 은이 차지할 정도였다.

일본의 은은 생사·비단·약재의 대금으로 쓰이면서 중국으로 유출되었다. 조선의 인삼을 구입하기 위한 은 유출도 많았다. 인삼 대금으로 지불된 일본 은은 교토에서 출발하여 오사카와 쓰시마를 거쳐 부산으로 건너와 한양에 유입된 후 조선의 대청 무역 대금으로 지불되었다. 이로써 교토를 출발지로 하고 한양을 중계지로, 베이징을 종착지로 하는 동아시아 은의 국제 유통로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18세기 초 점차 은이 고갈되자 에도 막부는 인삼을 자체적으로 재배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은의 유출을 줄였다.

회취법

1503년 조선에서 개발한 연은 분리법이다. 무쇠 화로나 냄비 안에 재를 두르고 은이 포함된 납 덩어리를 채운 다음, 깨진 질그릇으로 사방을 덮고 불을 피워 녹이면 납은 재 안에 남아 스며들고 은만 재 위에 남는다.

조선의 중계 무역



▲ 인삼대왕고은(일본은행화폐박물관) 에도 막부가 조선 인삼을 구입하기 위해 1710년부터 주조한 은화로, 은화 20개를 인삼 1관과 교환하였다.

동아시아사 백과

이와미 은광



동아시아의 대표 은광이었던 일본의 이와미 은광은 조선에서 회취법이 들어오면서 발전하였다. 17세기 초에 전성기를 누렸고 수만 명의 노동자가 채굴과 제련에 종사하였다. 이와미 은광은 당시 서양인에게도 유명하였다. 17세기 말 은 생산량은 매년 1~2톤에 달했지만, 19세기 중반에는 매장된 은이 고갈되어 100kg으로 감소하였다.

◀ 이와미 은광 갱도 입구(일본 시마네현) 이와미 은광은 2007년 유네스코 세계 유산으로 지정되었다.

홍어 장수 문순득의 동아시아 견문



문순득(1777~1847)은 지금의 전라남도 신안군 우이도 사람으로, 나주에 홍어를 내다 파는 상인이었다. 1802년 1월, 숙부와 마을 사람 4명과 함께 대흑산도 남쪽 태사도에서 홍어를 사서 돌아오다가 거센 바람을 만나 류큐로 표류하였다. 이후 류큐에서 필리핀, 마카오, 난징, 베이징을 거친 끝에 문순득은 1805년 1월, 3년 만에 귀가하였다.



우이도에서 유배 중이던 정약용의 형 정약전이 문순득의 표류 경험을 듣고 표류 과정 및 류큐, 필리핀, 마카오, 중국 등의 풍속과 의복, 가옥, 토산품, 언어, 선박 등을 소개한 『표해시말』을 저술하였다.

청

1804년 4월 23일 도착

양저우 이후부터는 배가 갑문과 도크를 통과해서 가는데, 양안은 돌로 독을 쌓았고 독 밖의 논은 모두 수면보다 수십 자 아래에 있었다. 배들은 운하를 통해 가는데 모두 군사들이 끌었다.

1802년 1월 29일 도착

류큐 사람은 어린이나 동년배를 만나도 일어나지 않고 꿇어앉아 합장하고 엎드린다. 앉을 때는 반드시 꿇어앉는다. …… 다른 사람과 음식을 먹을 때 젓가락으로 반찬을 집어서 손바닥에 놓고 입을 대어 먹는다. …… 시장에 앉아서 장사하는 사람은 모두 여인이다.

1803년 9월 9일 도착

마카오에 도착했다. 필리핀 사람과 홍모(紅毛) 서양인 수만 호가 살고 있다. 땅은 좁고 사람은 많아서 집 위에다 집을 올리고 있다. 관청이 하나 있는데 주로 번방을 살피고 손님을 접대하며 상인에게 세금을 징수한다.

1802년 11월 1일 도착

필리핀 사람은 반드시 의자에 앉는다. 사람을 만나면 예의를 차려서 손을 흔들거나 갓을 벗어서 흔든다. 부모나 어른을 만나면 그 손을 끌어다 냄새를 맡는다. 밥 짓는 일은 남자가 하고 밥을 먹을 때는 가운데에 밥 한 그릇, 반찬 한 그릇을 놓고 남녀가 둘러앉아 손으로 먹는다.

1 문순득이 본 서양인이 당시 해당 지역에 진출하게 된 배경을 알아보자.

참의

2 문순득이 당시 보았을 내용을 추측하여 가상의 견문록을 써 보자.

3 17~19세기의 동아시아 교역

1684 데지마 앞공
1678 조선, 조랑왜관 설치
1684 청, 천계령 해제
1757 청, 대외 교역항을 광저우로 한정
1793 영국, 매킨니 사절단 파견

학습 목표 17~19세기 동아시아 교역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

청의 대외 교역 정책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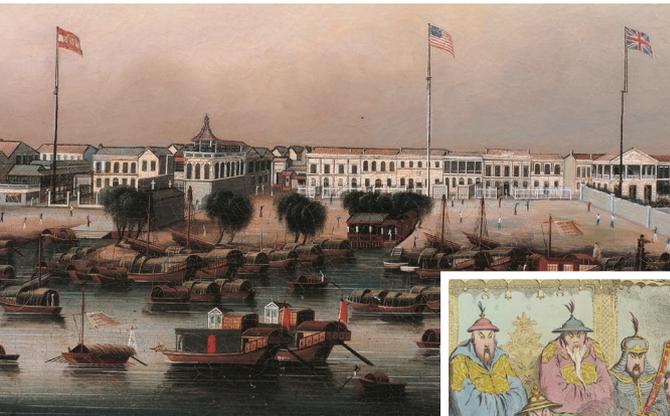
◆ 천계령

1661년 청 정부가 반청 해상 세력과 연해 주민의 연합을 차단하기 위해 연해 주민을 강제로 내륙으로 이주시킨 조치이다.

청은 동남 연해에서 반청 활동을 하던 정성공 세력을 제압하기 위해 천계령을 시행하여 푸젠·광둥 등지의 연해 지역 주민을 내륙으로 강제 이주시켰다. 1683년 타이완을 정복하여 반청 세력을 진압한 청은 천계령을 해제하고, 광저우 등 4개 항을 외국 상인에게 개방하였다.

그러나 청은 서양인과 한인이 결탁하여 반청 운동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1757년에 3개 항구를 폐쇄하고 대외 무역항을 광저우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공행을 설치하여 대외 무역을 독점하게 하였다. 공행은 청의 관원을 대신하여 서양 상인을 감독하였으며, 관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였다. 이러한 광둥 무역 체제는 난징 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서양 각국은 청이 무역항을 광저우로 한정하고 자국 상인의 활동에 제약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영국은 매킨니 사절단 등을 보내 자유 무역을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무역 금지 적자가 심해지자 영국은 삼각 무역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서양 세력은 청의 이러한 무역 통제에 불만을 품고 19세기 중엽부터 군사적 침략을 시도하였다.



▲ 광저우 상관 공행은 서양 상인이 광저우의 상관 밖으로 자유롭게 나가지 못하도록 단속하였다. 또 무역하지 않을 때는 광저우의 상관에 거주하지 못하게 하였다.

그러나 청은 서양인과 한인이 결탁하여 반청 운동을 일으킬까 염려하여 1757년에 3개 항구를 폐쇄하고 대외 무역항을 광저우로 제한하였다. 그리고 공행을 설치하여 대외 무역을 독점하게 하였다. 공행은 청의 관원을 대신하여 서양 상인을 감독하였으며, 관세를 징수하여 정부에 납부하였다. 이러한 광둥 무역 체제는 난징 조약을 체결할 때까지 유지되었다. 서양 각국은 청이 무역항을 광저우로 한정하고 자국 상인의 활동에 제약가하는 것에 불만을 품었다. 영국은 매킨니 사절단 등을 보내 자유 무역을 요구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무역 금지 적자가 심해지자 영국은 삼각 무역을 통해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였다. 그리고 서양 세력은 청의 이러한 무역 통제에 불만을 품고 19세기 중엽부터 군사적 침략을 시도하였다.

◀ 건륭제를 알현하는 매킨니 서양인이 그린 풍자화이다.

동아시아사 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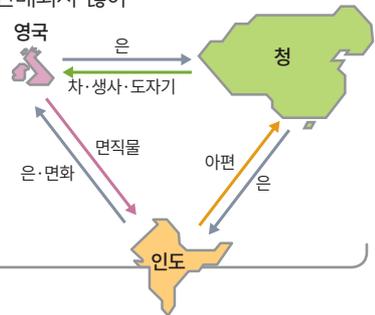
청과 영국의 무역 방식 변화

인물 사건 문화 제도



▲ 편무역(18세기 후반)

영국은 청에서 공행을 통해 차와 생사 등을 대량으로 수입하였으나, 동인도 회사를 통해 수출하는 모직물이나 면직물이 청에서 잘 판매되지 않아 많은 은을 지불하여 무역 적자가 쌓였다. 이에 영국은 식민지 인도에 자국산 면직물을 판매하고 대신 인도산 아편을 입수하여 청에 밀수출하였고, 그 대금으로 청의 차와 생사를 사고도 은이 남아 무역 흑자를 달성하였다.



삼각 무역(19세기) ▶

조선의 대외 교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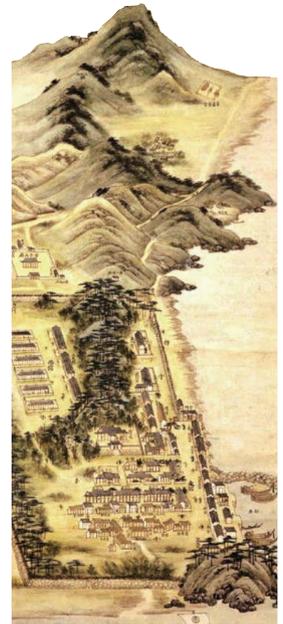
조선은 공무역인 개시와 사무역인 후시를 통해 청과 교역하였다. 주로 중강이나 책문 등지에서 교역이 이루어졌는데, 조선은 금·은·인삼·종이·소가죽·모시 등을 수출하고, 비단·약재·문방구·보석 등을 수입하였다. 개성의 송상과 의주의 만상 등이 청 상인과의 교역에 참여하였다.

1678년에는 일본과 무역이 이루어지던 왜관을 부산 초량으로 옮겨 설치하였다. 조선과 일본의 무역은 쓰시마를 통해 이루어졌다. 조선은 공무역으로 쓰시마에서 구리·주석·단목·은 등을 수입하고, 질 좋은 목면이나 쌀을 대가로 주었다. 조선의 상인과 쓰시마의 사신이나 관리, 상인 간에 사무역도 이루어졌다. 하지만 일본 은의 유입이 감소하면서 18세기 말부터 사무역은 쇠퇴하였다.

일본과 유럽의 교역

에도 막부는 17세기 초에 슈인장을 발급하여 해외 무역을 제한적으로 허락하였다. 이후 크리스티교가 확산하자, 에도 막부는 크리스티교 포교를 금지하고 해외 무역을 통제하기 위해 쇄국 정책을 실시하였다. 대신 나가사키를 지정하여 서양 국가 중 네덜란드와의 무역만을 공식적으로 허락하였다. 나가사키의 데지마는 서양과의 문물 교류 창구로 활용되었다.

한편 청에서 천계령이 해제된 후 청 상인이 나가사키에 와서 무역에 종사하였다. 나가사키에 중국인 거주지가 지정되었으며, 이들이 청과 일본의 무역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청 상인을 통해 은 유출이 급증하자 막부는 무역 허가증인 신패를 발행하여 청 상선의 입항을 통제하였다.



▲ 「초량왜관도」(한국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은 임진왜란이 끝난 직후 부산 절영도에 왜관을 설치하였다가 곧 인근의 두모포로 옮겼다. 1678년에는 입지 조건이 나은 초량으로 왜관을 다시 옮겼다.

◆ 슈인장

배를 타고 해외로 나가 무역할 수 있도록 허가한 증서로, 막부의 슈인[朱印]이 찍혀 있었다.

홍미진진 동아시아



나가사키의 인공 섬, 데지마

데지마는 에도 막부가 포르투갈인을 수용하기 위해 1634년부터 2년에 걸쳐 나가사키에 건설한 인공 섬이다. 그러나 포르투갈인이 금령을 어기고 크리스티교를 포교한 사실이 드러나자, 에도 막부는 1639년에 그들을 추방하였다. 대신 에도 막부는 1641년 포교보다는 무역에 집중하던 네덜란드인의 상관을 이곳으로 옮겼다.

데지마는 이후 약 200년 동안 네덜란드인의 대일 무역 근거지가 되었다. 공무상 출입하는 관리를 제외한 일본인의 출입은 제한되었고, 네덜란드인도 원칙적으로 데지마 밖으로 나오는 것이 금지되었다. 에도 막부의 쇼군은 네덜란드인이 전해 주는 소식을 토대로 서양의 정세를 파악하였다.



▲ 데지마 부채꼴 모양의 인공 섬이다.

4 동서양의 문물 교류

1549 하버에르, 기고시아 도착
 1582 마테오 리치, 마카오 도착
 1607 『원명본』 번역 출판
 1645 청, 사원령 채택
 1747 카스틸리오네, 원명본 설계 시작

학습 목표 16세기 이후 동아시아에 유입된 서양 문물을 설명할 수 있다.

명 말, 청 초 이후 선교사의 활동



▲ 마테오 리치와 서광계

16세기 말 이후 서양 선교사들은 그리스도교를 포교하기 위해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로 건너왔다. 명 대 최초의 선교사는 1582년 마카오에 도착한 예수회 출신의 마테오 리치였다. 그는 세계 지도인 「곤여만국전도」를 제작하였으며, 지구의·해시계·프리즘·자명종 등 서양의 과학 기구를 명에 소개하였다. 또한 유클리드의 『기하원본』을 명의 고관이자 그리스도교도가 된 서광계와 함께 중국어로 번역하였고, 『천주실의』를 한문으로 저술하였다.

.....
 집과 목수로 비유된 존재는 각각 무엇인지 말해 보자.

- 중국 지식인: 천주가 태초에 만물을 창조하고 그것을 변화·발전시킨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 서양 선교사: 집은 스스로 세워질 수 없고 언제나 목수들이 완성합니다. 천지는 스스로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천주가 반드시 계심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 마테오 리치, 『천주실의』 -

◆ 원명원

베이징 교외에 있는 왕실 정원으로, 19세기 서양 세력의 침입으로 크게 파괴되었다.

선교사들은 천문과 역법을 포함한 과학 지식이나 화포 제작 등의 군사 기술, 그리고 음악과 미술 등의 예술 방면에도 조예가 깊었다. 명 말에 중국으로 건너온 아담 샴은 서양 역법을 소개하고 조총의 제작법을 전해 주었다. 그는 청 대에 천문과 역법을 관장하는 흠천감의 책임자로 활동하면서 명 대의 대통력을 시헌력으로 개정하였다. 청 대에 페르비스트는 세계 지도인 「곤여전도」를 제작하고, 카스틸리오네는 건륭제 시절에 원명원의 서양식 건물을 설계하고 많은 서양화를 남겼다.

강희제 통치 시기에 조상 제사나 공자 숭배 등을 둘러싼 전례 문제로 그리스도교의 포교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지만, 선교사들은 천문과 역법·의학·예술 방면에서 궁정에 봉사하는 조건으로 계속 중국에서 활동하였다.

▼ 「백준도(타이완 고궁박물관) 카스틸리오네가 1백 마리의 말을 그린 그림이다.



조선의 서양 문물 수용

조선은 1627년 네덜란드인 벨테브레이(박연)가 제주도에 표착한 것을 계기로 서양인과 처음 접촉하였다. 벨테브레이는 훈련도감에서 서양식 총포 제작에 참여하였다. 1653년에는 네덜란드의 동인도 회사 선원이었던 하멜과 그 일행이 제주도에 표류하였다. 하멜은 1666년에 일본으로 탈출하여 두 해 뒤 본국에 도착하였고, 『하멜 표류기』로 알려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서양 문물의 접촉과 도입은 주로 베이징을 다녀온 사절단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두원은 사절단의 일원으로 명에 갔다가 예수회 선교사에게서 서양 과학책과 자명종, 천리경 등을 받아 와 소개하였다. 또한 새로운 화약 제조법도 전하였다. 홍대용은 연행 사절단을 따라 베이징으로 가서 흠천감을 방문하였다. 그는 천문 관측기구를 관람하고 서양인 선교사로부터 서양의 천문 관측 기법을 배웠다. 또 지구 자전설과 지구 구형설을 담은 『의산문답』도 저술하였다. 연행 사절단이 전해 준 서양 문물은 조선의 지식인에게 학문적 자극을 주었다. 18세기 북학과 실학자들은 서양 문물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다.

한편 청에서 귀국한 소헌 세자는 아담 샬로부터 지구의와 크리스트교 교리서를 받아 왔다. 아담 샬의 시현력은 조선에도 들어와 19세기 말 태양력을 도입하기 전까지 시행되었다. 또한 세계 지도인 「곤여만국전도」와 지리서인 『직방외기』가 유입되면서 지리 관념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아프리카, 아메리카 및 오늘날의 오세아니아까지 확장되었다. 이리하여 조선 지식인이 지닌 전통적인 중국 중심의 세계관이 변화하였다. 하지만 성리학적 세계관에 젖어 있던 대부분의 지식인은 서양 과학 기술을 받아들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



▲ 『하멜 표류기』 삽화 14년간에 걸친 하멜 일행의 조선 역류 생활을 기록한 책이다. 유럽에 조선의 지리와 풍속, 각종 제도 등을 최초로 소개하였다.



▲ 자명종과 천리경(한국 실학박물관)

동아시아사 백과

「곤여만국전도」

「곤여만국전도」는 1602년 마테오 리치와 명의 학자 이지조가 제작한 세계 지도이다.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등의 5대 주를 그리고, 각 대륙의 민족과 산물 등을 지리지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적도, 지중해, 대서양, 구라파, 아세아 등 오늘날에도 통용되는 지리 용어가 사용되었다.

이 지도는 당시 중화적 세계관을 갖고 있던 동아시아 지식인의 세계관에 큰 충격을 주었다. 1708년 조선에서도 각종 동물, 선박 등이 추가된 「곤여만국전도」가 제작되었다.



▲ 「곤여만국전도」(일본 도호쿠대학부속도서관)

인물 사건 문화 제도

일본의 서양 접촉



▲ 프랜시스코 하비에르(1506~1552)

일본에 가장 먼저 선교사로 온 사람은 에스파냐 출신의 예수회 선교사 프랜시스코 하비에르였다. 그는 16세기 중엽 일본 규슈 지역에 크리스티교를 포교하였다. 크리스티교는 빠르게 확산하여 지방의 다이묘와 가신들 가운데 크리스티교를 수용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포르투갈은 일본과 1571년부터 무역을 시작하였다. 포르투갈인은 중국산 비단이나 생사를 일본 은과 교역하면서 마카오와 나가사키를 왕래하는 중계 무역에 종사하였다.

그러나 서양 세력의 일본 진출을 염려한 에도 막부는 크리스티교 금교령을 내리고 많은 신자를 처형하였다. 또한 에스파냐와 포르투갈의 선박이 일본으로 오는 것을 통제하고, 네덜란드 선박만 대외 무역 창구인 나가사키의 데지마에 올 수 있게 하였다.

서양에 전해진 동아시아 문물



▲ '휴일'(제임스 티소, 1876년 작) 유럽에서 차 마시는 습관이 유행하였음을 보여주는 그림이다.

서양 문물이 동아시아로 전해짐과 동시에 동아시아 문물도 유럽으로 전해졌다. 선교사들은 중국의 정치와 문화, 사회 사정 등을 유럽에 소개하였다. 마테오 리치는 『중국견문록』을 써서 중국의 사정을 상세하게 유럽에 전하였다. 『논어』와 같은 중국 고전은 볼테르 등의 계몽사상가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명과 청의 비단·도자기·차 등은 서양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특히 차 마시는 풍습이 크게 유행하였다. 17세기 중반 이후 일본의 아리타 자기가 서양으로 수출되었고, 에도 시대의 미술은 서양의 인상과 화가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

탐구 활동 2

유럽으로 건너간 중국인

자료 1

심복중은 장쑤성 사람이다. 1680년 선교사 필립 쿠퍼레를 따라 유럽으로 건너갔다. 옥스퍼드 대학 도서관장이 『중국도량형고』를 저술하는 작업을 도왔다. 1685년 영국 국왕 제임스 2세의 즉위식에 참석하였다. - 주검지,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

자료 2

황가략은 푸젠성 사람이다. 1702년 선교사 아르투스 드 리온느를 따라 유럽으로 건너갔다. 파리 외방 선교회 소속의 학교에 머물면서 『중불사전』 편찬과 중국어 문법 체계화 작업에 참여하였다. - 주검지,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

1. 자료 1 과 자료 2 를 토대로 유럽으로 건너간 중국인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말해 보자.
2. 당시 유럽인의 눈에 비친 동양의 모습이 어땠는지 조사해 보자.

스스로 학습



1 동아시아 각국의 교역 모습을 나타낸 표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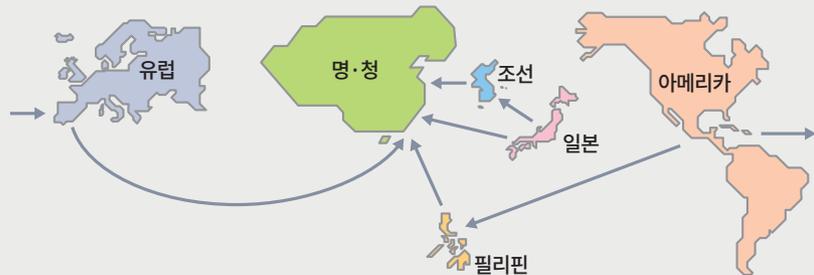
중국	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_____ 의 원정으로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일부 지역까지 조공 확대 무로마치 막부에 무역 허가증인 ㉡ _____ 을 발급하여 무역 허용
	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청 세력(정성공)과의 접촉을 막기 위해 해안 주민을 내륙으로 이주시키는 ㉢ _____ 공포(1661) 광저우에 ㉣ _____ 을 설치하여 대외 무역 독점권 부여
조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명에 가는 사신을 수행하는 역관과 상인들의 사무역 전개 부산의 초량 ㉤ _____ 을 통해 쓰시마 상인의 제한된 무역 허용
일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에도 막부가 무역 허가증인 ㉥ _____ 을 발급하여 무역 통제 네덜란드 상인에게 ㉦ _____ 를 개항하여 무역하게 함.
㉧ _____		명의 해금 정책으로 중계 무역 발전(명·청, 조선, 일본, 동남아시아 등과 교역)

2 인물과 관련 있는 내용을 연결해 보자.

- | | | |
|----------------|---|------------------------------|
| (1) 하멜 | • | ㉠ 일본에 크리스티교를 포교하였다. |
| (2) 마테오 리치 | • | ㉡ 원명원을 설계하고 서양화를 많이 남겼다. |
| (3) 카스틸리오네 | • | ㉢ 조선 억류 이후 탈출하여 표류기를 저술하였다. |
| (4) 프랜시스코 하비에르 | • | ㉣ 「곤여만국전도」, 『천주실의』 등을 제작하였다. |



3 17~18세기 은의 중국 유입 경로를 나타낸 그림이다. 물음에 답해 보자.



(1) 위 그림과 같이 전 세계 은이 중국으로 유입된 배경과 그 과정을 써 보자.

.....

(2) 위와 같은 은의 유입에 따라 나타난 중국 사회의 모습을 써 보자.

.....

3 사회 변동과 서민 문화



| 생각 열기 | 18세기 중반 청의 건륭제 때 궁정화가 서양이 변화한 쑤저우의 모습을 그린 「고소변화도」이다. 태평성대의 윤택한 백성의 삶을 그린 그림이라는 뜻의 '성세자생도'라고도 불린다. 가로 12m의 화폭에 그린 이 그림은 1만여 명이 넘는 사람과 수백 개의 상점과 배 등이 세밀하게 묘사된 대작이다.

Q 쑤저우 등의 도시가 이와 같은 번영을 누리게 된 사회적·경제적 배경은 무엇일까?

1 농업의 발달과 인구 증가

학습 목표 17세기 이후 농업 생산력의 변화 모습을 인구 증가와 연관 지어 설명할 수 있다.



농업 생산력의 발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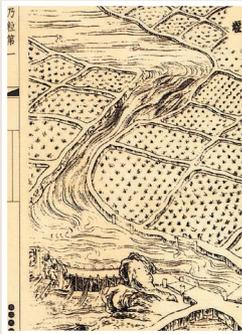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각 지역에서 곡물의 품종 개량, 수리 시설 정비, 시비법, 모내기법을 비롯한 농업 기술이 발달하였다. 또한 집약 농업의 확대와 개간에 따른 경지 면적의 증가로 곡물 생산량이 늘어났다.

명 대에는 '창장강 유역의 후광 지역에 풍년이 들면 천하가 풍족하다.'라는 말처럼 후난과 후베이성 지역이, 청 대에는 쓰촨성 지역이 곡창 지대가 되었다. 이 지역에서 생산된 쌀은 창장강과 운하를 통해 전국으로 유통되었다. 강남 지역에서는 직물업을 위한 뽕나무나 면화를 재배하여 수입을 올리는 농가도 늘어났다.



▲ 명·청 대 곡창 지대인 쓰촨, 후광(후난과 후베이) 지역

농업의 발달



▲ 평야 지대의 강을 막아 물을 이용하는 연 명·청 대 벼농사의 발전은 관개 수리 시설의 발전을 배경으로 이루어졌다.



▲ 조선의 경작도 모내기하는 모습이다. 모내기기는 이모작을 가능하게 하고 수확량을 높였다.



▲ 일본 농기구 다양한 농기구의 개발로 집약적 농업이 발전하고 토지 생산성도 향상되었다.

조선에서도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대되고, 시장에 내다 팔기 위한 쌀·면화·채소·담배·인삼 등의 재배가 확대되었다. 일본에서는 다이묘들이 개간을 장려하면서 경지 면적이 늘어났으며, 다양한 농기구가 개발되었다.

한편 신향로를 개척한 유럽인과의 교역을 통해 아시아에도 아메리카가 원산지인 새로운 작물들이 들어왔다. 옥수수, 감자, 고구마 등의 신작물은 구황 작물의 역할을 하며 식량 문제 해결에 큰 도움을 주었다. 고추나 담배 등도 상품 작물로 재배되어 농가 소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였다.

◆ 모내기법

범씨를 모판에 뿌렸다가 모판에서 자란 모를 눈에 옮겨 심는 방식이다.

인구의 증가

17세기 이후 동아시아 지역에는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고 새로운 구황 작물이 도입되어 인구가 증가하였다. 중국에서는 종두가 발명되었으며, 그 기술이 전국으로 퍼져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키웠다. 또한 명의 『본초강목』이나 조선의 『동의보감』과 같은 의학 서적이 발간되는 등 의료 기술이 향상되어 사망률이 낮아졌다.

북송 시대에 1억 명을 돌파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중국의 인구는 1850년경에 4억 3000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러나 청 대 후기에 인구가 급증하여 경작지가 부족해지자 생활 여건이 악화하여 사회 불안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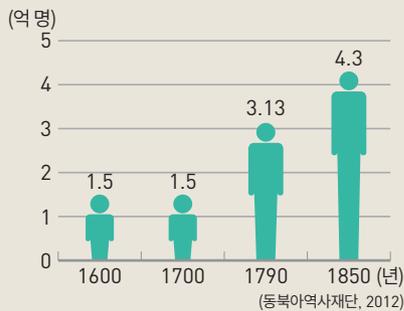
조선에서도 두 차례의 전쟁을 겪고 난 후 18세기 들어 사회가 안정되면서 인구가 늘어났다. 일본도 에도 시대에 들어 꾸준히 인구가 늘어났으나, 18세기 들어 자연재해에 따른 대기근 등으로 인구가 정체되기도 하였다.

◆ 『본초강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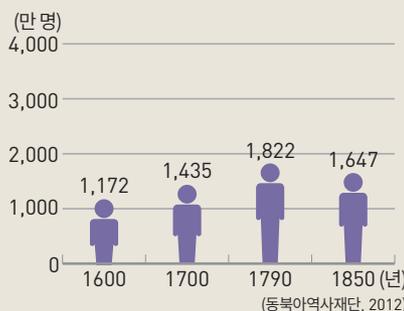
명의 학자 이시진이 20여 년간 노력하여 편찬한 의학서이다. 많은 약재와 처방전이 실려 있고 동식물 삽화도 그려져 있다.



▲ 『동의보감』(한국 국립민속박물관) 허준이 편찬한 의학서로, 동양 의학 발전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01년에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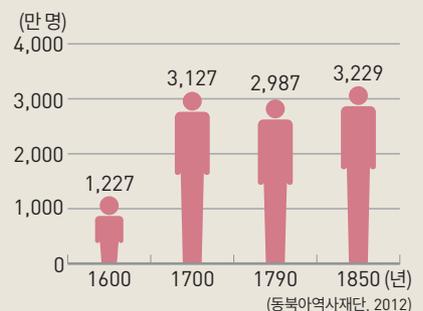


▲ 중국의 인구 변동 신대륙에서 들어온 작물과 의료 기술의 발달로 19세기 중반 4억 명을 넘어 250년 동안 세 배 가까이 늘어났다.



▲ 조선의 인구 변동 왜란과 호란으로 급감했던 인구는 점차 증가하여 18세기 후반에 1800만 명을 넘어섰다. 그러나 19세기 들어 흉작과 전염병 등으로 감소하였다.

17~19세기 동아시아의 인구 변동



▲ 일본의 인구 변동 17세기 에도 막부의 전성기를 지나면서 3000만 명이 넘었으나 18세기 후반 기근과 전염병으로 증가 추세가 주춤하였다.

2 상업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

학습 목표 동아시아 지역에서 나타난 상업 발달의 모습과 도시의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1635 산천코리이 의무화
1700 대동법 전국 시행

상업과 수공업의 발달



▲ 청대 견직물 상점



▲ 징더전의 도자기

명·청 대에는 민영 수공업이 더욱 발전하였다. 강남 각 지역의 도시와 농촌에서 견직물, 면직물, 제철, 도자기 등의 수공업이 크게 발달하였다. 특히 강남의 쭈저우, 항저우, 난징, 징더전 등지에서 도시 수공업이 발달하였는데 쭈저우의 견직물과 징더전의 도자기는 매우 유명하였다.

민영 수공업의 발전과 함께 은의 대량 유입, 운하와 각지로 연결된 도로 등을 통해 상업도 번성하였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각 지역에서 조달되는 물품 교역으로 상품 유통망은 더욱 확산되었다.

조선에서도 농촌 경제의 성장, 수공업의 발전을 통해 상업이 발달하였다. 연해 지역과 육상의 교통망이 정비되면서 교통의 요지와 포구에 물자가 집결되었고, 전국적으로 장시가 성장하면서 상품 유통이 활발해졌다.

공물을 토산물 대신 쌀이나 포, 동전으로 납부하는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관청에 물품을 조달하는 공인이 성장하고 상품 화폐 경제의 발전이 촉진되었다. 정부는 일부 독점 상인의 특권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상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정책을 추진하였다. 상업의 발전에 따라 상평통보가 발행되어 유통되었다.

일본에서도 금, 은 채굴과 제련 기술의 발달로 광업과 수공업이 성장하고 고급 견직물을 비롯해 도자기, 술 등 각지의 특산품이 생산되어 판매되었다. 에도 막부가 연안 항로의 정비에 힘쓰면서 해상 교통로가 정비되고 육상 교통과 연결되는 교통 체계가 확립되어 쌀 시장과 같은 전국 단위의 거대한 시장이 형성되었다.



▲ 조선의 상평통보(한국 국립민속박물관) 조선 후기에 전국적으로 유통되어 물품 거래와 조세 납부에 이용되었다.

- 주요 육로
- 주요 해로
- 막부 직할령
- 주요 성곽 도시·속령 도시
- 주요 항구 도시

일본의 주요 교통로 ▶



대상인의 출현과 활동

상업이 발전함에 따라 자본을 축적한 대상인이 등장하였다. 명·청 대에는 전국적 유통망을 갖추고 활동한 산시 상인과 휘저우 상인이 유명하였다. 이들은 전국적인 상권을 장악하고 창장강 중하류 등지에서 소금을 독점적으로 판매하였으며, 면화·쌀·목재·차·생사·견직물·면제품 등을 유통하여 막대한 이익을 얻었다. 또한 각 지역에 회관을 건립하여 이를 거점으로 삼아 구성원의 이익을 도모하고, 관료와 돈독한 관계를 맺어 상업 활동의 입지를 넓히려 하였다.

조선에서도 송상이나 경강 상인과 같은 대상인 집단이 등장하였다. 특히 송상은 주요 지역에 송방을 설치하여 전국적 유통망을 가지고 상업 활동을 벌였다. 이들은 어음과 같은 신용 화폐를 이용하였으며, 청·일본과의 무역에도 개입하였다. 의주의 만상이나 동래의 내상도 청이나 일본 상인과의 교역을 주도하였다.

경강 상인은 서남해 연안과 한강을 오가며 쌀·소금·목재·어물 등을 판매하여 부를 축적하였다. 이들은 막강한 자본력과 권력의 비호 아래 상품을 매점하고 한양에서 출하 시기를 조절하면서 이익을 얻었다.

일본에서는 17세기 후반 상공업이 발달하고 도시가 번성하면서 조닌이 성장하였다. 조닌은 당시의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주도하였다. 조닌의 부가 축적되어 사치 풍조가 심해지자 막부가 사치 금지령을 내릴 정도였다.



▲ 명·청 대 산시 상인과 휘저우 상인의 활동



▲ 1673년 교토와 에도에 문을 연 미쓰이 포목점 바리다 매를 추구하고 고객을 우선시하는 영업 방식을 통해 성장하여, 현재 일본 굴지의 대기업이 되었다.

동아시아사 백과

조닌의 부 축적과 성장

오사카 항구에서 에도로 운송하는 술을 빚어 가문을 일으킨 사람도 있고 구리 광산에 손을 대 벼락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 요시노의 옷을 팔아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금을 손에 쥔 사람도 있다. 고바야라는 쾌속선을 만들어 선박업으로 이름을 날린 사람도 있다. 집을 저당 잡히고 대출하여 부귀하게 된 사람도 있다. 철광산의 채굴을 청부 맡아 점차 부자가 된 사람도 있다. 이들은 최근 30년 이내에 이렇게 벼락부자가 된 상인들이다.

- 이하라 사이카쿠, 『니혼에이타이구라』 -

조닌[町人]은 도시에 거주하는 상공인을 가리키는 말로, 조[町]는 '도시'를 의미한다. 에도 시대 도시의 상공인층은 변화하는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배경으로 부를 축적하며 성장하였다. "상인이 기침하면 무사가 감기에 걸리고", "오사카의 상인이 한번 노하면 천하의 다이묘들이 벌벌 떠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였다.

도시의 성장



▲ 조선의 한양

인구 증가, 상공업의 발전에 따라 도시가 성장하였다. 농촌에서 토지를 잃은 농민들과 재해로 기근에 허덕이는 사람들이 도시로 모여들었고, 상공업을 통해 생계를 유지하려는 사람들도 도시로 이주하였다.

명 중기 이후 수로 교통이 편리했던 창장강 유역의 강남에서는 시진이 급격히 늘어났다. 시진은 거미줄처럼 연결된 수로를 통해 유통망을 형성하였다.

조선에서도 18세기 들어 장시가 성장하였다. 상업의 발달에 따라 강경, 원산, 대구 등지가 상업의 요충지로 성장하였다. 한양은 대표적인 소비 도시로 18세기 후반 인구가 약 30만 명이 넘었다. 그러나 조선은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일본보다 도시의 성장이 더딘 편이었다.

일본 역시 에도 시대에 들어와 도시가 눈에 띄게 발전하였다. 조카마치는 군사적 방어 목적으로 무사들을 거주하게 한 도시로 조성되었으나 점차 제조, 무역, 상업 도시로 발전하였다.

바다와 육지가 접하는 위치에서 물산이 집결되는 오사카, 직물·염색·공예 등의 전통 산업이 발달했던 교토, 그리고 인구 100만 명이 넘는 거대한 소비 도시인 에도는 '3도'라 불리며 번성하였다.

특히 산킨코타이 제도에 따라 다이묘와 가족, 하급 무사, 도시 노동자에게 필요한 물품이 에도로 운송되었다. 도시의 성장과 상인의 활동으로 소비를 위한 부의 축적이 중요하게 인식되면서 신분 질서의 동요 현상이 점차 심해졌다.



▲ 히메지성 조카마치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무사와 조닌의 거주지가 구분되었다.

◆ 조카마치

다이묘가 거주하는 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행정·군사·상업 도시의 역할을 하였다.

◆ 산킨코타이 제도

에도 막부가 지방의 다이묘를 통제하기 위하여 다이묘를 정기적으로 에도에 머무르게 한 제도이다. 다이묘의 행렬로 교통과 숙박업이 발달하였으며, 에도에 소비 인구가 늘어나 상업이 발달하였다.

동아시아사 백과

명·청 대 강남의 시진

인물 | 사건 | 문화 | 제도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2007)

시진은 자연 발생적인 중소 도시를 가리킨다. 농촌 경제 활성화와 상공업의 발전으로 면포나 목재 등 상품이 모이는 시진은 주로 수로 교통의 요지에서 발생하였다. 시진은 업종별 전문화된 형태로 발전하였는데 16~19세기 쑤저우 지역의 시진 수는 대략 45개에서 140개로 세 배 이상 증가하였다.

일부 규모가 큰 시진은 대략 남북으로 3~5km, 동서로 2~4km에 달하였고, 인구는 청 대에 4천~5천 호에서 1만 호에 이르렀던 것으로 추산된다. 시진이 성장함에 따라 정부는 치안과 징세 분야에 상당한 통제권을 행사하려 하였다.

◀ 청 대 강남 주요 시진의 분포

3 서민 문화의 성장

1619 『서유기』, 『금병매』
소설 간행
1791 『홍루몽』 발표

학습 목표 동아시아 각국에서 등장한 서민 문화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명·청 대 서민 오락의 발전

명·청 대 재력을 지닌 상공인층이 성장하면서 서민 문화가 발전하였다. 도시의 경제력이 향상되면서 유흥과 오락이 활성화되고 도시는 문화 활동이 벌어지는 공간이 되었다. 특히 도시 인구의 증가는 다양한 문화의 소비층을 확대하였다.

서민층의 흥미를 자극한 통속 소설이 유행하여 명 대에는 『수호전』, 『삼국지연의』, 『서유기』, 『금병매』가 널리 읽혔다. 청 대에도 애정 소설이라 할 수 있는 『홍루몽』이나 관료 사회를 풍자한 『유림외사』 등의 소설이 출간되었다. 이러한 소설의 유행은 지식인이 민간 문학에 참여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긴 서민의 문화적 욕구가 늘어난 것에 기인하지만, 당시 인쇄술과 출판업의 발달도 배경이 되었다. 도시에서는 상업적 출판사들이 값싸게 출판한 다양한 책이 유통되었다.

◆ 『유림외사』

청의 오경재가 저술한 소설이다. 과거제의 폐단, 신사층과 관료들의 행위 속에 담긴 긍정적·부정적 측면을 생동감 있게 서술하였다.

소설과 더불어 서민들은 연극도 즐겼다. 청 대에 베이징 일대에서는 경극이 유행하였다. 배우들은 자신의 조합을 만들고 여러 극장을 옮겨 다니며 공연을 하였다. 베이징에만 수십 개의 대중 극장이 있었고 정부와 상인들도 극단을 지원하였다. 황제와 관리들은 유명 배우를 초청하여 공연을 보았으며, 유력한 상인들은 개인 극단을 운영하기도 하였다. 지방에서는 토속적 음악을 바탕으로 자유로운 구성에 통속적인 가사와 대화로 이루어진 지방희가 서민 사이에서 유행하였다.



▲ 악기를 연주하는 임대옥 청 대 소설근이 지은 소설 『홍루몽』은 가보옥과 임대옥, 설보체의 애정과 혼인의 갈등을 대강의 줄거리로 삼고 수많은 인물과 사건을 이야기에 엮어 넣었다. 당시 사회상을 생생하게 묘사하였다.

홍미진진 동아시아



베이징의 오페라, 경극

경극은 베이징에서 발전하여 중국 전역으로 퍼져 나갔다. 경극은 원 대 잡극부터 각종 지방희까지 다양한 작품이 있어 현재에도 공연 가능한 작품은 수백 편이 넘다고 한다. 그 소재는 역사와 민간 설화 등으로 다양하지만, 유달리 역사 소재가 많다. 청 대 베이징에서 성업하던 극장이 40여 개에 달하였고, 몇 개는 지금도 남아 있다. 연기는 노래인 창, 몸짓인 주, 무술 동작인 타, 대사인 념으로 이루어진다.

경극은 작품 전체를 공연하기보다 작품의 일부 대목을 집중적으로 공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를 절자희라 하는데 ‘술 취한 양귀비’라는 작품도 대표적인 절자희이다. 함께 연희를 하자고 약속한 제왕이 다른 여인을 찾아가자 양귀비가 혼자 술을 마시는 장면을 집중적으로 연출하고 있다.



조선 후기 서민 문화의 성장



▲ 「책 읽는 여인」(한국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조선 후기에는 서당 교육이 확대되고 서민 의식이 성장하는 가운데 한글 소설이 유행하였다. 소설의 지은이는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소설은 적당한 몸짓과 표정을 섞어 가며 읽어 주는 낭독이나, 돈을 주고 소설책을 빌려 읽는 세책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유행하였다. 민간에서 나무판에 글씨를 새겨 인쇄한 방각본도 만들어졌는데, 이는 소설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는 데 이바지하였다. 『춘향전』, 『심청전』과 같은 소설이 방각본으로 많이 출판되었다. 소설과 함께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 서민의 감정이나 현실 비판적인 내용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표현한 사설시조도 등장하였다.

공연 예술인 판소리도 유행하였다. 판소리는 전용 극장이나 무대 장치 없이 소리꾼이 장터에서 사람들을 모아 놀이판을 벌이거나 부잣집으로 초청을 받아 공연되었다. 「춘향가」, 「흥부가」, 「심청가」 등이 많이 불렸는데, 이는 낡은 전통적 규범에 대한 반발심을 지닌 서민들의 애환을 달래 주었다.

판소리와 함께 지역마다 특징적인 탈춤도 유행하였다. 춤과 노래, 사설로 서민들의 애환과 감정을 잘 드러낸 탈춤은 양반층의 위선이나 사회의 문제점을 풍자와 해학으로 풀어내 인기가 많았다. 특히 상인들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서 탈춤 공연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림에서도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는데, 서민의 일상생활을 소탈하게 그리거나 양반이나 부녀자의 유희 등을 있는 그대로 그린 풍속화와 다양한 소재의 민화가 유행하였다.



▲ 「가객 소리하고」(독일 함부르크 민족학박물관) 판소리 공연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탐구 활동 2

서민 문화의 발달



자료 1

「돈타령」

박홍보 좋아라고 칠청 밖으로 썩 나서서 얼씨구나 좋구나
돈 봐라 돈 돈 봐라 돈 돈 돈 돈 돈 봐라 돈, 이 돈을 눈에 대고
보면 삼강오륜이 다 보이고 조금 있다가 나는 지환을 손에다
쥐고 보면 삼강오륜이 끊어지니 보이는 것 돈 밖의 또 있느냐
돈 돈 돈 돈 봐라 돈, 떡국 집으로 들어가서 떡국 한 쪼개치를
사서 먹고 막걸리 집으로 들어가서 막걸리 두 쪼개치를 사서
먹고 ……
- 「흥부가」 -

자료 2

사설시조

두꺼비 파리를 물고 두엄 위에 치달아 앉아
건너 산 바라보니 하얀 송골매가 떠 있거늘, 가슴이 섬뜩하여
폴쩍 뛰어 내달리다가 두엄 아래 자빠졌구나
다행히도 날쌌 나이기에 망정이지 명이 들 뻔하였구나

- 「청구영언」 -

* 두꺼비는 탐관오리, 파리는 피지배층, 송골매는 권력자, 두엄은 부정으로 모은 재물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1. 자료 1 과 자료 2 의 내용을 통해 판소리와 사설시조가 갖는 특징을 설명해 보자.
2. 자료 1 과 자료 2 와 같은 문화 예술이 등장하게 된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설명해 보자.

조닌 문화의 유행

에도 시대에는 장기간에 걸쳐 정치가 안정되고 경제가 성장하면서 무사로부터 조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계층의 교육과 문화 활동이 활발해졌다. 초보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데라코야가 전국에서 문을 열었다. 특히 상공업의 발전으로 조닌의 영향력이 향상되고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자 이들이 누리는 조닌 문화가 발달하였다. 현실과 인간의 욕망을 인정하고 소비 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묘사한 소설이 유행하고, 인쇄술의 발달로 출판문화가 발전하였다.

공연 예술로는 분라쿠(닌교조루리)와 가부키가 유행하였다. 가부키는 시각적으로 화려한 의상과 복잡한 무대 장치, 그리고 고도로 양식화된 배우의 연기, 노래, 춤을 통해 흥행하였다. 에도에는 막부의 허가를 받은 영업용 극장이 다수 있었다. 무사의 복수를 다룬 「주신구라」를 비롯해 통속적인 이야기와 남녀 간의 사랑을 다룬 내용 등이 가부키의 주요 소재가 되었다.

연극이 진행되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저속한 모습이 전개됨에 따라 남자와 여자, 젊은이와 노인이 아무튼 전혀 거북해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바라보는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은 매우 재미있는 일이다. - 19세기 일본을 방문한 영국인 러드폴트 울콕의 글 -

한편 회화에서는 다양한 인물, 정치, 풍속 등을 그린 우키요에가 유행하였다.



▲ 데라코야 실생활에 필요한 읽기, 쓰기, 셈하기 등의 기능이나 지식을 가르쳤다.



▲ 분라쿠 사람만 한 인형을 숙련된 조종자가 섬세하게 조종하여 세밀한 동작과 표정을 연기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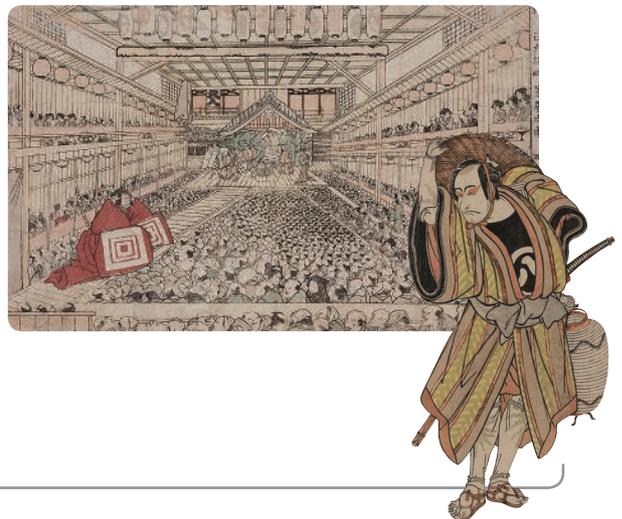
동아시아사 백과

가부키

인물 사건 문화 제도

에도 시대 가부키가 공연되는 극장 내부를 그린 그림이다. 당시 극장은 회전 무대, 무대 일부를 오르고 내리게 하는 장치, 배경을 전환하는 장치까지 설치될 만큼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였다. 요금에 따라 극장 좌석은 달랐다. 그림에서 관객석을 관통하여 무대까지 이어지는 길에 있는 사람은 5대 이치카와 단주로이다.

17세기에 활약한 최고의 가부키 배우 이치카와 단주로는 얼굴에 특유의 화장을 하고 머리와 의상 등이 크게 보이도록 하며, 위세 있는 걸음걸이 등을 통해 과장된 연기를 하였다. 이러한 연기는 이치카와 가문에 계속 전승되어 가문의 친자나 양자 중에 선조의 기예를 전승할 최고의 기예를 가진 사람에게 이치카와 단주로라는 예명을 받게 하였다. 현재는 12대 이치카와 단주로가 활동하고 있다.



17~19세기 민간 회화의 발전



17세기 이후 서민의 위상이 높아지면서 한국, 중국, 일본에서는 공통으로 민간 회화가 성행하였다. 그림 속에 나타난 사람, 풍속, 일상의 모습, 그리고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이들이 그린 소박한 붓놀림을 통해 당시 서민들 삶의 애환을 살펴보자.

소재

중국과 한국의 민간 회화는 귀신을 쫓고 복을 기원하며 교훈을 주는 등의 내용이 많았다. 반면에 일본에서는 기녀, 가부키 배우, 도회지 여성, 명승지 등 서민들의 생활에 가까운 소재를 이용하였다.

제작 방법

민간 회화는 값싼 그림이어야 서민들이 쉽게 살 수 있었다. 이를 위해서는 대량 생산 방식이 필요했고 판화가 활용되었다. 다만 한국 민화만이 대부분 붓 그림으로 제작되었다.

특징

중국의 민간연화는 세시 풍속의 하나로 발전하였다. 한국의 민화는 관혼상제 의식이 치러질 때 사용되는 병풍 그림으로 많이 그려졌다. 일본의 우키요에는 여가를 보내거나 실재를 장식하는 데 이용되었다.

중국의 민간연화



중국의 민간연화는 일찍부터 세시 풍속과 더불어 발전하였다. 잡귀를 쫓고 복을 불러들이기 위해 그림을 대문에 붙이거나 선물로 나누어 주는 풍속이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민간연화가 크게 유행한 시기는 18, 19세기였다.



- 「중규」 귀신을 쫓는다는 중규의 손 끝에 복을 부른다는 박쥐가 그려져 있다. 복과 박쥐의 중국어 발음이 같은 데에서 연유한다.
- 「계서승평」(중국국가박물관) 중추절에 토끼 신에 제사 지내는 모습이다. 집안의 화합과 평안을 바라는 뜻이 담겨 있다.
- 현대 중국의 연화 물고기를 안고 있는 아기의 모습이다. 재물이 넉넉해지기를 기원하는 의미의 연화이다. 물고기 어(魚)와 여유로울 여(餘)의 중국어 발음이 같은 데에서 연유한다.

한국의 민화



한국 민화는 「문자도」, 「책거리」 등이 많았다. 중국에서도 문자도가 많이 그려졌는데 중국의 「문자도」가 복을 기원한 것이라면, 한국의 「문자도」는 ‘효제충신 예의염치’와 같은 유교적 덕목을 다룬 것이 많았다. 또한 해학과 풍자라는 탈권위적 모습은 한국 민화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 □ 「문자도(제, 효)」(한국 리움미술관) 유교적 덕목인 공경할 제(悌)와 효(孝)라는 글자를 그린 문자도이다.
- ■ 「책거리」(일본 교토고려미술관) 기기묘묘한 공간 배치와 섬세한 장식성이 특징이다.
- □ 「까치 호랑이」(개인 소장) 우스꽝스러운 호랑이와 백성을 의미하는 까치를 통해 봉건 지배층을 풍자하고 있다.

일본의 우키요에



에도 시대의 물질적 풍요와 도시의 성장을 배경으로 일본식 목판화라 할 수 있는 우키요에가 유행하였다. 우키요에는 오락 및 유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일본의 우키요에는 19세기 유럽의 인상파 화가들에게도 영향을 주었다.



- □ 가쓰시카 호쿠사이의 「가나가와의 큰 파도」(일본 도쿄국립박물관) 가나가와 앞바다의 파도를 그린 모습으로, 배를 탄 사람들과 멀리 후지산이 그려져 있다.
- ■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오하시 다리의 소나기」(프랑스 기메국립아시아미술관)
- □ 고훈의 「베 내리는 다리」(네덜란드 반고흐미술관) 고훈이 우타가와 히로시게의 작품을 모방하여 그린 그림이다.

- ① 동아시아 각국에서 민간 회화가 발달하게 된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알아보자.
- ② 17~19세기에 각국에서 그려진 다양한 종류의 그림을 찾아보자.

4 새로운 학문의 대두

1725 『고금도서집성』 완성
1774 『해학신서』 간행
1778 박제가 『북학의』 저술
1781 『사고전서』 완성

학습 목표 17세기 이후 각국에서 대두한 새로운 학문적 경향을 알아보고 비교할 수 있다.

고증학, 공양학의 대두

명 말에 서양 학문이 들어오고 상공업이 발달하여 농학, 지리학, 역법 등의 실용적 학문에 관한 관심이 커졌다. 특히 고염무, 황중희, 왕부지 등이 경세치용의 입장에서 유교 경전과 지리서·역사서 등의 고전을 연구함으로써 정치 개혁 성격을 띤 학문이 발전하였다. 이러한 실사구시적 학문은 청이 안정기에 들어간 후 억압을 받기도 하였지만, 고증학 발달에 영향을 주었다.



▲ 황중희(1610~1695)

18세기 들어 실증적인 방법으로 문헌을 연구하는 고증학이 발전하였는데, 고증학의 실사구시적 학문 태도를 기반으로 『강희자전』, 『고금도서집성』, 『사고전서』 등 대규모 편찬 사업이 벌어졌다.

한편 청 말에는 『춘추공양전』을 연구하여 정치를 비판하는 학자들이 출현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로써 현실 개혁적인 공양학이 성립되었다. 공양학자 위원이 저술한 『해국도지』는 조선의 지식인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다. 서양 세력의 침입과 농민 봉기로 사회가 어려워지자 공양학은 정치 개혁의 사상적 근거를 제시하여, Kang Yu-wei 등이 주도한 변법자강 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 『고금도서집성』

강희제 때 시작되어 옹정제 때 완성된 백과사전이다. 당시까지의 중국 지식과 정보를 집대성하였다. 정조 때 조선에도 들어왔다.

◆ 『춘추공양전』

『춘추좌씨전』, 『춘추곡량전』과 함께 공자가 쓴 『춘추』에 대한 세 가지 해석서 중 하나이다. 『춘추』의 글 속에 숨어 있는 공자의 이념을 밝히려 하였다.

◆ 『해국도지』

세계 각국의 지세·산업·인구·정치·종교 등을 서술한 책이다. 19세기 중반 서구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망라하였다.

동아시아사 백과

사고전서(四庫全書)

왼쪽은 청의 건륭제와 『사고전서』이다. 『사고전서』는 건륭제의 명에 의해 10년에 걸쳐 편찬되었다. 건륭제는 한인의 반청 사상을 통제하는 동시에, 중국 문화의 핵심을 보존하려는 목적으로 편찬을 지시하였다. 『사고전서』라는 명칭은 경·사·자·집(經·史·子·集)의 4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 고대부터 당시까지의 모든 서적을 망라했다는 의미에서 붙여졌다. 방대한 중국 최대의 총서로 양이 너무 많아 출판되지는 못하고 필사로 만들어졌다. 청 대의 이러한 대규모 편찬 사업은 문헌의 실증을 중시하는 고증학의 발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고전서』를 보관하던 자금성의 문연각



조선 실학의 대두와 서학의 전래

17~18세기 조선의 일부 학자는 사회·경제의 변화 속에 조선 사회의 문제점을 바로 보고 그 해결을 위한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이들은 성리학의 교조화를 비판하면서 중국과 서양의 새로운 학문적 성과를 수용하였다. 그리고 관료제의 효율적 운용, 인재의 차별 없는 등용, 노비제 혁파, 서얼 차별 해소 등을 주장하고 토지 제도와 수취 제도의 개혁, 상공업 진흥과 기술 개혁 등을 제기하였다.

이익, 정약용 등은 농촌 사회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토지 개혁을 통해 농민 생활의 안정을 주장하였다. 박지원과 박제가 등은 상공업 진흥과 청의 문물 수용을 주장하였다. 특히 박제가는 소비를 통해 생산을 진흥하자는 주장을 펼쳤다.



▲ 정약용(1762~1836) 호는 다산으로, 다양한 분야의 개혁안을 제시하여 실학을 집대성한 인물로 평가받고 있다.

재물은 우물과도 같아 퍼서 쓸수록 가득 채워지는 것이고, 버려두면 말라버린다. 비단을 입지 않아서 나라 안에 비단 짜는 사람이 없으면 깎삼질이 쇠퇴하고, 그릇이 비뚤어지든 어쨌든 개의치 않으면 나라에 공장과 도야(질그릇 굽는 곳과 대장간)가 없어지고, 기예도 없어지는 것이다.

- 박제가, 『북학의』 -

박제가가 소비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말해 보자.

일부 학자는 역사, 지리, 언어 분야의 연구에도 힘써 이후 근대 학문과 교육에도 영향을 주었다. 한편 중국에 갔던 사신들을 통해 서양 학문과 함께 크리스티교가 전해졌다. 처음에 크리스티교는 학문적 관심으로 수용되어 서학으로 불렸으나 점차 신앙으로서 널리 퍼졌다. 크리스티교의 평등사상과 제사 의식 거부는 성리학적 사회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되어 조선 정부의 탄압을 받았다.

◆ 박지원

연행사로 청에 다녀온 박지원은 청의 문물 수용을 주장하는 한편, 『양반전』과 같은 소설을 써서 양반 사회의 문제점을 비판하였다.

탐구 활동 2

새로운 정치 개혁 주장의 대두

자료 1

황종희의 군주 제도 비판

옛날에는 천하 사람이 주인이고 군주는 객이었다. 군주가 일생 동안 경영한 것은 천하를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군주가 주인이고 천하가 객이 되었다. 무릇 천하가 안녕을 얻지 못하는 것은 군주 때문이다. …… 만약 군주가 없다면 사람들이 각자의 이로움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 황종희, 『명대방록』 -

자료 2

정약용의 군주론

백성이 살면서 한 사람이 이웃과 다투어 해결을 보지 못하자 공정한 말을 잘하는 한 노인을 찾아가서 해결을 보았다. 사방의 이웃들이 다 감복하여 그 노인을 추대하여 이정(里正)으로 삼았다. …… 이상과 같은 사정과 순서를 밟아서 …… 여러 고을의 우두머리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지방 장관을 정했고, 또 이들이 한 사람을 추대하여 황왕(皇王)이라 하였으니 황왕의 근본은 이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 정약용, 『여유당전서』 -

1. 자료 1 과 자료 2 에서 주장의 핵심 요지를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2. 자료 1 과 자료 2 두 주장의 공통된 의미를 말해 보자.

고학과 국학, 난학의 발전

에도 막부는 성리학을 관학으로 우대하였다. 그러나 17세기 후반 에도 사회가 성숙하면서 성리학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를 배경으로 성립된 고학은 이기론과 같은 형이상학적 관념론보다 실용적 학문을 중시하고, 성리학을 극복하기 위한 논리로 공자·맹자 시대 유학으로의 복귀를 주장하였다. 이토 진사이는 주자가 성인의 가르침을 왜곡하고 있다고 비판하였고, 오규 소라이는 중국 고대 성인의 도를 명확히 하는 것을 학문의 궁극적 목표로 삼고 고대 유교 경전인 **육경**을 강조하였다.

● 육경

유학의 6개 경전. 『시경』, 『서경』, 『예기』, 『악기』, 『춘추』, 『주역』이다.

● 『고사기』

고대 일본의 신화, 전설, 사적 등을 기록한 책으로 8세기 초에 완성되었다.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 체제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편찬하였으며, 나라를 세운 신의 이야기부터 천황의 계보를 기록하였다.

다른 한편에서는 일본의 언어, 문학, 민속, 신화 등의 고대 문화가 강조되면서 국학이 발전하였다. 국학자들은 유교, 불교 등의 외래 사상에서 탈피하여 일본 고대의 참모습을 추구하였다. 특히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고사기**』 연구에 집중하여 일본 고대의 마음·언어·제도 등을 고도(古道)라 칭하며, 고도의 창시자는 중국 고대의 성인과 다른 태양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를 비롯한 일본 고대의 신들이라 하며 일본 절대 우월주의로 나아갔다. 그의 사상은 이후 존왕 운동과 결부되어 국가 신도의 수립에도 영향을 주었다.

에도 시대에는 나가사키를 통해 들어온 서양의 학문을 바탕으로 난학이 발전하였다. 난학은 어학·의학·지리학·역학 등에 관한 관심에서 시작하였는데, 특히 『해체신서』의 번역은 난학이 본격적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다. 난학은 일본의 지식인이 성리학적 세계관에서 탈피하고 학문 연구에서 경험주의, 실증적 방법론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 『해체신서』(1774)

스기타 겐파쿠가 주도하여 서양 책을 일본어로 번역한 해부 의학서이다. 번역 과정에서 오늘날 사용하는 신경·연골·동맥 등의 의학 전문 용어가 만들어졌다.

동아시아사 바ек과

모토오리 노리나가(1730~1801)

에도 시대의 대표적 사상가인 모토오리 노리나가는 국학의 집대성자라 불린다. 중국에서 왕조가 교체되는 역성혁명을 비판하고 일본 천황의 만세일계를 옹호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일본 우월성의 증거라 역설하였다. 그리고 그 정당성의 근거를 아마테라스 오미카미와 혈통의 순수성에서 찾았다. 이러한 일본 우월주의 입장에서 일본을 본조, 황조, 황국이라 칭하고 중국을 외국, 이조, 심지어 서용(서쪽 오랑캐)이라고 표현하였다.

그가 처음 사용한 '황국'이라는 용어는 막부 말기부터 1945년까지 일반화되었다. 그의 영향을 받은 국학자들은 『고사기』와 『일본서기』의 신화를 우주 생성의 이야기로 재구성하고, '세계의 모든 전승과 풍속이 일본으로부터 흘러 나간 것'이라고 주장하는 극단적 일본 중심주의로 나아가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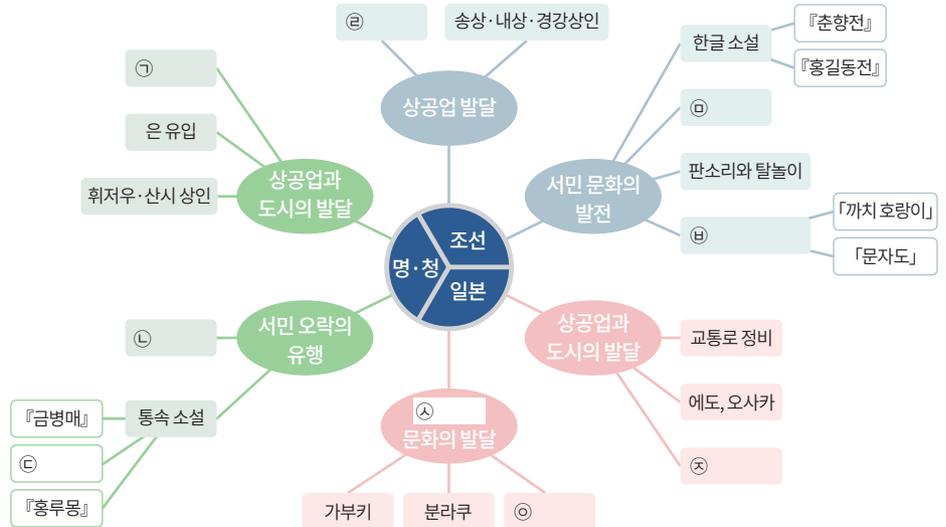


인물 | 사건 | 문화 | 제도

스스로 학습

내용
회색인

1 17세기 이후 각국의 사회 모습을 나타낸 마인드맵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



| 보기 |
 • 시진 • 경극 • 조닌 • 민화 • 대동법 • 사설시조 • 우키요에 • 조카마치 • 『유림의사』



창의
회색인

2 두 인물의 주장을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나의 저술 의도는 주자의 해석과 다른 설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 생기는 점을 기록했을 뿐이다. 그런데 송시열은 나를 이단이라고 배척하였다. 그의 학문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주자의 가르침이라면 덮어놓고 의론을 용납하지 않는다.



▲ 윤휴

(나) 송 대의 성리학자가 말하는 '이(理)라는 근본적인 실재가 있고 난 뒤에 기(氣)가 있다. 천지가 존재하기 전에 이(理)가 있었다.' 등의 학설은 모두 억측이다. 이는 뱀에 다리를 그려 넣거나 머리 위에 아중의 머리를 이게 하는 것으로, 실제로 보고 얻은 사실이 아니다.



▲ 이토 진사이

(1) (가), (나) 주장이 대두한 공통된 배경을 써 보자.

.....

(2) (가), (나) 주장 이후 나타난 학문적 동향을 각각 써 보자.

.....

힘 잡는 단원 평가

명과 일본, 감함 무역 시작 1404

회취법 개발 1503

삼포 왜란 1510

일본에 조총 전래 1543

에스파냐, 필리핀 점령 1571

명, 일조편법 전국 시행 1581

①의 센고쿠 시대 통일 1590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 임진왜란 발발 1592

정유재란 발발 1597

②수립 1603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집권

『동의보감』 완성 1610

③건국 1616

여진의 누르하치가 건국

정묘호란 발발 1627

병자호란 발발 1636

명 멸망 1644

하멜, 제주도 표류 1653

초량 ④설치 1678

조선과 쓰시마 상인의 무역이 이루어지던 곳

청, 삼번의 난 진압 1681

대동법 전국 시행 1708

『해체신서』 간행 1774

『사고전서』 완성 1781

『홍루몽』 발표 1791

왼쪽 연표를 완성하고, 문제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자.

1 인물과 관련 있는 내용을 연결해 보자.

- (1) 모문롱 ○ ㉠ 명 말 중국에 온 선교사로 서양 역법을 소개하고 시헌력을 만들었다.
- (2) 박제가 ○ ㉡ 청 태종 누르하치의 아들로 국호를 청으로 고치고 조선을 침략하였다.
- (3) 아담 샬 ○ ㉢ 센고쿠 시대의 대표적 무사로 조총을 이용하여 나가시노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 (4) 홍타이지 ○ ㉣ 명의 장수로 평안도의 가도에 주둔하면서 후금과 조선의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 (5) 오다 노부나가 ○ ㉤ 상공업 진흥과 청의 문물 수용을 주장하였으며, 『북학의』에서 소비를 강조하였다.

2 표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17~19세기 교역	청	천계령 공포, ㉠의 대외 무역 독점
	조선	청과 개시·후시 무역, 왜관에서 쓰시마 상인의 무역 허용
	일본	수인장 발급, ㉡에서 네덜란드 상인의 교역 허용
17~19세기 경제 상황	청	산시 상인과 휘저우 상인의 활약, 상공업 도시로 ㉢의 발달, 인구 급증
	조선	㉣(공물을 토산물 대신 쌀·포·동전으로 납부) 시행, 독점 상인의 특권 폐지, 송상·만상·내상의 성장
	일본	㉤제도로 교통과 상업 발달, 조카마치 발달, 조닌의 성장

3 자료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 탈춤



▲ 경극



▲ 가부키

(1) 위와 같은 공연이 주로 소재로 삼았던 내용을 각각 서술해 보자.

(2) 위와 같은 공연이 각국에서 유행한 공통된 사회적·경제적 배경을 서술해 보자.

자기 점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본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1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

86쪽 확인

2 17~19세기의 동아시아 교역, 상업의 발달과 도시의 성장

102쪽, 110쪽 확인

3 서민 문화의 성장

113쪽 확인

역량 +
수행 평가

역사 인물 인터뷰 기사 만들기

16~19세기 동아시아에서 활동하였던 인물을 선택하여 가상의 인터뷰 내용을 신문 기사 형식으로 만들어 보자.

1 인물 선택하기

- 광해군
- 정약용
- 황종희
- 건릉제
- 스키타 겐파쿠
- 도요토미 히데요시
- 모토오리 노리나가

2 인터뷰 기사 작성하기

1. 인물의 모습은 그림으로 그리거나 사진을 올려서 신문에 붙인다.
2. 인터뷰 내용은 당시 정세나 상황, 인물의 활동과 주장 등이 잘 나타나게 작성한다.
3. 인터뷰 기사 내용의 일부를 빈칸으로 만든다.
4. 작성한 신문 기사를 다른 학생 것과 바꿔 서로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작성해 본다.

예시

기 자: 안녕하세요? 박제가 선생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청에 네 차례나 다녀오셨는데, 갈 때마다 느낀 점이 많으시죠?

박제가: 예. 청의 문물을 보고 있노라면, 오랑캐라고 무조건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울 것도 많은 생각이 듭니다.

기 자: 저술하신 『북학의』에 그런 내용이 있나요?

박제가: 북학은 청의 문물입니다. 저는 여기서 청의 제도와 풍속 등을 기술하고, 청으로부터 배울 건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기 자: 『북학의』에서 소비를 강조하셨는데요, 사치 풍조를 조장하는 게 아닌가요?

박제가: 지금 조선의 현실을 보십시오. 검소와 절약이라는 유교적 경제관념에서 이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부의 원천은 상공업입니다. 소비해야 기술이 발전하고 생산이 늘어나지요.

기 자: 그렇군요. 현재 조선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데요.

박제가: 그렇습니다. 조선이 가난에서 벗어나려면 화폐를 널리 유통하고 견고한 수레와 배도 많이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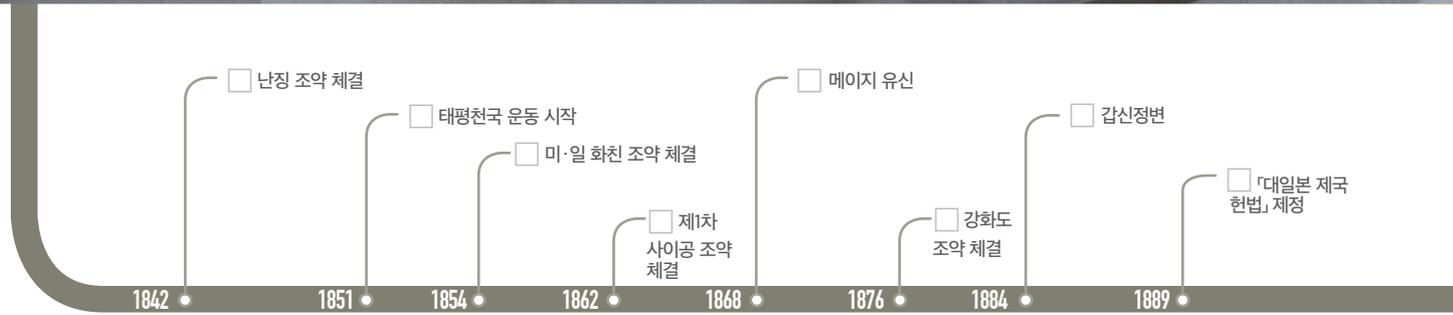
기 자: 예. 잘 알겠습니다.



▲ 박제가



불굴의 한국인상 >



연표에서 알고 있는 역사 사건에 V 표시해 보자.



IV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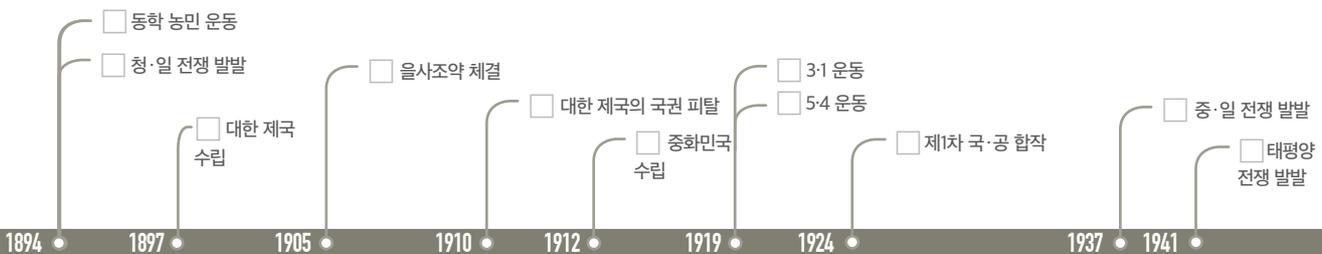
- 1 새로운 국제 질서와 근대화 운동
- 2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 운동
- 3 서양 문물의 수용

단원 열기

이 단원에서는 서양 열강의 침략적 진출로 동아시아 국가가 개항하였으며, 개항 이후 각국이 근대화 운동을 전개하여 국민 국가 건설을 위해 노력하였음을 파악한다. 또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 전쟁에 저항하여 동아시아 각국이 전개한 민족 운동을 이해한다. 그리고 서구 문물의 수용 양상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이 단원에서 성취할 나만의 목표를 스스로 정해 보자!

- 1 개항 이후 동아시아 각국이 전개한 근대화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 2
- 3



1

새로운 국제 질서와 근대화 운동

	1850	1900	1950
한국	조선	대한 제국	대한민국
중국	청		중화민국
일본	에도 시대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 생각 열기 | 청과 영국 사이에서 벌어진 아편 전쟁을 그린 그림이다. 아편 전쟁에서 패한 청은 영국과 불평등 조약을 맺어 문호를 개방하였다. 이후 일본과 조선도 문호를 개방하면서 동아시아 세계는 서양 열강이 주도하는 새로운 국제 질서 속에 편입되었다.

Q 동아시아 각국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 개항하였을까?

1 개항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동

학습 목표 동아시아 각국이 개항 과정에서 체결한 조약의 내용을 비교할 수 있다.



영국의 침략과 청의 개항

단원연계 | III 단원 102쪽
청과 영국의 무역 관계를 확인해 보자.

19세기 중반 청은 영국에서 밀수출하는 아편이 급증하면서 여러 문제에 부딪혔다. 아편 중독자가 많이 늘어 사회 문제가 되었으며, 아편 구매 비용으로 은이 대량으로 유출되어 국가 재정도 어려워졌다. 이에 청 정부는 임칙서를 광저우에 보내 아편을 몰수하고 아편 무역 단속을 강화하였다.



▲ 아편 전쟁

영국은 청 정부의 아편 단속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켰다(제1차 아편 전쟁, 1840). 근대 무기로 무장한 영국군이 난징으로 진격하자 청은 영국과 난징 조약을 체결하였다(1842). 난징 조약은 동아시아에서 체결된 최초의 근대적인 조약이었으나 광저우를 비롯한 5개 항구 개항, 홍콩 할양, 공행 폐지, 영사 재판권과 최혜국 대우 등을 규정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공행이 폐지되었음에도 청과의 무역량이 기대만큼 늘지 않자, 영국은 프랑스와 연합하여 제2차 아편 전쟁을 일으켰다(1856). 그 결과 텐진 조약과 베이징 조약이 체결되어 청은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고 크리스티교의 선교를 인정하였으며, 서양 외교관의 베이징 주재를 허용하였다. 한편 러시아는 베이징 조약을 중재한 대가로 연해주를 차지하였다.

미국의 무력시위와 일본의 개항

에도 막부는 네덜란드를 제외한 서양 국가와 통상하지 않는 쇄국 정책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아편 전쟁에서 청이 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에도 막부는 서양 선박에 필요한 물자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쇄국 정책을 완화하는 한편, 서양의 침략에 대비하여 해안 방위 태세를 강화하였다.

이 무렵 미국은 일본을 태평양 항로의 중간 기착지로 삼고자 페리 제독을 파견하여 개항을 요구하였다. 미국 함대의 무력시위에 굴복한 막부는 미·일 화친 조약을 체결하여 2개 항구를 개항하였다(1854). 그 후 미국이 계속 통상을 요구하자 일본은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여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고 미국의 영사 재판권을 인정하였다(1858). 일본이 미국과 맺은 조약도 불평등 조약이었다.



▲ 페리의 입항 페리 제독이 이끄는 미군이 일본의 요코하마에 상륙하는 모습이다.

운요호 사건과 조선의 개항

19세기 조선 연안에도 서양 선박이 나타나 통상을 요구하였다. 당시 정치적 실권을 잡고 있던 흥선 대원군은 강력한 통상 수교 거부 정책을 펼쳤다. 이에 프랑스와 미국이 조선을 침략하기도 하였다.

흥선 대원군이 물러나고 고종이 직접 정치에 나서자 일부 관료가 서양과 교류하자는 통상 개화론을 주장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이 운요호 사건을 일으켜 조선에 개항을 요구하였다. 결국 조선은 일본과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하였다(1876). 강화도 조약은 조선이 부산을 포함해 3개 항구를 개항하고 일본의 해안 측량권, 영사 재판권 등을 허용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 강화도 조약의 체결

동아시아사 백과

사이공 조약과 베트남의 개항

베트남은 16세기에 포르투갈을 시작으로 여러 서양 국가와 교역하였다. 19세기 중반 응우옌 왕조가 크리스티교를 대대적으로 탄압하는 과정에서 프랑스 선교사를 처형하자 이를 빌미로 프랑스가 베트남을 침략하였다.

프랑스는 남부 베트남의 일부를 차지한 상태에서 제1차 사이공 조약을 체결하여 베트남을 개항시켰다(1862). 제1차 사이공 조약은 베트남이 프랑스에 선교의 자유, 코친차이나(인도차이나반도의 베트남 남부 지방) 동부 3성의 할양, 다낭 등 세 항구의 개항 등을 허용한 불평등 조약이었다.



▲ 베트남 요새를 공격하는 프랑스군

인물 사건 문화 제도

동아시아 삼국의 개항과 불평등 조약



19세기 동아시아 각국은 서양과의 무역을 금지하거나 제한적으로만 허용하였다. 그러나 근대 무기를 앞세운 서양 국가들이 동아시아 지역에 진출하면서, 동아시아 각국은 불평등 조약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하였다. 동아시아 각국이 개항 과정에서 체결한 조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찾아보자.

자료 1 난징 조약(1842)

제2조 영국 인민이 가족과 하인을 데리고 광저우·샤먼(아모이)·푸저우·닝보·상하이 등 다섯 항구에 기거하면서 아무런 방해 없이 무역 통상에 나설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3조 홍콩을 영국에 넘겨주고, 영국이 적당한 법을 세워 다스릴 수 있도록 허용한다.

제5조 앞으로는 영국 상인이 특허를 얻은 행상하고만 거래하던 관행을 없애고 어떤 상인과의 자유롭게 교역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 『중외구약장회편』 -

자료 2 미·일 수호 통상 조약(1858)

제3조 시모다, 하코다테 외에 다음 장소를 기한 내에 개항한다. 가나가와, 나가사키, 니가타, 효고 등.

제4조 일반적으로 국내로 수입하거나 국내에서 수출하는 물품은 별책의 규정대로 일본의 관청에 관세를 납부한다.

제6조 일본인에 대해 범법 행위를 한 미국인은 미국의 영사 재판소에서 조사하여 미국 법으로 처벌한다. 미국인에 대해 범법 행위를 한 일본인은 일본 관리가 조사한 후 일본 법으로 처벌한다.

- 『법령전서』 -

자료 3 강화도 조약(18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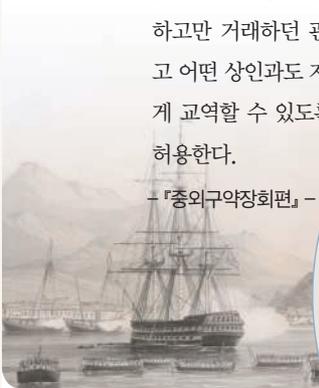
제1관 조선국은 자주의 나라이며 일본국과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

제4관 조선 정부는 부산과 제5관에서 제시하는 두 항구(뒤에 원산과 인천으로 결정)를 개방하고 일본인이 자유롭게 왕래하면서 통상할 수 있게 한다.

제7관 조선국 연해를 일본국의 항해자가 자유롭게 측량하도록 허가한다.

제10관 일본국 국민이 조선국이 지정한 각 항구에 머무르는 동안 죄를 범한 것이 조선국 국민에게 관계되는 사건일 때는 모두 일본국 관원이 심판한다.

- 『고종실록』 -



- 1 자료 1 ~ 자료 3 의 조약을 통해 개항한 항구를 지도에 표시해 보자.
- 2 자료 1 ~ 자료 3 에서 불평등 조항을 찾아 보자.
- 3 **창의** 자신이 자료 1 ~ 자료 3 의 조약 체결과 관련된 국가의 외교관이라면 상대국과 어떻게 협상할 것인지 발표해 보자.

조약 체제에 입각한 새로운 국제 질서의 성립

서양 열강이 무력을 앞세워 동아시아 각국에 불평등한 조약 체결을 강요하면서 동아시아에 새로운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일본은 청·일 수호 조규(1871)를 체결하여 개항 이후 가장 먼저 외교 관계의 재조정에 나섰다.

제8조 양국의 개항장에는 서로 이사관(영사관)을 두고, 자국 상민을 단속한다. 재산, 산업, 공사, 소송에 관련된 사건은 모두 그 나라의 재판에 맡기고, 자국의 법률에 따라 재판한다.
- 『일청한조약요람』 -

청·일 수호 조규에 규정된 청·일 두 나라의 관계를 말해 보자.

위 조항은 청·일 두 나라가 상대국에 모두 영사관을 설치하고 외교관을 파견하여 영사 재판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청과 일본이 대등한 입장에서 청·일 수호 조규를 체결하였음을 의미한다. 이 조약의 체결로 일본은 중국 중심의 전통적인 동아시아 국제 질서에서 벗어나 청과 대등한 지위를 갖게 되었다.

조선에서도 전통적인 조공·책봉 관계에서 벗어나 청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 청의 간섭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서양 열강과 조약 체결에 나서 조·러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

청은 동아시아에서 전통적인 국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하였지만, 현실은 청의 영향력 축소로 나타났다. 일본이 청과 일본 사이에서 이중적 외교를 펴던 류큐를 1870년대에 자국에 완전 병합하면서 청은 류큐에 대한 영향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청은 프랑스와 벌인 전쟁에서도 패배하여 베트남에 대한 중주권도 포기해야만 하였다.

그 결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는 조공·책봉 관계에 토대를 둔 중국 중심의 전통적 질서가 무너지고, 개항 이후 각국이 체결한 국제 조약을 토대로 한 근대적 조약 체제로 바뀌어 갔다.



▲ 청·프랑스 전쟁(1884~1885) 프랑스가 베트남 하노이를 점령하여 베트남을 보호국화 하자, 청이 군대를 파견하여 전쟁이 벌어졌다.

동아시아



독립 왕국 류큐, 오키나와현이 되다

독립 왕국이던 류큐는 1609년 이래 사쓰마번의 내정 간섭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명·청과의 조공·책봉 관계도 그대로 유지되면서 류큐는 중국과 일본 모두에 예속된 '양속 관계'에 놓여 있었다.

타이완 원주민이 류큐의 표류민을 살해한 사건을 빌미로 일본은 1874년 타이완을 침공하였다. 그리고 청과의 교섭을 통해 사실상 류큐가 일본 영토임을 인정받았다. 이후 류큐의 조세·행정·형법 등이 일본의 통제하에 놓이게 되면서 류큐는 점차 독립국의 지위를 잃었고, 1879년에는 오키나와현이 설치되었다.



▲ 류큐 왕국의 수도, 슈리성(일본 오키나와)

2 근대화 운동의 전개



학습 목표 동아시아 각국이 전개한 근대화 운동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청에서 전개된 근대화 운동

제1차 아편 전쟁 이후 청에서는 외세의 경제 침탈, 막대한 전쟁 비용과 배상금 지급 등으로 재정이 악화되었고 이에 조세 부담이 많이 늘어난 농민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 무렵 홍수전은 청 왕조 타도와 평등 사회 건설, 토지 균분 등을 주장하며 태평천국 운동을 일으켰다. 하지만 태평천국 운동은 10여 년 만에 진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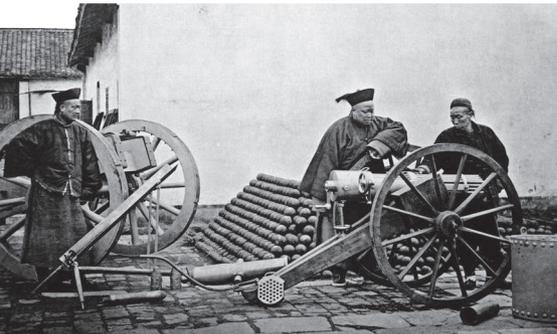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청은 중국변과 이홍장 등의 한인 관료를 중용하여 양무운동을 전개하였다. 양무운동은 ‘중체서용’을 내세워 중국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서양의 군사력과 과학 기술을 수용하여 자강을 이루려는 근대화 운동이었다. 양무운동은 근대적 군수 공장 설립, 서양식 해군 창설, 근대적 기업 설립 등

으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의식이나 제도 개혁 등이 뒷받침되지 못해 중국 사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는 못하였다.

청·일 전쟁의 패배로 양무운동의 한계가 드러나자 Kangyuei와 Yangchao 등은 청의 낡은 제도가 패배의 원인이라고 판단하고 변법자강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들은 일본의 메이지 유신을 본받아 모든 분야에서 근대 개혁을 추진하여 과거제 폐지와 신교육 실시, 상공업 진흥, 입헌 군주제 도입 등을 시도하였다. 하지만 이들의 개혁은 서태후를 비롯한 보수파의 반발에 부딪쳐 100여 일 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 태평천국 운동

홍수전이 일으킨 농민 봉기로, 태평천국이란 왕조를 세우고 난징을 함락하여 수도로 삼아 청과 대립하였다. 하지만 외국 군대와 한인 관료, 신사층에게 진압되었다.



▲ 난징의 금릉 기기국 이홍장이 1865년 난징에 설립한 군수 공장으로, 총포와 화약 등을 생산하였다.

탐구 활동 2

양무운동과 변법자강 운동



자료 1

기계 제조라는 일은 오늘날 외국의 도전을 막아 내기 위한 바탕이 되며, 자강의 근본입니다. …… 신이 밝히고자 하는 것은 서양식 기계가 농경이나 직포·인쇄·도자기 제조 등의 용구를 모두 제조할 수 있고, 백성의 생계와 일상용품에 도움이 되며, 원래부터 오로지 군사상의 무기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 『이홍장 전집』 -

자료 2

일본의 유신에서 귀감을 찾아야만 합니다. …… 유신의 초기에 바뀌어야 할 것은 아주 많았지만, 그 핵심은 다음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군신과 더불어 서약함으로써 국시(國是)를 정한 것이고, 둘째는 대책을 세워 현명한 인재를 모집한 것이며, 셋째는 제도국을 열고 헌법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 『Kangyuei 전집』 -

1. 자료 1 과 자료 2 가 추구하는 근대화 방법의 차이점을 말해 보자.
2. 자료 1 과 자료 2 와 관련 있는 근대화 운동의 추진 결과를 알아보자.

일본의 메이지 유신

개항을 전후하여 막부의 개항 방침에 반발하는 세력이 등장하였다. 이들은 막부가 천황의 허락 없이 미·일 수호 통상 조약을 체결한 것을 문제 삼아 ‘존왕양이’를 내세우며 막부에 저항하였다. 하지만 막부의 탄압을 받고 서양과의 군사적 충돌에서 패하면서 서양 세력을 쫓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판단하고 서양 문물 수용과 막부 타도로 방침을 바꾸었다. 결국 이들 반막부 세력은 막부를 무너뜨리고 천황을 중심으로 신정부를 수립하여 변혁을 추진하였다(메이지 유신, 1868).

메이지 정부는 수도를 도쿄로 옮기고 폐번치현을 단행하여 중앙 집권 체제를 확립하였다. 징병제를 시행하여 근대적 군사 제도를 마련하고,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징수하는 근대적인 토지세 제도를 확립하여 재정을 안정시켰다. 또한 철도를 부설하고 근대적 공장을 세워 상공업을 진흥하는 식산흥업 정책을 추진하였다. 신분제를 개혁하여 사민평등의 실현을 표방하였으며, 소학교를 의무 교육으로 하고 대학을 설립하였다. 대외적으로는 이와쿠라 사절단을 미국과 유럽에 파견하였다.

이러한 개혁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봉건적 특권을 빼앗긴 무사층과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 농민의 불만이 높아졌다. 이에 메이지 정부의 일부 인사는 대외 침략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한론을 내세웠으나, 내정 개혁을 중시하는 반대 세력에 의해 무마되었다. 하지만 1870년대 중반 메이지 정부는 타이완을 침공하고 운요호 사건을 일으키는 등 대외 팽창에 나섰다.

존왕양이

천황을 받들고 서양 세력을 내쫓자는 주장이다.



▲ 폐번치현의 조서 공포 1871년 메이지 천황은 지방의 번을 폐지하고 현을 설치하여, 중앙 정부가 관리를 보내 통치하는 폐번치현을 단행하였다.

동아시아사 백과

이와쿠라 사절단

1871년 12월, 이와쿠라 도모미가 이끄는 사절단이 요코하마에서 출발하여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로 향하였다. 이들은 일본과 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원수를 만나 국서를 전달하고 불평등 조약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였다.

하지만 서양 각국의 제도와 문물을 조사하여 메이지 정부가 서구화의 필요성을 느끼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사절단에는 오쿠보 도시미치, 이토 히로부미와 같은 정부 실권자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는데, 이들의 경험은 메이지 정부가 근대화 정책의 방향을 설정하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출발 1871. 12. 23.
도착 1873. 9. 13.



▲ 이와쿠라 사절단 일본 전통 복장을 한 이와쿠라 도모미를 중심으로 왼쪽부터 이토 히로부미, 오쿠보 도시미치 등으로 사절단이 구성되었다.

조선의 개화 정책 추진



▲ 수신사 파견 강화도 조약 체결 직후 파견된 제1차 수신사 김기수 일행의 모습을 그린 것이다.

◆ 위정척사운동

조선의 성리학적 전통 질서를 지키고 성리학 이외의 모든 종교와 사상, 서양 세력을 배척하는 운동이다.

자료 중에서 국왕의 권한을 제한한 조항을 찾아보자.

1. 대원군을 가까운 시일 안에 돌아오게 하고 청에 조공하는 허례를 폐지할 것.
 2. 문벌을 폐지하여 인민 평등의 권리를 제정하고 능력에 따라 관리를 등용할 것.
 3. 지조법을 개혁하여 아전의 부정을 막고 백성을 구제하며 재정을 넉넉하게 할 것.
 12. 재정은 모두 호조에서 관할케 하고 그 밖의 재무 관청은 폐지할 것.
 13. 대신과 참찬은 합문 안의 의정소에서 의논해 아뢰어 결정하고 정령을 공포해 시행할 것.
- 김옥균, 『갑신일록』 -

하지만 갑신정변은 청의 개입으로 3일 만에 실패로 끝났다. 이후 조선의 근대화 정책이 위축되고 청의 내정 간섭은 더욱 심해졌다.

1894년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나자 청과 일본은 조선에 군대를 파병하였다. 이후 일본은 군사력을 동원하여 조선의 내정에 간섭하였고 새 내각을 구성하게 하고 개혁을 강요하였다. 새 내각은 왕실과 정부의 분리, 신분제 폐지, 각종 폐습 타파, 태양력과 단발령 시행 등 정치·경제·사회 등 각 분야에서 대대적인 개혁을 추진하였다(갑오·을미개혁).

하지만 개혁이 추진되는 도중, 개혁의 급진성에 대한 불만이 커졌고 일본이 내정 간섭에 반발하는 명성 황후를 시해한 을미사변을 일으켰다. 이에 많은 유생이 의병을 일으켜 저항하였고 고종이 혼란을 피해 러시아 공사관으로 거처를 옮기는 아관 파천을 단행하면서 개혁은 중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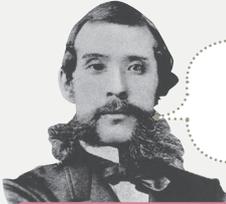


▲ 정동에 있던 구 러시아 공사관

동아시아의 근대화를 이끈 인물



개항 후 동아시아 각국은 서양 문물을 수용하여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동아시아 각국에서 근대적 개혁에 앞장섰던 대표적인 인물의 활동을 통해 그들이 추구했던 근대화의 모습을 살펴보자.



무릇 나라의 강약은 정부 관리가 지도하고 장려하는 힘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을 주장한 오클모 도시미치(1830~1878)

메이지 유신을 이끌었던 기도 다카요시, 사이고 다카모리와 함께 유신삼걸로 불렸던 인물로, 메이지 정부의 개혁을 주도하였다. 그는 이와쿠라 사절단의 일원으로 미국과 유럽 각지를 돌아보았고, 독일이 정부 주도로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한 것을 모델로 일본도 정부가 앞장서서 근대화와 경제 발전을 이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만약 옛 법도만을 굳게 지킨다면 곧바로 위기가 닥쳐와 거의 망하게 될 것입니다.

개혁만이 나라를 지키는 길임을 강조한 김옥균(1851~1894)

김옥균은 조선의 근대화를 시도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는 조선을 둘러싼 서양 열강의 경쟁이 심해지고 국제 정세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개혁을 추진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하게 될지 모른다고 역설하였다. 그는 뜻을 같이 하는 급진 개화파와 함께 갑신정변을 일으켰으나 실패하였다.



스스로 변하려 해서 변하는 자는 변화의 권한이 자기에게 있어 나라를 지킬 수 있습니다.

스스로 변화할 것을 주장한 량치차오(1873~1929)

스승인 칸유웨이와 함께 변법자강 운동을 주도한 량치차오는 청·일 전쟁 패배의 원인이 낡은 제도에 있다고 보고 적극적인 제도 개혁을 주장하였다. 그는 원하던 원하지 않든 변화하지 않으면 치열한 국제적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어렵다고 보고, 변화가 불가피하다면 스스로 주도권을 잡고 변화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개혁임을 강조하였다.



외국에 유학을 보내 신교육을 받은 인재를 키워야 합니다.

동유 운동을 주도한 판보이쩌우(1867~1940)

판보이쩌우는 일본의 메이지 유신이 아시아에서 성공한 근대화 사례라고 인식하였다. 이에 베트남인이 스스로 내적인 힘을 기르도록 하기 위해 젊은이를 일본에 보내 신학문을 배우게 하는 동유 운동을 전개하였다. 하지만 프랑스의 요구로 일본 정부가 베트남 유학생을 추방하면서 판보이쩌우의 계획은 실패로 끝났다.

- 1 각 인물이 주도한 대표적 근대화 운동을 찾아보자.

창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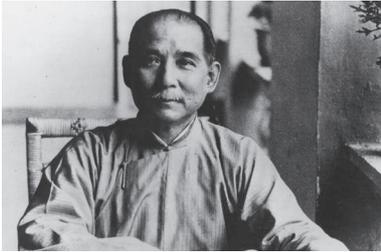
- 2 제시된 인물 중 한 명을 골라 연대기를 작성해 보자.

3 근대 국민 국가 건설을 위한 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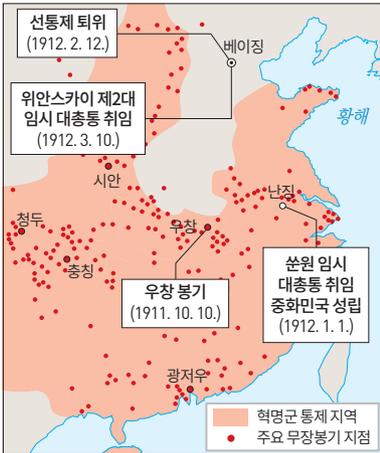
1889 「대일본 제국 헌법」 반포
1897 대한 제국 수립
1899 「대한국 국제」 반포
1911 신해혁명
1912 중화민국 수립

학습 목표 근대 국민 국가를 수립하기 위한 동아시아 각국의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청의 신정 실시와 신해혁명



▲ 쑨원(1866~1925)



▲ 신해혁명의 전개

열강의 침략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청 정부는 '신정(新政)'을 실시하여 중단되었던 개혁을 다시 추진하였다. 신정은 정치, 경제, 군사, 사회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서구화·근대화를 도모하는 일련의 개혁이었다. 청 정부는 많은 유학생과 관리를 일본에 파견하여 근대화의 경험을 배우게 하였고, 신식 근대 창설과 과거제 폐지 등을 단행하였다.

한편 근대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청의 지식인들은 입헌파와 혁명파로 나뉘었다. 입헌파는 입헌 군주제의 시행을 주장한 반면, 혁명파는 민주 공화제의 국가 수립을 주장하며 무장봉기를 추진하였다. 이 무렵 청 정부는 일본과 서양 각국을 시찰하고 입헌 준비에 나서 「흙정헌법대강」을 반포하고(1908) 의회 설립을 준비하였다. 하지만 내각이 황족을 중심으로 구성되자 입헌파는 청 정부의 입헌 의지에 의문을 제기하였다.

청 정부의 개혁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상황에서 1911년 후베이성 우창에서 혁명파의 이념에 영향을 받은 신군이 봉기하였다(신해혁명). 이에 호응한 각 성이 봉기하여 청의 지배를 거부하고 쑨원을 임시 대통령으로 하는 중화민국을 수립하였다(1912). 하지만 쑨원을 비롯한 혁명파는 군사 및 재정 면에서 열세였기 때문에, 공화제 시행을 조건으로 군사적 실권을 가지고 있던 위안스카이에게 임시 대통령 자리를 넘겨주었다.

자유 민권 운동과 「대일본 제국 헌법」 제정

자료 읽기

의회 설립 요구

신들이 애국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구할 길을 강구해 보았는데, 오직 천하에 공의를 떨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천하에 공의를 떨친다는 것은 백성이 뽑은 의원을 설립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 지금 민선 의원을 설립한다면 정부와 인민이 소통하고 일체가 되어 국가가 강하게 될 것이며 정부도 강하게 될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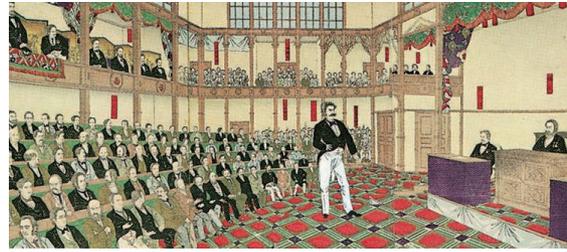
- 「민선의원설립건백서」 -

자유 민권 운동의 중심 세력이 의회 설립을 제안한 요구서이다. 이것이 신문에 보도되면서 자유 민권 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메이지 정부가 근대적 개혁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내부 반발이 나타났다. 정부의 개혁으로 부담이 늘어난 농민은 각지에서 봉기를 일으켰으며, 봉건적 특권을 빼앗긴 옛 무사 계층인 사족층의 반란도 잇따랐다. 또한 정부의 전제 정치를 비판하고 서양식 입헌 제도의 도입을 요구하는 자유 민권 운동이 일어났다.

1870년대부터 시작된 자유 민권 운동은 서양식 의회 설치와 헌법 제정을 요구하였다. 이에 메이지 정부는 요구 사항을 받아들여 점진적으로 서양식 입헌 체제를 수용하겠다고 밝히고 헌법 제정과 의회 설치 등을 추진하였지만 동시에 자유 민권 운동을 탄압하였다.

메이지 정부는 1889년에 「대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을 제정하고 이듬해에 중의원 선거를 시행하여 제국 의회를 설립하는 등 입헌 제도의 틀을 완성하였다. 「대일본 제국 헌법」의 제정으로 일본은 입헌 군주제에 바탕을 둔 근대 국가의 제도적 토대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대일본 제국 헌법」은 천황을 신성 불가침한 존재로 규정하고 군 통수권과 입법권 등 막강한 권한을 천황에게 부여하였다. 1890년에는 충효를 강조하는 ‘교육 칙어’를 공포하여 천황제를 뒷받침하도록 하였다.



▲ 제국 의회 「대일본 제국 헌법」에 따라 1890년에 제국 의회가 설립되었다.

독립 협회의 활동과 대한 제국 수립

열강의 이권 침탈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조선의 일부 지식인은 『독립신문』을 발간하고 독립 협회를 창립하였다(1896). 독립 협회는 문명 개화와 자주독립 사상을 선전하는 민중 계몽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만민 공동회라는 대규모 집회를 열어 정부에 재정 개혁과 인민의 기본권 보호, 의회 설립 등을 요구하였다. 특히 개혁적 관리와 학생, 시민이 함께 참석한 관민 공동회에서 「헌의 6조」가 결의되어 고종의 재가를 받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수세에 몰린 수구 세력은 고종을 움직여 보수 내각을 조직하고, 독립 협회가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를 추진한다고 모함하여 독립 협회를 강제 해산시켰다(1899).

1897년 러시아 공사관에서 경운궁으로 환궁한 고종은 실추된 국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고 대한 제국 수립을 선포하였다. 독립 협회 해산 후 고종은 황제 중심의 근대 국가 수립을 위해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여 대한 제국의 정치 체제가 전제 군주제임을 확고히 하였다(1899).

대한 제국은 일련의 개혁(광무개혁)을 통해 근대 국가를 건설하려고 노력하였다. 식산흥업 정책을 추진하여 상공업을 진흥하고 서양의 기술과 기계를 도입하여 근대적 시설을 마련하였다. 민간 자본에 의한 공장과 회사 설립도 장려하였다. 또 인재 양성을 위해 근대 학교 설립에 힘썼으며, 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였다.

새로 알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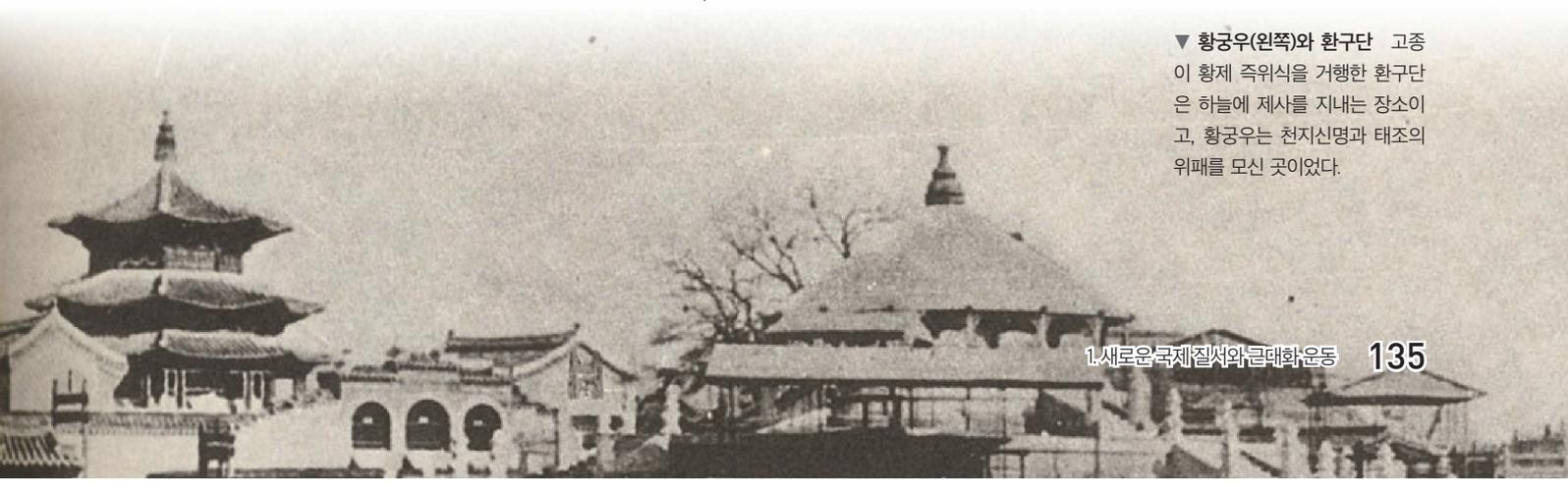
헌의 6조

1. 외국인에게 의지하지 말고 관리가 합심하여 전제 황권을 공고히 할 것.
2. 외국과의 이권에 관한 계약과 조약은 해당 부처의 대신과 중추원 의장이 함께 날인하여 시행할 것.
3. 재정은 탁지부에서 전담하여 말고 예산과 결산을 국민에게 공포할 것.
4. 중대한 범죄는 공판하고 피고의 인권을 존중할 것.
5. 책임관은 정부에 그 뜻을 물어 과반수가 동의하면 임명할 것.
6. 정해진 규정을 실천할 것.

- 『주본존안 제3책』 -

① 인민의 기본권 보호와 관련된 조항을 말해 보자.

▼ 황궁우(왼쪽)와 환구단 고종이 황제 즉위식을 거행한 환구단은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장소이고, 황궁우는 천지신명과 태조의 위패를 모신 곳이었다.



동아시아 각국의 입헌 노력



동아시아 각국은 근대 국민 국가를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본은 1889년에 「대일본 제국 헌법」을, 대한 제국은 1899년에 「대한국 국제」를, 중국은 1908년에 「흫정헌법대강」을 제정하여 헌정 체제를 갖추었다. 동아시아 삼국의 헌정 체제를 비교해 보자.



▲ 「대일본 제국 헌법」 반포식

자료 1 「대일본 제국 헌법(메이지 헌법)」

- 제1조 대일본 제국은 만세일계의 천황이 통치한다.
- 제4조 천황은 나라의 원수이며 통치권을 장악하고 이 법률의 조규에 의하여 이를 거행한다.
- 제5조 천황은 제국 의회의 협찬을 받아 입법권을 실행한다.
- 제10조 천황은 행정 각 부를 관제하고 문무관의 봉급을 규정하며 문무관을 임명한다.
- 제11조 천황은 육·해군을 통솔한다.

자료 2 「대한국 국제」

- 제1조 대한민국은 만국이 공인한 자주독립 제국이다.
- 제2조 대한 제국의 정치는 과거 500년간 전래되었고, 앞으로 만세토록 불변할 전제 정치이다.
- 제3조 대한민국 대황제는 무한한 군주권을 지니고 있다.
- 제5조 대한민국 대황제는 국내의 육·해군을 통솔하고 군대의 편제를 정하며 계엄과 해엄(계엄 해제)을 명한다.
- 제6조 대한민국 대황제는 법률을 제정하여 그 반포와 집행을 명하고, 대사·특사·감형·복권을 한다.
- 제9조 대한민국 대황제는 각 조약국에 사신을 파견하고, 선전·강화 및 제반 조약을 체결한다.

고종 황제 ▶



자료 3 「흫정헌법대강」

- 제1조 대청 황제는 대청 제국을 통치하며 만세일계이며 영원히 군림한다.
- 제2조 군상(君上)은 신성·존엄하며 침범할 수 없다.
- 제3조 반포하는 법률을 흫정하고 의안을 제안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무릇 법률은 의원의 의결을 거치더라도 황제에 의해 비준·반포되지 않으면 실행에 옮겨질 수 없다.
- 제4조 의회를 소집하고 개회, 폐회, 정회, 속회하고 해산할 권한을 가진다.
- 제5조 관제의 일체를 정하고 백관을 임명하는 권리를 가지며 의회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
- 제6조 육·해군을 통솔하고 군제를 편정(編定)하는 권한을 갖는다. …… 무릇 군사와 관련된 모든 일은 의원에서 간섭할 수 있는 바가 아니다.
- 제7조 개전, 강화 및 조약 체결, 사신 파견과 접수에 대한 권리를 가지며 의회는 이에 간섭할 수 없다.



▲ 「흫정헌법대강」

1 자료 1 ~ 자료 3 을 비교하고 그 차이점을 설명해 보자.

2 자료 1 ~ 자료 3 이 반포된 배경과 그 결과를 알아보자.

스스로 학습



1 개항과 동아시아 각국의 근대화 운동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청	일본	조선
개항	㉠ <input type="text"/> 체결	미·일 화친 조약 체결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	㉡ <input type="text"/> 체결
↓			
근대화 운동	양무운동 변법자강 운동	㉢ <input type="text"/> 자유 민권 운동	갑신정변 갑오·을미개혁

2 근대 국가 건설 과정에서 있었던 사실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

중국	신정 실시 → 「홍정헌법대강」 반포 → ㉠ <input type="text"/> → 중화민국 수립
일본	자유 민권 운동 → 「㉡ <input type="text"/>
한국	대한 제국 수립 → 광무개혁 시작 → 「㉢ <input type="text"/>

| 보기 |

- 신해혁명
- 대한국 국제
- 대일본 제국 헌법



3 (가), (나)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나)
전통적인 도덕과 가르침을 근본으로 삼아 서양 각국이 부강함을 이룬 기술로 이를 보완해야 합니다.	서양의 과학 기술뿐 아니라 그 바탕이 되는 근대 사상과 제도도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합니다.

(1) (가), (나)의 입장에서 추진된 동아시아 각국의 근대화 운동이나 개혁을 써 보자.

- (가)의 입장:
- (나)의 입장:

(2) (가), (나)의 입장 중 하나를 선택하여 그 문제점이나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써 보자.

.....

.....

.....

2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 운동

	1850	1900	1950
한국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중국	청	중화민국	중화 인민 공화국
일본	에도 시대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쇼와 시대



| 생각 열기 | 일본군이 난징에서 사람들을 학살하는 장면이다. 1937년 12월, 난징을 공격하기 시작한 일본군은 군인과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학살하고 약탈과 방화를 자행하였다. 난징을 점령한 뒤에도 일본군의 학살은 계속되었다. 이처럼 일본의 침략 전쟁은 동아시아 사람들에게 큰 고통을 안겨 주었다.

Q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동아시아 사람들은 어떤 피해를 보았을까?

1 제국주의 침략과 동아시아의 국제 질서

학습 목표 청·일 전쟁과 러·일 전쟁 이후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1894 동학 농민 운동, 청·일 전쟁 발발
1895 시모노세키 조약 체결
1904 러·일 전쟁 발발
1910 대한제국의 국권 상실

청·일의 대립과 동학 농민 운동

1880년대 들어 조선을 둘러싼 청과 일본의 경쟁이 본격화되었다. 청은 조선에서 일어난 임오군란을 진압한 후 조선 내정에 직접 개입하였다. 일본은 갑신정변을 지원하고 청과의 전쟁에 대비해 군사력 증강에 나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학 농민 운동이 일어났다. 1894년 전봉준 등이 이끄는 동학 농민군은 제폭구민과 보국안민을 내세우며 전라도 일대를 장악하였다. 동학 농민군 진압에 실패한 조선 정부는 청에 파병을 요청하였고, 청이 출병하자 일본도 공사관과 거류민 보호를 내세워 조선에 파병하였다. 청·일 양국 군대의 개입에 위기감을 느낀 동학 농민군은 조선 정부와 전주 화약을 맺고 해산한 후 전라도 일대에서 개혁을 추진하였다.

전주 화약으로 청·일 양국은 더 이상 조선에 주둔할 명분이 없어졌다. 하지만 일본은 조선의 내정 개혁을 명분으로 철군을 거부하고, 경복궁을 점령하여 조선에 새로운 내각을 구성하였다. 이에 동학 농민군은 일본을 몰아내기 위해 다시 봉기하였지만 우세한 화력을 앞세운 일본군과 조선 정부군에 패하고 말았다. 이후 전봉준 등 지도부가 체포되면서 동학 농민 운동은 실패로 끝나고 말았다.

클릭 click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

www.1894.or.kr

동학 농민 운동의 주요 연표, 지역별 전개 과정 등 동학 농민 운동의 주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 동학 농민 혁명 기념탑(한국 정읍)

청·일 전쟁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화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은 아산만의 풍도 앞바다에서 청의 군함을 공격하였다(청·일 전쟁, 1894). 일본군은 평양 전투와 황해 해전에서 청군을 격파하고 랴오둥반도와 산둥반도 일부를 점령하였다.

일본의 압도적 우위로 전쟁이 끝나면서 일본은 청과 시모노세키 조약을 체결하였다(1895). 청은 조선에 대한 종주권 포기, 타이완과 랴오둥반도 할양, 거액의 전쟁 배상금 지급 등을 약속하였다.

한편 청·일 전쟁을 계기로 동아시아의 전통적인 국제 질서가 해체되고 국제법에 따른 새로운 질서가 모색되었다. 대한 제국과 청은 대등한 입장에서 한·청 수호 통상 조약(1899)을 체결하여 새로운 외교 관계를 형성하였고, 일본은 청을 제치고 동아시아의 새로운 강국으로 떠올랐다.

일본의 제국주의화

19세기는 월등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앞세운 서양 열강이 식민지 건설을 위해 대외 팽창을 시도한 제국주의 시대였다. 일본도 청·일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군사력을 대내외에 과시하며 제국주의 국가로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러시아가 일본의 세력 팽창을 견제하고 나섰다. 러시아는 독일, 프랑스와 함께 랴오둥반도를 청에 반환하도록 일본에 압력을 행사하였고, 일본은 이에 굴복하였다(삼국 간섭, 1895). 이를 계기로 러시아와 일본은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싸고 본격적으로 대립하였다.

○ 청·일 전쟁의 전개



○ 청·일 전쟁의 결과

시모노세키 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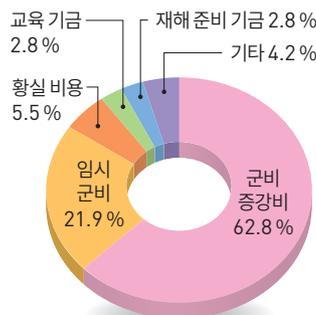
- 제1조** 청국은 조선국이 완전무결한 독립 자주국임을 확인한다.
- 제2조** 청국은 아래에 기록한 토지의 주권 및 해당 지방에 대한 성루, 병기 제조소와 관유물을 영원히 일본국에 할양한다.
 1. 봉천(선양) 남부의 땅
 2. 타이완 전체 및 그 부속 제도서
- 제4조** 청국은 군비 배상금으로서 고평은(해관에서 기준으로 삼는 은) 2억 냥을 일본국에 지급할 것을 약속한다.

- 『중외규약장회편』 -

동아시아사 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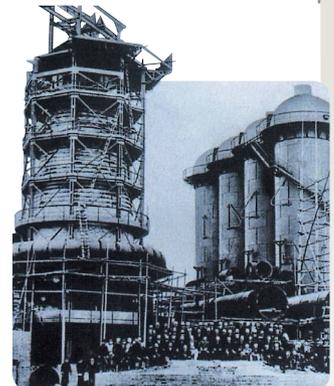
청·일 전쟁과 일본의 산업화

일본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청으로부터 거액의 전쟁 배상금을 받았다. 이것은 일본의 4년치 국가 재정보다도 많은 액수였다. 일본은 전쟁 배상금의 대부분을 군비 증강과 관련된 산업에 투자하였다. 또 배상금을 아하타 제철소와 철도 건설, 전신 사업 등에도 투입하여 산업 자본으로 활용하였다. 그 결과 일본에서는 중공업 중심의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자본주의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였다.



(『도설 일본사』, 2007)

▲ 청·일 전쟁 배상금 사용



▲ 아하타 제철소

제국주의 열강의 중국 침략과 의화단 운동

◆ 조차지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의 영토 일부를 빌려 일정 기간 통치하게 된 지역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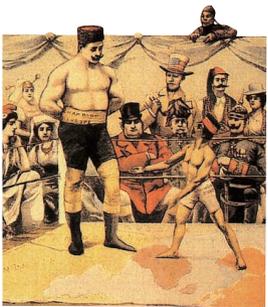


▲ 열강의 중국 분할(풍자화) 청·일 전쟁 이후 서구 열강과 일본의 중국 분할을 풍자한 그림이다.

청은 시모노세키 조약에 따라 일본에 지급할 배상금을 서구 열강으로부터 차관을 들여와 마련하였다. 서구 열강은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 청에 여러 이권을 요구하였다. 청의 각 항구에 조차지를 설정하고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등을 차지하였다. 일본도 서구 열강과 같은 방식으로 자신의 세력권을 넓혀 나갔다. 그 결과 청은 영토 주권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

서구 열강과 일본의 이권 침탈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크리스티교에 대한 중국인의 반감도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 왕조를 도와 서양 세력을 몰아내자는 의화단 운동이 일어났다. 의화단은 교회와 철도를 파괴하고 외국 공사관까지 공격하였다. 청 정부도 '부청멸양'을 내세운 의화단을 이용하여 서구 열강에 대항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서구 열강과 일본은 연합군을 조직하여 의화단 진압에 나섰고, 그 과정에서 베이징을 점령하였다. 청 정부는 연합군과 신축 조약(베이징 의정서)을 체결하여 배상금을 지급하고 외국 군대의 베이징 주둔을 허용하였다(1901).

한반도와 만주를 둘러싼 러·일의 대립



▲ 러·일 전쟁(풍자화) 만주와 한반도를 둘러싸고 러시아와 일본이 대립하는 모습을 풍자한 그림이다.

삼국 간섭 이후 한반도와 만주 지배를 두고 러시아와 일본의 갈등이 심화되었다. 러시아는 청으로부터 만주 철도 부설권을 얻고 뤼순과 다롄을 조차하였으며, 조선에 친러 정권이 수립되도록 지원하였다.

러시아가 의화단 운동을 계기로 만주에 군대를 주둔하고, 일본이 영국과 동맹(제1차 영·일 동맹)을 맺어 러시아를 견제하면서 두 나라의 갈등은 증폭되었다. 결국 1904년 일본 함대가 제물포와 뤼순에서 러시아 함대를 공격하면서 러·일 전쟁이 발발하였다.

민미진진 동아시아



주술로 총칼을 물리치려 한 의화단



▲ 철도를 파괴하는 의화단

19세기 말 산둥반도에 등장한 의화단은 의화권이라는 무술을 익히면 총에 맞아도 죽지 않는다는 신통력을 믿는 일종의 종교 집단이었다. 이들은 『서유기』, 『삼국지』, 『수호전』에 나오는 영웅을 신으로 섬기며 신령의 도움으로 반드시 승리한다고 선전하였다.

당시 열강의 침략으로 비참한 생활을 면치 못했던 농민 등 많은 하층민이 고난스러운 현실 세계에서 벗어나 새로운 세상을 만날 수 있다는 환상을 가지고 의화단에 가입하였다. 이들은 교회를 불태우는 등 반크리스트교 주장을 견지하면서 점차 '부청멸양'을 내세우는 반제국주의 운동으로 발전하였다.

봉천 전투와 동해 해전의 승리로 전쟁은 일본에 유리하게 흘러갔다. 하지만 일본은 러시아가 항복할 때까지 전쟁을 끌고 갈 힘이 없었다. 러시아도 국내 혁명으로 더 이상 전쟁을 계속하기 어려웠다. 결국 두 나라는 미국의 중재로 전쟁을 끝내기로 합의하고 포츠머스 조약을 체결하였다(1905).

이 조약을 통해 일본은 러시아로부터 조선에서의 우월적인 지위를 인정받고 뤼순과 다렌의 조차권과 창춘 이남의 철도 부설권도 넘겨받았다. 또 북위 50도 이남의 사할린섬도 차지하였다. 이로써 일본은 한반도의 지배권과 만주 진출의 기반을 마련하고, 서구 열강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제국주의 열강의 지위를 확립하였다.



▲ 러·일 전쟁의 전개

일본의 한국 병합

일본은 러·일 전쟁 도발과 함께 대한 제국에 대한 침략을 본격화하였다. 일본군이 대한 제국에서 임의로 군용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일 의정서 체결을 강요하였고(1904), 곧이어 제1차 한·일 협약을 체결하여 재정과 외교 고문을 파견해 대한 제국의 내정 간섭을 본격화하였다. 1905년에는 독도를 불법으로 자국 영토에 편입하고, 외교권을 박탈하는 을사조약을 강제로 체결하여 대한 제국을 일본의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대한 제국은 일본의 침략에 다양한 방법으로 저항하였다. 지식인은 애국 계몽 운동을 벌였고, 양반 유생과 농민은 의병을 일으켰다. 고종도 만국 평화 회의에 특사를 파견하여 일본의 침략상과 조약의 불법성을 국제 사회에 알리려고 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고종을 강제 퇴위시키고 대한 제국 군대를 해산시킨 후 1910년 대한 제국의 국권을 빼앗았다. 이로써 대한 제국은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사료 읽기

을사조약(일부)

제2조 일본 정부는 한국과 타국 간에 현존하는 조약을 완전히 실행하는 책임을 맡고, 한국 정부는 금후에 일본 정부의 중재를 거치지 아니하고 국제적 성격의 어떠한 조약이나 약속을 맺지 않을 것을 서로 약속한다.

제3조 일본 정부는 그 대표자로 하여금 한국 황제 폐하의 밑에 1명의 통감을 두되,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경성에 주재하고 친히 한국 황제 폐하를 알현할 권리를 가진다.

- 『고종실록』 -

일제에 의해 강압적으로 체결되었기 때문에 억지로 맺은 조약이라는 의미의 '늑약'이란 표현을 사용하여 '을사늑약'이라고도 부른다.

동아시아사 백과

포츠머스 조약을 중재한 미국

미국은 러·일 전쟁의 마무리를 위해 러시아와 일본을 적극적으로 중재하였다. 일본의 요청을 받아들여 러시아에 강화를 권고하였고, 러시아와 일본 대표가 참여하는 강화 회담을 미국의 해군 항구인 포츠머스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를 기념하는 엽서까지 발행하였다. 이렇게 미국이 포츠머스 조약 체결에 깊숙이 관련한 이유는 일본을 이용하여 동아시아에서 러시아 세력을 견제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러시아와 일본을 중재하는 미국(풍자화) ▶



제국주의 일본의 식민지 지배 정책

일본은 1895년에 타이완을, 1910년에 대한 제국을 식민지로 만들었다. 그리고 타이완에서 먼저 시행한 식민 통치 방식을 거의 그대로 한국 지배에 적용하였다. 일제가 타이완과 한국에서 실시한 식민 통치 방식을 살펴보자.

식민 통치 초기 일제는 타이완인과 한국인의 저항을 억압하는 무단 통치를 실시하였다. 최고 식민 통치 기관 총독부를 설치하고 총독에 현역 육군이나 해군대장을 임명하였다. 이에 따라 타이완 초대 총독에는 해군 대장 가바야마 스케노리를, 조선 초대 총독에는 육군 대신 겸 통감이었던 데라우치 마사타케를 임명하였다. 그리고 토지 조사 사업을 실시하여 식민 통치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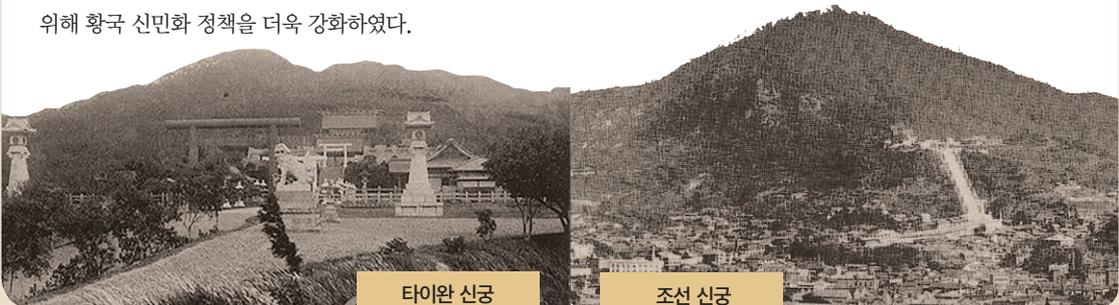
타이완 총독부

조선 총독부

1919년에 조선에서 3·1 운동이 일어나자 일제는 식민지 지배 방식을 전환하였다. 일제는 이른바 문화 통치를 한국에 먼저 적용하여 문관을 본위로 한 관료 제도와 일본과 동일한 교육 제도, 보통 경찰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조선 총독에 해군 대장 사이토 마코토가 임명되어 실제 문관 총독이 파견되지는 않았다.

문화 통치는 타이완에도 적용되었다. 조선 총독부 관제가 개편된 지 2개월 뒤 덴 겐지호가 타이완 총독으로 취임하여 문관 총독 시대가 시작되었고, 일본과 동일한 교육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한국인과 타이완인의 대학 설립을 불허하였고 1924년에는 경성 제국 대학을, 1928년에는 타이베이 제국 대학을 각각 설립하였다.

1937년 중·일 전쟁을 일으킨 후 일제는 전시 동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해 1938년에 국가 총동원법을 제정하였다. 국가 총동원법은 일본은 물론 식민지 한국과 타이완에도 그대로 적용되었다. 또한 한국인과 타이완인을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황국 신민화 정책을 더욱 강화하였다.



타이완 신궁

조선 신궁

- 1 일본이 한국과 타이완에 군인 총독을 파견한 이유를 알아보자.
- 2 일본이 한국과 타이완에서 실시한 식민 통치 방식의 시기별 변화 과정을 정리해 보자.

2 제1차 세계 대전 이후의 동아시아

1915 일본 중국에 21개조 요구 제시
1919 3·1 운동 5·4 운동
1921~22 워싱턴 회의 개최
1924 제1차 국공합작
1924~28 북벌

학습 목표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동아시아 각국에서 전개된 민족 운동을 설명할 수 있다.

제1차 세계 대전과 일본의 영향력 확대

제1차 세계 대전이 발발하자 일본은 독일에 선전 포고를 하고 참전하였다. 그러나 일본은 유럽 전선에 병력을 파견하지 않고 주로 동아시아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이권을 빼앗는 데 집중하였다. 독일의 조차지였던 칭다오 일대를 점령하여 독일의 이권을 넘겨받고 적도 부근의 독일령 섬들도 점령하였다. 그리고 독일의 조차지를 중국에 반환한 대가로 중국에 '21개조 요구'를 제출하였다.

-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일본국 정부가 독일 정부와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독일이 산둥성에 관하여 조약이나 기타 관계에 기초하여 중국 정부에 대해 누려 온 모든 권리와 이익을 양도 등의 처분을 하는 것에 대해 모두 승인한다.
- 양 조약국이 서로 약정하여 뤄순, 다렌의 조차 기한 및 남만주, 안평(安奉) 철로의 기한을 모두 99년으로 연장하기로 한다.

- 『중·일 '이십일조' 교섭 사료 전편』 -

Q '21개조 요구'를 통해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빼앗은 권리를 말해 보자.

중국인들은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21개조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하였고, 서양 열강들도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일본은 열강이 반대한 일부 조항을 제외한 요구서를 다시 제시하고 베이징 정부를 위협하여 이를 받아들일도록 강요하였다.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파리 강화 회의가 개최되자 중국은 일본에 넘어간 각종 이권을 되찾으려 하였다. 중국은 회의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21개조 요구'는 무효라고 주장하며 산둥반도의 반환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서양 열강은 사전에 일본과 비밀 협정을 맺고,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면서도 일본이 독일로부터 빼앗은 각종 이권도 함께 인정하여 일본의 권익을 보장하였다. 한편 일본은 러시아 내전을 이용하여 시베리아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하였다.

◆ 베이징 정부

1912년부터 1928년까지 베이징에 있던 중화민국 정부이다.

동아시아사 백과

러시아에서 세력을 확대하려 한 일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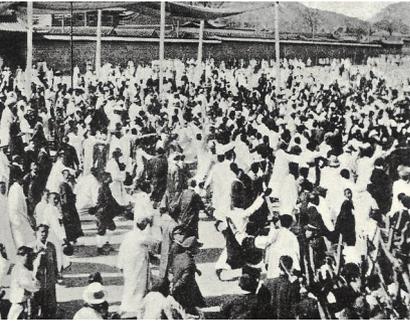
제1차 세계 대전이 한창이던 1917년 러시아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났다. 이를 계기로 시베리아에서는 혁명을 지지하는 적군과 반대하는 백군 사이에 내전이 벌어졌다. 혁명에 반대하는 서양 열강과 일본은 백군을 지원하며 전쟁에 개입하였다. 일본도 시베리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대규모 병력을 파견하였으나, 많은 비용과 사상자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철수하였다.

블라디보스토크 시가를 행진하는 일본군 ▶



◆ 민족 자결주의

자기 민족의 운명은 스스로 결정할 권리가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민족 자결주의는 제1차 세계 대전의 패전국 식민지에만 적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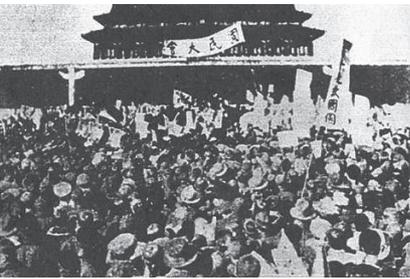
▲ 덕수궁 앞에서의 만세 시위

민족 자결주의와 한국의 3·1 운동

제1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국제 질서가 재편되는 과정에서 민족 자결주의가 대두하였다. 한국의 민족 운동가들은 민족 자결주의에 기대를 걸고 각지에서 독립 선언을 준비하였다.

도쿄에서는 한국 유학생들이 '2·8 독립 선언'을 발표하였다. 한국에서는 종교계 인사들과 학생들이 독립 선언서를 발표하고 독립 만세 시위를 벌였다(3·1 운동). 3·1 운동은 중소 도시와 농촌으로 확산하여 3개월 동안 약 200여만 명이 참가하였고, 중국, 러시아, 미국 등 해외까지 확산하였다.

일본은 군대와 헌병 경찰을 동원하여 만세 시위를 무력으로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3·1 운동은 대한민국 임시 정부의 수립과 다양한 민족 운동으로 이어졌다. 민중도 3·1 운동의 경험을 바탕으로 각종 사회 운동에 참여하여 자신의 권익을 주장하게 되었다.



▲ 텐안먼 앞에서의 시위

중국의 5·4 운동

신해혁명 이후 중국에서는 위안스카이가 독재 권력을 강화하면서 공화제는 형식만 남게 되었다. 이에 반발한 천두슈 등의 진보적 지식인들은 유교를 비판하고 서양 과학과 민주주의의 수용을 주장하는 신문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무렵 파리 강화 회의에서 독일이 갖고 있던 산둥 지방의 이권이 일본에 넘어갔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인의 반일 감정이 고조되었다. 또 한국에서 일어난 3·1 운동도 중국인의 민족의식을 자극하였다. 이에 베이징의 학생들이 텐안먼 광장에 모여 '강화 조약 조인을 거부하라.', '반드시 산둥의 이권을 회수하자.'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규모 항의 시위를 벌였다(5·4 운동).

인물 | 사건 | 문화 | 제도

동아시아사 백과

신문화 운동



▲ 천두슈(1879~1942)



▲ 『신청년』 1915년에 『청년잡지』라는 이름으로 창간되었다가 『신청년』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천두슈를 비롯한 진보적 지식인들은 신해혁명으로 황제 독재 체제가 무너졌지만, 공화제가 유명무실한 것은 중국 사회의 각 부분에 유교적 봉건사상이 남아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였다. 이들은 유교를 무너뜨리는 사상 혁명을 이루지 못하면 중국은 영원히 새 사회가 될 수 없다고 여겼다. 그래서 『신청년』이란 잡지를 발행하여 청년과 학생에게 유교적 봉건사상을 파괴하고 서양을 모델로 신문화를 창조해갈 것을 주장하는 신문화 운동을 전개하였다.

베이징 정부의 탄압에도 시위는 전국으로 퍼졌고, 상인과 노동자 등도 가담하였다. 이에 베이징 정부는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하였다.

5·4 운동은 학생들이 중심이 되고 민중이 참여하여 그들의 권리를 지키려고 한 움직임이었다. 또한 ‘밖으로는 국권을 쟁취하고 안으로는 국적(國賊)을 몰아내자.’라는 구호에서 알 수 있듯이 반제·반봉건의 이념을 내세운 사건이었다.

◆ 베르사유 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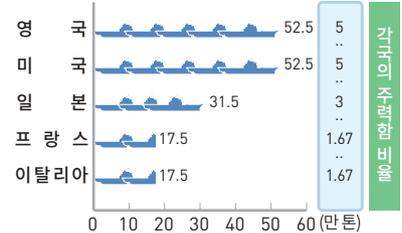
1919년 제1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를 위해 열린 파리 강화 회의의 결과로 31개 연합국이 독일과 맺은 강화 조약이다.

■ 워싱턴 체제의 성립과 동아시아 국제 질서

베르사유 조약의 체결로 국제 정세는 일시적인 안정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 대표단이 베르사유 조약의 조인을 거부함으로써 동아시아 문제는 제대로 마무리되지 못하였다. 또 일본과 서양 열강이 해군력을 강화하여 군사적 우위를 차지하려는 경쟁을 벌였다. 이 때문에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높아졌다.

열강들은 워싱턴 회의를 통해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열강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해군의 군비를 축소하였다. 이를 통해 형성된 새로운 국제 관계를 워싱턴 체제라고 한다. 이 회의에 따라 일본은 산둥반도의 이권을 중국에 반환하고 해군력 증강에 제한을 받았다. 중국은 주권과 독립은 보장받았지만 관세 자주권 회복, 조차지 반환, 치외 법권 철폐 등의 요구를 관철하지 못하였다.

한편 워싱턴 체제에 대항하여 소련은 극동 인민 대표 회의를 개최하였다(1922). 당시 여러 약소민족의 지도자들은 소련의 지원을 기대하며 이 대회에 참가하였고, 이를 계기로 동아시아에 사회주의 사상이 널리 퍼졌다.



(『도설 일본사』, 2007)

▲ 워싱턴 회의에 따른 주력함 제한 해군 군축 조약이 체결되어 미국, 영국, 일본의 주력함 비율이 5:5:3으로 제한되었다.

탐구 활동 2



3·1 운동과 5·4 운동



자료 1

학생들의 투쟁 의지는 불타고 있었다. …… 거리마다 만세 함성이 물 끓듯 컸는지라. 일본 경찰은 말을 타고 3척가량이나 되는 철망치를 휘두르며, 소방부는 몽둥이를 들고 발광하듯이 우리 동포를 사상케 하였고, 거리와 마을마다 변장한 왜경이 가해를 하니 사상자가 부지기수라.

- 유병민, 『내 삼일운동의 기록』 -

자료 2

파리 강화 회의가 열렸을 때 우리가 희망하고 경축한 것은 세계에 정의가 있고 인도가 있고 공리가 있다고 한 것이 아니었겠습니까? 청다오를 돌려주고 중국과 일본 사이의 밀약이나 군사 협정뿐 아니라 기타 불평등 조약까지 취소하는 것이 바로 공리이고 정의입니다. …… 산둥이 망하면 중국도 망합니다.

- 『베이징 학생 선언』 1919. 5. 4. -

1. 자료 1 과 자료 2 의 민족 운동을 주도한 계층을 말해 보자.
2. 자료 1 과 자료 2 의 민족 운동이 이후 한국과 중국의 민족 운동에 끼친 영향을 조사해 보자.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과 민족 운동의 발전

3·1 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에서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 공화주의를 표방한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이승만을 대통령으로 선출하고 비밀 행정 조직을 갖추었다. 또 파리 강화 회의에 대표를 파견하여 독립 청원서를 제출하고 미국에 구미 위원부를 설치하는 등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만주에서는 무장 독립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많은 독립군 부대가 조직되었고, 봉오동과 청산리 전투에서 일본군에 큰 승리를 거두었다. 김원봉이 이끄는 의열단은 일본의 고위 관리를 처단하고 식민 통치 기구를 파괴할 목적으로 여러 차례 의거를 일으키기도 하였다.

한편 3·1 운동 이후 사회주의 사상이 확산되면서 민족 운동 세력이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민족주의 진영은 주로 경제적·문화적 측면에서 민족의 힘을 키우려는 실력 양성 운동을 전개하였다. 반면에 사회주의 진영은 농민·노동자를 조직화하여 농민·노동 운동을 전개하였다.

중국에서 제1차 국·공 합작이 이루어지자 한국에서도 민족 운동의 분열을 극복하고자 민족 유일당 운동이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단결과 기회주의 배경 등을 강령으로 내세운 신간회가 결성되어(1927) 민족 운동의 통합을 도모하였다. 신간회는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국내외 민족 운동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쳤다. 그러나 일제의 탄압이 지속되는 가운데 사회주의 진영이 민족주의 진영과의 협동 전선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면서 해소되었다. 이후 민족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은 각자의 방식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해 나갔다.

사료 읽기

대한민국 임시 정부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대한 인민으로 조직함.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대한 인민 전체에 있음.

제4조 대한민국 인민은 일체 평등함.

제5조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의정원이, 행정권은 국무원이, 사법권은 법원이 행사함.

-『대한민국 임시 정부사』-

1919년 9월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민주 공화정과 삼권 분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헌법을 제정하였다.

① 대한민국 임시 정부 수립의 의미를 말해 보자.



▲ 신간회 창립총회

동아시아사 백과

베트남의 민족 운동

제1차 세계 대전 이후 프랑스에 저항하는 베트남의 민족 운동은 점차 급진적 형태로 바뀌어 갔다. 1925년 호찌민은 베트남 최초의 사회주의 단체인 베트남 청년 혁명 동지회를 결성하여 사회주의 이념을 널리 퍼뜨렸다. 1927년에는 중국의 북벌에 자극받아 베트남 국민당이 조직되어 중국의 국민 혁명을 베트남에서 구현하고자 하였다. 베트남 국민당은 홍강 델타 지역을 중심으로 세력을 확대하였으나 1930년 무장봉기를 계기로 지도자들이 처형되면서 그 세력이 약화되었다.

이후 베트남의 민족 운동은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하였다. 1930년 호찌민이 인도차이나 공산당을 조직하고 1941년에는 베트남 독립 동맹(베트민)을 결성하였다. 베트남 독립 동맹은 각계각층의 혁명 세력을 규합하여 프랑스 식민 통치 종식과 일본 제국주의 타도를 목표로 활동하였다.



▲ 호찌민(1890~1969)

인물 사건 문화 제도

3 일본의 침략 전쟁 확대와 국제 연대



학습 목표 일본이 일으킨 침략 전쟁의 피해와 침략 전쟁에 대한 국제 연대를 설명할 수 있다.

만주 사변과 중·일 전쟁

일본은 대공황으로 경제 불황을 맞았고 중국 국민 혁명의 확산에 따라 만주에서의 세력 약화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른 위기감으로 군부와 우익 세력이 일본의 정치 전면에 등장하였다. 이들은 정당 정치를 무너뜨리고 군사 행동을 통한 문제 해결을 모색하였다. 1931년 일본 관동군은 만주 사변을 일으켜 만주 일대를 점령하였다. 그리고 푸이를 내세워 만주국을 수립하였다(1932). 국제 연맹은 만주를 점령한 일본 군대의 철수를 요구하였다. 이에 반발한 일본은 국제 연맹을 탈퇴하고 점령 지역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력행사를 계속하였다.

◆ 푸이
청의 마지막 황제(선통제)로, 청 멸망 후 퇴위하였다가 만주국 황제가 되었다.



▲ 중·일 전쟁의 전개

1937년 일본은 베이징 근처에서 일어난 루거우차오 사건을 빌미로 대규모 군대를 동원하여 중국을 본격적으로 침략하였다(중·일 전쟁). 3개월 만에 상하이로 점령한 일본군은 수도인 난징을 비롯해 주요 도시를 빠르게 장악해 나갔다. 특히 난징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중국인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난징 대학살). 일본은 중국 각지에서 모든 것을 불태우고, 죽이고, 약탈하는 이른바 ‘삼광 작전’을 펼쳐 점령지를 철저히 파괴하였다.

한편 중국 국민 정부는 항일전을 위해 중국 공산당과 내전을 중단하고 제2차 국·공 합작을 이루었다(1937). 국민당 군대와 공산당 군대는 서로 협력하여 일본군에 맞서 싸웠다. 일본의 중국 점령 지역이 확대되고 미국과 영국이 중국의 항일 전쟁을 지원하면서 중·일 전쟁은 장기전으로 접어들었다.

인물 **사건** 문화 제도

동아시아사 백과

루거우차오 사건



▲ 루거우차오 베이징 남서쪽 교외에 있는 오래된 석조 다리이다.

1937년 7월 7일 루거우차오 부근에서 야간 훈련 중이던 일본군 병사 한 명이 실종되었다. 일본군은 실종 병사의 수색을 구실로 중국군 주둔 지역의 진입을 요구하였다. 중국군이 이를 거부하자 일본군은 8일 새벽 중국군 주둔 지역에 포격을 가하면서 두 나라 군대가 충돌하는 루거우차오 사건이 일어났다.

두 나라는 일단 정전에 합의하였지만 일본 정부의 강경파와 군부는 군사 행동의 확대를 주장하였다. 결국 일본 정부가 중국의 화북 지방에 대규모 군대를 파견하고 중국군에 총공격을 가하면서 중·일 전쟁이 시작되었다.

전쟁에 따른 피해

일제의 침략 전쟁은 동아시아 민중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특히 군인보다 민간인의 희생이 컸다. 일제의 침략 전쟁에 따른 피해 사례를 살펴보자.

징용

하루 작업 시간은 정해진 양을 다 해야 교대가 되었고, 양을 다 채우지 못하면 10시간도 넘게 일을 하였습니다. 옷을 주지 않아 매일 입던 옷을 그대로 기워서 입었습니다. …… 쓰레기장에서 무 토막 따위의 먹을 것만 눈에 띄면 다 주워 먹었습니다. 제일 참지 못한 것이 배고픔이었기 때문입니다. 도망가 다 잡히면 죽을 지경으로 구타당하기 때문에 도망갈 엄두도 못 내었습니다.

- 가이지마 탄광 주식회사 오노우라 탄광에서 근무한 한국인 노동자 박노식의 이야기 -



일본군 '위안부'



열일곱 살(1940년) 되던 해에 마을을 찾아온 일본인 모집 업자의 “일본 공장에 넣어 준다.”는 말에 속아 타이완으로 끌려가 일본군 ‘위안부’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 거기서는 ‘후지코’라고 불렸으며, ……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아 굶기 일쑤였습니다. 월경을 할 때도 쉬지 못했습니다. ‘위안소’에서 오른쪽 허벅지가 심하게 부어오르는 일종의 성병에 걸려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또한 ‘위안소’ 주인과 관리인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것이 원인이 되어 귀도 떨어졌습니다.

- 1924년 9월 2일 경상남도 밀양에서 출생한 박두리 할머니의 사례 -

징병

특공대 파일럿은 그저 조종간을 잡은 기계일 뿐 인격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이성도 없으며, 그저 적의 항공 모함을 향해 돌진하는 마치 자석 속의 철 분자와 같습니다. 이는 이성을 가진 자로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일로 자살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며, 정신의 나라 일본에서만 볼 수 있는 일입니다. …… 내일은 출격입니다. 내일 자유주의자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 1945년 5월 특공대원으로 오키나와에서 전사한 우에하라 료지의 유서 -



- 1 일제가 한국인을 침략 전쟁에 동원하기 위해 만든 법령을 조사해 보자.

창의

- 2 징용, 일본군 '위안부', 징병으로 희생된 사람들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써 보자.

일본의 침략에 대항한 한·중 연합

만주 사변을 계기로 만주의 한인 독립군과 중국군은 일본을 공동의 적으로 규정하고 서로 연합하여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중국과 한국 양국 군민은 한마음 한뜻으로 일제에 대항하여 싸우고, 인력과 물자는 서로 나누어 쓰며, 합작의 원칙하에 국적에 관계없이 그 능력에 따라 항일 공작을 나누어 맡는다.

- 「조선 혁명군과 중국 의용군의 합의」, 1932 -

남만주의 조선 혁명군은 중국군과 위의 내용에 합의하고 한·중 연합 작전을 전개하였고, 북만주의 한국 독립군도 중국군과 연합 작전을 벌였다. 한국과 중국의 사회주의자들도 동북 인민 혁명군을 조직하여 항일 무장 투쟁을 전개하였다.

중국 관내에서는 한인 애국단 소속의 윤봉길이 일으킨 상하이 홍커우 공원 의거를 계기로 한·중 연대가 활발해졌다. 중국 국민당 정부는 한국의 독립운동이 중국의 주권 수호와 직결된다고 인식하고 대한민국 임시 정부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1932년에 조직된 한·중 민족 항일 동맹에는 대한민국 임시 정부 인사들과 중국 국민당 인사들이 대거 참여하기도 하였다.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김원봉은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중국 관내에서 조선 의용대를 조직하여 중국군과 함께 항일전을 전개하였다(1938). 이들 중 일부는 화북 지역으로 이동해 조선 의용군으로 재편되어 대일 항전을 계속하였다. 대한민국 임시 정부도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고(1940), 화북 지방으로 이동하지 않은 조선 의용대 병력을 흡수하여 군사력을 강화하였다. 한국 광복군은 연합군의 일원으로 참전하여 인도·미얀마 전선에서 영국군과 연합 작전을 전개하고, 미국 전략 정보처(OSS)와 국내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한국인과 중국인의 항일 연대가 이루어진 까닭을 말해 보자.

◆ 동북인민혁명군

1933년 중국 공산당이 만주 지역에서 활동하던 한국과 중국의 항일 유격대를 규합해 편성한 항일 무장 부대로, 1936년 동북 항일 연군으로 확대 개편되었다.

◆ 한인애국단

김구가 일본 정부 요인의 암살을 목적으로 1931년 상하이에서 조직한 독립운동 단체이다.



▲ 윤봉길(1908~1932)

탐구 활동



한국 광복군의 창설과 활동

역사 탐구 활동

한국 광복군은 중화민국 국민과 합작하여 우리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 공동의 적인 일본 제국주의자를 타도하기 위하여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을 계속하였다. …… 우리는 한·중 연합 전선에서 우리 스스로의 부단한 투쟁을 감행하여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민중의 자유와 평등을 쟁취할 것을 약속하는 바이다.

- 「한국 광복군 선언문」, 1940 -

1. 한국 광복군 창설의 의미를 알아보자.
2. 한국 광복군과 연합군이 전개한 연합 작전을 조사해 보자.



▲ 한국 광복군 결성식 결성식에 참석한 한·중 양국 인사들이 기념 촬영을 한 것이다.

반제·반전을 위한 국제 연대



▲ 안중근(1879~1910)

서구 열강의 식민지 쟁탈전과 일본의 침략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제국주의와 침략 전쟁에 반대하는 반제·반전 사상이 대두하였다. 러·일 전쟁 무렵 고토쿠 슈스이는 군국주의를 비판하며 전쟁에 반대하였다. 1907년에는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한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 연대 조직인 아주 화친회가 도쿄에서 창립되었다. 아주 화친회는 아시아 각 민족의 독립을 위해 상호 원조와 협력을 표방하며 반제국주의 세력의 연합을 추구하였다. 아주 화친회는 창립을 주도한 장빙린을 비롯하여 고토쿠 슈스이, 조소앙, 판보이쩌우 등 동아시아 각국의 지도자와 유학생 등이 참가하여 국제 연대를 이루었다. 안중근도 『동양 평화론』을 집필하여 일본의 한국 침략 포기와 한·중·일의 상호 협력 등을 주장하여 제국주의 침략에 반대하였다.

사료 읽기

반파시스트 동맹 창립 준비 위원회 선언(1938)

일본 파시스트의 지배 아래 있는 우리 피압박 민족은 일본 국내의 근대 대중이든, 식민지 조선과 타이완의 민족이든 상관없이 우리가 현재 가장 엄중한 갈림길에 이르렀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 우리는 먼저 일본 파시스트 군벌에 반대하는 연합 기구를 건설해야 합니다.

-『신화일보』-

일본인 반전 운동가 아오야마 가즈오는 일본 전체주의자들과의 항쟁을 위해 동아시아 각 민족이 참여하는 연합 기구 조직을 주장하였다.

📌 반제·반전을 위해 국제 연대를 주장한 사람들을 조사해 보자.

1910년 이후 독립운동을 위해 중국으로 망명한 한국인은 중국인과 다양한 연대 조직을 마련하였다. 신규식, 조소앙, 천치메이, 천리푸 등은 아시아 민족 반일 대동당을 조직하여 항일 연대 활동을 벌였다. 동아시아 무정부주의자들도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하기 위해 동방 무정부주의자 연맹, 항일 구국 연맹 등을 창설하였다.

일본에서도 한국인 유학생들이 일본인 반전 운동가들과 연대 활동을 벌였는데, 박열과 가네코 후미코가 함께 벌인 반제·반전 운동이 대표적이다. 변호사였던 후세 다쓰지는 기소된 한국인 독립운동가를 변호하는 등 한국의 독립운동을 지원하였다. 침략 전쟁이 길어지면서 중국 내 일본인의 반전 연대 활동도 전개되었다. 하세가와 데루는 상하이에서 전쟁에 반대하는 대일 방송을 하였고, 일본 병사 반전 동맹은 일본군에 투항과 탈영을 호소하였다.

동아시아사 백과

동아시아 무정부주의자들의 활동



▲ 고토쿠 슈스이 (1871~1911)



▲ 바진 (19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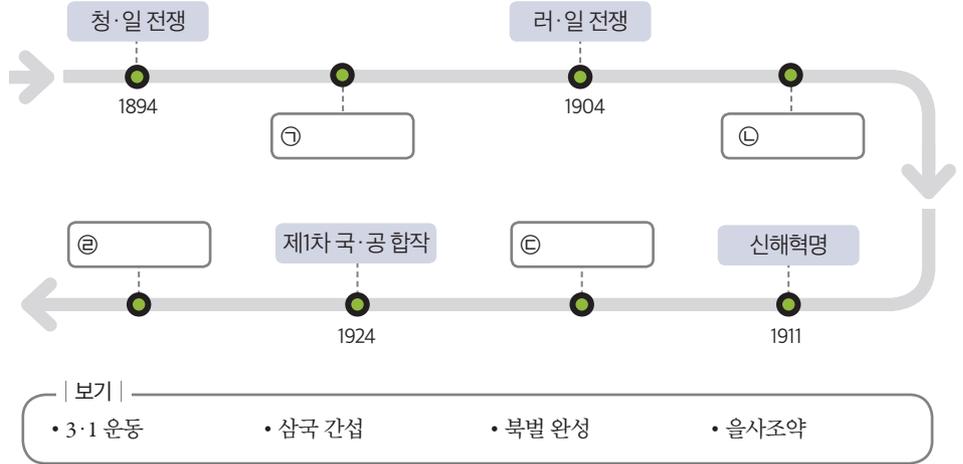
▲ 신채호 (1880~1936)

무정부주의는 모든 정치 조직과 규율, 권위 등을 거부하고 인간이 자유롭고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동아시아에서 무정부주의는 개인보다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수용되었다. 일본의 대표적 무정부주의자인 고토쿠 슈스이와 오스기 사카에 등은 천황을 정점으로 하는 권력에 저항하며 반전 운동을 전개하였다. 중국에서는 바진이 각 민족의 독자적인 삶과 공존을 파괴하는 일본 제국주의를 무너뜨리기 위해 일제와 적극적으로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한국에서는 신채호, 이회영 등이 일본의 패권주의와 식민 통치에 맞서, 보다 적극적으로 독립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무정부주의를 수용하였다.

스스로 학습



1 연표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



2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써 보자.

일본의 침략 전쟁 확대	만주 사변(1931) → ㉠ (1937) → 태평양 전쟁(1941)
전쟁에 따른 민간인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난징 대학살: 중국 난징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민간인 학살 • ㉡ 제정(1938): 전쟁에 필요한 인적·물적 자원 수탈 • 오키나와 주민에게 집단 자결 강요
항일 국제 연대와 반전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항일 국제 연대: 한·중 연합 작전, 중국 국민당의 한국 광복군 창설 지원 • ㉢ 창립: 반제국주의를 목표로 한 동아시아 최초의 국제 연대 조직



3 일제의 침략에 저항한 동아시아 각국의 민족 운동 카드를 [예시]를 참고하여 제작해 보자.

[예시] 5·4 운동

5·4 운동	
일어난 곳	중국 베이징
일어난 때	1919년 5월 4일
내용	일제의 '21개조 요구' 철폐와 산둥반도의 이권 반환 등을 요구하는 대규모 항의 시위
결과	베이징 정부가 파리 강화 회의에 대한 조인 거부

()	
일어난 곳	
일어난 때	
내용	
결과	

3 서양 문물의 수용

	1850	1900	1950
한국	조선	대한제국	대한민국
중국	청	중화민국	중화 인민 공화국
일본	에도 시대	메이지 시대	쇼와 시대



| 생각 열기 | 1887년 밤 경복궁 내 건청궁에 전등이 들어와 환해진 모습을 그린 상상화이다. 달과 별, 그리고 호롱불이 전부인 칠흑같은 밤에 익숙해 있던 대신들이 매우 놀라는 모습이다. 서양에서 들어온 신문물은 정치·경제 활동뿐 아니라 일상생활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Q 동아시아 각국은 서양 문물을 수용하면서 사회적·문화적·사상적으로 어떤 변화를 겪었을까?

1 서구 중심적 세계관의 침투

학습 목표 한국 공법, 사회 진화론의 도입과 그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1864 『만국 공법』 한역본 출간
1896 『독립선언』 창간

만국 공법의 수용

◆ 만국 공법

국가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국제법을 한문으로 번역한 용어로, 대등한 주권 국가들의 상호 승인으로 형성된 국제 사회에서 국가의 위상과 권리, 의무는 평등하다는 것이 핵심이다.



▲ 『만국 공법』 한역본 미국인 선교사 윌리엄 마틴이 1864년 미국의 법학자 휘튼의 국제법 저서인 『국제법 원리, 국제법학사 개요 첨부』를 번역한 책이다.

19세기에 전래한 만국 공법은 동아시아 각국 정부로부터 주목을 끌었다. 만국 공법은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 질서와 달리 주권 국가 사이의 대등한 관계를 원칙으로 새로운 국제 질서의 법적 근간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청과 일본, 조선은 만국 공법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받아들였다. 청은 기존의 화이관을 유지한 채 만국 공법을 서구 열강과의 외교 실무에 이용하는 데 그쳤다. 반면에 일본은 만국 공법을 근거로 청·일 수호 조규에서 청과의 대등한 관계를 규정하였다. 또한 강화도 조약에서 조선이 자주국임을 규정하여 조선에 대한 청의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하였다. 조선은 만국 공법에 규정된 상호 주권 보장 조항을 활용하여 국권을 유지하려 하였다.

그러나 만국 공법은 명분에 불과했고 실제로는 국가 간의 이해관계와 힘에 좌우되는 것이 제국주의 시대 국제 관계의 현실이었다. 서구 열강은 주권 평등의 원칙을 서구 국가 간에만 적용하고 비서구 국가를 비문명국, 야만국으로 간주하며 불평등한 통상 조약 체결을 합리화하였다.

사회 진화론의 수용

사회 진화론은 19세기 동아시아에 들어온 서구 사상 중 하나로, 동아시아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다. 사회 진화론은 경쟁으로 말미암은 개인 간의 불평등을 인정하고 약자에 대한 강자의 지배를 당연시하였다. 동아시아 각국은 이러한 사회 진화론을 ‘우리도 힘을 길러야 한다.’라는 자강 운동의 근거로 변형하여 수용하였다. 서구와 같은 근대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삼아 애국심과 민족정신을 갖도록 국민을 계몽·통합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사회 진화론은 동아시아 근대 민족주의 태동에도 영향을 끼쳤다. 일본에서는 서양 지식인들에 의해 사회 진화론 관련 서적이 다수 번역되었다. 청에서는 중국 최초의 영국 유학생이었던 옌푸가 청·일 전쟁의 패배에 충격을 받고 사회 진화론을 소개하면서 구국의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후 사회 진화론은 량치차오에게 영향을 끼쳤다. 조선에서는 유길준과 윤치호가 사회 진화론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조선 사회가 서구 자본주의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사회 진화론은 강대국의 약소국 침략과 지배를 합리화하는 논리에 이용되었다. 사회 진화론에 기반을 둔 자강론은 제국주의 비판에 소홀하였고, 오히려 제국주의 열강을 선망하면서 그 일원이 되고자 하는 소망의 근거가 되었다.

특히 일본에서는 일부 자유 민권론자가 천부 인권설을 버리고 사회 진화론을 받아들이면서 자유 민권 운동을 망상이라고 비판하였다. 나아가 개인은 애국심을 갖고 천황과 국가에 충성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사회 진화론은 국가주의와 결합하여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정당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사회 진화론

영국의 사회학자 허버트 스펜서가 다윈이 주장한 생물학적 진화론을 인간 사회에 적용한 이론으로,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을 핵심으로 한다.



▲ 옌푸(1854~1921) 청 말의 계몽사상가로 헉슬리의 『진화와 윤리』를 번역하여 『천연론』이라는 제목으로 출간하였다. 이 책은 량치차오의 사회 진화론에 큰 영향을 끼쳤다.

탐구 활동



사회 진화론의 수용



자료 1

일본 지식인의 사회 진화론 수용

무릇 인류계에서 일어나는 만반의 생존 경쟁 가운데 강자의 권리를 위한 경쟁이 가장 많고 가장 성하며 이러한 경쟁은 우리의 권리와 자유를 증대할 뿐만 아니라 인류계의 진보와 발달을 촉진하는 데 매우 필요하다.

- 가토 히로유키, 『강자의 권리의 경쟁』, 1893 -

자료 2

조선 지식인의 사회 진화론 수용

대개 인생의 만사가 경쟁을 의지하지 않는 일이 없으니 크게는 천하와 국가의 일부터, 작게는 한 몸 한 집안의 일까지 실로 다 경쟁으로 말미암아 먼저 진보할 수 있는 바라. …… 만약 국가들 사이에 경쟁하는 바가 없으면 어떤 방법으로 그 광위와 부강을 증진할 수 있는가?

- 유길준, 『경쟁론』, 1883 -

1. 자료 1 과 자료 2 에서 저자의 견해를 보여 주는 핵심 단어를 찾아 밑줄을 긋고 공통점을 써 보자.
2. 강대국 국민과 약소국 국민은 자료 1 과 자료 2 의 견해를 각각 어떻게 인식하였는지 토론해 보자.

2 근대 지식의 확산

1862 청 동문관 설립
1870 「오코하마다이니치 신문」 창간
1872 일본 근대 학제 공포
1883 「한성순보」 발간
1898 「연통문」 발표, 찬양회 조직

학습 목표 근대 학교와 새로운 언론 매체가 보급되는 과정과 그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근대 학교의 보급

외세의 압력으로 문호를 개방한 동아시아 각국은 부국강병을 이룩하기 위해 교육에 역점을 두었다. 이에 각국 정부는 전통 시대와 달리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에 따라 모든 사람을 교육의 대상으로 삼았고, 서구의 근대 학문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실용적인 내용을 가르치는 데 힘을 기울였다.



▲ 육영 공원에서 사용한 영어 교재 육영 공원은 조선 정부가 미국의 도움을 받아 1886년에 설립한 근대적인 관립 학교이다.

각국은 서양 문물의 수용을 위해 외국어 교육 기관을 설립하였다. 청은 1862년 베이징에 동문관을 세웠다. 이를 모델로 조선은 1883년과 1886년에 각각 동문학과 육영 공원을 설립하였다. 일본에서는 게이오 의숙이 영어 교육을 담당하였다.

근대 교육을 시행하기 위해 새로운 학교 제도도 마련되었다. 일본은 1872년 소학교-중학교-대학교로 연결되는 근대 학제를 공포하였다. 1890년에는 국민의 충성심과 호심이 국체의 정화이자 교육의 근원임을 규정한 ‘교육 칙어’를 발표하였다. 이후 소학교 교육을 의무 교육으로 하였고, 도쿄 제국 대학 등 고등 교육 기관 설립에도 힘을 기울였다. 청과 조선도 일본의 근대 학제를 본뜬 근대 교육 제도의 틀을 갖추고 학교를 설립하였다. 조선에서는 근대 학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1895년에 ‘교육입국 조서’를 발표하였다. 청에서는 신정이 시행되면서 과거제를 폐지하는 등 각종 교육 제도를 개혁하였다. 그 밖에 외국인 선교사가 세운 학교도 근대 교육 확대에 이바지하였다.



▲ 일본 소학교 수업 풍경 단발을 하고 서양식 복장을 한 교사의 모습이 보인다.

한편 각국 정부는 인재 양성을 위해 관비 유학생을 해외에 파견하였다. 자비로 해외에 나간 유학생도 많았다. 일본에서는 주로 미국, 유럽으로 유학을 떠났고, 청과 대한 제국에서는 일본으로 유학을 떠났다. 해외 유학생은 귀국 후 근대화 정책의 추진과 근대 문물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함미진진 동아시아



학교 종이 땡땡땡



근대 학교는 학년과 학급이 나뉘고, 학년마다 배워야 할 교과목과 교과서, 과목별 주당 수업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수업 시간은 쉬는 시간을 포함해서 한 시간 단위로 구분되었고, 종을 쳐 수업의 시작과 끝을 알렸다. 교실에는 책상과 걸상, 교탁이 놓였으며, 먹과 붓을 대신해 공책, 연필, 지우개 등 새로운 학용품도 등장하였다.

◀ 1904년 즈리고등공업 학당의 수업 풍경(중국 텐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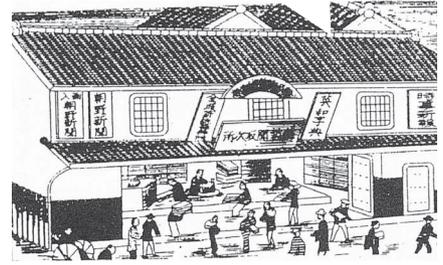
새로운 언론 매체의 발전

근대 신문은 세상 소식을 전하고 국민을 계몽하여 여론을 주도하였다. 또한 다양한 광고를 실어 소비자 확보에 영향을 끼치며 유행을 선도하였고 연재소설, 시사만화를 실어 독자를 끌어들였다. 각국 정부는 발행 허가제, 사전 검열제 등으로 신문을 통제하고 관리하였다.

청과 일본에서는 조계지의 외국인이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소통하기 위해 신문을 발행하였다. 영국 상인이 『상하이 신보』를 발간한 이후 이를 모델로 중국어·일본어 신문이 창간되었다. 청 정부는 자국민의 신문 발행을 승인하지 않다가 20세기 초에 신문 발행을 허용하였다.

일본에서는 1870년 최초의 일간지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이 발간되었다. 이후 여러 신문이 발행되었는데, 그중 반정부적인 성향을 보이는 신문은 정부의 압력으로 폐간되기도 하였다. 조선에서는 1883년에 최초로 『한성순보』가 발간되었고, 1896년에는 민간 신문이자 순한글 신문인 『독립신문』이 발간되었다. 이후 여러 민간 신문이 잇따라 창간되어 신문물과 지식을 소개하고, 국권 수호를 위한 여론을 조성하는 등 국민 계몽과 민족 운동에 큰 역할을 하였다.

한편 여러 단체·학회 등이 다양한 잡지를 발행하였다. 잡지는 신문과 함께 사회·문화 운동, 국민 계몽 운동의 중요한 도구였으며, 학문의 연구와 전파에도 큰 역할을 하였다. 메이지 유신 이후 결성된 일본의 민간 학술 단체 메이로쿠샤가 발행한 『메이로쿠(明六) 잡지』, 청의 저명한 출판사인 상무인서관이 창간한 『동방잡지』, 대한 제국의 애국 계몽 운동 단체들이 발행한 『기호흥학회 월보』, 『대한자강회 월보』 등이 대표적이다.



▲ 1880년대 일본의 신문 보급소 풍경. 신문 보급소에서 신문을 받아 팔러 나가는 판매원의 모습이 보인다.



▲ 『대한자강회 월보』 표지



▲ 비누 광고(일본)

▲ 염색약 광고(한국)

▲ 안경 광고(중국)

신문·잡지와 같은 인쇄 매체에는 다양한 광고가 실렸다. 광고는 서양 문물을 접할 수 있는 통로 중 하나였으며, 광고 수입은 신문사 운영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였다. 광고는 상품에 대한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소비 경향과 유행을 선도하였다. 그리하여 각국 국민은 광고를 통해 서구의 유행을 접할 수 있었다.

여학교의 탄생과 여성 권리 의식의 신장

동아시아 지식인들은 부국강병을 위해서는 여성도 남성과 동등한 국민으로 키워야 한다며 여성 교육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정부와 민간에서 설립한 여학교는 여성 교육의 산실이였다.



▲ 메이지 시기 일본의 고등 여학교·여학생 수의 증가

일본은 1872년 근대 학제 공포 후 여성도 초등·중등 교육을 받도록 하였다. 청과 대한 제국의 여성 교육은 외국인 선교사들이 세운 여학교를 중심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점차 자국민이 세운 사립 학교가 늘었고, 정부도 여학교를 설립하면서 여성 교육이 확대되었다.

여성은 여성 단체를 만들어 여성의 권익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벌였다. 일본에서는 부인 교풍회가 조직되어 일부다처와 매춘의 금지를 주장하는 운동을 전개하였고, 그 결과 중혼 금지가 법제화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대한 제국에서는 서울의 양반 부인들이 ‘여성이 정치에 참여할 권리, 직업을 가질 권리, 교육 받을 권리’를 주장하는 ‘여권통문’을 발표하였다(1898). 또한 찬양회를 조직하고 정부에 여학교 설립을 요청하는 상소를 올렸다. 그러나 일부 보수파의 반대로 학교 설립이 거부되자 회비를 거둬 직접 순성 여학교를 설립하였다. 중국에서는 신문화 운동 이후 전통적 가족 제도의 변화, 여성 교육과 인권 문제 등이 개혁 과제로 논의되었다. 이와 같이 여성 권리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각국에서는 낡은 관습에서 벗어나 자유 연애와 결혼 등을 주장하는 ‘신여성’이 등장하기도 하였다.

사료 읽기

여권통문

우리보다 먼저 문명이 개화한 나라들을 보면 남녀의 권리가 동등하다. …… 이제는 우리도 여아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재주를 배우게 하여 나중에 여자들이 훌륭한 인격자가 될 수 있도록 여학교를 세우고자 한다.

- 『황성신문』, 1898. 9. 8. -

Q ‘여권통문’을 발표하고 여학교를 세우기 위해 힘쓴 사람들을 조사해 보자.

명미진진 동아시아



하늘이 준 발, 발의 해방을 추구한 천족운동(天足運動)



▲ 작은 발 한 쌍에 눈물 한 항아리
(『도화일보』, 1910. 9. 3.)

1897년 부(不)전족회의 규정

- 회원의 딸에게 전족을 시킬 수 없다.
- 회원의 아들은 전족한 여인을 아내로 맞을 수 없다.
- 회원의 딸이 이미 전족을 했을 경우, 8세 이하이면 반드시 전족을 풀어야 한다.

1912년 쑨원이 각 성에 내린 통지

…… 일절 전족을 금하고, 여기는 자가 있으면 그 가족에게 상응하는 벌을 내릴 것이다. 이 명령을 준수할 것을 절실히 바라며 포고하는 바이다.

중국에서는 여성의 발을 어릴 적부터 억지로 줄라매어 기형적으로 발을 작게 만드는 전족 풍습이 있었다. 전족은 많은 여성의 눈물을 흘리게 하는 대표적인 악습이었다. 이에 량치차오 등은 부(不)전족회를 만들어 여성의 발을 해방시키는 천족운동을 벌였다. 신해혁명 이후 쑨원은 전족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처벌하겠다고 포고하였다.

3 시간과 공간의 변화

학습 목표 근대 시설이 가져온 생활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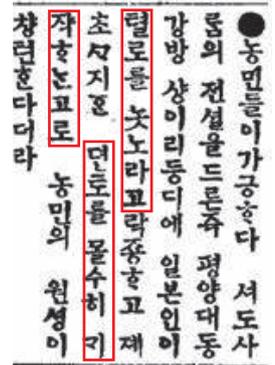
철도의 건설

철도는 상품 유통 촉진, 여행 문화 확산, 기술 발전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서구 열강이 동아시아에 철도를 부설한 이유는 그들의 군사 침략과 경제 침탈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 이후 중앙 집권을 강화하고 부국강병을 실현하기 위해 직접 철도 건설에 나섰다. 1872년에 일본 최초로 도쿄~요코하마 간 철도가 개통되었다. 이후 각지에서 철도 회사가 생겨 노선이 확대되었다.

청에서는 1876년에 처음 철도가 부설되었다. 처음에는 열강의 군사적·경제적 침략과 풍수 문제 등으로 반대가 많았지만, 철도 부설의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을 벌인 끝에 1889년에 철도 부설을 기본 정책으로 확정하였다. 그리고 철도 기술을 배워 오도록 미국에 유학생을 파견하고 철도 기술자 양성 학교를 세웠다. 그러나 자본과 기술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1901년 신축 조약 체결을 계기로 중국 철도는 대부분 열강의 손으로 넘어갔다.

대한 제국의 철도는 일본의 경제적·군사적 침탈에 이용되었다. 철도 용지 부근에 사는 주민들은 자신의 땅을 철도 용지로 헐값에 수용당하고 수시로 노동력과 식량 등을 제공해야 했다. 때문에 곳곳에서 일본의 강제 동원과 가혹 행위에 대한 저항이 빈번하게 일어났다.



▲ 철도 부설로 농민의 토지가 비농경지로 전락하였음을 보도하는 기사(『대한매일신보』, 1907. 7. 11.)

1905년경 동아시아 철도망 ▶



1880년에 준공된 일본의 교토~오쓰 구간 철도는 일부 교량 설계를 제외하고는 터널 공정을 포함해 모두 일본인의 손으로 이루어졌다.

반면에 청과 대한 제국에서는 철도에 대한 권리가 서구 열강과 일본에 넘어가면서 철도는 제국주의 국가의 침략 도구로 활용되었다.

근대적 시간관념의 확산



▲ 1881년 건립된 일본 삿포로 농 학교 내 시계탑 현존하는 일본 시계탑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틈나바퀴와 같은 중요 부품을 한 번도 교체하지 않고 오늘날까지 정확한 시간을 알리고 있다고 한다.

전통 사회 사람들은 해가 뜨면 일어나 논밭을 갈고 해가 지면 들어와 잠을 자며 자연적인 시간의 흐름에 맞추어 살았다. 그러나 개항 후 크고 작은 시계들이 서양 문물과 함께 들어오면서 동아시아 사람들은 시와 분을 세밀하게 구분한 근대적 시간에 접하게 되었다. 일본은 1873년, 조선은 1896년, 중국은 1912년부터 태양력을 도입하여 사용하였다. 그리고 하루를 24시간, 일주일을 7일로 하는 전국 공통의 시간을 만들었다.

동아시아 사람들이 기차를 이용하면서 근대적 시간에 맞추어 생활하는 경향이 점차 확산되었다. 열차의 출발·도착 시간을 분 단위로 표시한 기차 시간표를 보면서 시간을 분, 초까지 나누어 인식하게 되었다. 철도가 외진 마을까지 도달하게 되면서 철길 주변 마을 사람들은 지나가는 기차를 시간을 재는 수단으로 삼기도 하였다. 국가의 표준 시각에 따라 운행되는 철도의 영향으로 철길 주변의 지방 주민까지 시간관념을 갖게 되었다.

학교도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학생들이 생활하도록 통제하여 근대적 시간관념의 확산에 영향을 끼쳤다. 학생들은 시간에 맞추어 등교하고 수업을 들었다. 학교 규칙과 교과서에 시간 개념을 강조하는 내용이 포함되었고 시간을 지키지 않는 학생에게는 벌을 주었다.

민미진진 동아시아



40시간 안에 만주와 일본을 여행하다



▲ 기차 시간표 개정 안내 기사(『황성신문』, 1909. 4. 18.)

통감부 철도관리국에서는 오는 5월 1일부터 관부연락선과 경부철도, 경의철도, 안동철도를 서로 연결하여 밤낮으로 운행하는데 그 시간표는 다음과 같다.

<부산행 급행>

안동현 출발	오전 7:40	
신의주 출발	8:30	
평양 도착	오후 2:43	출발 2:51
남대문 도착	10:20	출발 10:40
부산 도착	다음 날 오전 9:30	

1909년 『황성신문』에는 만주에서 부산을 잇는 새로운 기차 시간표가 실렸다. 당시 철도 당국은 부산과 일본의 시모노세키를 정기적으로 왕래하던 부관연락선으로의 환승을 고려해 만주의 안동선과 한국의 경의선, 경부선을 연결하는 열차 운영을 예고하였다. 만주에서 기차를 타고 다음 날 아침이면 부산까지, 부관연락선을 타고 시모노세키까지 총 40시간 이내에 일본에 도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처럼 짧은 시간에, 여러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장거리 여행을 하려면 출발과 도착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야 했다. 교통수단의 발전은 근대적 시간관념의 형성에 큰 영향을 끼쳤다.



근대 도시의 형성

개항으로 국제 무역과 금융이 확대되면서 근대 도시가 성장하였다. 개항 도시에는 외국인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었고, 전신·전화·우편·신문·전차 등 근대적 통신·교통 시설이 들어섰다. 그러나 외국인이 거주하는 조계가 확대되는 과정에서 자국 거주민이 강제로 밀려나는 일도 발생하였다. 또한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이주해 온 이들은 신문물을 누리지 못하고 도시의 빈민층으로 어렵게 생활하였다.

청에서는 상하이, 텐진 등 개항 도시가 상거래와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하였다. 개항 도시에는 서구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과 외국 상관, 금융 기관이 집중적으로 들어서면서 인구도 급증하였다. 특히 상하이는 지식인과 언론인·출판인들이 대거 이주하여 활동하면서 경제·문화 중심지로도 부상하였다.

일본은 미·일 수호 통상 조약에 따라 요코하마 등 항구를 추가로 개항하였다. 개항 도시들은 전국의 상인이 모이는 무역항으로 성장하였고 이곳을 통해 신문, 공원, 음식 등 서구 문화가 들어왔다. 한편 메이지 정부는 1872년 수도인 도쿄의 긴자에 대화재가 일어나자 긴자의 도로를 확장하고 벽돌 건축으로 서양식 거리를 만들었다.

조선에는 개항 이후 부산, 인천 등 개항장에 일본인 거주지가 형성되었다. 그 후 각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한성에 외국 공사관이 들어서고, 많은 외국인이 거주하게 되었다. 대한 제국 정부가 황성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성도 점차 근대 도시의 모습을 갖추었다.

◆ 조계

개항장 내에 일정한 범위를 구획하여 외국인이 자유롭게 거주하며 치의 법권을 누릴 수 있게 설정한 지역으로 일본에서는 거류지라고도 불렀다.

1895년



1899년 전차 부설 이후



▲ 정비 전후 남대문로

▼ 19세기 후반 서양식 벽돌 건물이 들어선 도쿄 긴자 거리 풍경 철도마차와 가로등, 서양식 건물을 볼 수 있다. 서양식 복장을 한 사람들도 보인다.



동아시아 개항장 탐방



상하이와 인천, 요코하마는 모두 19세기에 개항한 도시이다. 이들 도시의 개항 후 모습과 역사를 살펴보고 답사 계획서를 작성해 보자.



개항 후 모습



도시의 역사

상하이에는 개항 이래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서양 여러 나라의 조계가 자리 잡았다. 이후 미국과 영국 조계가 합병하고, 공공조계가 성립하여 상하이는 중국인 거주 지역과 공공조계, 프랑스 조계로 분할되었다. 상하이는 일종의 자치 공화국으로 거주 외국인이 독자적으로 행정기관을 설치해 운영할 수도 있었다. 상하이의 영역은 계속 확장되었고, 중국이 서구의 침략을 받는 가운데에도 중국 최고의 경제적 번영을 이룬 국제 도시로 성장하였다.

인천에는 일본이 먼저 조계를 설치하였다. 일본은 이후 거류민이 늘자 매립 사업을 통해 조계를 확장하기도 하였다. 청과 서양 각국도 인천에 조계를 설정하였다. 그리하여 청 상인과 일본 상인이 상권을 두고 치열하게 경쟁하였다. 그러나 1910년 일제가 대한 제국을 강점한 데 이어 1914년 조선 내 조계를 폐지하면서 인천 조계도 소멸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인천은 일본인의 주요 활동 거점이자 상공업 도시로 성장하였다.

요코하마에는 개항 후 나가사키, 고베, 오사카 등과 함께 조계가 설정되었다. 요코하마의 조계는 각국이 별도의 조계지를 만들지 않고 함께 모여 사는 각국 공동 거류지였다. 이후 샌프란시스코 - 요코하마 - 상하이를 잇는 항로가 개설되었고, 도쿄와 연결하는 철도가 개통되었다. 그 결과 요코하마는 서구 문물이 들어오는 입구이자 일본 최대의 무역항으로 성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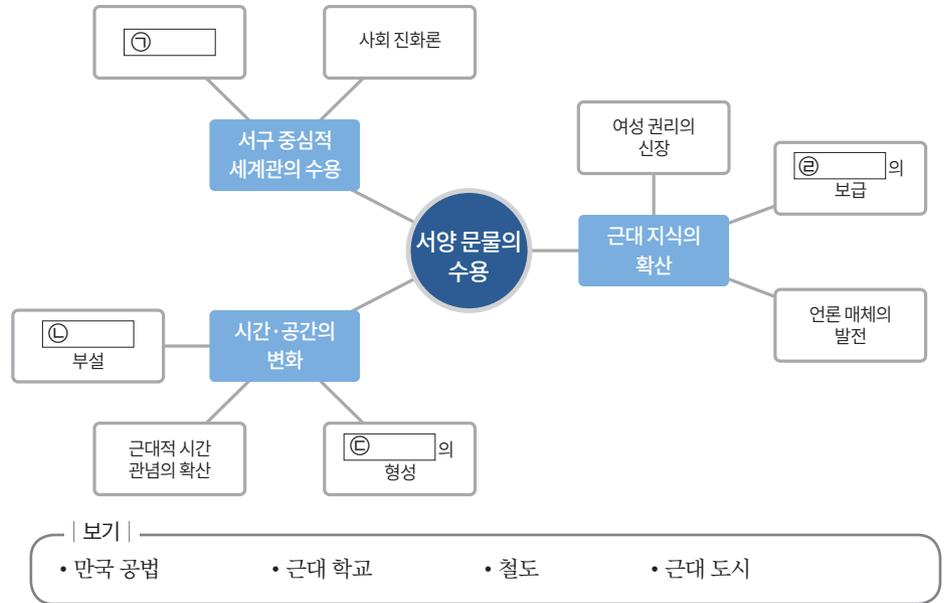
개항 도시 답사 계획 짜기

- 1 관심 있는 개항 도시를 고른다.
- 2 1박 2일 또는 2박 3일 등의 일정을 정하고, 주요 유적 및 유물을 조사한다.
- 3 답사 계획서를 작성한다.

스스로 학습



1 서양 문물의 수용을 나타낸 마인드맵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



2 (가), (나)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가) 교육 칙어(1890)	(나) 교육입국 조서(1895)
<p>짐이 생각하건대 나의 신민도 열심히 충효에 힘써 마음을 하나로 하여 대대로 그 미덕을 배워 온 것은 우리나라의 뛰어난 점이며 교육의 근본 정신도 또한 여기에 있다. 항상 헌법을 중시하고 법률에 따라 한 차례 나라의 비상시가 되면 의용을 가지고 나라를 위해 일하며 천지와 같이 끝없는 황실의 운명을 지키고 도와줘야 한다.</p> <p>-『법령전서』-</p>	<p>세상 형편을 돌아보건대 부유하고 강하여 우뚝이 독립한 나라들은 모두 그 나라 백성이 개명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 지식이 개명하는 것은 교육이 잘된 데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육은 실로 나라를 보존하는 근본으로 된다. 내가 정부에 지시하여 학교를 널리 세우고 인재를 양성하는 것은 너희들 신화와 백성이 학식으로 나라를 중흥시키는 큰 공로를 이룩하기 위해서이다.</p> <p>-『고종실록』-</p>

(1) (가), (나)에서 제시된 교육 목적의 공통점을 찾아 써 보자.

.....

(2) (가), (나) 주장과 관련해 각국이 추진한 교육 정책을 써 보자.

.....

.....

힘 잡는 단원 평가

아편 전쟁 발발 1840

난징 조약 체결 1842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 1858

1 1868

일본의 근대적 개혁

도쿄~요코하마 철도 개통 1872

강화도 조약 체결 1876

「대일본 제국 헌법」 제정 1889

동학 농민 운동, 청·일 전쟁 발발, 갑오개혁 1894

조선, 태양력 시행 1896

2 체결 1905

대한 제국 외교권 박탈

대한 제국의 국권 피탈 1910

3 1911

중화민국 수립 계기

제1차 세계 대전 발발 1914

3·1 운동, 5·4 운동 1919

제1차 4 성립 1924

군벌 타도 목적

중·일 전쟁 발발 1937

제2차 세계 대전 종결 1945

왼쪽 연표를 완성하고, 문제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자.

1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해 보자.



(1) (가), (나), (다) 조약의 명칭을 써 보자.

(2) (가), (나), (다) 조약의 공통점을 서술해 보자.

2 인물과 관련된 내용을 연결해 보자.

- (1) 김옥균 • ㉠ 베이징을 점령하여 복벌을 완성하였다.
- (2) 김원봉 • ㉡ 중체서용에 입각한 근대화 운동을 추진하였다.
- (3) 이홍장 • ㉢ 조선 의용대를 조직하여 중국군과 항일전을 전개하였다.
- (4) 장제스 • ㉣ 사절단을 이끌고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를 방문하였다.
- (5) 이와쿠라 도모미 • ㉤ 급진적으로 근대화를 추진하기 위해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3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 찰스 다윈이 발표한 생물학적 진화론에 따라 사회의 모습과 변화를 해석하고자 한 이론으로, 자연과 마찬가지로 사회에서도 생존 경쟁과 약육강식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 일본과 중국의 지식인들이 서양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이론으로, 조선의 유길준, 윤치호 등에게 영향을 미쳤다.

(1) 윗글에서 설명하는 사상의 명칭을 써 보자.

(2) (1)의 사상이 동아시아에 수용되면서 나타난 특징을 서술해 보자.

자기 점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본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1 새로운 국제 질서와 근대화 운동

126쪽 확인

2 제국주의 침략 전쟁과 민족 운동

138쪽 확인

3 서양 문물의 수용

154쪽 확인

역량 +
수행 평가

침략 전쟁의 피해 조사 보고서 만들기

일본의 침략 전쟁 과정에서 발생한 동아시아인의 피해 사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1 보고서 주제 선정하기

- 삼광 작전
- 징병
- 징용
- 일본군 '위안부'
- 황국 신민화 정책
- 공출제

2 조사 보고서 작성하기

1. 사건의 정확한 명칭과 발생한 시기를 조사한다.
2.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사건의 개요와 자세한 내용을 작성한다.
3. 관련 사진을 첨부한다.
4. 보고서를 작성하는 데 참고한 누리집을 첨부한다.

예시

- 사건명: 난징 대학살
- 사건 발생일: 1937년 12월
- 사건 개요: 중·일 전쟁을 일으킨 일본군이 중국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한 후 중국인 포로와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학살과 약탈을 자행한 사건이다.
- 조사 내용: 태평양 전쟁 종전 후 열린 극동 군사 국제 재판 판결에 따르면, 비전투원 1만2천 명, 패잔병 2만 명, 포로 3만 명이 난징 시내에서 학살되었고, 주변에 피란 가 있던 시민 5만7천 명 등 총 12만9천 명이 살해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이것은 최소한의 수치이며 실제로는 30만 명 이상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일본은 피해자 수가 부풀려졌다거나 심지어 난징 대학살 자체가 조작되었다며 부정하고 있지만, 2015년에 난징 대학살 기록물이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어 국제 사회는 난징에서의 일본군의 만행을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 관련 누리집
 - 유네스코와 유산(<http://heritage.unesco.or.kr>)
 - 난징 대학살 기념관(<http://www.nj1937.org/>)



▲ 난징 대학살 기념관에 있는 부조(중국 난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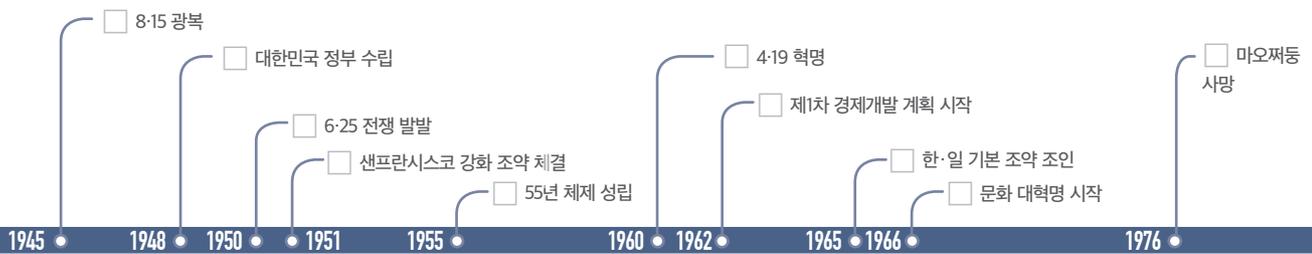


이 단원에서 성취할 나만의 목표를 스스로 정해 보자!

1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냉전의 영향으로 동아시아 각국에 나타난 모습을 설명할 수 있다.

2

3



연표에서 알고 있는 역사 사건에 V 표시해 보자.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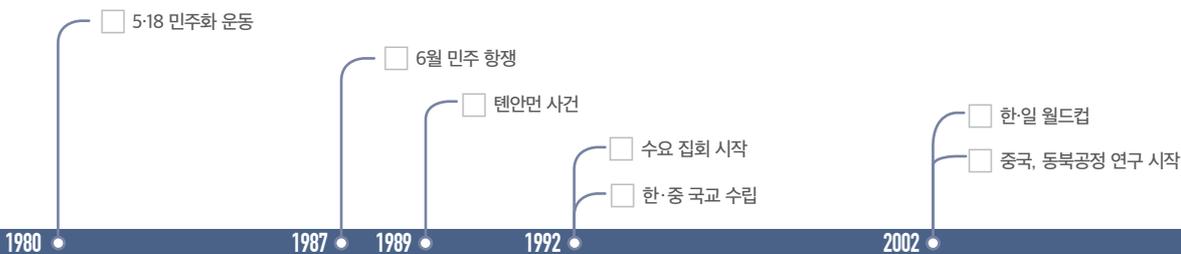
오늘날의 동아시아

- 1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 체제
- 2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
- 3 갈등과 화해

단원 열기

이 단원에서는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양상과 냉전의 심화·해체 과정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또한 오늘날 동아시아 각국에 나타난 정치·경제·사회의 발전 양상 및 동아시아 국가 간의 갈등과 이를 극복하려는 방안을 탐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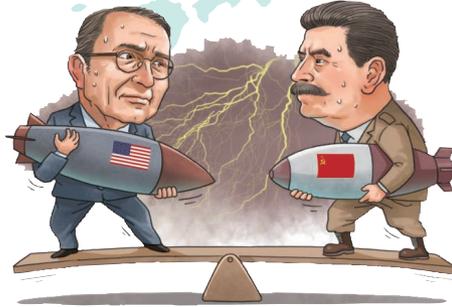
▲ 독도



1

제2차 세계 대전 전후 처리와 냉전 체제

	1900	1950	2000
한국	대한 제국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중국		중화민국	중화 인민 공화국
일본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쇼와 시대
			헤이세이 시대



| 생각 열기 | 1949년 무렵 미국과 소련의 지도자였던 트루먼과 스탈린을 풍자한 그림이다. 제2차 세계 대전 후 세계는 자본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으로 나뉘었다. 전쟁 중 협력하였던 미국과 소련은 각 진영의 맹주로 군림하며 상대방을 견제하는 한편, 자기 진영의 세력을 확장하고자 대립하였다.

Q 제2차 세계 대전 후 형성된 냉전 체제가 동아시아 각국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1 제2차 세계 대전의 종결과 전후 처리

학습 목표 제2차 세계 대전의 전후 처리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1943 카이로 선언
- 1945 얄타 회담, 포츠담 선언, 일본 항복
- 1946(48) 도쿄 재판
- 1946 일본, 신헌법 공포
- 1948 한반도 분단

연합국의 전후 처리 구상



▲ 카이로 회담에 모인 미·영·중 정상 왼쪽부터 장제스 주석, 루스벨트 대통령, 처칠 수상이다.

제2차 세계 대전 중에 연합국은 여러 차례 회담을 열어 전후 처리 문제를 논의하였다. 1943년 미국·영국·중국의 수뇌부는 일본의 항복을 받아 내기 위한 군사 행동을 지속하고 일본이 탈취·점령한 지역을 되돌려 준다는 내용을 담은 카이로 선언을 발표하였다. 1945년 2월에는 미국·영국·소련의 수뇌부가 얄타에서 회담을 열고 전후 독일의 처리 문제와 소련의 대일전 참전에 합의하였다. 5월에 독일이 연합국에 항복하자, 미국·영국·중국·소련의 수뇌부는 포츠담 선언을 통해 일본에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카이로 선언의 이행을 강조하였다.

1945년 8월 초 일본 열도에 원자 폭탄이 투하되고, 얄타 회담에 따라 소련이 일본에 선전 포고를 하며 만주와 한반도로 진입하였다. 이에 일본은 더는 버티지 못하고 1945년 8월 15일 무조건 항복하였다. 일본이 항복한 후, 한반도는 38도선을 경계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각각 미국과 소련의 군정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1948년 8월 남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9월 북한에서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이 선포되어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한편 연합국이 전쟁 중에 발표한 대서양 헌장에 따라 1945년 10월 국제 연합(UN)이 출범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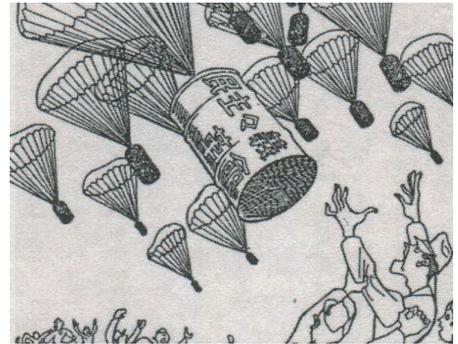
미국의 일본 단독 점령과 전후 개혁

일본을 점령한 미군은 일본의 비군사화·민주화를 목표로 군정을 실시하였다. 맥아더를 사령관으로 하는 연합군 최고 사령관 총사령부(GHQ)는 일본의 군대를 해체하고 군국주의자를 공직에서 추방하였다. 그리고 국가 지도자의 전쟁 범죄를 심판하기 위해 도쿄 재판을 열었다.

이어서 연합군은 전후 개혁에 착수하였다. 정치 부문에서는 선거나이를 20세로 낮추고 여성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였으며, 지방 자치제를 도입하였다. 경제 부문에서는 전쟁 중 군수 산업으로 큰 이익을 얻은 재벌을 해체하고 재벌의 부활을 막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한편, 노동조합의 활동을 보장하였다.

지주의 토지 소유를 제한하는 농지 개혁을 단행한 결과 자작농이 많이 늘어났으며, 농업 생산성 향상을 통해 농가 소득을 늘려 내수 경기를 부양하는 데 성공하였다. 교육 부문에서는 전쟁을 미화하는 내용을 교과서에서 삭제하고, 중학교까지 의무 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러한 개혁 과정에서 새로운 헌법이 제정되었다(1946). 신헌법은 신격화되었던 천황을 '주권 재민, 평화주의, 인권 존중'을 기본 원칙으로 삼아 일본의 상징적인 존재로만 규정하였다. 그리고 국민 주권과 기본적 인권 보장, 군사력 보유 금지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전쟁 포기를 명시하여 신헌법은 '평화 헌법'이라 불렸다.



▲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 GHQ의 개혁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선물'이라고 표현한 그림이다. 낙하산에 '민주주의 혁명'이라고 쓰여 있다.



▲ 맥아더와 히로히토 1945년 9월 맥아더를 찾아간 히로히토. 맥아더 옆에 선 천황의 왜소한 모습은 그를 '살아 있는 신'으로 받들던 일본 국민에게 패전의 현실을 실감케 하였다.

탐구 활동



신헌법

역사 자료 분석과 평가

- 제1조** 천황은 일본국의 상징이자 일본 국민 통합의 상징이며, 이 지위는 주권을 지닌 일본 국민의 총의에 근거한다.
- 제3조** 천황의 국사에 관한 모든 행위는 내각의 조인과 승인을 필요로 하며, 내각이 그 책임을 진다.
- 제9조** ① 일본 국민은 정의와 질서를 기조로 하는 국제 평화를 성실히 희구하며, 국제 분쟁을 해결할 수단으로서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거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
- ② 천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육·해·공군 그 외 전력을 보유하지 아니한다. 국가의 교전권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 「일본국 헌법」, 1946 -

1. 천황의 지위를 나타낸 조항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2. 일본국 헌법을 '평화 헌법'이라고 하는 이유를 찾아보자.

도쿄 재판



도쿄 재판의 정식 명칭은 '극동 국제 군사 재판'이다. 연합국이 포츠담 선언에 따라 일본의 주요 전쟁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해 실시한 재판으로, 1946년 5월 3일부터 1948년 11월 12일까지 2년 반 동안 진행되었다. 도쿄 재판이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어떤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보자.

1945년 9월 2일 일본 점령 통치가 시작되다.

1946년 5월 3일 ~ 1948년 11월 12일 재판이 개최되다.

전범을 분류하는 A~C급은 범죄 정도가 아니라 범죄 종류를 가리킨다. 전쟁을 계획하고 시작한 죄가 A급, 포로 학대 같은 일반적 전쟁 범죄가 B급, 민간인 학살 같은 인도적 범죄가 C급이다.

극동 국제 군사 재판소는 일본의 수상, 육군상 등 A급 전범 28명을 심리하고, 심리 도중 사망한 2명, 정신 이상으로 기소가 중지된 1명을 제외하고 7명에게 사형, 16명에게 종신형, 2명에게 금고형을 선고하였다. 포로수용소를 관리하던 군인과 민간인 군속 등 B, C급 전범은 아시아 각지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들 중에는 포로수용소의 감시원으로 일했던 한국인도 포함되었다.



도조 히데키

1948년 12월 23일 A급 전범 도조 히데키 등이 사형되다.

1978년 10월 17일 도조 히데키 등 처형되거나 병사한 A급 전범 14명이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되다.

도쿄 재판은 미국·영국과의 전쟁에 초점을 맞추었으므로 주요 피해국인 아시아 국가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 식민지였던 한국과 타이완 문제, 일본군 '위안부'와 같은 성폭력 문제, 731부대와 독가스 등 생화학전 책임 문제 등이 다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전쟁 책임을 군부에 물어 천황에게 면죄부를 주었고, 전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관료와 재벌 등의 책임도 묻지 않았다. A급 전범 25명도 사형 판결을 받은 7명과 감옥에서 사망한 4명을 제외한 자들이 전원 석방되어 향후 정계에 복귀하였다.

- ① 도쿄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7명이 누구이며,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 조사해 보자.
- ② 도쿄 재판이 남긴 문제점이 무엇인지 조사해 보자.

2 냉전과 동아시아

학습 목표 동아시아에서 냉전 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1949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1950~53 6·25 전쟁
1951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미·일 안보 조약 체결
1973 파리 평화 협정 체결
1978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냉전 체제의 형성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나자 미국과 소련이 대립하기 시작하였다. 미국과 소련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각 진영의 중심이 되어 체제와 이념을 둘러싸고 전개된 전후 국제 질서를 냉전 체제라고 한다. 냉전 시기 두 진영의 대립은 핵 군비 경쟁으로 이어졌다. 미국과 소련은 원자 폭탄보다 파괴력이 강한 수소 폭탄을 개발하고, 핵무기를 더 많이 보유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

유럽에서 본격화된 냉전은 동아시아 정세에도 영향을 주었다. 미국과 소련은 한국과 중국에서 자기 진영에 유리한 정부가 수립되도록 각각 자본주의 세력과 사회주의 세력을 지원하였다.

미국은 중국의 국민당을 지원하는 한편, 일본이 전쟁을 다시는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는 동시에 소련을 봉쇄하여 공산주의의 확산을 막고자 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공산화되자, 미국은 공산주의가 동아시아 전역으로 확대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일 정책을 변경하여 일본을 동아시아의 반공 기지로 만들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앞서 시행된 민주화 정책과 상반되는 법률을 제정하고, 과거 군국주의 세력을 정계에 복귀시켰다. 또한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 재무장을 위해 자위대의 전신인 경찰 예비대를 창설하였다. 당시 일본의 신문들은 비군사화·민주화에 역행하는 이와 같은 움직임을 ‘역코스’라고 하였다.



▲ 냉전 체제의 형성

동아시아사 백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1951. 9. 8.)

중국 대륙이 공산화되고 6·25 전쟁이 발발하자 미국은 일본을 동아시아의 반공 기지로 삼고자 서둘러 연합국과 일본의 강화 조약을 이끌어 냈다. 그러나 한국은 연합국의 일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중국은 타이완의 중화민국과 대륙의 중화 인민 공화국의 대표성이 문제가 되어 초청받지 못했다. 소련은 미국 주도의 강화에 반대하며 조약에 서명하지 않았다. 그 결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은 이후 동아시아 국가 사이에 갈등의 소지를 크게 남겼다.

일본은 이 조약으로 주권을 회복하고 국제 사회에 복귀하였다. 같은 날 일본은 미국과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일본 내 미군의 주둔을 인정한다는 조약 내용에 따라 미군이 오키나와 등지에 주둔하게 되었다.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조인식

인물 사건 문화 제도

중국의 국·공 내전



▲ 난징에 입성하는 공산당군 1949년 4월 공산당군은 국민당 정부의 수도인 난징을 점령하였다.



▲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1949년 10월 1일 텐안문에서 마오쩌둥이 중화 인민 공화국의 수립을 선포하였다.

중·일 전쟁이 일어나자 국민당과 공산당은 협력하여 일본과 싸웠으나,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다시 대립하였다. 내전 위기가 고조되자 이를 막기 위해 국민당과 공산당 지도부가 평화 교섭을 벌였다. 미국은 평화 교섭을 중재하였으나 실패하고, 결국 1946년 전면적인 내전이 발발하였다.

내전 초기에는 병력과 장비 면에서 우세한 국민당군이 전쟁을 주도하였다. 국민당군은 1947년 공산당 본부가 있던 옌안을 점령하고, 만주·화북의 주요 도시를 장악하였다. 그러나 내전이 길어지면서 재정 적자가 심해지고 통화가 남발되어 물가가 폭등하였다. 게다가 관료의 부정부패를 척결하지 못해 점차 민심을 잃어 갔다.

반면에 공산당은 점령지에서 친일·약질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고 ‘경작자가 토지를 소유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토지 개혁을 시행하여 농민의 지지를 얻었다. 또한 소련이 일본군으로부터 노획한 무기를 받아 공산당군의 화력을 강화하였다.

1947년 중반 총반격에 나선 공산당군은 1949년 초 베이징을 장악하였다. 뒤이어 국민당 정부의 수도 난징을 점령하는 등 중국 대부분 지역을 장악하였다. 마침내 공산당은 베이징에서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을 선포하였다(1949. 10. 1.). 내전에서 패한 국민당은 타이완으로 이동하였다.

탐구 활동 2

중국 공산당의 개혁 정책



자료 1

중국 공산당의 토지 개혁

제1조 봉건적 및 반봉건적 착취의 토지 제도를 폐지하고 ‘경작하는 사람이 토지를 소유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제2조 모든 지주의 토지 소유권을 폐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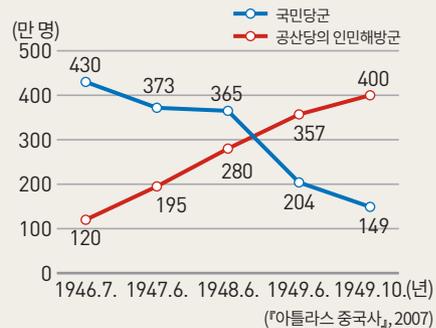
제4조 토지 제도 개혁 이전에 발생한 향촌의 모든 채무를 폐기한다.

- 「중국 토지법 대강」, 1947 -

1. **자료 1**의 시행을 가장 환영한 사람들은 누구인지 말해 보자.
2. **자료 2**와 같은 현상이 나타난 이유를 설명해 보자.

자료 2

국·공 내전 시기 국공 병력의 증감 비교



6·25 전쟁

1948년 한반도는 남북으로 분단되었다. 남북의 정치적·군사적 갈등이 점차 고조되고 동아시아를 둘러싼 냉전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북한은 한반도 무력 통일을 위한 전쟁 준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애치슨 라인 발표로 북한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미국이 참전할 가능성이 적다고 판단하고, 소련·중국의 동의와 지원을 받아 1950년 6월 전면 남침을 감행하였다.

전쟁 초기에는 북한이 우세하였으나 미국의 주도로 조직된 유엔군이 참전하면서 전세가 역전되었다. 그러나 중국군이 개입하여 북한을 지원하면서 양측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전선이 38도선 부근에서 교착되자 유엔군 측과 공산군 측은 정전 협상을 시작하였고, 오랜 협상 끝에 1953년 정전 협정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한반도에서는 휴전선을 경계로 남북 분단이 굳어졌고, 남북 간의 이념 대결과 군비 경쟁이 심화하였다.

한편 미국은 6·25 전쟁을 계기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을 이끌어 내고 미·일 안보 조약을 체결하였다. 뒤이어 한국 및 타이완과도 상호 방위 조약을 체결하였다. 일본은 유엔군에 군수 물자를 공급하면서 경제 회복의 토대를 마련하였고, 미국의 승인 아래 무기 생산과 공급이 이루어짐으로써 재무장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다. 중국은 6·25 전쟁 참전으로 타이완 통일의 기회를 잃었다. 그러나 전쟁을 구실 삼아 공산당에 불만을 가진 세력을 숙청하였고, 사회주의 진영 안에서 위상을 높일 수 있었다.



▲ 애치슨 라인 1950년 1월 미 국무 장관 애치슨이 밝힌 미국의 태평양 지역 방위선이다. 한국과 타이완이 미국의 방위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 6·25 전쟁의 전개

동아시아사 백과

6·25 전쟁의 피해

3년 1개월에 걸친 전쟁으로 군인 사망자 수는 한국군 14만 명, 유엔군 4만 명, 북한군 52만 명, 중국군 15만 명에 달하였다. 민간인 피해자 수는 정확한 수치를 알 수 없지만,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사망자 37만 명, 부상자 23만 명, 행방불명자 39만 명이었다. 아울러 남한에서 북한으로 월북하거나 납북된 사람이 30만 명, 북한에서 월남한 사람이 50만~100만 명이량 되었다. 또 약 30만 명의 전쟁미망인과 10만 명이 넘는 전쟁고아도 발생하였다.

물질적 피해도 매우 컸다. 한국의 제조업체는 1949년에 비해 절반 정도가 파괴되었고, 북한은 더 큰 피해를 보았다. 남북한의 수많은 주택, 학교, 공공건물 등이 파괴되어 폐허가 되었다. 따라서 1950년대 남북한은 경제 복구에도 힘을 쏟아야 했다.



▲ 폐허가 된 서울

베트남 전쟁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난 후 호찌민은 하노이에서 공산주의 정부인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수립하였다(1945). 그러나 프랑스는 베트남의 독립을 인정하지 않고 전쟁을 일으켰다. 전쟁이 진행되면서 베트남 민주 공화국을 인정하는 소련·중국과 이를 인정하지 않는 프랑스·미국의 대립 관계가 심화하였다.

◆ 디엔비엔푸 전투

베트남 북부의 디엔비엔푸에서 베트남과 프랑스 사이에 벌어진 전투. 이 전투에서 프랑스군은 약 1만천 명이 항복하고, 약 5천 명이 사망하였다.

◆ 통킹만 사건

미국 정부가 1964년 8월 통킹만에서 북베트남 어뢰정이 자국 군함을 공격하였다고 사건을 조작해 발표하였다. 이를 빌미로 미국은 북베트남에 무차별 폭격을 가하였다.

1954년 프랑스가 디엔비엔푸 전투에서 패배하였고, 뒤이어 열린 제네바 회담으로 프랑스는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하였다. 그리고 회담에 모인 나라들은 북위 17도선을 군사 분계선으로 삼아 베트남을 남과 북으로 분할하되, 2년 이내에 통일을 위한 총선거를 시행하자고 합의하였다.

그러나 미국의 지원을 받는 남부의 반공 정권은 총선거를 거부하고, 남베트남만의 단독 선거를 통해 베트남 공화국을 수립하였다(1955). 그러자 이에 반대하는 세력이 남베트남 민족 해방 전선을 결성하여 게릴라전을 벌이며 저항하였고, 호찌민이 이끄는 북베트남 정부는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다.

미국은 통킹만 사건을 빌미로 1965년 북베트남을 폭격하고 남베트남에 전투 부대를 파견하였다. 한국도 미국 동맹국의 일원으로 전투 부대를 파병하였다. 이에 맞서 중국과 북한, 소련이 북베트남을 지원하였다.

미국이 많은 병력과 화력을 쏟아부었으나 북베트남이 격렬하게 저항함에 따라 전쟁은 장기화하였다. 더욱이 전쟁의 참혹함이 방송 등을 통해 알려지자 미국 내에서 미군 철수를 요구하는 반전 운동이 거세게 일어났다. 결국 반전 운동과 막대한 재정 부담, 인명 피해 등으로 궁지에 몰린 미국은 철군 방침을 정하여 파리 평화 협정(베트남 평화 협정)을 체결하였다(1973). 베트남 전쟁이 종결되면서 남북으로 갈라졌던 베트남은 통일되어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 수립되었다(1976).



▲ 베트남 전쟁의 전개

동아시아사 백과

한국과 일본의 베트남 전쟁 참여

한국은 베트남 전쟁에 1964년에서 1973년까지 총 32만여 명의 군인을 파견하였다. 미국은 파병 대가로 파병에 드는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한국군의 현대화와 경제 발전을 위한 기술 및 차관, 특별 경제 원조를 제공하였다. 건설 기업도 베트남에 진출하여 각종 수주를 따냈다. 일본의 오키나와는 베트남 전쟁 당시 미군의 출격 기지로 활용되었다. 일본은 6·25 전쟁에 이어 베트남 전쟁에서도 전쟁 물자를 공급하여 수출이 급성장하였다. 베트남 전쟁 특수는 한국과 일본의 경제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 두 나라가 경제 성장을 이어 간 반면, 베트남 국민은 전쟁의 참화와 고통을 이겨 내야 했다.



▲ 한국의 베트남 파병

한국과 일본의 국교 수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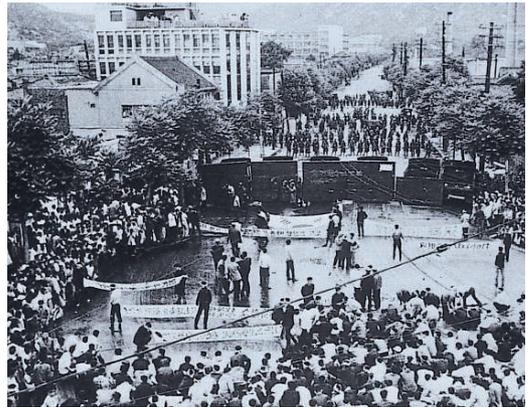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아시아에서는 중화민국(타이완)과 일본이 화·일 평화 조약을 체결하여 가장 먼저 국교를 회복하였다(1952). 한국과 일본도 1952년부터 국교 수립을 위한 회담을 시작하였지만, 식민 지배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둘러싼 의견 차이로 회담은 계속 결렬되었다.

1960년대 들어 미국은 한·일 수교를 강력히 촉구하였다. 동아시아에서 공산주의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북한, 소련, 중국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삼각 동맹의 구축이 절실했기 때문이다. 한국은 미국의 지지를 얻고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일본도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요구를 거부할 수 없었고, 한국과의 수교를 통해 수출 시장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국교 정상화 논의가 이루어지자 한국과 일본에서 강한 반발이 일어났다. 한국에서는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죄와 배상 없는 수교는 굴욕 외교라는 비판이 높았다. 일본에서는 한·미·일 삼국의 관계 강화가 결국 군사 동맹으로 이어져 평화 헌법을 위협할지 모른다고 우려하며 반대하였다. 이러한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양국 정부는 1965년 한·일 기본 조약을 체결함으로써 국교를 수립하였다.

◆ 한·일 기본 조약

대한민국과 일본 간의 기본 관계에 관한 조약과 이에 부속된 4개의 협정 및 25개 문서를 총칭한다.



▲ 6·3 시위(1964)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반대 투쟁은 6월 3일 1만여 명이 참가하는 시위로 절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정부는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다.

탐구 활동



한·일 기본 조약



자료 1

한·일 기본 조약(1965. 6. 22.)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 제국과 대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 연합 총회의 결의 제195(III)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확인한다.

-『한일 관계 자료집』-

자료 2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 협력에 관한 협정

제1조 1. 일본국은 대한민국에 대하여

- (a) 3억 불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본 협정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 기간에 걸쳐 무상으로 제공한다.
- (b) 2억 불에 상당하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장기 저리의 차관으로 10년 기간에 걸쳐 제공한다.

제2조 1. 양국은 ……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음을 확인한다.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

1. **자료 1** 과 **자료 2** 를 맺게 된 양국의 정치적·경제적 배경을 알아보자.
2. **자료 2** 를 통해 일본 식민 지배의 피해자들과 관련된 배상 문제를 설명해 보자.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이 2015년 유네스코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기록물에는 KBS가 1983년 6월 30일부터 11월 14일까지 138일간 생방송 한 뒤 보존한 비디오테이프, 담당 프로듀서의 업무 수첩, 이산가족이 작성한 신청서, 일일 방송 진행표, 큐시트, 기념 음반, 사진 등 2만 522건의 자료가 포함되었다. 이 기록물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1983년 6월 30일, 6·25 전쟁 33주년, 정전 협정 30주년 특집으로 「KBS 특별 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

“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 암전한 몸매의 빛나는 눈/
고운 마음씨는 달덩이같이 / 이 세상 끝까지 가겠노라고
나하고 강가에서 맹세를 하던 / 이 여인을 누가 모르시나요 ”

- 영화 「남과 북」 주제곡 -



▲ 방송 당시 KBS 전경

위 노래를 시작으로 프로그램이 방영되면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며 시청하였다. 높은 시청률에 힘입어 이 프로그램은 11월 14일까지 무려 138일간, 453시간 45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되었다.

이 기간에 이산가족을 찾고자 하는 신청 건수는 10만 건이 넘었으며 방송에는 53,536건이 소개되었다. 그 결과 10,189명의 가족이 재회하였다. 방송 당시 KBS 주변과 여의도 광장은 이산가족을 찾겠다는 인파가 계속 몰려들어 세계인의 이목을 끌었다.



▲ 이산가족의 인적 사항을 적은 종이 가득 붙여진 KBS 본관 앞과 분수대

생방송을 통해 전해진 상봉 장면은 대한민국의 비극적인 냉전 상황과 전쟁의 참상을 고스란히 보여 주었다. 혈육이 재회하여 얼싸안고 울음을 터뜨리는 장면은 이산가족의 아픔을 치유해 주었고, 남북 이산가족 최초 상봉(1985)의 촉매제 역할을 하며 한반도의 긴장 완화에도 이바지하였다. 또한 더는 이와 같은 비극이 생겨서는 안 된다는 평화의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하였다.



- 1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 프로그램이 온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불러일으킨 까닭을 말해 보자.
- 2 이산가족이 내 주변에 있는지 알아보고 그들의 이산 경위와 아픔을 들어 보자.

3 냉전 체제의 변화와 동아시아

1971 중국 UN가입
1972 닉슨 중국방문
중·일 국교 정상화
1979 미·중 수교
1992 한·중 수교

학습 목표 동아시아 냉전 질서의 해체와 각국의 수교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냉전의 완화

1960년대 후반부터 냉전 체제는 변화의 조짐을 보이기 시작하였다. 당시 미국은 냉전 체제를 뒷받침하는 데 필요한 군비 확장과 대외 원조, 베트남 전쟁 비용 등으로 심각한 재정 부담과 반전 시위 등의 문제에 직면해 있었다. 베트남 전쟁이 한창이었던 1969년, 새로운 미국 대통령으로 닉슨이 취임하였다.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의 문제는 아시아인이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새로운 대외 정책의 원칙을 밝혔다.

-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 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하여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하여 그에 대처하도록 한다.
- 닉슨 독트린 -

이후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서 군대를 단계적으로 철수하였다.

한편 미국은 소련과의 군비 경쟁을 중지하고 군비를 줄이는 등 긴장 완화를 위하여 노력하였다. 미국과 소련은 1969년에 핵 확산 방지 조약을 비준하였다. 1972년에는 전략 무기 제한 협정(SALT)을 체결하였는데, 이는 미국과 소련 간에 체결된 최초의 군비 제한 조약으로 데탕트(평화 공존)의 상징이 되었다.

중국과 미국의 국교 수립

중국은 스탈린이 죽은 뒤 자본주의 세계와 평화 공존 정책을 추진해 온 소련과 대립하였다. 1960년에 소련이 일방적으로 원조를 끊자, 중국은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1969년에는 중·소 국경 지대에서 양국 군대 간에 무력 충돌이 발생하였다. 중국은 소련을 견제하는 한편, 경제 건설을 위하여 미국·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다. 미국도 베트남 철군을 앞두고 중국과의 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1971년 국제 연합은 중화 인민 공화국을 안전 보장 이사회 상임 이사국으로 받아들였다. 동시에 타이완 정부는 중국의 합법적 정부 대표권을 상실하여 국제 연합을 탈퇴하였다. 1972년에는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미·중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이때 미국은 중국을 유일한 합법 정부로 인정하고 타이완이 중국 일부임을 인정하였다. 이후 양국은 1979년에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였다.



▲ 미국 내에서 벌어진 베트남전 반대 시위

닉슨 독트린이 동아시아에 끼친 영향은 무엇인지 말해 보자.



▲ 마오쩌둥과 닉슨

중국과 일본의 국교 수립



▲ 중·일 평화 우호 조약 조인식(1978)

미국과 중국의 관계 개선을 계기로 일본도 중국과의 국교 정상화에 나섰다. 1972년에 양국 정부가 중·일 공동 성명에 조인함으로써 양국 간 국교 정상화가 이루어졌다. 중·일 공동 성명에서 일본은 중·일 전쟁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한다.”라고 표명하였다. 중국 정부는 이를 받아들이는 대신 국가 차원의 대일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였다. 1978년 양국은 정식으로 중·일 평화 우호 조약을 맺었다.

한편 1972년에 일본이 중화 인민 공화국이 중국의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인정하자, 타이완 정부는 즉각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단절하였다.

한국과 중국의 국교 수립

한국은 중국과 미국의 관계 개선, 중국의 유엔 가입이라는 국제 정세 변화 속에서 1980년대 초 비공식적으로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 개선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가운데 1983년 ‘중국 민항기 사건’ 등 일련의 사건을 계기로 경제 무역 관계에 국한되었던 한·중 관계가 정치·외교 관계로 확장되기에 이르렀다.

특히 1990년 노태우 정부가 북방 정책을 내세워 소련과 수교하자, 이에 자극받은 중국이 한국과 민간 무역 사무소를 서로 설치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1992년 두 나라는 정식으로 국교를 수립하였다. 6·25 전쟁 이후 적대 관계에 있던 한국과 중국의 수교는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큰 변화를 의미하였다. 반면에 40여 년간 이어져 왔던 한국과 타이완의 국교는 단절되었다. 하지만 경제·통상 등 민간 차원의 교류는 곧 재개하였다.

◆ 북방 정책

한국 정부가 1980년대 탈냉전의 국제 정세 흐름 속에서 공산권 국가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세운 외교 정책이다.

◆ 흥미진진 동아시아



중국 민항기, 춘천에 불시착하다

1983년 5월 5일 어린이날 휴일을 즐기던 서울에 갑자기 공습경보가 울렸다. ‘중공’ 민항기가 서울 상공에 나타났기 때문이다. 이 비행기는 중국 선양에서 상하이로 비행하던 중 권총으로 무장한 중국인 승객 6명에게 납치되어, 춘천 부근 미군 기지에 불시착하였다. 당시 비행기에는 승무원과 승객 등 모두 105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중국은 사건 직후 승객과 항공기를 이르는 시기에 송환받기 위해 민항국장 명의로 한국에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표기해 전문을 보냈다. 이를 계기로 한국과 중국은 6·25 전쟁 이후 처음으로 당국 간 교섭을 시작하였다. 이 사건은 돌발적인 사건이었지만, 이후 한·중 국교 수립을 여는 첫 단추가 되었다.



▲ 중국 민항기 불시착

*중공: 당시 한국 정부의 중국에 대한 호칭이다.

스스로 학습



1 연표의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

연대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
1940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남북 분단(1948)	• 국·공 내전 발발(1946) • ㉠ 수립 (1949)	도쿄 재판 (1946~1948)	베트남 민주 공화국 수립(1945)
1950	㉡ 발발 (1950)		㉢ (1951)	남북 분단(1954)
1960	한·일 기본 조약 (1965)			㉣ (1964)
1970		미국과 수교(1979)	중국과 수교(1978)	• ㉤ (1973) •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1976)

| 보기 |

- 중화 인민 공화국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 통킹만 사건 • 파리 평화 협정 • 6·25 전쟁



2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해 보자.

제1조 일본과 각 연합국 사이의 전쟁 상태는 제23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조약이 일본과 해당 연합국 사이에 효력이 발생할 때 종료한다.

연합국은 일본 및 그 영해에 대한 일본 국민의 완전한 주권을 승인한다.

제2조 일본은 조선의 독립을 승인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에 대한 모든 권리·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은 타이완 및 평후 제도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일본은 쿠릴 열도 및 일본이 1905년 9월 5일 포츠머스 조약의 결과로 주권을 획득한 사할린의 일부 및 이에 근접하는 여러 섬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

- 『일본 외교 주요 문서』 -

(1) 위 조약 명칭과 이 조약이 체결될 당시의 국제 정세를 써 보자.

• 조약 명칭:

• 국제 정세:

(2) 위 조약을 둘러싼 동아시아 각국의 입장을 조사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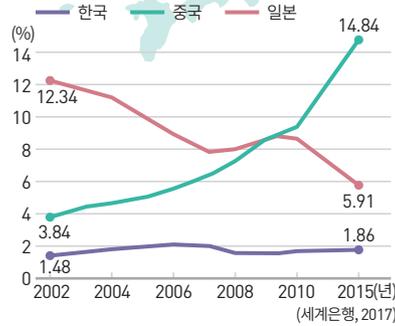
• 중국과 타이완:

• 한국:

• 일본:

2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

	1900	1950	2000
한국	대한 제국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중국	중화민국	중화민국	중화 인민 공화국
일본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쇼와 시대 헤이세이 시대



| 생각 열기 | 2000년대 초반 한·중·일이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이것은 유럽에서도 이룩하지 못한 경제 성장의 결과로,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들이 세계 속에 우뚝 서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중국의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그 영향력도 증대하였다. 반면에 한국과 일본은 과거보다 경제 규모의 성장이 정체를 면하지 못하고 있다.

Q 2000년대 이후 한·중·일 삼국의 경제 상황이 그래프와 같이 나타난 배경은 무엇일까?

1 일본의 고도성장과 55년 체제

학습 목표 전후 일본의 경제 성장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고도성장과 55년 체제의 성립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한 뒤 경제 정책의 혼선과 물자 부족으로 경제가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이후 미·소 중심의 냉전 질서가 형성되면서, 일본을 반공의 보루로 삼고자 하는 미국의 지원에 힘입어 다시 도약할 기회를 얻었다. 특히 한반도에서 6·25 전쟁이 일어나자 일본은 군수 물자 공급 기지로서 산업 생산량을 늘려 전쟁 특수를 누렸다.

일본은 1955년부터 1973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이루었다. 이 시기의 고도성장으로 일본은 미국 다음가는 ‘경제 대국’ 위치에 오르게 되었다.

한편 1951년에 미·일 안보 조약이 체결된 후 일본 내부에서는 안보와 재무장 문제를 둘러싸고 보수와 진보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보수 정당들은 평화 헌법을 개정하여 군대를 창설하고 미국과의 안보 조약을 강화하려 하였다. 이러한 보수 정당의 안보 강화 시도에 맞서 1955년 사회당의 좌·우파가 통합하자, 보수 정당인 민주당과 자유당도 통합하여 자유 민주당(이하 자민당)을 만들었다. 그리하여 보수적인 자민당과 진보적인 사회당 양당이 정치를 주도하는 이른바 ‘55년 체제’가 성립하였다.



▲ 도쿄 올림픽(1964) 일본은 올림픽 개최를 통해 일본의 경제 성장을 전 세계에 과시하였다.

장기 불황과 국가주의의 강화

1973년과 1979년 석유 파동으로 일본 경제는 단기적으로 큰 타격을 입었다. 그러나 기업들이 기술 개발과 경영 합리화를 통해 위기를 극복하고 수출을 늘려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 갈 수 있었다. 1980년대 미국과 무역 마찰을 겪고 엔화가 폭등하자, 일본 정부는 수출 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금리를 대폭 낮추었다. 이에 일본 국민은 낮은 이자로 대출을 받아 주식과 부동산 등에 투자하였고, 이러한 현상이 과열되어 거품 경제를 유발하였다. 결국 1990년대 부동산과 주식이 폭락하면서 일본은 장기 불황에 빠져들었다.

한편 1970년대에 자민당과 관련하여 정경 유착에 따른 부패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였다. 1990년대에는 거품 경제 붕괴에 따른 장기 불황으로 자민당의 지지 기반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냉전 질서 해체 속에 사회당의 지지 기반도 약해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행된 1993년 총선에서 자민당이 단독 과반 의석 획득에 실패함으로써 비 자민당 연립 정권이 들어서 '55년 체제'가 막을 내렸다. 그리고 2009년 총선거에서 자민당이 패배하고 민주당이 승리하여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민주당은 잇따른 경제 정책 실패 등으로 정치 기반이 약해졌으며 국민의 불만도 높아졌다. 이에 자민당이 2012년 총선거에서 압승하여 정권을 되찾았다. 자민당은 이후 국가주의에 바탕을 두고 평화 헌법 개정 시도, 자위대 지위 강화 등 우경화 정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아베 정부는 주변국과 다수 일본 국민의 반발에도 평화 헌법 9조의 '해석'을 바꿔 집단 자위권을 인정하였다.



▲ 장기 불황 속에 등장한 저가 상품점 일본의 극심한 경제 침체 속에서 일반 서민이 소비를 줄이려 하자, 100엔 습 등 저가 상품을 취급하는 상점이 등장하였다.

◆ 집단 자위권

자국이 직접 공격을 당하지 않더라도 자국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나라가 제3국에 공격당할 때 실력으로 이를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동아시아사 백과

일본 보수 내각의 우경화 행보

1990년대 후반 일본 극우 세력이 장기 불황의 탈출을 국가주의 강화에서 찾자, 보수 내각도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발 빠르게 우경화 행보를 진행하였다. 1999년에 「주변 사태법」을 비롯한 「신가이드라인 관련법」을 제정하여 자위대가 미군의 후방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같은 해 일본 정부는 침략 전쟁과 식민지 지배의 기억이 각인된 히노마루와 기미가요를 국기와 국가로 규정하는 「국기·국가법」을 통과시켜 국민 통합과 애국심 강화를 꾀하였다. 또 고이즈미 총리는 국내외의 반대를 무릅쓰고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하였다.

2009년에 잠시 정권에서 밀려났던 자민당은 정권을 되찾자 2013년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다. 야스쿠니 신사는 단순한 위령 시설이 아니라 전사자들이 수행했던 대외 팽창, 침략 전쟁 의지를 뚜렷이 드러내는 시설이다. 총리의 신사 참배는 일본의 우경화 정책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인물 사건 문화 제도

2 한국과 타이완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 운동

1960 4·19 혁명
1972 10월 유신
1979 기오송 사건
1980 5·18 민주화 운동
1987 6월 민주 항쟁

학습 목표 한국과 타이완의 경제 성장과 민주화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이승만 정부의 장기 집권과 4·19 혁명



▲ 4·19 혁명(1960) 이승만 정부의 부정 선거로 촉발되었다.

한국은 남북 분단과 6·25 전쟁으로 경제 혼란이 계속되었다. 특히 전쟁으로 산업 생산 시설이 대부분 파괴되어 큰 타격을 입었다. 이승만 정부는 전쟁 이전에 단행하였던 농지 개혁을 이어서 추진하는 한편, 미국의 원조 물자에 의존하여 제분·제당·섬유 등의 소비재 공업을 발전시켰다.

한편 이승만 정부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수호한다는 명분 아래 장기 집권을 시도하였다. 이에 맞서 학생을 비롯한 국민이 민주주의의 실현을 내걸고 자유당 정권을 무너뜨렸다(4·19 혁명). 그러나 4·19 혁명으로 수립된 장면 정부의 민주당 정권은 국민의 통일과 민주화 여망을 실현해 보지도 못한 채 5·16 군사 정변(1961)으로 무너졌다.

한국의 경제 개발과 유신 체제



▲ 포항 종합 제철 포항 종합 제철은 한·일 국교 정상화를 계기로 일본 정부로부터 받은 무상 차관을 근간으로 세워졌다. 이후 중화학 공업의 핵심으로 성장하였다.

군사 정변으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부는 1960년대 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였다. 그 결과 한국 경제는 1960년대 후반부터 연 10% 이상의 경제 성장률을 달성하였다. 이러한 경제 성장의 원동력은 외국의 자본과 기술, 국내의 값싼 노동력에 기반을 둔 수출 주도형 경제 정책이었다.

1970년대에는 국가 정책에 따라 철강·조선·기계 등의 중화학 공업이 발전하였다. 그러나 중화학 공업에 대한 지나친 투자와 제2차 석유 파동으로 1970년대 말 한국 경제는 다시 어려움을 겪었다.

한편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을 명분으로 3선 개헌을 단행하여 장기 집권을 시도하였다. 이어 1972년 10월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한 뒤, 이른바 ‘10월 유신’을 선포하였다. 그리고 헌법을 개정하여 모든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시킨 유신 헌법을 공포하였다.

이에 맞서 재야인사와 학생들을 중심으로 긴급 조치 철회와 박정희 정권 퇴진을 요구하는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특히 1979년 10월, 부산과 마산, 창원 등지에서 유신 체제에 저항하는 학생과 시민의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다(부·마 민주 항쟁).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정권 내부의 갈등으로 10월 26일, 박정희가 살해되었다. 이로써 유신 체제가 무너지고 국민 사이에 민주주의에 대한 기대가 확산하였다.

◆ 긴급 조치

유신 헌법에서 규정된 대통령의 권한이다. 국가의 안전 보장이나 공공의 안녕질서가 중대한 위협을 받거나 재정적·경제적 위기에 처했을 때 대통령이 국정 전반에 걸쳐 내리던 특별한 조치이다. 국민의 자유나 권리 일부를 제한하거나, 정부·국회·법원의 활동을 제한하였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의 또 다른 길목

유신 체제가 무너진 후 신군부가 1979년 12월 병력을 동원하여 군사권을 장악하였다(12·12 사태). 이에 맞서 학생들과 시민은 ‘유신 헌법 폐지, 전두환 퇴진, 비상계엄 철폐, 민주적인 절차를 통한 민간 정부 수립’ 등을 요구하며, 전국 각지에서 시위를 벌였다.

이에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일체의 정치 활동을 중지시켰다. 그러자 5월 18일 광주에서 시민과 학생들이 비상계엄 확대에 저항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이고 시민군을 조직하였다(5·18 민주화 운동). 계엄군은 무력으로 시민군을 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많은 시민이 희생되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고조되었다. 이에 1980년대 중반부터 학생뿐 아니라 정치권과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민주화 운동이 전개되었다. 1987년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알려지면서 시민과 학생들은 정권의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6월 민주 항쟁을 벌였고, 그 결과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성취하였다.

한편 1980년대 한국 경제는 저유가·저달러·저금리라는 3저 호황에 힘입어 성장하였다. 이러한 경제 성장에 힘입어 한국은 1990년대에 경제 개발 협력 기구(OECD)에 가입하였고, 기업은 투자 확대와 사업 확장에 몰두하였다. 이후 경상 수지 적자 누적과 외채의 증가로 1997년에 외환 위기가 발생하고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개혁과 국민의 적극적인 동참에 힘입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국 경제는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하였다.

경제 성장으로 한국은 원조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다. 하지만 세계 경제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2000년대 후반 금융 위기를 겪으며 한국 경제는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였다.



▲ 5·18 민주화 운동(1980)



▲ 외환 위기 때 금 모으기 운동

동아시아사 백과

6월 민주 항쟁

1985년 1월 18일 통합 야당으로 창당된 신한민주당은 2월 12일에 시행된 1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국민의 뜨거운 민주화 열기에 힘입어 크게 약진하였다. 1986년 초에는 군사 독재 퇴진 촉구와 민주 헌법 쟁취를 위한 범국민 서명 운동이 시작되었다.

전두환 정부는 온갖 수단을 써서 이를 탄압하였고, 이 과정에서 박종철 군 고문치사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국민은 대통령 직선제 개헌 등 민주화를 요구하였고 정부는 ‘호헌’ 발표로 맞섰다. 그러나 국민의 지지를 받은 개헌 요구 시위는 6월 들어 전국으로 널리 퍼졌다. 결국 정부는 6월 29일 직선제 개헌을 골자로 하는 시국 수습 방안을 발표하였다.



▲ 6월 민주 항쟁

인물 사건 문화 제도

타이완의 경제 발전과 민주화

단원연계 | V단원 172쪽
에서 중국의 국·공 내전을 확인해
보자.

중국 공산당과의 내전에서 패하고 타이완으로 건너간 장제스의 국민당 정권은 1949년 이후 계속 계엄 통치를 시행하면서 경제 개발에 힘을 쏟았다. 1950년대 초반에는 통화 개혁과 함께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였다. 나아가 수출에 의한 외형적 발전보다는 국내 시장 개발과 경공업 중심으로 수입 대체 정책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민생 안정과 장기적 경제 발전을 위해 농업 부문의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대대적인 농지 개혁을 통해 토지를 얻은 농민의 생산 의욕을 높였다. 그 결과 타이완은 공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다질 수 있었다.

타이완은 경제 건설 4개년 계획을 차례로 시행하면서 전력·비료·방직·제강·제당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였다. 1965년 미국의 경제 원조가 중단된 이후에는 수출 촉진 정책을 강력하게 밀고 나갔다. 그 결과 1960년대에 타이완의 연간 실질 수출 신장률은 18.2%에 이를 정도였다. 이후 타이완은 ‘아시아의 작은 용’이라 불리며 신흥 경제국으로 부상하였다. 미·중 수교 이후 타이완은 외교적으로 고립되었지만, 정부의 투자 장려책과 제조업 육성 정책으로 경제 성장을 이끌어 갔다.

경제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타이완 국민은 국민당의 일당 독재를 비판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하였다. 이에 국민당 정부가 1987년 계엄령을 해제하고 이어서 총통 직선제와 다당제를 시행함으로써 위로부터의 민주화를 원만하게 추진하였다. 그러나 중국의 급격한 부상과 함께 타이완 내부에서는 타이완의 독립을 추구하는 민진당과 하나의 중국을 고수하는 국민당 간의 대립이 격화되었다. 그리하여 타이완에서는 경제 정책의 실패와 맞물려 양당 사이에 정권 교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고도의 경제 성장으로 변
성한 타이베이



인물 사건 문화 제도

동아시아사 백과

가오슝 사건과 타이완의 민주화 운동

타이완 민주화 운동의 구심점이었던 잡지사 메이리다오[美麗島]는 1979년 12월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이하여 타이완 인권 위원회 발족을 위한 집회 허가 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정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자 행사를 강행하려던 주최 측과 경찰 사이에 물리적인 충돌이 일어났다. 타이완 남부의 대도시 가오슝시에서는 3만 명이 넘는 시위대가 경찰의 과잉 진압에 항의하면서 시위를 벌였다.

이 사건으로 150여 명의 인사가 체포되어 군사 법정에서 국가 반란죄 등으로 징역 15~2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은 타이완에서 민주화 운동이 본격화 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후 타이완의 민주화가 진전되었고 이 사건을 맡은 공동 변호인단의 변호사로 활동한 천수이벤이 2000년 선거에서 총통으로 당선되면서, 타이완 최초로 여야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 가오슝 민주화 시위

가오슝

3 중국의 사회주의 체제 변동과 시장 경제



학습 목표 중국의 개혁·개방 이전과 이후의 정치·경제 상황을 비교할 수 있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와 문화 대혁명

오랜 항일전과 내전으로 중국 경제는 파탄 지경에 이르렀다.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후 중국 정부는 농업의 낙후성, 공업의 후진성, 극심한 인플레이션 등의 경제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중국 정부는 토지 개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농민 대부분을 협작사에 가입시켜 농업의 집단화를 추진하였다. 또한 주요 기업을 국유화하고 생산 수단의 공유화를 제창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주의 경제 체제로의 개조를 추진하였다.

1950년대 후반에는 경제의 비약적인 성장을 추구하는 대약진 운동을 전개하였다. 농업 부분에서는 대규모 수리 관개 사업 시행 등에 중점을 두고,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을 추구하였다. 또한 공동 생산을 위한 인민공사를 전국적으로 조직하여 전체 농가의 99%를 가입시켰다. 공업 부분에서는 재래식 용광로를 광범위하게 보급하여 철강의 증산을 시도하였다.

그러나 대약진 운동은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 농민의 생산 의욕 저하, 연속된 자연재해로 말미암은 굶주림 등의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류사오치 등은 집단화의 점진적 추진과 사회주의 경제의 수정을 요구하였다. 마오쩌둥은 이러한 요구를 자본주의 사상과 문화에 대한 추종이라고 비난하면서 홍위병을 동원하여 반대 세력을 제거하였다(문화 대혁명). 마오쩌둥은 대약진 운동 실패로 약해진 자신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문화 대혁명을 이용하였다.

◆ 대약진운동

마오쩌둥의 주도하에 1958년부터 1960년 초 사이에 시행된 농업과 공업의 대증산 정책이다.

◆ 인민공사

중국이 1958년에 농업 집단화를 위해 만든 대규모 집단 농장으로, 농촌 생활 및 행정의 기초 단위였다. 집단 노동이 이루어지는 한편, 노동 점수제에 의해 수확물이 분배되는 생활 공동체 역할을 하였다.



▲ 철 생산 대약진 운동 기간에 철강 증산을 위해 각지에 용광로가 세워졌다.

동아시아사 백과

문화 대혁명과 홍위병

1966년부터 1976년에 걸쳐 전개된 문화 대혁명은 중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일을 초래하였다. 특히 혁명 초기에 문화 대혁명을 이끈 홍위병은 이러한 비극을 만든 주인공이었다. 이들은 학생들로 구성된 정치 운동 조직으로 약 1300만 명에 이르렀다.

홍위병은 마오쩌둥에 대한 맹목적·종교적 찬동과 비이성적 광기로 교육자를 비롯한 지식인과 예술인을 탄압하고 마오쩌둥의 정적을 체포하여 처형하였다. 심지어 이들은 자신의 견해와 다르면 그들의 부모나 스승을 비판하는 일도 서슴지 않았다.



▲ 홍위병의 대중 집회 홍위병들이 대규모 군중집회를 열고 헤이룽장성 간부를 비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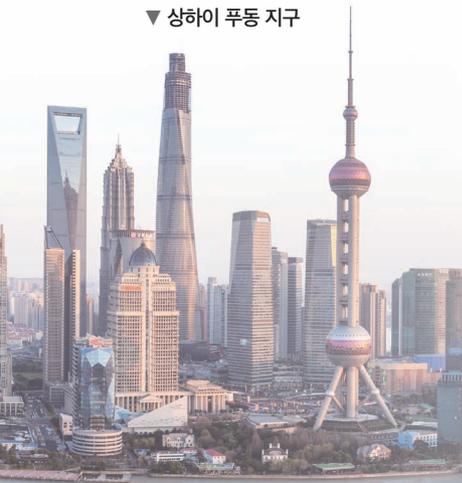
인물 사건 문화 제도

개혁·개방과 고도성장

◆ 4대 현대화 노선

1978년부터 중국 개혁·개방의 기본 방침으로 설정되었다. 농업, 공업, 국방, 과학 기술의 현대화를 의미한다.

▼ 상하이 푸둥 지구



중국의 사회주의 계획 경제는 1970년대 석유 파동을 맞으면서 구조적 취약점을 드러냈다. 생산재 수입을 위한 외화를 제때에 획득할 수 없었고 중앙 집권적 계획 경제로 대규모 국영 기업의 낭비와 부패, 비효율성이 날로 커졌다.

이에 1976년 50만여 명의 노동자가 저우언라이 추도를 명분으로 텐안먼 광장에 모여 마오쩌둥을 비판하며 시위를 벌였다. 곧이어 마오쩌둥이 사망하자 문화 대혁명명은 중단되었다. 1981년 중국 공산당은 문화 대혁명이 당, 국가, 인민에게 커다란 재난을 초래했고, 마오쩌둥이 오류를 범하였다고 지적하였다.

새 지도자가 된 덩샤오핑은 1978년 '4대 현대화 노선'을 확정하여 이른바 '개혁·개방' 정책을 취하였다. 이에 따라 기업 경영에 시장 경제적 요소를 도입하고 선전 등지를 경제특구로 지정하였다. 이후 중국은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개혁·개방의 진전에 따라 정치 개혁의 목소리도 점차 커졌다. 1989년에는 학생, 시민, 노동자 등이 대규모로 모여 민주화를 요구하였다(텐안먼 사건). 중국 정부는 이를 '폭력적 난동'으로 규정하고 군대를 동원하여 시위를 진압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였다.

덩샤오핑은 1992년 선전·상하이 등 남쪽 지방을 시찰하면서 시장 경제 도입과 개혁을 촉구하였다(남순강화). 이에 따라 중국은 개혁·개방에 다시 박차를 가하였다.

탐구 활동 2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과 텐안먼 사건



자료 1

덩샤오핑의 흑묘백묘론

'흑묘백묘론'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뜻이다. 중국의 개혁과 개방을 이끈 덩샤오핑이 1979년 미국을 방문하고 돌아와 주장하면서 유명해진 말이다. 즉, 고양이 빛깔이 어떻든 고양이는 쥐만 잘 잡으면 되듯이,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상관없이 중국 인민을 잘 살게 하면 그것이 제일이라는 뜻이다. 부유해질 수 있는 사람부터 먼저 부유해지라는 뜻의 선부론과 함께 덩샤오핑의 경제 정책을 가장 잘 대변하는 용어이다.



◀ 덩샤오핑(1904~1997)

자료 2

텐안먼 사건

이러한 시각[1989년 5월]에 이르러, 물가는 폭등하였고 관료는 부패하였으며 강권은 높이 걸려 있고 민주 인사들은 해외 망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사회의 치안은 날로 혼란에 빠지고 있습니다. 민족의 존망이 달린 생사의 갈림길에서 동포 여러분, 양심을 지닌 일부 동포 여러분, 우리의 외침을 들어 주십시오.

국가는 인민의 국가입니다.
인민은 우리의 인민입니다.
정부는 우리의 정부입니다.

-「단식 선언서」-



1. 자료 1 과 자료 2 에서 흑묘백묘론과 텐안먼 사건의 목표가 제시된 부분을 찾아 밑줄을 그어 보자.
2. 자료 1 과 자료 2 를 통해 흑묘백묘론과 텐안먼 사건이 등장한 배경을 각각 설명해 보자.

몽골은 왜 갈라졌는가?



몽골은 한때 대제국을 세워 세계를 호령하였다. 하지만 몽골 근·현대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처럼 둘로 갈라진 역사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분리의 기원은 멀리 청의 몽골 정복까지 올라간다. 1635년 청 태종은 명을 공격하기에 앞서 고비 사막 남쪽의 내이명구[내몽골]를 복속시켰다. 이어서 청 강희제는 대규모 군대를 이끌고 고비 사막 북쪽의 외몽골을 공격하여 항복을 받았다. 그리고 청은 몽골족의 단결을 막기 위해 양 지역의 상호 이동을 금지하였다.

1911년 신해혁명으로 새롭게 수립된 중화민국 정부는 내·외몽골을 하나로 통합하고자 하였다. 외몽골은 독립을 선언하고 중국에서 독립하였지만 소련의 위성 국가로 전락하였고, 내몽골은 중국의 자치구인 내이명구로 남게 되었다. 이는 몽골 내 귀족 세력의 분열과 중국 및 소련의 간섭이 원인이 되었다.

외몽골은 1989년 민주화 운동을 거쳐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나 경제 발전을 모색하였다. 반면에 내이명구는 중국 중앙 정부의 개혁·개방 정책에 힘입어 경제 개발이 본격화되었지만, 한족의 대규모 이주로 자치구로서의 위상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아울러 양쪽의 문화적 이질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다.



▲ 몽골의 수도 울란바토르 오른쪽에 몽골의 독립 영웅 수흐바타르 동상이 보인다.



▲ 내이명구 자치구 간판에 한자와 몽골어가 함께 쓰여 있다.

- 1 외몽골과 내이명구 자치구의 분리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자.
- 2 현재 우리나라와 몽골의 경제·문화 교류 상황을 조사해 보자.

4 북한의 체제 고착화와 경제 건설

1956 8월 종파 사건
1958 천리마 운동 시작
1972 사회주의 헌법 공포
1998 금강산 관광 시작
2011 김정은 3대 세습

학습 목표 전쟁 후 북한의 경제 변화와 정치 체제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사회주의 경제 건설과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의 확립

북한은 1950년대 중반부터 대대적으로 전후 복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농업 집단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개인 상공업을 없애고 사유 재산제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울러 북한은 중공업 중심의 경제 건설과 급진적인 사회주의 개조 정책에 중점을 두고 복구 사업을 추진하였다.

연안파

조선 의용군 출신의 정치 집단이다. 중국 연안을 중심으로 항일 투쟁을 하다가 광복 후에 중국 공산당의 후원 아래 입북하였다.

그러나 농공 간의 성장 불균형이 심해지자 연안파가 이를 비판하였다. 이에 김일성은 이들을 종파 분자로 몰아 제거하고 반대 세력을 대대적으로 숙청하였다(8월 종파 사건). 이는 당내 비판 세력의 소멸을 의미하는 동시에, 김일성의 중공업 우선 발전 전략의 채택으로 이어져 농업과 경공업의 희생을 초래하였다. 나아가 김일성은 소련 등의 원조가 삭감되고 자본·물자·기술 등이 부족해지자 집단적 증산 운동이라 할 ‘천리마 운동’을 전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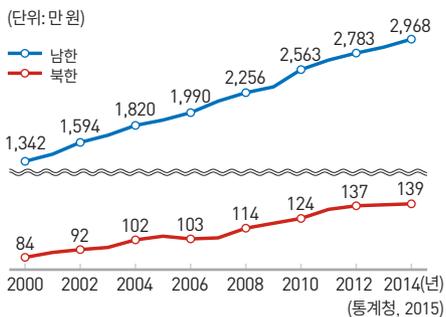
이후 북한은 제1차 7개년 계획(1961~1967)을 수립하는 한편, 주체사상을 유일사상으로 체계화하는 작업을 추진하였다. 1972년에는 ‘사회주의 헌법’을 공포하여 김일성 유일 지배 체제를 강화하였다. 이에 따라 김일성에 대한 개인숭배가 더욱 강화되었다. 1994년 김일성 사후에는 김정일이 국방 위원장으로 취임하여 군부를 앞세워 선군 정치를 펼쳤다. 2011년 김정일이 사망하자 김정은이 대를 이어 권력을 장악하여 3대 세습이 이루어졌다.

고립되어 가는 북한

1980년대 이후 북한은 경제 성장이 정체되고 식량마저 부족해졌다. 특히 1990년대에 들어 소련을 비롯한 사회주의권이 몰락하자, 경제적·외교적으로 고립되는 상황에 놓였다. 1990년대 중반에는 흉작과 수해로 극심한 식량난을 겪었다.

북한은 이러한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2000년대에 남북 대화와 함께 남한과의 경제 교류에 나섰다. 금강산 개발과 개성 공단 사업 등은 대표적인 남북 교류 사업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국이나 베트남과 달리 적극적인 개혁·개방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체제 유지에 중점을 두고 핵 개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로 인해 남한과의 경제 교류가 지지부진할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도 심해지고 있다.



▲ 남북한의 1인당 국민 소득

5 베트남의 개혁·개방과 도약

학습 목표 베트남의 개혁·개방 정책의 특징을 설명할 수 있다.



개혁·개방과 도약

베트남은 오랜 전쟁으로 경제가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베트남 정부는 남부에서 토지 개혁과 농업의 집단화를 단행하면서 중공업을 우선시하는 소련 모델의 사회주의 공업화 계획을 수립하였다. 그러나 농민의 반발로 농업 생산은 오히려 저하되었다. 그 결과 집단 농장에서 나오는 수익을 공업화 재원으로 활용하려 한 계획이 실패하였다. 더구나 캄보디아 점령 및 중국과의 국경 분쟁에 따른 과도한 재정 지출, 미국의 경제 제재 등으로 어려움이 가중되었다.

1980년대 들어 중국, 소련과 동유럽 국가들이 이른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였다. 베트남 정부도 1986년부터 '도이머이'라고 불리는 정책을 채택하여 시장 경제 체제의 일부를 도입하였다. 쇄신의 핵심은 국유제를 국유와 협동조합 소유, 그리고 사유의 혼합 경제로 전환하는 데 있었다.

베트남 정부는 농업의 집단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고 농민의 생산 의욕을 고취하는 정책을 추진하였으며, 농업 부문에 투자를 집중하였다. 그 결과 베트남은 1989년에 이르러 만성적인 식량난에서 벗어나 식량 자급자족을 이루었다. 그뿐 아니라 1997년에는 타이, 미국과 함께 세계 3대 쌀 수출국이 되었다.

한편 베트남 정부는 공업 부문의 발전을 위해 일본, 한국 등 자본주의 국가와 교역을 확대하고 외국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였다. 이에 따라 소비재 부문을 중심으로 공업 생산이 증가하여 국민 생활이 향상되었다.

◆ 도이머이
'쇄신'을 뜻하는 베트남어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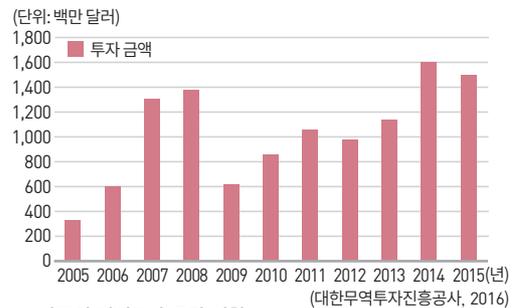
▲ 미국 대통령 오바마의 베트남 방문(2016)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베트남을 방문하여 오랜 적대 관계를 해소하고 역사적 화해를 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만남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미국과 베트남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동아시아사 백과

베트남의 도이머이 정책과 한국 기업

베트남은 1986년 도이머이 정책을 시행한 이후 고도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다. 1991~2000년 연평균 GDP 성장률이 7.6%를 기록하였고, 2000년대 들어서도 7%를 유지하였다. 도이머이 정책은 한국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저렴한 임금, 정치적인 안정, 일관된 기업 정책을 뒷받침하는 도이머이 정책에 힘입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2016년 현재 한국은 베트남 제1의 투자국이다.



동아시아 국가 간 교역 활성화와 문화 교류 확대



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중·일 국교와 한·중 국교가 수립되면서 삼국 간에는 무역과 문화 교류가 활발해졌다. 동아시아 삼국 간 무역 및 문화 교류 상황을 알아보자.

1970년대 말 중국의 개혁·개방 후 동아시아 역내 무역은 급속하게 증가하였다. 그 결과 세계 경제에서 동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도 크게 높아졌다. 2010년 국내 총생산 규모로 중국과 일본이 세계 2위와 3위, 한국이 10위권을 차지할 정도로 동아시아는 세계 경제의 중심축으로 올라서고 있다.

동아시아 국가 간 무역 비중이 높아진 만큼 인적·문화적 교류도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2015년 한 해 동안 약 249만 명의 일본인이 중국을 방문하였고, 약 500만 명의 중국인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또 184만 명의 일본인이 한국을 방문하고, 400만 명의 한국인이 일본을 방문하였다. 그리하여 일본은 방문하는 중국인과 한국인의 급격한 증가를 반영하여 많은 도시의 역과 도로 표지판에 중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적고 있다. 또한 한국도 일본어와 중국어를 함께 적고 있다.

한편 2000년을 전후하여 한국, 중국, 일본 사이에서 젊은이를 중심으로 대중문화가 국경을 서로 넘나드는 현상이 급속히 진행되었다. 한국의 TV 드라마 「겨울연가」가 일본에서 크게 인기를 얻었고, 일본의 영화 「러브레터」가 한국인의 사랑을 받았다. 중국의 체제 변화 속에서 젊은이의 사랑과 방향을 그린 영화 「첨밀밀」이 주제와 함께 한국인의 심금을 울렸다.

또 일본의 만화가 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한국의 대중가요인 K-Pop이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다. 중국인 록 밴드와 일본인 록 밴드가 상대방 국가의 많은 젊은이 앞에서 공연하기도 하였다.

- 1 동아시아 무역 규모가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까닭을 조사해 보자.
- 2 동아시아 삼국 간의 대중문화 교류 사례를 각 분야에서 찾아보자.

문화 교류

스스로 학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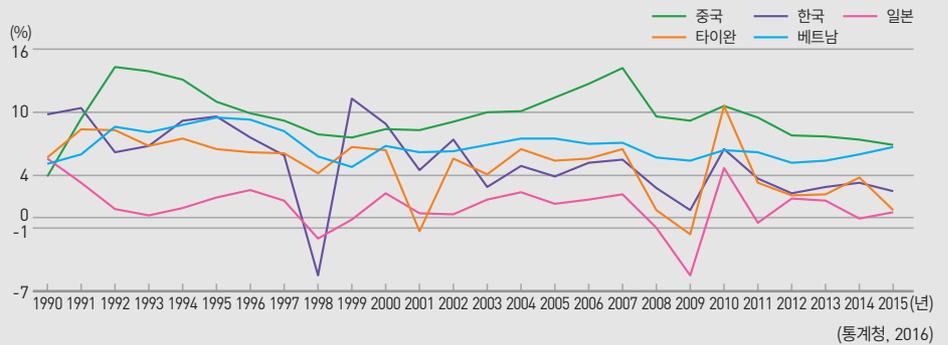
1 동아시아 각국의 정치·경제 발전 상황을 정리한 표이다. 빈칸에 들어갈 내용을 <보기>에서 골라 써 보자.

	한국	중국	타이완	일본
경제 성장	㉠ 추진으로 고도성장 → 외환 위기 극복(1990년대)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 실패 → 덩샤오핑의 ㉡ 정책으로 고도성장	미국의 개발 원조, 전쟁 특수 → 신흥 공업국으로 성장	6·25 전쟁과 베트남 전쟁 특수로 고도성장 → 장기 침체(1990년대 이후)
정치 발전	이승만 정부의 독재 → 4·19 혁명(1960) → 5·18 민주화 운동(1980) → ㉢ (1987)으로 민주화 진전	공산당 지배 체제 유지 → ㉣ (1989) 이후 민주화 요구 증대	㉤ 정부의 독재 → 계엄령 해제(1987) 이후 민주주의 진전 → 최초 여야 정권 교체(2000)	'55년 체제' 유지 → 민주당 집권(2009) → ㉥ 재집권(2012) 이후 우경화 정책 강화

- | 보기 |
- 국민당
 - 개혁·개방
 - 자민당
 - 6월 민주 항쟁
 - 텐안먼 사건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2 동아시아 주요 국가의 경제 성장을 추이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물음에 답해 보자.



(1) 1998년 한국이 마이너스 성장을 하게 된 까닭을 써 보자.

.....

(2) 1992년 이후 일본의 경제 상황을 써 보자.

.....

(3) 1991년 이후 중국과 베트남이 고도성장을 이루게 된 경제 정책의 공통점을 조사해 보자.

.....

3 갈등과 화해



| 생각 열기 | 1942년 2월 3일, 일본 아마구치현 우베시에 있던 조세이 해저 탄광에서 강제 징용된 한국인 130여 명이 작업하던 중 갱도가 무너지며 수몰되었다. 훗날 이러한 역사의 비극을 알게 된 일본의 시민 단체는 2016년 1월 우베시에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한국인 희생자 위령제를 열어 희생자를 추도하였다.

Q 일본 시민 단체는 왜 한국인 희생자 위령제를 열었을까?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1 동아시아의 지역 갈등

학습 목표 동아시아 지역 갈등의 원인과 그 해결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영토 분쟁

동아시아의 해양 영토 분쟁은 대표적으로 러·일 간의 남쿠릴 열도(북방 도서) 분쟁, 중·일 간의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그리고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가 관련된 시사(파라셀) 군도 및 난사(스프레틀리) 군도 분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영유권 분쟁은 영토의 귀속과 배분에 대한 분쟁으로, 식민지 지배의 처리 과정이나 전후 점령지의 처리 과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영유권 분쟁은 근대 이후의 역사 문제와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또한 1982년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 협약(UNCLOS)」에 근거하여 설정된 배타적 경제 수역(EEZ)도 각국 간의 분쟁을 더욱 촉진하였다. 특히 근래에 해당 도서 주변 해역에 천연가스와 석유가 대규모로 매장되어 있음이 알려지면서 분쟁이 더욱 심화하고 있다.

◆ 배타적 경제 수역

각국의 배타적 권한이 미치는 200해리(약 370km) 이내의 수역으로 바다에 설정된 경제 경계선이다. 이 지역에서는 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전과 해양 환경의 보존 등에서 주권적 권리가 인정된다.



독도

독도, 한국 고유의 영토

역사적으로 독도가 한국의 영토라는 것은 많은 기록에서 확인된다. 신라의 이사부가 울릉도와 독도 일대에 있던 우산국을 정벌한 이래 이곳 주민이 신라에 토산물을 바쳤다는 내용을 비롯하여 이후 여러 기록에서 독도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일본은 러·일 전쟁을 수행하는 가운데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일본 영토에 편입하였다. 이러한 조치는 대한 제국의 영토 주권을 침해하는 불법적인 행위였다. 독도는 이미 1900년 대한 제국 정부가 반포한 '칙령 제41호'를 통해 울릉도의 부속 도서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독도는 역사적으로, 국제법적으로 한국의 고유 영토이다.

그런데 일본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일본이 포기해야 할 영토에 독도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국의 실효적 지배를 불법이라고 주장하였다. 즉 1951년 9월에 체결된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에서 일본이 포기해야 하는 지역으로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조선'이라고 규정한 것을 근거로 삼아 이러한 주장을 펴고 있다. 미국이 동아시아 역사에 대한 이해 없이 전후 영역을 무책임하게 획정한 것도 독도를 영유권 분쟁지로 만들려는 일본의 억지 주장에 영향을 끼쳤다.

일본의 이러한 시도는 영유권을 둘러싼 국제법상의 분쟁을 넘어,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과 이후 전후 처리를 둘러싼 역사 인식의 연장선에 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일본이 침탈의 과거사를 진정으로 인정하고 사과할 때 그 해결 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독도는 일본 영토 어느 곳에서 바라보아도 볼 수 없지만, 울릉도에서는 맑은 날이면 눈으로도 볼 수 있다.

역사적으로



많은 문헌을 통해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독도를 우리 영토로 인식하고 통치해 온 사실을 알 수 있다.

국제법적으로

- 1900년 대한 제국 칙령 제41호
독도를 울릉도의 관할 구역으로 규정하였다.
- 1946년 연합국 최고 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독도를 한국 명으로 인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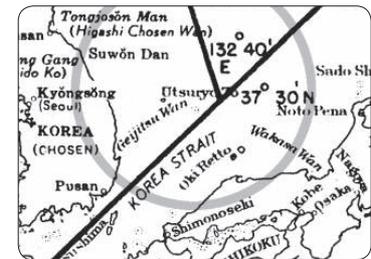


동아시아사 백과

냉전 질서와 독도

1947년 7월 24일 미 국무부 지리 담당관 새뮤얼 보그스가 대일 평화 조약(후일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초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작한 지도에는 독도가 한국령으로 명백하게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미·소 중심의 냉전 질서가 심화하자, 주일 미 정치 고문실의 시볼드는 일본을 동아시아 반공의 보루로 삼을 의도로 일본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1949년 11월 독도를 일본령에 편입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미 국무부에 제출하였다. 독도에 대한 일본의 잘못된 주장은 이러한 역사적·국제적 배경에서 시작되었다.



▲ 울릉도의 남동쪽에 작은 원형 점선으로 그려진 독도가 한국의 영토로 표시되어 있다.

인물 사건 문화 제도

2 동아시아의 역사 인식 갈등

학습 목표 한·중·일 삼국 간 역사 갈등의 배경과 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일본군 '위안부'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 일본군 '위안부'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 집회

◆ 고노담화

1993년에 일본 고노 요헤이 관방 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자체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면서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와 일본군의 관여를 인정한 담화이다.

일본 정부는 침략 전쟁 중 식민지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하였다. 일본군 '위안부'로 동원된 한국 여성의 수는 최대 28만 명으로 추산될 뿐 정확한 인원은 파악되고 있지 않다. 이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전쟁 중에 희생되었다. 전쟁이 끝난 후 귀국한 사람도 있으나, 개인 사정으로 귀국하지 못하고 외국에 잔류한 사람도 있다. 귀국한 사람 중 상당수는 전쟁 중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극복하지 못한 채 오랫동안 불행한 삶을 영위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모집이 민간업자가 한 일로 정부나 군은 관계없다고 주장하였다. 1991년에 한국의 김학순 할머니가 자신이 일본군 '위안부'였음을 증언하면서 일본 국내외에서 강한 비판 여론이 일고 국제 사회의 압박이 계속되었다. 결국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를 통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였다. 그러나 이후에도 일본은 직접 배상 등 책임 있는 조치를 회피하고 있다. 나아가 아베 정부가 일본 정부의 강제 동원을 부인하는 발언을 되풀이하여 이 문제는 한·일 사이에 첨예한 갈등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메이지 유신 이후 내전 과정에서 죽은 군인 및 군속을 추앙하기 위해 건립된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 전쟁 당시의 도조 히데키 등 A급 전범이 합사되어 있다. 1985년 나카소네 총리가 처음으로 공식 참배한 뒤 여러 총리와 정치인들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본 국내는 물론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이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동미전진 동아시아

국민의 후원으로 제작된 영화, 「귀향」

영화 「귀향」은 2016년 한국 영화 최초로 일본군 '위안부'를 소재로 삼아 상영된 영화이다. 2000년대 초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한·일 간의 쟁점으로 커지고 있을 때, 감독은 이 주제로 영화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초창기에는 후원자가 없어 제작에 착수하지 못하였지만, 높아진 국민의 관심을 반영하여 대중으로부터 자금을 모으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제작비를 마련하여 영화를 완성하였다.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진실을 밝히고자 한 국민의 관심과 성원이 이 영화를 제작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모금(funding)

X



대중(crowd)

=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과 중국의 동북공정

일본의 역사 왜곡은 교과서가 개정될 때마다 문제가 되었다. 일본 보수 세력이 침략 전쟁과 식민 지배를 미화하는 역사관을 자국민에게 심으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보수 세력은 침략 전쟁을 반성하는 역사관을 자학 사관이라 비판하면서 왜곡된 역사 인식을 담은 역사 교과서를 제작하였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왜곡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일부 교과서에는 고대 한반도가 일본의 지배를 받은 것처럼 기술되어 있거나, 일제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을 왜곡하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에 한국과 중국은 일본 정부가 역사 왜곡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함과 동시에 역사 왜곡 저지 운동, 왜곡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전개하였다.

중국의 동북공정 역시 한·중 간에 역사 분쟁을 일으켰다. 동북공정의 의도는 한반도 정세 변화, 탈북자 문제에 대처하는 동시에, 소수 민족의 동요를 방지하고, 중국 국민으로서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있었다.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현재의 국경선을 기준으로 그 영토 안에 있었던 고조선사, 부여사, 고구려사, 발해사를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였다. 나아가 학술적 차원뿐 아니라 유적지와 교과서, 박물관 안 내문 등에 이러한 내용을 반영함으로써 일반 중국인의 인식까지 바꾸고자 하였다.

클릭 click

동북아역사재단

www.nahf.or.kr

한·중·일의 역사 정보와 역사 쟁점 등 다양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 동북공정

중국이 동북 3성 지역에서 일어났던 과거 역사와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2002년부터 2007년까지 5년 동안 추진한 역사 연구 프로젝트이다.

탐구 활동



일본의 진주만 기습에 대한 미국과 일본 교과서의 서술



자료 1

진주만 기습

미국은 일본에 대한 석유와 고철 판매를 거절함으로써 일본의 침략을 중지시키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금수 조치는 일본이 이들 자원을 매우 필요로 했기 때문에 일본인들을 분노케 했다. …… 1941년 12월 7일(미국 시각) 일요일 아침, 미국의 태평양 함대는 평화스럽게 하와이 진주만에 정박해 있었다. 갑자기 일본 항공기들이 하늘을 휩쓸고 지나갔다. 2시간도 안 되어 그들은 19척의 미 군함을 침몰시키거나 크게 손상을 입혔으며 200대에 가까운 항공기를 파괴하고 약 2,400명을 죽였다. …… 미국인들은 지금 자유를 위하여 몽쳤다. 심지어 고립주의 자들도 전쟁 노력을 지지하였다.

- 미국 『프렌티스 홀 교과서』, 2005 -

자료 2

진주만 공격

1941년(쇼와 16) 12월 8일, 일본 해군은 하와이의 미군 기지를 공격하여 태평양 함대에 커다란 손해를 입혔습니다(진주만 공격). 또한 말레이 반도에 상륙한 육군도 영국군을 격파하고 싱가포르를 향하여 남하하여 단기간에 점령하였습니다.

일본은 영·미에 선전 포고를 하고 이 전쟁을 '자존자위'의 전쟁이라고 선언한 다음 대동아 전쟁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전후는 태평양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또한 삼국 동맹에 따라 독일, 이탈리아도 미국에 선전 포고를 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러한 일련의 전쟁은 일·독·이와 미·영·네덜란드·소·중 등의 연합국 간 전면 전쟁이 되었습니다.

- 일본 『이쿠호사 교과서』, 2015 -

1. 자료 1 을 바탕으로 미국이 전쟁에 참전한 까닭을 말해 보자.
2. 자료 1 , 자료 2 를 비교하여 동일한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점을 토론해 보자.

3 동아시아의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

학습 목표 동아시아 각국 간의 역사 대화와 교류 협력을 위한 노력을 설명할 수 있다.

역사 대화

역사 대화는 지난날의 역사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삼아야 가능하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일본 정부는 약소민족에 대한 침략 전쟁을 반성하고,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피해자에 대한 사과와 배상 문제를 마무리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전개 과정을 주체적·개방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그리고 종합적·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냉철하게 인식하고 서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국사 외에 이웃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폭넓게 이해하며 다양한 관점에서 자료를 활용해야 한다. 그럼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에 현존하는 갈등을 해소하고 지역의 상호 발전과 평화에 이바지할 수 있다.

문화 교류와 상호 이해의 확대

교통 및 통신의 발달, 인터넷의 광범위한 보급은 동아시아 국가 간의 장벽을 허물었다. 또 동아시아 국가 간에 많이 증가한 관광객은 상호 교류를 더욱 촉진하고 있으며, 교류의 확대는 상호 문화에 대한 공유와 이해의 확대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각국의 다양한 장르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 등 대중문화가 폭넓게 교류되면서 상대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공동 주최를 비롯한 동아시아 각국 간 스포츠 교류는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고 세계 문화 증진에 이바지하고 있다. 또한 각국의 청소년들이 수학여행이나 청소년 캠프 등을 통해 교류하면서, 역사 문제에 대한 사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다른 나라의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있다.



화해와 협력 노력



▲ 서대문 형무소 역사관을 방문하여 사죄하는 하토야마 유키오 전 일본 총리



▲ 한·중·일 청소년 캠프 한·중·일 청소년이 함께 생활하고 역사를 배우면서 서로 소통하고 있다.

국경을 넘어선 연대

동아시아 국가들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전반 국민 국가 건설과 일제의 침략 속에서 배타성이 강화되었다. 현재 각국은 이러한 장벽을 넘어서기 위해 대화와 협력을 모색하고 있으나, 각국 간에 복잡하게 얽힌 정치적·외교적 문제 때문에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 기구를 넘어선 시민 사회의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동아시아 공동의 가치라고 할 평화·환경·상생 등을 목표로 한 시민운동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현재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시민 단체를 중심으로 화해와 협력을 위한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동아시아의 시민 단체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둘러싼 소송 과정에서 공동으로 노력하였으며, 태평양 전쟁 희생자를 추모하는 집회도 자주 열었다. 그리고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에 대응하여 연대 활동을 지속해서 벌이고 있다. 각국의 학자, 교사들이 공동으로 다양한 역사 교재를 편찬함으로써 상대방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이바지하고 있다.

클릭 click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

www.ilovehistory.or.kr

동아시아 역사 왜곡 대응 활동, 국제 연대 활동 등 아시아 공동의 역사 인식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동아시아 협력체의 모색

각국의 시민운동이 활발해지면서 정부 차원에서도 동아시아 협력체를 구축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는 정치·외교뿐 아니라, 경제·사회·환경·문화 등 전 부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에 대한 논의는 냉전 체제가 해체된 후 지역 공동체 구상으로 본격화되었다. 이후 동아시아 금융 위기를 거치면서 동아시아 각국 간 협력의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하나의 균형자로서, 다자간 협력을 위한 지역 공동체의 상승효과를 이끌어 내는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한·중·일 역사학자가 공동으로 만든 동아시아 삼국의 근현대사 교재



▲ 제1차 동아시아 정상 회의(EAS)

동아시아의 상생과 평화를 위한 한국의 책무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이다. 미국과 유럽 연합의 쇠퇴, 중국의 부상이 맞물리면서 19~20세기 서구로 넘어갔던 문명의 주요 거점이 다시 아시아로 돌아오고 있다고 전망되기 때문이다.

동아시아는 경제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치적·외교적인 측면에서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그 비중이 커질수록 중국과 일본의 주도권 다툼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따라서 한국이 두 나라의 다툼을 중재하고 조정함으로써 동아시아 각국이 상생과 평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제2차 세계 대전의 전범국이었던 독일이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 국가에 반성과 사과를 통해 역사 대화를 전개하고 상호 소통하고자 노력한 모습은 동아시아 국가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그러나 현재 일본은 여전히 과거사 문제의 청산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중국 역시 과거 중화 지배 질서의 부활을 꿈꾸며 세력 팽창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의 상생과 평화를 추구함에 한국의 역할이 이전 시기보다 훨씬 중요해졌다.

한국은 세계에서 유례가 드문 역동적인 나라이다. 신화를 만들 정도의 오랜 고대 문명의 역사를 지녔고, 분열과 전쟁을 겪으면서도 민족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소중하게 지켜왔다. 한국은 17세기 전후 국제 전쟁의 후유증을 극복하고 연행사와 통신사를 각각 중국과 일본에 파견하여 200년 평화의 시대를 맞는 데 중심 역할을 하였다. 또 일제의 통치와 분단 및 전쟁의 시대를 거치면서도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어 내는 역동성을 잃지 않았다.

물론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지역으로 동아시아의 군비 경쟁과 긴장을 조성하는 지대이다. 그러나 오히려 이러한 분단 상황이 상생과 평화를 향한 노력에 자극이 된다는 점에서 한국은 평화적인 남북통일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한반도의 통일은 남북한만이 아니라 동아시아 공존과 상생에 중요한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은 때로는 이웃 나라와 경쟁하면서도, 상생과 평화의 길을 향하여 교류와 협력에 힘을 쏟아야 한다. 이 시대의 미래 세대는 동아시아를 고통과 단절의 공간에서 희망과 상생의 공간으로 만들어 갈 주역이다.



- 1 독일과 프랑스는 어떻게 역사 대화를 지속하였는지 인터넷에서 찾아보자.
- 2 한국의 미래 세대가 동아시아의 상생과 평화를 위해 할 일이 무엇인가를 토론해 보자.

스스로 학습



1 영토 분쟁 지역에 대한 표의 빈칸에 내용을 채우고, 해당 지역을 오른쪽 지도에서 찾아보자.

영토 분쟁 지역	분쟁국
㉠	중국 ↔ 일본
㉡	러시아 ↔ 일본
㉢	중국 ↔ 베트남
㉣	중국 ↔ 베트남 등 6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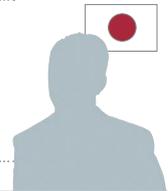
2 자료를 읽고 독일과 일본의 견해 차이를 정리해 보자.



- 나치 피해자에 대한 정신적·물질적 보상이 필요하다. - 아데나워 총리(1951) -
- 이전 세대가 범한 전쟁 책임이라도 면책될 수 없다. - 바이츠제커 대통령(1986) -
- 독일은 나치의 만행을 잊어서도 안 되고 잊으려 하지도 않는다.
- 콜 총리, 이스라엘 건국 50주년 축하(1998) -
- 과거 폴란드에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겨 주었다.
- 슈뢰더 총리, 바르샤바 봉기 60주년 기념식(2004) -

- 일본과 독일의 단순 비교는 적절치 않다. 독일은 유대인을 말살하려는 범죄 행위를 저질렀으며 그 희생자의 수와 성격이 일본과 비교되지 않는다.
- 마치무라 외상(2005) -

- 독일의 역사 인식은 옳고 일본은 틀렸다는 생각은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독일은 나치를 단죄하고 피해자에 대한 화해를 통해 전후 처리가 성립되었지만, 일본은 대일 강화 조약, 국가 간 조약 및 배상으로 전후 처리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인정된 것이다. - 다니카 히토시 외무성 심의관(2005) -



힘 잡는 단원 평가

카이로 선언 1943

알타 회담, 포츠담 선언 1945

① 시작 1946
전쟁 범죄 심판

대한민국 정부 수립 1948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1949

6·25 전쟁 발발 1950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1951

② 시작 1955
일본, 자민당과 사회당 양당 체제

중국, 대약진 운동 시작 1958

4·19 혁명 1960

문화 대혁명 시작 1966

중국, UN 가입 1971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수립 1976

5·18 민주화 운동 1980

③ 베트남, 1986
정책 실시
시장 경제 체제 일부 도입

④ 1987
한국,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

중국, 톈안먼 사건 1989

한·중 수교 1992

한·일 월드컵 2002

왼쪽 연표를 완성하고, 문제로 배운 내용을 확인해 보자.

1 동아시아의 냉전을 나타낸 지도이다. 물음에 답해 보자.



(1) (가), (나) 전쟁에 참전한 나라를 조사해 보자.

(2) (가), (나), (나) 대립의 공통된 배경을 서술해 보자.

2 다음 나라와 관련 있는 내용을 연결해 보자.

- | | | | | |
|---------|---|----------------|---|---------------|
| (1) 한국 | • | ① 6·25 전쟁 특수 | • | ㉠ 55년 체제 |
| (2) 중국 | • | ② 도이머이 정책 | • | ㉡ 가오슝 사건 |
| (3) 일본 | • | ③ 4대 현대화 노선 | • | ㉢ 톈안먼 사건 |
| (4) 타이완 | • | ④ 경제 건설 4개년 계획 | • | ㉣ 6월 민주 항쟁 |
| (5) 베트남 | • | 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 | ㉤ 1975년 통일 완성 |

3 (가)에 들어갈 동아시아의 역사 인식 갈등 내용을 써 보자.

동아시아의 갈등

영토 분쟁	역사 인식 갈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쿠릴 열도(북방 도서) •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 시사(파라셀) 군도 • 난사(스프레틀리) 군도 	<p>(가)</p>

↓

화해·협력 노력

자기 점검

이해가 부족한 부분은 본문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자.

1 냉전과 동아시아

171쪽 확인

2 경제 성장과 정치 발전

180쪽 확인

3 갈등과 화해

192쪽 확인

역량 +
수행 평가

조사 보고서 작성하기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동아시아 삼국이 과거의 갈등과 대립을 극복하기 위해 전개하고 있는 교류와 협력 사례를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해 보자.

1 조사 대상 선정하기 동아시아 삼국의 교류와 협력 노력을 잘 보여 주는 사례를 정치, 경제, 문화 부분으로 나누어 조사하고 관심 있는 주제를 선정한다.

2 보고서 작성하기 선정된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자료를 조사·수집하여 활용한다.

유의점

1. 각종 문헌과 사진 등 다양한 자료를 수집한다.
2. 교류와 협력 부분의 주제나 목적을 제시한다.
3.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결과나 전망 등을 포함한다.

예시

주제: 베세토 벨트를 통한 동아시아 삼국의 문화 교류

1. 베세토 벨트(BESETO BELT)의 의미

- 베세토(BESETO)란 베이징(Beijing)의 영문 앞 글자인 BE, 서울(Seoul)의 SE, 도쿄(Tokyo)의 TO를 딴 것으로, 한국·중국·일본 삼국의 상호 협력 체제를 의미한다.
- 1993년 우리나라 정부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문화·예술·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베세토 벨트 형성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2. 교류 사례

- 베세토 연극제: 한국과 중국, 일본 연극인들이 상호 교류를 통해 갈등의 역사를 극복하고 문화적 소통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이다. 1994년부터 매년 세 나라가 돌아가며 베세토 연극제를 개최하고 있다.
- 베세토 법학학술회의: 중국 베이징대학 법학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일본 도쿄대학 법학부 등 아시아 지역을 대표하는 3개 법학 교육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학술회의이다. 동아시아 지역의 활발한 교류를 통해 지역 경제의 발전과 평화 유지에 이바지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 베세토 연극제 포스터



고조선		삼국 시대
2333 고조선 건국(《삼국유사》)	194 고구려, 진대법 실시	372 고구려, 불교 수용
194 고조선, 위만 집권	260 백제, 16관등과 공복 제정	384 백제, 불교 수용
108 고조선 멸망		427 고구려, 평양 천도
57 신라 건국		433 나·제 동맹 성립
37 고구려 건국		
18 백제 건국		



춘추 전국	진	한	삼국 시대	5호 16국 시대
1600년경 상 왕조 성립		8 왕망, 신 건국	220 삼국 시대 시작	
1050년경 주 왕조 성립		25 후한 성립	280 진(晉), 중국 통일	
770 춘추 시대 시작		184 황건적의 난	316 5호 16국 시대 시작	
403 전국 시대 시작				
221 진(秦), 중국 통일				
202 한 건국				
139 한, 서역에 장건 파견				



야요이 시대		
300년경 청동기 문화 시작	57 왜노국 후한에 조공	239 야마타이국, 위에 사신 파견



한위노국왕 도장 ▶

남북국 시대

고려

- 520 신라, 울령 반포
- 527 신라, 불교 공인



▲ 이차돈 순교비

- 612 고구려, 살수 대전
- 660 백제 멸망
- 668 고구려 멸망
- 676 신라, 삼국 통일
- 698 대조영, 발해 건국
- 788 신라, 독서삼품과 설치

- 828 장보고, 청해진 설치
- 918 고려 건국
- 926 발해 멸망
- 936 고려, 후삼국 통일
- 958 과거제 시행



장보고 동상 ▶

남북조 시대

수

당

송(북송)

- 439 남북조 성립
- 581 수 건국
- 589 수, 남북조 통일

- 612 수, 고구려 침공(1차 침입)
- 618 당 건국
- 629 현장의 인도 여행
- 755 안사의 난



현장 ▶

- 907 당 멸망, 5대 10국 시대 시작
- 916 거란 건국
- 960 송(북송) 건국

고분 시대

아스카 시대

나라 시대

헤이안 시대

- 538 백제에서 불교 전래

- 607 호류사 건립
- 630 1차 견당사 파견
- 645 다이카 개신
- 701 다이호 울령 반포
- 710 나라 시대 시작
- 752 도다이샤 대불 완성
- 794 헤이안 시대 시작

- 847 엔닌, 『입당구법순례행기』 완성
- 894 견당사 폐지



◀ 엔닌

1200

1400



고려

- 1019 강감찬, 귀주 대첩
- 1107 윤관, 여진 정벌
- 1170 무신 정변
- 1196 최씨 무신 정권 시작
- 1198 만적의 난

- 1231 몽골의 1차 침입
- 1232 고려, 강화도 천도
- 1270 고려, 개경 환도
- 1388 위화도 회군
- 1392 고려 멸망, 조선 건국

- 1510 삼포 왜란
- 1543 백운동 서원 설립
- 1592 임진왜란
- 1597 정유재란



「부산진 순절도」▶



송(북송)

남송

원

명

- 1069 왕안석 신법 시행
- 1115 금 건국
- 1127 북송 멸망, 남송 시작
- 1190 『사서집주』 출간
- 1206 칭기즈 칸, 몽골 통일

- 1234 몽골, 금 멸망시킴.
- 1271 원 제국 성립
- 1279 남송 멸망, 원의 중국 통일
- 1368 원 멸망, 명 건국

- 1405 명, 정화의 원정
- 1429 명, 베이징 천도
- 1581 명, 일조편법 전국 시행



◀ 쿠빌라이 칸



헤이안 시대

가마쿠라 시대

무로마치 시대

아즈치·모모야마 시대

- 1185 가마쿠라 막부 시작

- 1274 몽골의 1차 침입
- 1281 몽골의 2차 침입
- 1336 무로마치 막부 성립
- 1392 남북조 통일

- 1404 명과 감함 무역 실시
- 1467 오닌의 난 발발
- 1543 조총 전래
- 1590 도요토미 히데요시, 센고쿠 시대 통일



◀ 도요토미 히데요시

조선	대한 제국	일제 강점기	대한민국
1623 인조반정	1876 강화도 조약 체결	1905 을사조약	1950 6·25 전쟁
1627 정묘호란	1884 갑신정변	1910 대한 제국, 국권 피탈	1960 4·19 혁명
1636 병자호란	1894 갑오개혁	1919 3·1 운동	1965 한·일 기본 조약 체결
1708 대동법 전국 시행	1896 독립 협회 창립	1940 한국 광복군 창설	1980 5·18 민주화 운동
	1897 대한 제국 수립	1945 8·15 광복	1987 6월 민주 항쟁
	1899 「대한국 국제」 반포		1992 한·중 국교 수립
			2002 한·일 월드컵 개최

청	중화민국	중화 인민 공화국
1616 후금 건국	1908 「흠정헌법대강」 제정	1958 대약진 운동 시작
1636 명, 이자성의 난	1912 중화민국 수립	1966 문화 대혁명 시작
1636 후금, 국호 청으로 바꿈.	1919 5·4 운동	1976 마오쩌둥 사망
1644 명 멸망	1924 제1차 국·공 합작	1989 톈안먼 사건
1673 삼번의 난 발발	1937 제2차 국·공 합작	2008 베이징 올림픽 개최
1796 청, 백련교의 난	1946 국·공 내전 발발	
	1949 중화 인민 공화국 수립	

에도 시대	메이지 시대	다이쇼 시대	쇼와 시대	헤이세이 시대
1603 도쿠가와 이에야스, 에도 막부 수립	1854 미·일 화친 조약 체결	1910 한국 병합	1955 55년 체제 시작	
1609 기유약조 체결	1858 미·일 수호 통상 조약 체결	1931 만주 사변	1964 도쿄 올림픽 개최	
1635 산킨코타이 제도 제정	1868 메이지 유신	1937 중·일 전쟁	1972 중국과 국교 수립	
	1889 「대일본 제국 헌법」 공포	1945 일본, 무조건 항복	1993 55년 체제 종료	
		1946 도쿄 재판 시작	2012 자민당 재집권	

ㄱ

가네코 후미코 · 152
 감진 · 75
 강항 · 80
 강홍립 · 92
 김구 · 151
 김옥균 · 132, 133
 김원봉 · 147, 151
 김충선 · 94

ㄴ

노태우 · 178
 누르하치 · 91, 92, 94
 닉슨 · 177

ㄷ

담징 · 41, 75
 덩샤오핑 · 186
 도요토미 히데요시 · 79, 88, 90
 도쿠가와 이에야스 · 80, 91
 동중서 · 63

ㄹ

량치차오 · 133, 155
 류사오치 · 185

ㅁ

마오쩌둥 · 146, 172, 185
 마테오 리치 · 104, 106
 매키타니 · 102
 모문룡 · 92
 모토오리 노리나가 · 120
 문순득 · 101
 미나모토노 요리토모 · 55

ㅂ

바진 · 152
 박제가 · 119, 123
 박지원 · 119
 범중엄 · 76
 벨테브레이(박연) · 105

ㅅ

사이토 마코토 · 142
 상양 · 27, 62
 서광계 · 104
 서희 · 55
 석가모니 · 68
 소현 세자 · 105
 시황제 · 27, 31, 62
 신란 · 70
 신채호 · 152
 쑨원 · 134, 146, 158

ㅇ

아담 샬 · 105
 아시카가 다카우지 · 60
 아시카가 요시미쓰 · 60, 61, 97
 안중근 · 152
 야마자키 안사이 · 80
 옌닌 · 75
 오규 소라이 · 120
 오다 노부나가 · 88, 89
 오삼계 · 93
 왕소군 · 52
 왕수인 · 77
 왕안석 · 54
 왕직 · 87
 원효 · 70, 81
 위만 · 29, 32
 위안스카이 · 134, 144
 유방 · 27, 31, 63
 윤관 · 55
 의상 · 75
 이순신 · 90, 91
 이이 · 78
 이자성 · 93
 이차돈 · 69
 이치카와 단주로 · 115
 이토 히로부미 · 131
 이홍장 · 130
 이황 · 78
 임희원 · 96

ㅊ

장거정 · 86
 장건 · 31, 33
 장보고 · 73, 75

장제스 · 146, 184
 정성공 · 102
 정약용 · 119
 정화 · 60, 96
 조설근 · 113
 주몽 · 39
 주원장 · 59
 주희 · 76, 78
 증국번 · 130
 찰흙다오 · 57

ㅋ

척계광 · 87
 천두슈 · 144
 천수이벤 · 184
 칭기즈 칸 · 56

ㆁ

카스틸리오네 · 104
 캉유웨이 · 118, 130, 133
 쿠빌라이 칸 · 56, 61

ㅌ

테무친 · 56

ㅍ

판보이쩌우 · 132, 152
 페르비스트 · 104
 프랜시스코 하비에르 · 106

ㅎ

하멜 · 105
 하야시 라잔 · 80
 한 무제 · 31, 32, 63
 현장 · 74
 헤자 · 41
 헤초 · 75
 호찌민 · 147, 174
 홍대용 · 105
 홍수전 · 130
 홍타이지 · 92
 황중희 · 118, 119
 효문제 · 42, 47
 후지와라 세이카 · 80
 흥선 대원군 · 127
 히로히토 · 169

ㄱ

가마쿠라 막부 · 55, 60, 79
 가부키 · 115
 가오송 사건 · 184
 간석기 · 19, 20
 갈레온 무역 · 98
 감합 무역 · 97
 갑골문 · 26, 30
 갑신정변 · 132, 133, 138
 갑오·을미개혁 · 132
 강화도 조약 · 127, 128, 154
 거경공리 · 76
 거란 문자 · 53
 거류지 · 161, 162
 게르 · 15
 게이오 의숙 · 156
 격물치지 · 76
 견당사 · 45, 46, 73
 견수사 · 50
 경강 상인 · 111
 경극 · 113
 경세치용 · 118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182
 고구려 · 39, 43, 49
 고노담화 · 194
 고려 · 53, 55, 57
 고사기 · 120
 고인돌 · 25
 고조선 · 29, 30, 32
 고종학 · 118
 고학 · 120
 과거제 · 54, 67, 76
 곤여만국전도 · 104, 105
 곤여전도 · 104
 공양학 · 118
 공행 · 102, 126
 광동 무역 체제 · 102
 광무개혁 · 135
 교과서 왜곡 · 195, 197
 교초 · 58
 구석기 문화 · 18
 국가 총동원법 · 142, 149
 국·공 내전 · 146, 172
 국·공 합작 · 146, 147, 148

국민 혁명 · 146, 148
 국자감 · 64
 국제 연합 · 168, 177
 국풍 문화 · 45
 국학 · 66, 120
 군국제 · 27
 군현제 · 26, 27
 균전제 · 64, 65
 근대 교육 · 156
 긴급 조치 · 182

ㄴ

나가시노 전투 · 88
 나라 시대 · 45
 난사 군도 · 192
 난징 대학살 · 148, 165
 난징 조약 · 126, 128
 난학 · 120
 남면관제 · 53
 남북국 시대 · 45
 남한산성 · 89, 92
 내상 · 111
 냉전 · 171, 177, 180
 논어 · 76, 106
 농경 · 14, 16, 20
 닉슨 독트린 · 177

ㄷ

다루가치 · 56
 다원커우 문화 · 20
 다이묘 · 79, 88, 112
 다이센 고분 · 43
 다이카 개선 · 45
 다이호 율령 · 65
 당 · 44, 50, 64
 대동법 · 110
 대승 불교 · 68
 대안탑 · 72
 대약진 운동 · 185
 대월사기 · 57
 대월지 · 31
 대일본 제국 헌법 · 134, 135, 136
 대한민국 국제 · 135, 136
 대한민국 임시 정부 · 144, 147, 151
 대한 제국 · 135, 139, 141
 데라코야 · 115

데지마 · 103, 106
 덴메이 대기근 · 109
 도다이사 · 70, 75
 도왜인 · 41
 도이머이 · 189
 도자기 · 97, 98, 110
 도쿄 재판 · 169, 170
 독도 · 141, 193
 독립 협회 · 135
 독서삼풍과 · 66
 돌궐 · 15, 44, 49
 동북공정 · 11, 195
 동아시아 문화권 · 62, 66, 73
 동유 운동 · 133
 동의보감 · 109
 동학 농민 운동 · 132, 138
 뎨석기 · 19

ㄹ

러·일 전쟁 · 140, 141, 193
 루거우차오 사건 · 148
 룡만 석굴 · 68
 룡산 문화 · 20, 24
 류큐 · 60, 97, 129

ㅁ

마담홍노 석상 · 31
 마제은 · 99
 마카오 · 101, 104, 106
 만국 공법 · 154
 만리장성 · 12, 31, 40
 만상 · 111
 만주국 · 148
 만주 사변 · 148, 151
 맹안·모극제 · 54
 메이지 유신 · 130, 131, 132
 멕시코 은 · 98
 명경과 · 67
 모내기법 · 108, 109
 목축 · 15, 20
 몽골 제국 · 56, 58, 187
 무로마치 막부 · 60, 88, 97
 무사 · 55, 79, 112
 무정부주의 · 152
 문묘 · 66, 80
 문치주의 · 54

문화 대혁명 · 185, 186
 미나토가와인 · 18
 미·일 수호 통상 조약 · 127, 128, 161
 미·일 안보 조약 · 173, 180
 미·일 화친 조약 · 127
 미·중 수교 · 177
 민화 · 114, 117
 밀무역 · 86, 96, 97

ㅅ

반전수수제 · 65
 반제·반전 사상 · 152
 발해관 · 73
 백련교 반란 · 99
 백운동 서원 · 78
 백제 · 39, 43, 44
 법화원 · 73, 75
 베르사유 조약 · 145
 베이징인 · 18
 베이징 조약 · 126
 베트남 독립 동맹 · 147
 베트남 전쟁 · 174, 175, 177
 변법자강 운동 · 118, 130, 133
 별기군 · 132
 별무반 · 55
 병자호란(병자 전쟁) · 92, 94
 보초 · 99
 부모은중경 · 71
 부병제 · 64
 부여 · 29, 32
 부청멸양 · 140
 북면관제 · 53
 북벌 · 146
 북학파 · 105
 분라쿠 · 115
 분서갱유 · 27
 불국사 삼층 석탑 · 72
 비단길 · 54, 58
 비파형 동검 · 25
 빗살무늬 토기 · 21

ㅇ

사고전서 · 118
 사대부 · 76
 4대 현대화 노선 · 186
 사민평등 · 131
 사서 · 76
 사서오경왜훈 · 80

사서집주 · 76
 사이공 조약 · 127
 4·19 혁명 · 182
 사출도 · 29
 사회주의 헌법 · 188
 사회 진화론 · 155
 산시 상인 · 111
 산정동인 · 18
 산킨코타이 제도 · 112
 삼각 무역 · 102
 3대 세습 · 188
 3성 6부제 · 64, 65
 3·1 운동 · 144, 145, 147
 3저 호황 · 183
 삼전도비 · 92
 38도선 · 168, 173
 삼포 왜란 · 97
 삼한 · 29, 32
 상 왕조 · 26
 상평통보 · 110
 색목인 · 56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 171, 173, 193
 서원 · 77, 78
 서유기 · 113, 140
 서하 · 53, 54, 56
 서학 · 119
 선우 · 28, 31
 선종 · 71, 72, 80
 성리학 · 76, 78, 80
 센고쿠 시대 · 88, 90, 97
 센카쿠(다오위다오) 열도 · 192
 소학 · 76
 송상 · 103, 111
 쇼군 · 60, 79, 88
 수 · 44, 50, 64
 수호전 · 113, 140
 슈고 · 79
 슈인장 · 103
 스에키 토기 · 41
 시모노세키 조약 · 139, 140
 시박사 · 54, 58
 시사 군도 · 192
 10월 유신 · 182
 시진 · 112
 시헌력 · 104, 105
 식산흥업 · 131, 135
 신라 · 39, 43, 44

신라방 · 73
 신라 촌락 문서 · 65
 신법 · 54
 신불습합 · 71
 신사층 · 77, 86, 96
 신석기 문화 · 20, 21
 신정 · 134, 156
 신청년 · 144
 신토 · 71, 80, 120
 신해혁명 · 134, 144, 187
 실학 · 119
 심청전 · 114
 씨성 제도 · 43

ㅇ

아관 파천 · 132
 아스카 문화 · 41
 아주 화친회 · 152
 아편 전쟁 · 126, 127, 130
 아미타이국 · 29, 32
 아마토 정권 · 41, 43, 45
 야스쿠니 신사 참배 · 181, 194
 야요이 토기 · 25
 알타 회담 · 168
 양명학 · 77
 양무운동 · 130, 132
 양사오 문화 · 20
 얼리터우 문화 · 24
 에도 막부 · 91, 94, 127
 여진족 · 53, 54, 55
 역참 · 58
 연안파 · 188
 연운 16주 · 53
 연행사 · 93, 119, 198
 영락대전 · 77
 영선사 · 132
 오경 · 63, 66, 76
 오경박사 · 63, 66
 오닌의 난 · 88
 5·4 운동 · 144, 145, 186
 55년 체제 · 180, 181
 5·16 군사 정변 · 182
 5·18 민주화 운동 · 183
 5호 16국 · 42, 49, 69
 왕오천축국전 · 75
 왜관 · 97, 103
 왜구 · 60, 86, 87

요코하마 마이니치 신문 · 157
 우키요에 · 115, 117
 워싱턴 체제 · 145
 위·진·남북조 · 40, 42
 원강 석굴 · 68
 유림외사 · 113
 유시마 성당 · 80
 6월 민주 항쟁 · 183
 6·25 전쟁 · 171, 173, 182
 울령 · 10, 62, 64
 을미사변 · 132
 을사조약 · 141
 의열단 · 147
 의화단 운동 · 140
 21개조 요구 · 143
 이와미 은광 · 100
 이와쿠라 사절단 · 131, 133
 2·8 독립 선언 · 144
 인민공사 · 185
 인삼대왕고은 · 100
 인쇄술 · 72, 94, 113
 일본국 헌법(평화 헌법) · 169
 일본군 '위안부' · 149, 150, 194
 일본 병사 반전 동맹 · 152
 일조편법 · 86, 99
 임진왜란(임진 전쟁) · 90, 91, 94
 입당구법순례행기 · 75

ㄹ

자금성 · 59
 자민당 · 180, 181
 자유 민권 운동 · 134, 155
 장시 · 110, 112
 장안성 · 73
 전례 문제 · 104
 전시 · 54, 67, 76
 절강전법 · 87
 정묘호란(정묘 전쟁) · 92
 제국주의 · 139, 140, 142
 제왕운기 · 57
 제자백가 · 26
 조계 · 161, 162
 조공 무역 · 96, 97
 조공·책봉 · 48, 49, 50
 조년 · 111, 115
 조문 토기 · 21
 조사 시찰단 · 132
 조선 · 59, 87, 97

조선술 · 54
 조선 의용군 · 151
 조선 의용대 · 151
 조용조 · 64
 조총 · 88, 89, 104
 조카마치 · 112
 존왕양이 · 131
 주 왕조 · 26, 30
 주자가례 · 76, 79
 주자감 · 65
 주자학 · 76
 주체사상 · 188
 중계 무역 · 28, 97, 100
 중·일 수교 · 178
 중·일 전쟁 · 148, 151, 178
 중·일 평화 우호 조약 · 178
 중화민국 · 134, 175
 중화 인민 공화국 · 172, 177, 178
 지행합일 · 77
 진 · 27, 31, 62
 진사과 · 67
 쩐 왕조 · 57

ㄴ

척경입비도 · 55
 천계령 · 102, 103
 천명사상 · 26, 63
 천태종 · 72, 75
 천호제 · 56
 철도 · 159, 160, 162
 청·일 수호 조규 · 129, 154
 청·일 전쟁 · 130, 139
 청·프랑스 전쟁 · 129
 추축국 · 149
 춘추·전국 시대 · 26, 30
 춘향전 · 114
 칠성각 · 71

ㄷ

카이로 회담 · 168
 쿠릴 열도 · 192
 쿠릴타이 · 56

ㅌ

탕구트족 · 53, 54
 태양력 · 132, 160
 태평양 전쟁 · 149, 195

태평천국 운동 · 130
 태학 · 66
 텐안먼 사건 · 186
 텐진 조약 · 126
 통신사 · 94, 198
 통킹만 사건 · 174
 티베트고원 · 10, 12

ㅍ

파리 강화 회의 · 143, 144, 147
 파리 평화 협정(베트남 평화 협정) · 174
 판소리 · 114
 팔기제 · 92
 평양 만달인 · 18
 페번치현 · 131
 포츠담 선언 · 168, 170
 포츠머스 조약 · 141

ㅎ

하 왕조 · 24, 26
 하치만 신상 · 71
 한 · 27, 31, 63
 한국 광복군 · 151
 한성순보 · 157
 한양 · 59, 100, 112
 한인 애국단 · 151
 한·중 수교 · 178
 한·중 연합 작전 · 151
 한·일 기본 조약 · 175
 한·청 수호 통상 조약 · 139
 해금 정책 · 96, 97
 해체신서 · 120
 핵 확산 방지 조약 · 177
 허무두 문화 · 21
 헤이안 시대 · 45, 53, 79
 헤이조쿄 · 45, 73
 호국 불교 · 70
 호라즘 · 56
 화교 · 99
 화번 공주 · 51, 52
 흥위병 · 185
 회취법 · 100
 홍산 문화 · 21
 휘저우 상인 · 111
 흉노 · 15, 28, 31

I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8-9쪽 (중) 토픽 이미지 10쪽 (상) 게티 이미지 11쪽 (상) 한국문화관광연구원(www.kctire.kr), 「투어고포커스」 제198호, 2016 / (중)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평화와 역사문제』, 2016, 57-58쪽 13쪽 (상) westermann, 『Diercke Weltatlas』, 2015, 247쪽 / (중) James M. Rubenstein, 『현대 인문 지리학』, 시그마프레스, 2012, 369쪽 / (하) 토픽 이미지 15쪽 (상) 게티 이미지 / (하)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2016, 17쪽 16쪽 (상)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돌에 새긴 유목민의 삶과 꿈』, 2008, 216쪽 / (중) 중국사학회, 『중국 역사 박물관』 2, 범우사, 2006, 56쪽 / (하) 중국사학회, 『중국 역사 박물관』 6, 범우사, 2006, 23쪽 18쪽 (상) 중국사학회, 『중국 역사 박물관』 1, 범우사, 2006, 23쪽 / (하1) 『世界の遺跡9 古代中國の遺産』, 1996, 6쪽 / (하2) 전국선사박물관(jgpm.ggof.kr) / (하3) 『世界の遺跡9 古代中國の遺産』, 1996, 14쪽 / (하4) 교육과학기술부, 『사료로 보는 동아시아사』, 2011, 11쪽 19쪽 (상) 자오춘칭·친원성, 『문명의 새벽, 중국의 문명』 1, 시공사, 2003, 18쪽 / (중1) 서울대학교박물관, 『발굴 유물 도록』, 1997, 10쪽 / (중2) 전국역사교사모임 외, 『마주 보는 한일사』 I, 2007, 19쪽 / (하) http://mongoliatravel.guide/upload/2014/10/942b5e614798236d48920fc2a7a80684.jpg 20쪽 (상1) 맥 세계사편찬위원회, 『중국사』 1, 느낌이 있는 책, 2014, 35쪽 / (상2) 중, 지도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13, 15쪽 21쪽 (상1)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13쪽 / (상2) 중국사학회, 『중국 역사 박물관』 1, 범우사, 2006, 23쪽 / (상3) 이근우 외, 『선사 유물과 유적』, 숲, 2005, 79쪽 / (상4) 게티 이미지 / (하1) 맥 세계사편찬위원회, 『중국사』 1, 느낌이 있는 책, 2014, 35쪽 / (하2) 전국역사교사모임, 『처음 읽는 중국사』, 휴머니스트, 2015, 26쪽 / (하3)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17쪽 / (하4) 『ビジュアルワイド 図説日本史』, 東京書籍, 2007, 22쪽 / (하5) 『中學社會歴史, 未來をひらく』, 教育出版, 2011, 25쪽 24쪽 (상) 중국사학회, 『중국 역사 박물관』 1, 범우사, 2006, 70쪽 25쪽 (상) 게티 이미지 / (중1)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2016, 33쪽 / (중2) 국립중앙박물관, 『북녘의 문화유산』, 2006, 17쪽 / (중3) 25쪽 (중3) 『話説 中國歴史』 第1巻, 吉林出版集團有限責任公司, 長春, 2010, 47쪽 / (중4) 문화재청(www.cha.go.kr) (중5)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13쪽 / (하1, 2) 중국사학회, 『중국 역사 박물관』 1, 범우사, 2006, 49, 56쪽 / (하3) 『新しい社会 歴史』, 東京書籍, 2007, 19쪽 26쪽 (중1, 중2, 하) 『詳説世界史図録』, 山川出版社 2014, 35, 36, 39쪽 27쪽 (상1, 상2, 중1) 『詳説世界史図録』, 山川出版社, 2014, 38, 39쪽 / (중2)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32쪽 / (하1) 한국의 지식콘텐츠(www.krpia.co.kr), 권68 「상군열전」, 제8 / (하2)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315쪽 28쪽 (상, 중, 하)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2016, 38-39쪽 29쪽 (상) 국사편찬위원회(contents.history.go.kr), 고조선의 범금 8조 / (하1)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315쪽 / (하2)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20쪽 / 30쪽 (상1, 중2) 중국사학회, 『중국 역사 박물관』 1, 범우사, 2006, 62, 220쪽 / (상2)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19쪽 / (중1) 게티 이미지 31쪽 (상) 맥 세계사편찬위원회, 『중국사』 1, 느낌이 있는 책, 2014, 209쪽 / (중)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39쪽 / (하)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2016, 46쪽 32쪽 (하1) 국사편찬위원회(contents.history.go.kr), 변한의 철 교역 / (하2)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자료총서23, 後漢書 外國傳 譯主 上』, 2009, 34쪽 / (하3)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12쪽 33쪽 (하) 『アカデミア 世界史』, 浜島書店, 2015, 100쪽 35쪽 (하) 『서울신문』, 2016년 5월 24일

● 이 외의 14쪽, 18쪽, 26쪽(상), 32쪽 지도(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3종,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역사부도 5종)

II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

38쪽 (상) 長春, 『圖說天下, 三國兩晉南北朝』, 吉林出版集團, 2009, 160쪽 / (하) 문화재청(www.cha.go.kr) 39쪽 (상) 김부식, 『삼국사기(하)』 백제본기 1, 을유문화사, 1983, 7쪽 / (하) 연합 포토 40쪽 (중) 『アカデミア 世界史』, 浜島書店, 2015, 106쪽 / (하) 『ビジュアルワイド 図説世界史』, 東京書籍, 2003, 58쪽 41쪽 (상, 하1, 하3) 연합 포토 / (하2) 『新しい社会 歴史』, 東京書籍, 2007, 27쪽 42쪽 (중)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71쪽 / (하) 『ビジュアルワイド 図説世界史』, 東京書籍, 2003, 50쪽 43쪽 (하) 토픽 이미지 44쪽 (중) 윤익 이미지 45쪽 (중) 『新しい社会 歴史』, 東京書籍, 2007, 43쪽 / (하1) 魏徵 等, 『隋書』 권61, 宇文述傳, 中華書局, 1973, 1466쪽 / (하2) 전홍신, 『완역 일본서기』, 일지사, 1989, 489쪽 46쪽 (중) 荒野泰典 外, 『律令國家と東アジア』, 吉川弘文館, 2011, 58쪽 48쪽 (상, 중)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112, 73쪽 49쪽 (상) 譚其驤 主編 『中國歷史地圖集』 第4冊 東晉十六國南北朝時代, 地圖出版社, 1982, 17-18쪽 / (하1) 蕭子顯, 『南齊書』, 中華書局, 1972, 1009-1010쪽 / (하2) 令狐德棻 等, 『周書』, 中華書局, 1971, 911쪽 50쪽 (상)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69쪽 / (중) 魏徵 等, 『隋書』 권81, 高麗前, 中華書局, 1973, 1815쪽 51쪽 (상)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돌에 새긴 유목민의 삶과 꿈』, 2008, 225쪽 / (하1) 국립중앙박물관, 『문자 그 이후 한국 고대 문자전』, 2011, 41쪽 / (하2) 이연복 외, 『사료 한국사』, 신서원, 1994, 43쪽 / (하3) 한국고대사회연구소 편, 『역주 한국 고대 금석문』 제2권,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1992, 89쪽 / (하4) 魏徵 等, 『隋書』 권46, 倭國傳, 中華書局, 1973, 1827쪽 52쪽 (상1) 이삼희, 『꽃으로 보는 한국 문화』 1, 넥서스 BOOKS, 2004, 430쪽 (상2) 魏徵 等, 『隋書』 권46, 倭國傳, 中華書局, 1973, 1872쪽 / (중) 歐陽修 等, 『新唐書』 권141 上, 吐蕃 上, 中華書局, 1973, 6073쪽 / (하1) 중국사학회, 『중국 통사』 2, 범우, 2008, 186쪽 / (하2) 吳兢, 『貞觀政要』, 嶽麓書社, 1992, 312쪽 54쪽 (상) 중국사학회, 『중국 통사』 3, 범우, 2008, 60쪽 / 55쪽 (상) 윤익 이미지 / (하1) 脫脫 等, 『宋史』 권7, 眞宗本紀, 中華書局, 1995, 127쪽 / (하2) 阿魯圖 等, 『金史』 권77, 宗弼傳, 中華書局, 1995, 1756쪽 / 56쪽 (하1) 중국사학회, 『중국 통사』 3, 범우, 2008, 266쪽 / (하2) 『山川世界史綜合圖録』, 山川出版社, 2009, 33쪽 57쪽 (중) 『詳説世界史図録』, 山川出版社 2014, 96쪽 58쪽 (상) 청유·장허성, 『중국을 말한다』 12, 신원문화사 2008, 234쪽 / (중)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2, 2015, 221쪽, (하1, 2)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165, 166쪽 59쪽 (상)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180쪽 / (중) 강문식 외, 『15세기』, 민음사, 2014, 102쪽 / (하) 게티 이미지 61쪽 (중1, 2) 『ビジュアルワイド 図説日本史』, 東京書籍, 2007, 56, 57쪽 / (하1) 지오포리 퍼커, 『아틀라스 세계사』, 사계절, 2004, 77쪽 / (하3)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85쪽 62쪽 (상2) 게티 이미지 / (하) 전국역사교사모임, 『처음 읽는 중국사』, 휴머니스트, 2015, 67쪽 63쪽 (상) 중국사학회, 『중국 통사』 3, 범우, 2008, 160쪽 64쪽 (하) 四部叢刊 三編史部, 『故唐律疏議』 1, 65쪽 (중)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34쪽 / (하1, 2)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90, 319쪽 66쪽 (상) 게티 이미지 / (중1) 문화재청(www.cha.go.kr) / (중2)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중앙박물관 도록』, 2005, 129쪽 / (중3)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25쪽 67쪽 (상) 전국역사교사모임, 『처음 읽는 중국사』, 휴머니스트, 2015, 166쪽 (중1) 문화재청(www.cha.go.kr) / (중2) 권내현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2011, 93쪽 68쪽 (하1)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28쪽 / (하2) 게티 이미지 69쪽 (중1) 연합 포토 / (중2, 하1) 게티 이미지 / (하2) www.pauch.com/kss/images/g013_enjo.jpg 70쪽 (상) 윤익 이미지 / (하1) 서의식,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2, 숲, 2002, 153쪽 / (하2) 일본 나라국립박물관(www.narahaku.go.jp) 71쪽 (상) 김부식, 『삼국사기(하)』 백제본기 1, 을유문화사, 1983, 358쪽 / (중) 중국사학회, 『중국 통사』 2, 범우, 2008, 128쪽 / (하1, 2) 윤익 이미지 72쪽 (상1, 하2) 문화재청(www.cha.go.kr) / (상2) 『新しい社

會 歴史, 東京書籍, 2007, 39쪽 / (하1) 게이 이미지 / (하3) 『ビジュアルワイド 図説日本史』, 東京書籍, 2007, 39쪽 73쪽 (중) 연합 포토 / (하) 전국역사교사모임 외, 『마주 보는 한일사』 I, 2007, 118-119쪽 74쪽 (상)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2016, 72-73쪽 / (하) 『アカデミア 世界史』, 浜島書店, 2015, 111쪽 75쪽 (상) 게이 이미지 / (중1) 중국사학회, 『중국 통사』 2, 범우, 2008, 246쪽 / (중2) 『詳説世界史 図録』, 山川出版社, 2014, 65쪽 / (하1) http://pds.exblog.jp/pds/1/201303/28/34/b0232534_131349.jpg 76쪽 (상1)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133쪽 / (상2) 중국사학회, 『중국 역사 박물관』 6, 범우사, 2008, 40쪽 / (중) 중국사학회, 『중국 통사』 3, 범우, 2008, 147쪽 77쪽 (중) 중국사학회, 『중국 통사』 4, 범우, 2008, 87쪽 / (하1) 주희, 여조겸, 『근사록』, 흥신문화사, 2010, 38쪽 / (하2)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212-213쪽 78쪽 (상, 하2) 문화재청 (www.cha.go.kr) / (하1) 국사편찬위원회(contents.history.go.kr), 사액 서원의 출발 - 소수 서원 79쪽 (상) 문화재청(www.cha.go.kr) / (중)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 중종 11년 병자(1516, 정덕 11) 10월 21일 기사 80쪽 (상) 『ビジュアルワイド 図説日本史』, 東京書籍, 2007, 151쪽 / (중) 윤익 이미지 / (하1) 강항, 『간양록』, 서해문집, 2005, 147-148쪽 / (하2) 石田一郎·金谷治, 『藤原惺窩·林羅山』(日本思想大系28), 岩波書店, 1975, 179-180쪽 82쪽 (중1) 패트리샤 버클리 에브리, 『사진과 그림으로 읽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공사, 2007, 118쪽 / (중2) 문화재청(www.cha.go.kr)

- 이 외의 39쪽, 43쪽, 50쪽, 53쪽, 54쪽, 57쪽, 61쪽, 62쪽, 64쪽(중), 65쪽(상), 68쪽 지도(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3중,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역사부도 5중)

III 동아시아의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84-85쪽 게이 이미지 86쪽 (상) 연합 포토 / (중)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143쪽,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84쪽 87쪽 (중) 우리역사넷 (contents.history.go.kr), 계해약초 88쪽 (중, 하2)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104, 107쪽 / (하1)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343쪽 89쪽 (상1) 문화재청(www.cha.go.kr) / (상2, 하2) 게이 이미지 / (중1) 『詳説日本史 図録』, 山川出版社, 2008, 136쪽 90쪽 (상) 문화재청(www.cha.go.kr) / (중) 『ビジュアルワイド 図説日本史』, 東京書籍, 2007, 13쪽 91쪽 (하)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 휴머니스트, 2015, 23쪽 92쪽 (중) 권내현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3, 웅진지식하우스, 2011, 176쪽 / (하) 토픽 이미지 93쪽 (중) 정은주, 『조선 시대 사행기록화』, 사회평론, 2012, 287쪽 / (하) 中國社會科學院 歴史研究所 清史研究室 編, 『清史資料』第4輯, 中華書局, 1983, 4쪽, 28쪽, 52-55쪽 94쪽 (상) 게이 이미지 / (하) 한국고전종합DB(db.itkc.or.kr), 『동사상일록』 9월 15일, 『해사일기』 5권 6월 18일 95쪽 (하1) 조선왕조실록DB(sillok.history.go.kr), 『인조실록』 33권, 인조 14년, 11월 8일 무신일, 1번째 기사 / (하2) 정은영, 『조선 후기 통신사와 조선 중화주의 - 사행, 기록에 나타난 대일인식 전환을 중심으로』, 『국제어문』 46 96쪽 (상) 『アカデミア 世界史』, 浜島書店, 2015, 129쪽 / (중) www.xmta.gov.cn/zjta/rwls/rwz/201110/W020111008422169848519.jpg / (하)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134-135쪽 97쪽 (상) 정은주, 『조선 시대 사행기록화』, 사회평론, 2012, 218쪽 98쪽 (중) 게이 이미지 / (하) 『アカデミア 世界史』, 浜島書店, 2015, 129쪽 99쪽 (상) 중국역사박물관 편저, 『화하문명사제4권』, 조화출판사, 2002, 87쪽 / (중) 『アカデミア 世界史』, 浜島書店, 2015, 129쪽 100쪽 (중) 일본화페박물관(imes.boj.or.jp) / (하) 게이 이미지 101쪽 (상, 중)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 2012년 기획전시회, 『홍어장수 문순득, 아시아를 눈에 담다』, 보도자료 / (내용) 정약전 지음, 김정섭 옮김, 『濼海始末』, 신인문화원, 2005, 70/72/79/82-84쪽 102쪽 (중1) 게이 이미지 / (중2) 『詳説世界史 図録』, 山川出版社, 2014, 210쪽 103쪽 (상) 전국역사

교사모임 외, 『마주 보는 한일사』 II, 사계절, 2007, 187쪽 / (하) 『中學社會歷史』, 教育出版, 2011, 104쪽 104쪽 (상) 지인니 괴달리루피, 『중국의 발견』, 생각의 나무, 2004, 101쪽 / (중) 마테오 리치 지음, 송영배 등 옮김, 『천주실의』,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49-50쪽 / (하) 중국사학회, 『중국 통사』 4, 범우, 2008, 190-191쪽 105쪽 (상) 전라병영성하멜기념관, 『전라병영성 하멜기념관』, 2008, 36쪽 / (중) 실학박물관 (www.silhakmuseum.or.kr) / (하) 『詳説世界史 図録』, 山川出版社, 2014, 123쪽 106쪽 (상) 『新しい社会 歴史』, 東京書籍, 2007, 83쪽 / (중) https://artuk.org/discover/artworks/holyday-202227/search?actor:tissot-james-18361902/page/1/view_as/grid#image-use / (하 1, 2) 주검지 지음, 전홍석 옮김,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 근대 유럽의 중국 문화 열풍』, 청계출판사, 2003, 367-368쪽 108쪽 (상) 중국사학회, 『중국 통사』 4, 범우, 2008, 227쪽 / (하1)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137쪽 / (하2) 한국고문서학회, 『의식주, 살아 있는 조선의 풍경』, 역사비평사, 2006, 121쪽 / (하3) 『中學社會歷史 未來をひらく』, 教育出版, 2011, 108쪽 109쪽 (중) 국립민속박물관(www.nfm.go.kr) / (하)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의 역사』 2, 2012, 377쪽 110쪽 (상, 중1) 중국사학회, 『중국 통사』 4, 범우, 2008, 75, 152, 221쪽 / (중2) 국립민속박물관(www.nfm.go.kr) / (하)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122-123쪽 111쪽 (상)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138쪽 / (중) 『中學社會 歴史 未來をひらく』, 教育出版, 2011, 109쪽 / (하) 구태훈, 『17세기 후기 일본 사회와 사치금령』, 『일본학보』 87, 2011, 239쪽 112쪽 (상)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1, 휴머니스트, 2014, 229쪽 / (중) 전국역사교사모임 외, 『마주 보는 한일사』 II, 2007, 125쪽 / (하) 오금성 외,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323쪽 113쪽 (중) 중국사학회, 『중국 통사』 4, 범우, 2008, 232쪽 / (하) 토픽 이미지 114쪽 (상) 서울대학교박물관, 『서울대학교박물관 소장품 도록』, 2007, 140쪽 / (중)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2, 청년사, 2005, 195쪽 / (하1) 박복주, 『흥부가』(고수 정권진, 2CD), 지구레코드사, 1994 / (하2) 『정해 고시조해설』, 흥신문화사, 1985, 375쪽 115쪽 (상, 하1)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125, 135쪽, (중1) 게이 이미지 / (중2) 한경자, 『19세기 서양인이 본 가부키와 주신구라』 인식, 『일본사상』 25, 2013, 235쪽 / (하2) 윤익 이미지 116쪽 (하1) 天津 楊柳青, 『楊柳青年畫』, 그림 57 / (하2) 위안상페이, 『중국문명대사』 4, 김영사, 2007, 202쪽 117쪽 (상1, 2) 정병모, 『무명화가들의 반란 민화』, 다홍미디어, 2016, 38, 39, 116쪽 / (상2) 토픽 이미지 / (하1) TOKYO BIJUTSE, 『An Introduction to U-Kiyo-e, in English and Japanese』, 2015, 20쪽 / (하2, 3) 윤익 이미지 118쪽 (상1, 하1) 명평성, 『중국을 말한다』 14, (취신원문화사 2008, 143, 273쪽 / (하2, 3) 중국사학회, 『중국 통사』 4, 범우, 2008, 179, 238쪽 119쪽 (상)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성리학의 세계』, 2003, 157쪽 / (중) 김중수,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5, 숲, 2002, 175쪽 / (하1) 조병환, 『명말 청초 경사학파의 전제적 제국 체제 비판 - 황중희와 고염무를 중심으로』, 『명청사연구』 36, 2011, 183쪽 / (하2) 박현모, 『정약용의 군주론 - 정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치사상연구』 8, 2003, 10쪽 120쪽 (중) 『新しい社会 歴史』, 東京書籍, 2007년, 114쪽 / (하) 岩田 隆, 『本居宣長の生涯—その学の軌跡』, 1999, 표지 121쪽 (중1) 김중수,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5, 숲, 2002, 152쪽 / (중2) 이기원, 『일상적 세계와 유교 프락시스 - 이토 진사이와 오규 소라이의 대립』, 『일본사상』 27, 2014, 227쪽 / (하1) 국립중앙박물관, 『조선 성리학의 세계』, 2003, 154쪽 / (하2) 『ビジュアルワイド 図説日本史』, 東京書籍, 2007, 151쪽 122쪽 (하) 게이 이미지 123쪽 (하) 권내현 외,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3, 2011, 305쪽

- 이 외의 91쪽, 92쪽 지도(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3중,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역사부도 5중)

IV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

124-125쪽 (중) 게이 이미지 126쪽 (상) 패트리샤 버클리 에브리, 『사진과 그림으로

읽는 케임브리지 중국사, 시공사, 2007, 257쪽 **127쪽** (상) 『ビジュアルワイド 図説日本史』, 東京書籍, 2007, 170쪽 / (중) 정승교,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4, 웅진지식하우스, 2011, 41쪽 / (하)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2, 휴머니스트, 2006, 123쪽 **128쪽** (상1)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233-235쪽 / (상2) 내각관보국, 『법령전서』, 부록 4, 2012, 28-29쪽 / (중1) 윤익 이미지 / (중2)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146쪽 / (하1) 독립기념관, 『제2관 거례의 시련』, 2008, 19쪽 / (하2) 조선왕조실록DB(sillok.history.go.kr), 『고종실록』 권13, 13년 2월 3일 129쪽 **129쪽** (상) 『日清韓條約要覽』, 東京義勇閣, 1894, 3쪽 / (중) 정승교,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4, 웅진지식하우스, 2011, 64쪽 / (하) 게티 이미지 **130쪽** (중) 지안나 괴달리루피, 『중국의 발견』, 생각의 나무, 2004, 230쪽 / (하)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241-242/255-256쪽 **131쪽** (상, 하1)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150, 152-153쪽 / (하2)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출판, 2012, 39쪽 **132쪽** (상) 동아일보사, 『사진으로 보는 한국 백년』 1, 1991, 80쪽 / (중) 이광린, 『개화당연구(갑신일록, 1884.12.5.)』, 일조각, 1973, 167쪽 / (하)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한국독립투쟁사』, 1983, 17쪽 **133쪽** (상1)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151쪽 / (상2) 한국독립유공자협회, 『한국독립투쟁사』, 1983, 16쪽 / (하1) 위안싱페이, 『중국문명대사』 4, 2007, 453쪽 / (하2) 다니엘 에브리, 『시공 디스커버리 61 호치민』, 시공사, 2008, 34쪽 **134쪽** (상) 윤익 이미지 / (중)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185쪽 / (하)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370-371쪽 **135쪽** (상) 『世界史』 B, 東京書籍, 2006, 300쪽 / (중)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議政府 編, 『奏本存案(奎 17704) 제3책, 광무 2년 10월 30일, 奏本 第220號』 / (하) 『사진으로 보는 조선 시대 속 생활과 풍속』, 서문당, 1987, 112쪽 **136쪽** (상1) 전국역사교사모임, 『처음 읽는 일본사』, 휴머니스트, 2015, 251쪽 / (상2)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373쪽 / (중1) 조선왕조실록DB(sillok.history.go.kr), 『고종실록』 39권, 고종 36년 8월 17일 / (중2) 국립중앙박물관(www.museum.go.kr) / (하1) <http://img1.gtmimg.com/news/pics/hv1/210/198/843/54866775.jpg> / (하2)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265-266쪽 **138쪽** (상) P.N. Stearns 외, 『World Civilizations』, Longman, 820쪽 / (하) 게티 이미지 **139쪽** (상)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159쪽 / (중)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251-252쪽 / (하1) 『ビジュアルワイド 図説日本史』, 東京書籍, 2007, 196쪽 / (하2) 전국역사교사모임, 『처음 읽는 일본사』, 휴머니스트, 2015, 259쪽 **140쪽** (상)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 휴머니스트, 2015, 103쪽 / (중) 손상익, 『한국만화통사』, 시공사, 1999, 105쪽 / (하) 김정, 『글로벌 한국사』 4, 풀빛, 2012, 52쪽 **141쪽** (상)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160쪽 / (중) 조선왕조실록DB(sillok.history.go.kr), 『고종실록』 46권, 고종 42년 11월 17일 양력 1번째 기사 / (하) 게티 이미지 **142쪽** (상)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 휴머니스트, 2015, 165쪽 / (하1) www.ilishi.com/shijiefengyunlu/2014/0103/3254.html / (하2) 민족문제연구소, 『거대한 감옥, 식민지에 살다』, 2010, 132쪽, **143쪽** (상)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268쪽 / (중) 신성근, 윤혜영,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서해문집, 2004, 351쪽 / (하)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 휴머니스트, 2015, 152쪽 **144쪽** (상) 獨立記念館, 『獨立記念館 展示品 要録』, 2004, 50쪽 / (중) 조너선 D. 스펜스, 안평진, 『20세기 포토 다크 세계사 1』, 북폴리오, 2006, 67쪽 / (하1) 남경태, 『중형무진 동양사』, 그린비, 2013, 358쪽 / (하2) 동북아역사넷(contents.nahf.or.kr) **145쪽** (상)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 휴머니스트, 2015, 167쪽 / (중) 『ビジュアルワイド 図説日本史』, 東京書籍, 2007, 211쪽 / (하1) 유병민, 『내 삼일 운동의 기록』, 『신천지』, 국학자료원, 1984, 112-113쪽 / (하2)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272쪽 **146쪽** (중)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189쪽 / (하) 게티 이미지 **147쪽** (상) 국사편찬위원회, 일제침략하 한국 36년사(db.history.go.kr), 1919년 8월 29일 / (중) 배경식, 『미주 보는 한국사 교실』 8, 웅진미디어, 2011, 28쪽 / (하) 토티 이미지 **148쪽** (하) 전국역사교사모임, 『처음 읽는 일본사』, 휴머니스트, 2015, 310쪽 **149쪽** (중) 김삼웅, 『사료로 보는 20세기 한국사』, 가람기획, 1997, 148쪽 / (하) 게티 이미지 **150쪽** (상, 중, 하)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지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출판, 2012, 167쪽, 169쪽, 182쪽 **151쪽** (상) 신재홍, 『항일독립운동연구』, 신서원, 1999, 231쪽 / (중) 게티 이미지 / (하1) 김삼웅, 『사료로 보는 20세기 한국사』, 가람기획, 1997, 154쪽 / (하2) 박도, 『사진으로 엮은 한국독립운동사』, 눈빛, 2005, 175쪽 **152쪽** (상, 하1) 한일공동역사교재 편찬위원회, 『미주 보는 한일사』 III, 사계절, 2007, 65, 59쪽 / (중)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290-291쪽 / (하3)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 지음, 『미래를 여는 역사』, 한겨레출판, 2012, 106쪽 **154쪽** (상) 정승교,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4, 웅진지식하우스, 2011, 109쪽 / (하)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 휴머니스트, 2015, 52쪽 **155쪽** (중) 위안싱페이, 『중국문명대사』 4, 2007, 477쪽 / (하1) 가토 히로유키, 『강자의 권리의 경쟁』, 1893 / (하2) 유길준, 『경쟁론』, 1883 **156쪽** (상) 김윤희, 『미주 보는 한국사 교실』 7, 웅진주니어, 2011, 89쪽 / (중) 『新しい社會 歴史』, 東京書籍, 2011, 148쪽 / (하) 문정진 외, 『중국 근대의 풍경』, 그린비, 2008, 288쪽 **157쪽** (상, 하1) 유모토 고이치, 『일본 근대의 풍경』, 그린비, 2016, 333, 185쪽 / (중)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20권, 1993, 421쪽 / (중) 정승교, 『미래를 여는 한국의 역사』 4, 웅진지식하우스, 2011, 222쪽 / (하3) 문정진 외 『중국 근대의 풍경』, 그린비, 2008, 197쪽 **158쪽** (상) 유모토 고이치, 『일본 근대의 풍경』, 그린비, 2016, 410-411쪽 / (중) 황성신문, 1898. 9. 8. / (하) 문정진 외, 『중국 근대의 풍경』, 그린비, 2008, 355쪽 **159쪽** (상) 『대한매일신보』, 1907. 7. 11. / (하)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세계사 교과서』 2, 휴머니스트, 2005, 150쪽, 『新しい社會 歴史』, 東京書籍, 2011, 162쪽 **160쪽** (상) 게티 이미지 / (중) 『황성신문』, 1909. 4. 18. **161쪽** (중)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개항 이후 서울의 근대화와 그 시련(1876-1910)』, 2015, 167쪽 / (하) 김희보, 『그림으로 읽는 세계사 이야기』 3, 가람기획, 2000, 221쪽 **162쪽** (상) 전국역사교사모임, 『처음 읽는 중국사』, 휴머니스트, 2015, 270쪽 / (중) 정성길, 김택규 엮음, 『사진으로 보는 한국 100년사』, 계명대학교 동산의료원, 1999, 412쪽 / (하) www.city.yokohama.lg.jp/kowan/english/history/img/old02.jpg **165쪽** (중) 게티 이미지

● 이 외의 126쪽, 148쪽, 149쪽 지도(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3종,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역사부도 5종)

V 오늘날의 동아시아

168쪽 (중) 게티 이미지 **169쪽** (상)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미래를 여는 역사』, (일본판), 한겨레신문사, 2005, 172쪽 / (중)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2011, 184쪽 / (하)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년, 374쪽 **170쪽** (중1) 이미지 등록 / (중2) 게티 이미지 **171쪽** (상1)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사계절, 2011, 187쪽 / (하) 『中學社會 歴史的分野』, 日本文教出版, 2011, 255쪽 **172쪽** (상) 윤익 이미지 / (중) 윤익 이미지 / (하1) 일월서각 편집부, 『중국근현대경제사』, 일월서각, 1986, 575쪽 / (하2)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203쪽 **173쪽** (하) 박도, 『한국전쟁』 II, 눈빛, 2010, 524-525쪽 **174쪽** (중) 『アカデミア 世界史』, 浜島書店, 2015, 291쪽 / (하) 연합 포토 **175쪽** (중) 동아일보사, 『사진으로 보는 한국 백년 1876-』, 1981, 450쪽 / (하1) 동북아역사재단, 『동아시아사교육자료집』, 경인문화사, 2016, 400쪽 / (하2) 대한민국정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조약 및 협정 해설』, 1965, 85-86쪽 **176쪽** (중), (하) 연합 포토 **177쪽** (상) 게티 이미지 / (중) 국가기록원

(www.archives.go.kr), 닉슨 대통령의 광 독트린 선언 / (하)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1, 휴머니스트, 2015, 304쪽 178쪽 (상) 『中學社會 歴史的分野』, 日本文教出版, 2011, 259쪽 / (하) 게티 이미지 179쪽 (하) www.mofa.go.jp/mofaj/gaiko/treaty/pdfs/B-S38-P2-795_1.pdf 180쪽 (상) 세계은행 (www.worldbank.org) / (하) 윤익 이미지 181쪽 (상) 토픽 이미지 / (하) 연합 포토 182쪽 (상) 4-7 언론인회, 『기자 25시』, 1985, 269쪽 / (중) 연합 포토 183쪽 (상, 중) 연합 포토 / (하) 게티 이미지 184쪽 (중) 게티 이미지 / (하) http://link.photo.pchome.com.tw/s08/isabellew/1/126060870576/ 185쪽 (중, 하) 『詳説世界史図録』, 山川出版社 2014, 251쪽 186쪽 (중) 게티 이미지 / (하4) 게티 이미지 / (하5) 임해순, 『실사구시와 실용주의』, 『철학연구』 115, 대한철학회, 2010, 332-333쪽 / (하4)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2014, 304-305쪽 (하5) 게티 이미지 187쪽 (상) 게티 이미지 / (하) 윤익 이미지 188쪽 (하) 통계청, 『북한의 주요통계지표』, 2015, 99쪽 189쪽 (중) 연합 포토 / (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www.kotra.or.kr), 베트남, 한국 기업 진출 현황, 2016 190쪽 (중, 하) 게티 이미지 191쪽 (하) 통계청(www.kostat.go.kr), 국민총소득(당 해년 가격)(APEC), 2016 192쪽 (상, 하1, 3, 4) 연합 포토 / (하2) 게티 이미지 193쪽 (상) 국립중앙박물관, 『가고 싶은 우리 땅 독도』, 2006, 11쪽 / (중) 연합 포토 / (하) 연합 포토 194쪽 (상, 하) 게티 이미지 195쪽 (하1) 『프렌티스 홀 미국교과서』, 프렌티스, 2005, 783쪽 / (하2) 伊藤隆 등, 『이쿠호샤 교과서』, 이쿠호샤, 2015, 234쪽 196쪽 (하1) 게티 이미지 / (하2) 연합 포토 197쪽 (하2) 게티 이미지 198쪽 (하) 연합 포토

- 이 외의 173쪽 지도(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3중, 2009 개정 교육과정 고등학교 역사부도 5중)
- 표지(서터스톡), 2쪽, 3쪽(게티이미지)
- 출처 표시를 안 한 사진 및 삽화 등은 저작자 및 발행사에서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임.

 **참고 문헌**

가와시마 신, 『중국 근현대사』 2(천성림 옮김), 삼천리, 2013.
 강진아, 『문명제국에서 국민국가로 - 중국』, 창비, 2009.
 강톨가 외, 『몽골의 역사』(김정욱, 이평래 옮김), 동북아역사재단, 2009.
 고병익, 『아시아의 역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1988.(4판)
 김기혁, 『근대 한·중·일 관계사』, 연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7.
 김동노, 『근대와 식민의 서곡 - 한국』, 창비, 2009.
 김선호, 『내몽골, 외몽골: 20세기 분단의 몽골 역사』, 한국학술정보, 2014.
 김용섭, 『증보판 한국 근대농업사연구』, 일조각, 1984.
 김인걸 외, 『한국 현대사 강의』, 돌베개, 1998.
 김태웅, 『뿌리 깊은 한국사 샘이 깊은 이야기』 6 근대, 가람기획, 2013.
 김호동, 『아틀라스 중앙유라시아사』, 사계절, 2016.
 김형중, 『청말 신정기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2.
 김홍수, 『한일관계의 근대적 개편 과정』, 서울대학교 출판문화원, 2009.
 노형석, 『모던의 유혹 모던의 눈물』, 생각의 나무, 2004.
 다카라 구라요시, 『류큐 왕국』(원정식 옮김), 소화, 2008.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역사 속의 한일관계』, 동북아역사재단, 2009.
 량치차오, 『리홍장 평전』(박희성, 문세나 옮김), 프리스마, 2013.
 마테오 리치, 『천주실의』(송영배 등 옮김),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마키하라 노리오, 『민권과 헌법』(박지영 옮김), 어문학사, 2012.
 문정진 외, 『근대 중국의 풍경』, 그린비, 2008.
 미야지마 히로시 외, 『동아시아 근대이행의 세 갈래』, 창비, 2009.

미야케 히데토시, 『조선통신사와 일본』(김세민 등 옮김), 지성의 샘, 1996.
 민두기, 『시간과의 경쟁 - 동아시아근현대사논집』, 연세대학교 출판부, 2001.
 민두기, 『중국근대사연구 - 신사층의 사상과 행동』, 일조각, 1973.
 민두기, 『중국초기혁명운동의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7.
 박한제 외, 『아틀라스 중국사』, 사계절, 2007.
 박경수 외, 『사료로 보는 근현대사』, 배움, 2008.
 박중근, 『청일 전쟁과 조선』(박영재 옮김), 일조각, 1989.
 서울대학교 동양사학연구소 편, 『강좌 중국사Ⅳ - 제국질서의 완성』, 지식산업사, 1989.
 오금성 외, 『명청시대 사회경제사』, 이산, 2007.
 오정제, 『대의각미록』(중국사회과학원 역사연구소 청사연구실 편, 『청사자료』 제4집), 중화서국, 1983.
 요시자와 세이이치로, 『중국근현대사』 1(정지호 옮김), 삼천리, 2013.
 우경섭, 『조선 중화주의의 성립과 동아시아』, 유니스토리, 2013.
 우쓰미 아이코, 『조선인 BC급 전범, 해방되지 못한 영혼』(이호경 옮김), 동아시아, 2007.
 원정식, 『청대복건사회연구 - 청 전·중기 민남사회의 변화와 종족활동』, 서울대학교 대학원 동양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1996.
 유모토 고이치, 『근대 중국의 풍경』(연구공간 수유+너머 동아시아 근대 세미나팀 옮김), 그린비, 2004.
 유성룡, 『징비록』(김홍식 옮김), 서해문집, 2003.
 유용태 엮음, 『동아시아의 농지개혁과 토지혁명』 1(정지호 옮김),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삼천리, 2014.
 유용태 외,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창비, 2016.
 유용태 외, 『한중관계의 역사와 현실』, 한울, 2013년
 유인선 외, 『사료로 보는 아시아사』, 위더스북, 2014.
 유인선, 『새로 쓴 베트남의 역사』 이산, 2002.
 이계황, 『일본 근세사』, 해안, 2015.
 이원순 외, 『한국과 일본에서 함께 읽는 열린 한국사』, 솔, 2004.
 이지원, 『미래세대의 동아시아 읽기』, 해안, 2015.
 이태진, 『고종시대의 재조명』, 태학사, 2000.
 일본사학회, 『아틀라스 일본사』, 사계절, 2011.
 정병준, 『독도 1947: 전후 독도 문제와 한·미·일 관계』, 돌베개, 2010.
 정약전 지음(문순득 구술), 김정섭 옮김, 『표해시말』(『류암총서』에 포함), 신안문화원, 2005.
 정옥자, 『조선 후기 중화사상 연구』, 일지사, 1998.
 정재정, 『일제 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조진구, 『동아시아 철도네트워크의 역사와 정치경제학』, 리북, 2008.
 존 K. 페어뱅크 외 편, 『캠브리지 중국사』 10(김한식 외 번역), 새물결, 2007.
 존 킹 페어뱅크 외, 『동양문화사』 상(김한규 등 옮김), 을유문화사, 1991.
 주경지, 『중국이 만든 유럽의 근대 - 근대 유럽의 중국 문화 열풍』(전홍식 옮김), 청계출판사, 2003.
 최덕수 외,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열린책들, 2010.
 하라다 게이이치, 『청일-러일 전쟁』(최석원 옮김), 어문학사, 2012.
 한도 가즈토시, 『소화사』(박현미 옮김), 루비박스, 2010.
 한명기, 『임진왜란과 한중관계』, 역사비평사, 1999.
 한명기, 『정묘·병자호란과 동아시아』, 푸른역사, 2009.
 한영우 외, 『대한제국은 근대국가인가』, 푸른역사, 2006.
 한·중·일 3국 공동역사편찬위원회 편, 『미래를 여는 역사』 I, 한겨레신문사, 2005.
 함동주, 『천황제 근대국가의 탄생 - 일본』, 창비, 2009.

● 집필진의 직접 집필인 경우 출처를 밝히지 않음.

I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스스로 학습

I-2



I-3

- ① ㉠ 펜석기, ㉡ 토기, ㉢ 농경, ㉣ 움집 ② (가) - 르, (나) - 모, (다) - 기, (라) - 노, (마) - 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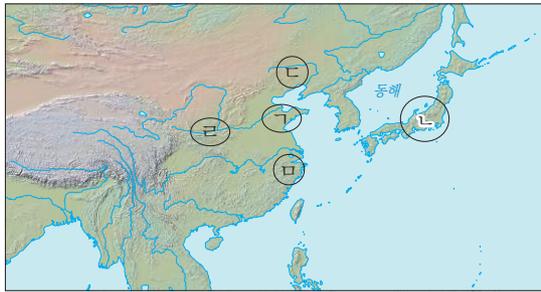
I-4

- ① ㉠ 갑골문, ㉡ 봉건제, ㉢ 제자백가, ㉣ 선우, ㉤ 8조법, ㉥ 마한, 진한, 변한, ㉦ 히미코 여왕

단원 마무리

- 연표 ① 춘추 시대 ② 진 ③ 위만 ④ 장진 ⑤ 고조선

평가 ①



- ② 중원 - 르, 몽골 - 기, 만주·한반도 - 노, 일본 - 디
③ ㉠ 봉건제, ㉡ 군현제, ㉢ 군국제, ㉣ 흉노, ㉤ 고조선

II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 변화

스스로 학습

II-1

- ① (1) ㉠ 고구려, ㉡ 5호 16국, ㉢ 강남, ㉣ 야마토
(2) → (나), → (다), → (가), → (라)

II-2

- ① ㉠ 책봉, ㉡ 조공 ② (가) 거란(요), (나) 금

II-3

- ① ㉠ 법가, ㉡ 균전제, ㉢ 3성 6부 체제, ㉣ 다이호 율령 ② (1) - ㉢ (2) - ㉣ (3) - ㉠ (4) - ㉡

단원 마무리

- 연표 ① 북위 ② 다이호 ③ 송 ④ 가마쿠라 막부 ⑤ 칭기즈 칸

- 평가 ①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 ② (1) ㉠ 원강 석굴, ㉡ 부모은중경
(2) (가)를 통해 동아시아 불교가 군주의 권위를 높여 중앙 집권 체제 형성에 이바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나)를 통해 동아시아 불교가 유교와 같은 전통 사상이나 토착 신앙 등을 흡수하면서 토착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③ ㉠ 주희, ㉡ 성주리, ㉢ 지행합일, ㉣ 무사

III

동아시아의 사회 변동과 문화 교류

스스로 학습

III-1

① ㉠ 오닌의 난, ㉡ 임진왜란, ㉢ 정유재란, ㉣ 광해군의 중립 외교, ㉤ 정묘호란, ㉥ 병자호란

III-2

① ㉠ 정화, ㉡ 감함, ㉢ 천계령, ㉣ 공행, ㉤ 왜관, ㉥ 슈인장, ㉦ 나가사키, ㉧ 류큐
② (1) ㉡ (2) ㉢ (3) ㉣ (4) ㉠

III-3

① ㉠ 시진, ㉡ 경극, ㉢ 『유림외사』, ㉣ 대동법, ㉤ 사설시조, ㉥ 민화, ㉦ 조년, ㉧ 우키요에, ㉨ 조카마치

단원 마무리

연표 ① 도요토미 히데요시 ② 에도 막부 ③ 후금 ④ 왜관

평가 ① (1) ㉡ (2) ㉢ (3) ㉠ (4) ㉣ (5) ㉢

② ㉠ 공행, ㉡ 나가사키, ㉢ 시진, ㉣ 대동법, ㉤ 산킨코타이

③ (1) 한국의 탈춤은 양반층의 위선과 같은 당시 사회 현상, 경극은 중국의 역사적 사건, 가부키는 무사의 이야기나 통속적인 남녀의 사랑 등을 소재로 삼았다.
(2) 상공업과 도시가 발달하면서 재력을 가진 상공인층이 성장하고 서민층을 포함하여 다양한 문화를 생산하고 즐기는 계층이 확대되었다.

IV

동아시아의 근대화 운동과 반제국주의 민족 운동

스스로 학습

IV-1

① ㉠ 난징 조약, ㉡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 조규), ㉢ 메이지 유신 ② ㉠ 신해혁명, ㉡ 대일본 제국 헌법, ㉢ 대한국 국제

IV-2

① ㉠ 삼국 간섭, ㉡ 을사조약, ㉢ 3·1 운동, ㉣ 북벌 완성 ② ㉠ 중·일 전쟁, ㉡ 국가 총동원법, ㉢ 아주 화친회

IV-3

① ㉠ 만국 공법, ㉡ 철도, ㉢ 근대 도시, ㉣ 근대 학교

단원 마무리

연표 ① 메이지 유신 ② 을사조약 ③ 신해혁명 ④ 국·공 합작

평가 ① (1) (가) 난징 조약, (나) 강화도 조약, (다) 미·일 화친 조약

(2) 동아시아 삼국이 문호를 개방한 조약으로, 모두 불평등 조약이었다.

② (1) ㉢ (2) ㉣ (3) ㉣ (4) ㉠ (5) ㉢

③ (1) 사회 진화론 (2) 동아시아 각국의 자강 운동에 영향을 주었으며, 일본의 제국주의적 팽창을 정당화하였다.

V

오늘날의 동아시아

스스로 학습

V-1

① ㉠ 6·25 전쟁, ㉡ 중화 인민 공화국, ㉢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 톈징만 사건, ㉤ 파리 평화 협정

V-2

① ㉠ 경제개발 5개년 계획, ㉡ 6월 민주 항쟁, ㉢ 개혁·개방, ㉣ 텐안먼 사건, ㉤ 국민당, ㉥ 자민당

V-3

① ㉠ 센카쿠 열도 - (나), ㉡ 남쿠릴 열도 - (가), ㉢ 시사 군도 - (다), ㉣ 난사 군도 - (라)

단원 마무리

연표 ① 도쿄 재판(극동 국제 군사 재판) ② 55년 체제 ③ 도이머이

④ 6월 민주 항쟁

평가 ① (1) (가) - 한국, 북한, 미국, 중국 등, (다) - 베트남, 미국, 한국, 소련, 중국, 북한 등
(2) 냉전 체제가 형성되면서 이념 갈등이 심화되었다.

② (1) - ㉡ - ㉢ (2) - ㉢ - ㉣ (3) - ㉠ - ㉠ (4) - ㉣ - ㉣ (5) - ㉡ - ㉢

③ 일본군 '위안부',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중국의 동북공정 등

검정심의회

위원장 | 윤희탁(한경대학교)

간사 | 이해영(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연구위원 |

〈내용 조사〉

김정수(충암고등학교)

김정식(신라대학교)

박진한(인천대학교)

조민숙(군포중앙고등학교)

〈표기·표현〉

김인균(신라대학교)

고은희(성남서고등학교)

김혜령(고려대학교)

안미애(동국대학교)

오원진(용호고등학교)

최건아(청주대학교)

최선웅(음성고등학교)

검정위원 |

강종훈(대구가톨릭대학교)

김두현(군산중앙고등학교)

김민수(만덕고등학교)

박현경(경북선주고등학교)

이평수(충북대학교)

임상범(성신여자대학교)

채창수(전주완산고등학교)

하중문(한신대학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박진웅(검정심사관리위원회 위원장)

차조일(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 대표)

이근호(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

안종욱(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

윤지훈(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

김종윤(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위원)

전훈(검정심사관리위원회 기획지원)

정학준(검정심사관리위원회 운영위원 대표)

피교철(검정심사관리위원회 심사지원팀장)

양미경(검정심사관리위원회 심사진행팀장)

이준석(검정심사관리위원회 심사운영팀장)

이상준(검정심사관리위원회 운영위원)

허재영(검정심사관리위원회 운영위원)

임동주(검정심사관리위원회 운영위원)

개발 책임

정장아

편집

김용균, 진현희, 곽지영

디자인

오영숙, 윤지혜, 허영인

일러스트·삽화

송진업, 이함렬, 김예슬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육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검정 심사를 하였음.

초판 발행 | 2018. 3. 1.

정가 원

지 은 이 | 김태웅 외 6인

발 행 인 | (주)미래엔(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인 쇄 인 | (주)미래엔(서울시 서초구 신반포로 321)

교과서의 본문 용지는 우수 재활용 제품 인증을 받은 재활용 종이를 사용하였습니다.

교과서에 대한 문의 사항이나 의견이 있으신 분은 '교과서민원바로처리센터(전화 1566-8572, www.textbook114.com 또는 www.교과서114.com)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도서에 게재된 저작물에 대한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단법인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전화 02-2608-2800, www.korra.kr)에서 저작권자에게 지급합니다.

내용 관련 문의 | (주)미래엔 교육사업본부 전화 1800-8890 전송 (02) 541-8150

공급 업무 대행 |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10881) 경기도 파주시 문발로 439-1(신촌동 734-1)

개별 구입 문의 | 누리집 주소 www.kitbook.com 전화 (031) 956-8581~4 (사)한국검인정교과서협회

ISBN | 979-11-6233-314-3